

발표 자료집

## 2009년 수산전망대회

# 글로벌 경제위기, 2009 수산부문 전망과 과제

일시 : 2009년 1월 20일(화)

장소 : 수협중앙회 대강당



한국해양수산개발원  
KOREA MARITIME INSTITUTE



## 집필진

제 목	집필책임자	참여 연구진
제 1 장 수산부문의 여건변화와 이슈	김정봉 연구부장	정명생 부연구위원 조정희 부연구위원 엄선희 책임연구원 마창모 연 구 원
제 2 장 2009년 수산부문 전망과 과제	홍현표 연구위원	이현동 연 구 원
제 3 장 어가경제의 동향과 전망	최성애 연구위원	김봉태 책임연구원
제 4 장 연근해어업의 동향과 전망	류정곤 연구위원	조정희 부연구위원 김대영 책임연구원 이정삼 책임연구원
제 5 장 원양산업의 동향과 전망	정명생 부연구위원	임경희 책임연구원 마창모 연 구 원
제 6 장 수산식품산업의 동향과 전망	주문배 연구위원	장홍석 책임연구원 이언경 책임연구원 임경희 책임연구원 이현동 연 구 원
제 7 장 양식분야의 경영환경 변화 및 수급전망	옥영수 수산업관측센터장	고봉현 연 구 원
제 8 장 해조류의 수급동향과 전망	안재현 책임연구원	함영곤 연 구 원
제 9 장 어류의 수급동향과 전망	남종오 책임연구원	백은영 책임연구원 김정협 연 구 원 이창수 연 구 원
제10장 패류의 수급동향과 전망	이남수 연구원	박광서 책임연구원 성진우 연 구 원

## 대 회 일 정

13:00~13:20	등 록	
13:20~13:30	개 회 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강종희 원장
13:30~13:40	격 려 사	농림수산식품부 박덕배 제2차관
13:40~13:50	축 사	한나라당 김성수 의원(농림수산식품위원회)
13:50~14:10	기조연설	“2009년 한국경제, 위기인가, 기회인가?” 이종원 성균관대 교수(한국경제학회 회장)

### ➡ 제1부 2009 수산·어촌의 비전

14:10	제1발표 수산부문의 여건변화와 이슈	김정봉 연구부장
~	제2발표 2009년 수산부문 전망과 과제	홍현표 연구위원
15:10	제3발표 어가경제의 동향과 전망	최성애 연구위원

15:10~15:25 COFFEE BREAK

### ➡ 제2부 수산부문별 동향과 전망

15:25	제4발표 연근해어업의 동향과 전망	류정곤 연구위원
~	제5발표 원양산업의 동향과 전망	정명생 부연구위원
16:25	제6발표 수산식품산업의 동향과 전망	주문배 연구위원

### ➡ 제3부 양식산업의 동향과 2009년 전망

16:25	제7발표 양식분야의 경영환경 변화 및 수급전망	옥영수 관측센터장
~	제8발표 해조류의 수급동향과 전망	안재현 책임연구원
17:40	제9발표 어류의 수급동향과 전망	남종오 책임연구원
	제10발표 패류의 수급동향과 전망	이남수 연구원
17:40 ~ 18:00	질의 및 응답	
18:00 ~	폐회 및 만찬	

## 개 화 사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행사를 빛내주시기 위해 참석해주신 농림수산식품부 박덕배 차관님, 수협중앙회 이종구 회장님을 비롯한 내외 귀빈 여러분! 또한 오늘 행사에 큰 의미를 부여해 주시기 위해서 초청강연에 기꺼이 응해주신 이종원 한국경제학회 회장님! 그리고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전국 각지에서 참석해주신 어업인, 수산물관계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요 며칠사이의 한파로 한강이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예년 같으면 제법 운치가 있을 만도 한데, 나라 경제가 꽁꽁 얼어붙어 있어서인지 을씨년스럽기만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익히 알고 계시겠지만, 미국에서 발생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세계적인 금융위기를 초래하였고, 이제는 투자부진, 고용시장 악화, 수출둔화, 소비감소 등 실물경제로 전파되어 그야말로 전 세계가 글로벌 경기침체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금년 들어서도 이러한 세계경제 불황의 심각성이 진정되기는커녕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글로벌 실물경제 침체의 여파로 국내 실물경제도 그 영향권 내에 깊숙이 진입하고 있습니다.

우리 수산업도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지난해 우리 어업인들은 고유가로 인하여 매우 큰 고통을 당했습니다. 유가가 진정될 기미를 보이자 이번에는 고환율 상황이 전개되면서 유가의 진정효과가 많이 상쇄되어 버렸습니다. 수입산 수산자재의 가격도 올랐습니다. 소비침체로 일부 수산물 가격이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은 세계 경제, 우리나라 경제, 그리고 우리 수산업의 미래를 예측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혼돈의 상황, 즉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위험을 잘 극복하고 기회를 잘 살리면 우리 수산업이 재도약하는 발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려운 시기일수록 차분하게 현재의 상황을 살펴보고, 결단이 필요할 때에는 과감히 행동해야 합니다.

지금 이 우리 수산물의 해외시장 점유율을 끌어 올리고, 새로운 수출시장을 개척하기에 매우 적합한 시점입니다. 지난해부터 우리 수산물 수출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수산물 수입은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우리나라와 수산물 수출입에 있어서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이웃 국가에 비해 우리나라의 수출여건은 상대적으로 상당히 좋습니다. 간단히 환율의 변화만 비교해 보겠습니다. 엔화대비 원화의 환율을 보면, 2007년 6월에 7.6원이던 것이 현재는 15.2원으

로 두 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또 중국화폐와 비교해 봐도 동일한 기간에 위안화대비 원화는 121원에서 219원으로 1.8배 상승했습니다. 그야말로 우리 수산업이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충해서 재도약 할 것인가, 아니면 정체상태에 머물러 있을 것인가 하는 중대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이와 같이 매우 중요한 시점에 저희 연구원에서 한국 수산업의 위험요인과 기회요인이 무엇인가를 점검하고, 어려운 경제를 극복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대안을 모색해 보고자 오늘의 행사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지난해 9월에 연구원 원장으로 취임했습니다. 본 행사는 제가 취임한 이후에 계획하고 추진해 온 행사입니다. 따라서 짧은 준비기간으로 소홀한 부분이 적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수산업을 둘러싼 주변의 경제상황이 정초를 넘기고, 또 한해를 기다릴 여유가 없다는 생각으로 다소 부족한 상태에서 오늘의 행사를 강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수산전망대회를 매년 정초에 연례행사로 개최할 계획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발표하게 될 수산업 전반의 여건변화와 전망이 여러분의 금년 한해 수산관련 활동에 보탬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만, 저희들이 예측하고 전망한 내용이 엉터리가 될지라도, 금년도에 우리 수산업이 세계 일류의 수산업을 향한 큰 걸음을 내딛는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물론 세계 일류의 수산업은 저절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겠지요. 공공부문에 종사하는 공직자들은 솔선수범하고 헌신적으로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더불어 생산현장, 가공현장, 유통현장에서 수산업에 종사하고 계시는 수산인 여러분들은 기존의 관행이나 생각에서 과감히 벗어나 창의적인 사고로 전환해 나가야 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만이 지금의 어려운 국면을 극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수산업을 녹색성장의 시대에 걸 맞는 강한 수산업으로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위기라고 일컫는 지금 이 시점에, 우리 수산업을 한 단계 더 높은 국제경쟁력을 갖춘 산업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기회가 펼쳐져 있습니다. 끝으로, 오늘 수산전망대회 준비를 위해 애쓴 수산정책연구부 여러분의 노고를 치하드리며, 오늘의 발표 자료가 널리 활용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2009년 1월 20일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원장 강 종 희

## 격려사

존경하는 수산인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를 빛내주신 내외귀빈 여러분!

오늘 「수산업 전망대회」가 처음으로 성공적으로 개최되게 된 점을 축하드립니다. 이번 행사를 준비해 오신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강종희 원장님과 연구진들의 노고에 감사와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2009년 수산업 전망대회」는 세계경제와 수산업 환경 변화의 흐름을 짚어보고, 우리 수산업이 처한 현실과 미래를 정확히 진단함으로써 우리 수산업과 어촌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지난 한해를 돌이켜 보면, 농림수산식품부가 출범함으로써 수산업의 외연이 식품분야까지 확대되는 성과가 있었으며, 고유가 상황에서도 수산업 발전을 위해 우리 모두 한 마음이 되어 노력하였습니다.

친애하는 수산인 여러분!

최근의 세계적인 경제위기는 국내 수산업에도 많은 도전과 시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시기일수록 현재의 상황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능동적인 자세로 변화와 개혁을 추진해 나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금년에 네 가지 정책방향에 모든 정책 역량을 결집해 나가 고자 합니다.

먼저, 수협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체질을 강화하고, 무엇보다 어업인들에게 혜택을 되돌려 줄 수 있도록 개혁해 나가겠습니다. 시대가 바뀌면 게임의 룰이 바뀐다고 합니다. 시대가 요구하는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우리 수산업계도 변화되어야 합니다. 우리 사회 전 부문에서 일어나고 있는 개혁의 흐름에 수협이 결코 뒤처질 수는 없습니다. 정부는 수협이 진행하는 이러한 개혁작업에 구조조정과 경영혁신을 최대한 뒷받침 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산란·서식지 보호 등 수산자원회복에 중점을 두어 수산업을 지속가능한 산업으로 바꾸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자원남획이 큰 어선의 감척, 연안 생태계 복원 및 바다 숲 조성 등을 추진하겠으며, 우량종묘 생산 및 친환경배합사료 개발 등 양식어업의 경쟁력 강화

를 위한 기술개발에도 힘쓰겠습니다.

셋째, 수산업과 식품산업의 융복합 발전, 수출기반 확충 및 상품경쟁력 강화 등을 통해 미래성장 동력을 적극 창출해 나가겠습니다. 수산물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지역에 특화된 수산 식품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적극 추진하고, 맞춤형 수출대책과 수출 전략품목을 집중 육성하여 농수산물 수출 53억 불을 달성해 나가도록 노력해 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탈 탄소시대를 맞아 수산업이 저탄소 녹색성장의 선도역할을 다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산림 가꾸기 확대와 바다 숲 조성으로 탄소흡수 역량을 키워나가는 한편, 해조류 등 바다자원을 에탄올, 펄프 등으로 산업화하기 위한 기반구축에도 착수하겠습니다.

친애하는 수산가족 여러분!

그리고 수산 업·단체 관계자 여러분!

최근의 경제위기는 우리 수산업계에도 엄청난 변화와 기회를 몰고 올 것입니다. 어둠이 걷히기만을 기다려서는 결코 경쟁자를 앞서지 못합니다. 우리는 현재의 상황을 수산업이 재도약할 수 있는 전화위복의 기회로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행사가 우리 수산업이 녹색성장 시대에 걸맞는 성장산업과 수출산업으로 탈바꿈할 수 있는 초석이 되길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 대회를 준비하신 한국해양수산 개발원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를 치하드리며, 여러분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같이 하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9년 1월 20일

농림수산식품부 제2차관 박덕배



# 2009년 한국경제, 위기인가 기회인가?

이종원 교수(한국경제학회장)\*

미국의 비우량 부동산 담보대출 부실화로 인한 금융위기가 미국은 물론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다. 한국 또한 예외가 아닐 뿐 아니라 다른 나라에 비해 환율상승폭과 종합주가지수 하락 폭이 매우 커서 온 국민을 혼란과 비탄 속에 빠뜨리고 있다.

각국은 경쟁적으로 금리인하와 유동성 확대 공급은 물론 감세와 정부지출확대 등을 통한 고단위 경기 진작 정책을 추구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위기에 대한 대응이 늦어지고 또 정책의 강도 또한 약한 것이 아닌가 하는 비판과 함께 정책 당국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응이 요청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2009년도 4대 정책기조와 10대 핵심추진과제를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그런데 적어도 이 시점에서는 중앙은행이 돈을 풀고 정부가 적자를 내가면서 까지 지출을 확대하는 정책 대안들이 과연 적절한 것인가에 대한 성찰이 필요하다고 보인다. 애당초 금번의 금융위기는 유동성이 무책임하게 남발됨으로서 발생한 것인데 이제 다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유동성을 대폭적으로 늘려주는 정책으로 대응한다는 것이 쉽사리 납득할 수 없기 때문이다.

더구나 유동성이 늘어나도 이른바 돈맥 경화 현상으로 표현되는 자금경색 현상이 사라지지 않고 있고 한국은행의 지속적이고 대폭적인 기준금리 인화에도 불구하고 대출 금리는 쉽사리 떨어지지 않고 있어 통화량 증발을 통한 금융정책의 효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정부가 시행 또는 계획하고 있는 감세 조치나 정부지출의 확대 및 조기집행 또한 기대만큼의 성과로 이어지기는 어려운 특성을 가지고 있다.

우선 금번 위기는 근본적으로 부적절하게 팽창된 유동성 확장과 이를 적절히 규제하지 못

---

\* 성균관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한 감독의 부실에 기인하는 것이라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로 인해 형성된 거품이 꺼지면서 금융경색이 발생하고 이것이 실물부문의 침체로 이어진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대책은 단기적으로는 금융경색 현상을 조속히 완화 하는데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다 하더라도 또다시 거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금융 감독 및 유동성 제어 정책수단을 제도적으로 정착시키는 방안이 동시에 마련될 필요가 있다.

또한 금융경색의 궁극적 해소는 결국 부실사업부문의 조기 구조조정이 선행되어야 가능할 것이라 판단된다. 과잉유동성이 가져다준 착시적 호황에 탐닉하여 인사불성이 된 부실기업을 정치적 온정주의로 구제에 나선다면 이는 숙취한 기업에 해장술을 먹이는 꼴이 될 것이며 이는 장기적으로 더 큰 화를 자초 할 것이기 때문이다.

많은 국민들은 왜 우리 잘못도 아닌 일로 우리가 이렇게 고통을 겪어야 하는지, 그리고 언제쯤 금번 위기가 해소 될 수 있을지에 대하여 확신을 갖지 못한 채 짜증과 불만 속에 막연히 사태가 조속히 개선되기만을 바라고 있다. 그러나 이는 사태의 본질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다. 세계적 유동성 과잉으로 인하여 한국에도 대규모의 저리 외국자본이 유입되었다. 그에 따라 증권시장은 물론 부동산시장에 거품이 조성되었을 뿐 아니라, 이러한 과정에서 금융기관의 무리한 사업 확장은 부실한 중소기업 및 조선사 그리고 부동산 투기를 유발하였던 것이다. 이제 그동안 부당하게 누려왔던 호황의 거품이 터지는 과정을 어떻게 슬기롭게 대처할 것인가에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란 사실을 직시해야 할 것이다.

또한 위기극복을 위한 단기적 대중요법 처방에만 끌려 다니다가 장기적인 경제 성장 패러다임을 재설정하고 정착시키는 일을 게을리 해서는 안 될 것이다. 신 성장 동력의 발굴, 양극화해소, 사회 안정망의 구축, 그리고 저출산·노령화 대책 등을 포괄하는 인적자본 중심의 장기적 성장 잠재력 확충 방안이 동시에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 차 례

개 회 사 .....	i
격 려 사 .....	iii
기조연설 : 2009년 한국경제, 위기인가 기회인가? .....	v

## 제 1 부 2009년 수산 · 어촌의 비전

제1장 수산부문의 여건변화와 이슈 .....	3
1. 서론 .....	3
2. 2008년 국내외 여건변화와 동향 .....	4
1) WTO/DDA 협상 .....	4
2) FTA 추진 동향 .....	7
3)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와 한국경제 .....	8
4) 지구온난화와 기후변화협약 .....	11
3. 2009년 전망과 이슈 .....	13
1) 전망 .....	13
2) 이슈 .....	20
제2장 2009년 수산부문 전망과 과제 .....	23
1. 2008년의 회고 .....	23
2. 전망을 위한 분석 모형과 자료 .....	24
1) 분석모형 .....	24
2) 전망을 위한 가정 .....	25
3) 자료 .....	26

3. 2009년 수산부문 전망 .....	27
1) 어업생산 .....	28
2) 수산물 도소매가격 전망 .....	33
3) 수산물 수출입 전망 .....	36
4) 수산물 소비 전망 .....	38
5) 수산업 부가가치 전망 .....	38
6) 어가경제 전망 .....	39
5. 정책 과제 .....	42
1) 요약 .....	42
2) 정책 과제 .....	44
 제3장 어가경제의 동향과 전망 .....	47
1. 서론 .....	47
2. 어가경제 동향 .....	48
1) 어가 및 어가인구 .....	48
2) 어가소득 .....	52
3) 어가지출 .....	55
4) 어가부채 .....	56
5) 경영의 규모화 및 정보화 .....	58
3. 2009년 전망과 이슈 .....	60
1) 전망 .....	60
2) 이슈 .....	61

## 제 2 부 수산부문별 동향과 전망

제4장 연근해어업의 동향과 전망 .....	67
1. 서론 .....	67
2. 2008년 연근해어업 동향 .....	69

1) 어업 자원 .....	69
2) 어선 .....	71
3) 어업 생산 .....	73
4) 어업 생산액 및 어가 .....	78
5) 주요 근해어업별 경영 .....	82
3. 2009년 전망 및 이슈 .....	88
1) 2009년 전망 .....	88
2) 이슈 및 대책 .....	89
 제5장 원양산업의 동향과 전망 .....	102
1. 서론 .....	102
2. 2008년 원양산업 동향 .....	103
1) 국제수산물규범 논의 동향 .....	103
2) 2008년 원양산업 동향 .....	117
3. 2009년 전망과 이슈 .....	126
1) 전망 .....	126
2) 이슈 및 대책 .....	128
 제6장 수산식품산업의 동향과 전망 .....	132
1. 서론 .....	132
2. 2008년도 수산식품산업의 동향 .....	134
1) 수산식품의 소비 동향 .....	134
2) 수산물 유통 및 가공업의 동향 .....	138
3) 수산물 수출입의 동향 .....	150
4) 수산식품의 위생안전 동향 .....	155
3. 2009년도 전망과 이슈 .....	161
1) 수산식품산업의 전망 .....	161
2) 수산식품산업의 주요 이슈 .....	165

## 제 3 부 양식산업의 동향과 2009년 전망

제7장 양식분야의 경영환경 변화 및 수급전망 .....	173
1. 서론 .....	173
1) 양식가구 변화 .....	173
2) 양식면허 건수 및 면적 변화 .....	174
3) 양식생산 변화 .....	175
2. 양식산업을 둘러싼 환경 동향 .....	180
1) 원자재 가격 상승 .....	180
2) 수산물 수출입 동향 .....	181
3) 해양환경의 변화 .....	183
3. 2009년 수급 및 가격 전망 .....	185
1) 2008년의 수급특성 .....	185
2) 2009년 양식수산물 수급전망 .....	187
3) 2009년 양식수산물 수출입전망 .....	188
4) 종합 .....	188
4. 양식산업의 최근 이슈 .....	190
1) 과잉 생산 문제 해소 .....	190
2) 어장 정비 .....	191
3) 식품 안전성 문제 해소 .....	193
제8장 해조류의 수급동향과 전망 .....	195
1. 서론 .....	195
[김] .....	195
[미역] .....	196
2. 김 수급동향 및 전망 .....	197
1) 수급동향 .....	197
2) 2009년 김 수급전망 .....	206
3. 미역 .....	207

1) 수급동향 .....	207
2) 수급전망 .....	216
<b>제9장 어류의 수급동향과 전망 .....</b>	<b>218</b>
1. 서론 .....	218
[넙치] .....	218
[조피볼락] .....	220
2. 넙치 수급동향과 전망 .....	221
1) 수급동향 .....	221
2) 수급전망 .....	231
3. 조피볼락 수급동향과 전망 .....	233
1) 수급동향 .....	233
2) 수급전망 .....	244
4. 이슈 및 대책방안 .....	245
1) 이슈 .....	245
2) 대책 및 발전방향 .....	247
<b>제10장 패류의 수급동향과 전망 .....</b>	<b>249</b>
1. 종합 .....	249
[전복] .....	249
[굴] .....	250
2. 전복의 수급동향과 전망 .....	251
1) 수급동향 .....	251
2) 전복 소비행태 .....	265
3) 2009년 전복 수급전망 .....	268
3. 굴의 수급동향과 전망 .....	270
1) 수급동향 .....	270
2) 굴 소비행태 .....	278
3) 2009년 굴 수급전망 .....	279





## 제 1 부



# 2009년 수산·어촌의 비전

제1장 수산부문의 여건변화와 이슈

제2장 2009년 수산부문 전망과 과제

제3장 어가경제의 동향과 전망





# 제 1 장

## 수산부문의 여건변화와 이슈

김정봉\* · 정명생\*\* · 조정희\*\* · 엄선희\*\*\* · 마창모\*\*\*\*

### 목 차

- |                         |                   |
|-------------------------|-------------------|
| 1. 서론                   | 4) 지구온난화와 기후변화 협약 |
| 2. 2008년 국내외 여건변화와 동향   | 3. 2009년 전망과 이슈   |
| 1) WTO/DDA협상            | 1) 전망             |
| 2) FTA 추진 동향            | 2) 이슈             |
| 3)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와 한국경제 |                   |

## 1. 서론

- 그동안 수산분야의 대내외 여건은 연이은 악재로 이어지면서 어업경영을 원활하게 영위하기 어려운 상태가 상당기간 지속되었다.
  - 2007~2008년은 한미 FTA에 따른 피해산업으로서의 국내 보완대책 마련에 여념이 없었다.
  - 2007년 후반부터 악화된 국제적인 유가 상승의 여파로 당장 기름을 싣고 조업에 나서야하는 어업인으로서의 조업비용 상승의 위력을 유감없이 절감해야 했다.
  - 더구나 2008년 후반부터는 급격한 원화가치 하락에 따른 파급효과를 어업생산 부문의 곳곳에서 체감해야 했다.
- 이처럼 최근과 같은 국내외 여건 변화로 인해 특히 어업인들은 경영전략 수립이 곤란하고 정책 당국도 대책 마련을 어렵게 하고 있다.

\* KMI 수산정책연구부장; \*\* 부연구위원; \*\*\* 책임연구원; \*\*\*\* 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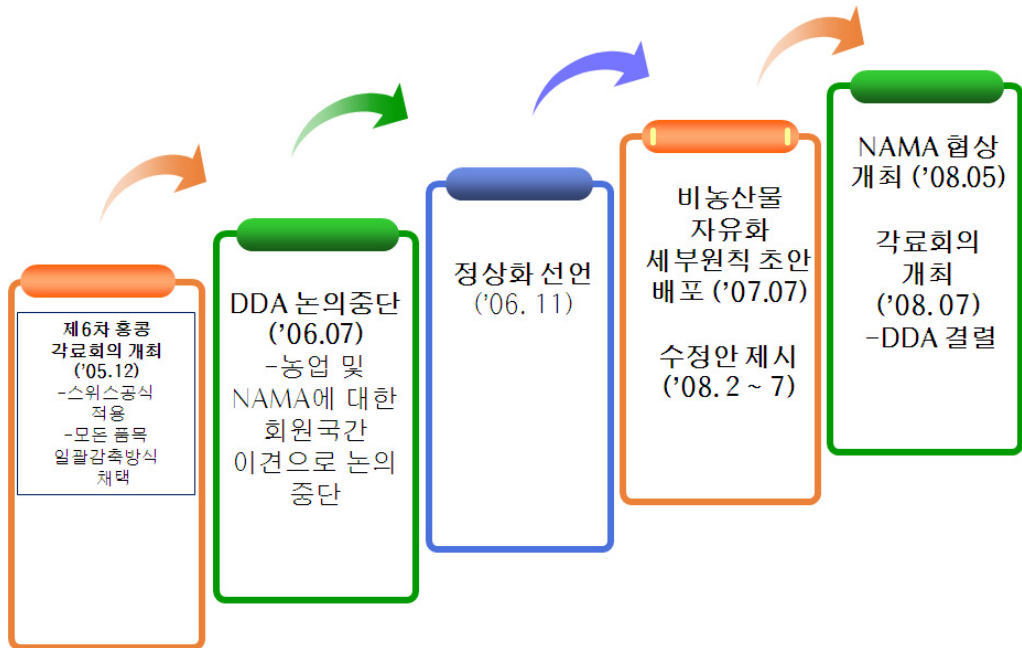
- 이에 따라 우리나라 어업인들은 고유가, 고환율 및 경기침체 → 생산비 증가 및 가격하락 → 채산성 악화 → 경영위축 → 비용구조 악화 → 채산성 악화 등의 악순환 과정에 빠져 들어가고 있다.
- 2009년의 국내외 여건변화에 대한 전망은 우리나라 어업인의 경영과 정책당국의 대책 마련시 매우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으로 평가된다.
- 본 자료에서는 WTO/FTA 협상 추진 동향, 국제유가, 국내외 금융위기 및 경제 전망 등을 중심으로 수산부문을 둘러싸고 있는 여건 변화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 아울러, 우리 어업인과 정책 당국은 이 같은 여건변화와 위기 상황에 대한 과학적인 분석과 예측을 통해 우리 수산업의 새로운 발전을 위한 ‘기회’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

## 2. 2008년 국내외 여건변화와 동향

### 1) WTO/DDA 협상

- 그동안 DDA 협상이 결렬 되는 등의 중단사태에 봉착했으나, 최근 들어 각국의 노력 속에 타결 가능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 특히 지난 2008년 7월 우리나라를 포함해 30여개 WTO 주요 회원국들이 참여한 소규모 각료회의에서 협상타결의 가능성이 점쳐지기도 했지만, 농업협상의 막판 조율 실패로 협상이 잠정 중단된 상태이다.
- 실제로 지난해 소규모 각료회의 시, 최종적인 협상 결렬이 선언되기 직전까지도 핵심 쟁점사항에 대한 잠정타협안이 도출되면서 협상타결 가능성이 매우 높았다.
- 그러나 농업분야에서의 개도국 특별긴급관세(Special Safeguard Mechanism; SSM), 미국의 면화보조금 삭감문제 등에 대한 합의에 실패하면서 결국 최종합의가 무산된 바 있다.

〈그림 1-1〉 DDA 협상동향



※ 시장개방과 자유무역의 진전을 목표로 지난 2001년 11월 출범한 도하개발아젠다(Doha Development Agenda; DDA)는 WTO 체제 하의 최초의 다자간 무역협상으로, 비농산물 시장접근, 규범, 환경, 농업, 서비스, 개발, 분쟁해결, 지적재산권 등 총 8개 협상그룹이 구성되어 논의를 진행 중에 있다. 출범 당시 2005년 말을 협상시한으로 했으나, 다자협상인 만큼 회원국간의 이견을 좁히는 데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지난 7년 여의 협상기간 중에 두 차례의 협상 중단 사태를 맞기도 했다.

- DDA 협상에서 수산분야와 관련해서는 비농산물 시장접근(Non-Agricultural Market Access; NAMA) 협상그룹과 규범 협상그룹에서 각각 수산물 관세와 수산보조금을 논의 중에 있다.
- 농산물의 경우, 농업 협상그룹에서 농산물 전체를 논의하고 있는 것과는 대조되는 모습이다.
- NAMA 협상그룹에서 논의되고 있는 수산물 관세부분은 우리나라가 공산품에 대한 관세감축에 매우 공격적 입장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수산물 관세 분야 역시 관세 감축 폭이 클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 다만, 우리 정부는 수산물의 이러한 어려움을 반영해 관세 감축 폭을 최소한도로 줄여나간다는 입장이다.

- 특히, 이번 잠정합의(안)<sup>3)</sup>에는 개도국에 대한 신축성 적용 조항이 포함되어 있는데, 관세감축 계수를 높게 적용할수록 신축성 적용 비율을 높게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sup>4)</sup>
- 또한 분야별로 주요 교역국이 관세를 전면 철폐하는 분야별 무세화에 대한 합의를 이루었는데, 현재 수산물, 임산물, 자동차, 화학제품 등에 대한 무세화 논의가 진행 중에 있다.
- **수산보조금과 관련한 협상**은 2007년 11월 규범협상 의장이 발표한 개정된 보조금 개편안을 토대로 현재까지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 이 의장안에 대해 한국, 일본, 대만은 적극적인 반대 입장을 표시하였다. 그러나 미국, 호주, 뉴질랜드는 지지의사를 표명하고, 개도국 지위를 갖는 중국, 인도 등도 의장안을 지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 이 개편안은 연료보조금(면세유) 등 대다수의 수산보조금을 금지하고 있는데, 금지보조금으로 분류되고 있는 보조금은 다음과 같다.
    - 어선의 취득, 건조, 수리, 개조, 현대화 및 조선소 시설 등
    - 어선의 제3국 이전 및 이전료
    - 연료(면세유), 얼음, 미끼, 보험, 양륙, 가공활동 등 어업운영비용
    - 해면어업과 관련되는 항구 등 기반 시설 및 항 인근 가공시설
    - 해면어업 종사 자연인, 법인에 대한 소득보전 및 가격 보전
    - 기타 과도어획에 명확히 영향을 미치는 보조금

3) NAMA 협상은 지난 2007년 7월 의장이 종전의 논의 내용을 반영해 ‘의장중재안(제1차 의장안)’을 제시하면서 논의가 급진전 되었다. 이 의장안에는 추후 변동 가능하다는 것을 전제로 하기는 했지만, 관세감축 공식 적용 계수, 미양허 품목 처리 등 주요쟁점에 대한 구체적 수치가 제시되었다. 그리고 2008년 7월에 개최된 소규모 각료회의가 결렬되기는 하였으나, 이 회의에서 관세 감축과 관련한 공식 및 계수, 분야별 무세화 등 대부분의 내용에 대해 잠정적인 합의를 이룬 상태이다.

4) 개도국이 계수 20을 적용하면, (i) 품목(세번수)의 14%와 수입액의 16%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반 감축률의 50%만 적용하거나, (ii) 품목의 6.5%와 수입액의 7.5% 내에서 관세감축을 면제하는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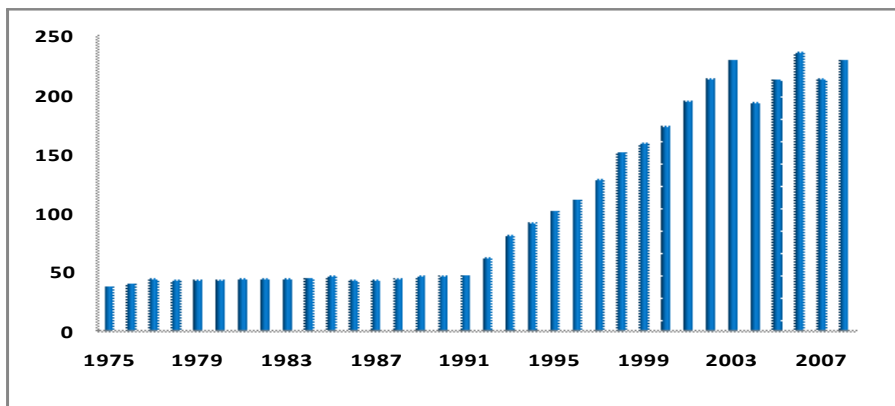
〈표 1-1〉 금지 보조금에 대한 주요국 입장

국가	입장
한국, 일본, 대만	- 의장안 강력 반대 - 금지는 자원고갈을 야기하는 일부 보조금으로 제한
EU	- 의장안 반대 - 금지보조금의 범위 축소 필요
미국, 호주, 뉴질랜드	- 의장안 강력 찬성 -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포괄적인 금지 필요
개도국(중국, 인도 등)	- 조건부 찬성 - 선진국만 금지, 개도국은 허용

## 2) FTA 추진 동향

- 현재 발효 중인 197개의 지역협정을 체결시기별로 살펴보면, 70년대 이전 5개, 70년대 12개, 80년대 10개에 불과하였지만 90년대 64개, 2000년 이후 120개가 체결되어 최근 지역주의의 광범위한 확산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 지역무역협정(RTA) 체결은 WTO 출범(1995.1) 이후 매년 급속히 확산되어, 2007년 기준 전세계 교역량의 50% 이상이 지역무역협정 내의 교역에 포함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림 1-2〉 전세계 지역무역협정(RTA) 체결 현황



자료 : wto.org 홈페이지.

- 우리 정부는 이와 같은 세계적인 FTA 확산추세에 대응하여 안정적인 해외시장을 확보하고 개방을 통해 우리 경제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2004년 이후 동시다발적으로 FTA를 추진하고 있다.
  - 그 결과, 칠레(04.4.1 발효), 싱가포르(06.3.2 발효), EFTA(06.9.1 발효), ASEAN (07.6.1 상품협상 발효) 등과 FTA 체결을 완료하였으며, 미국과도 FTA(07.4.2) 협상을 타결하였다.
- FTA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나라는 ASEAN(투자), 캐나다, 인도, EU, 멕시코, GCC 등이다.
  - ASEAN과의 FTA 협상은 태국을 제외한 전 아세안 회원국이 한-ASEAN FTA 상품무역협정에 대한 발효절차를 완료하였다.
  - 한국과 캐나다의 협상은 2005년 7월에 시작해서 지난해 3월에 열린 제 13차 협상에서 양측이 상품 양허, 협정문, 서비스, 투자 등 전반적인 분야에 걸쳐 쟁점의 상당부분 타결함으로써 협상의 실질적인 진전을 이루었다.
  - 인도와의 FTA협상은 지난해 9월에 서울에서 개최된 한-인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에서 상품 및 서비스 양허 수준 등 협상쟁점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여 협상을 실질적으로 타결하기에 이르렀다
  - 한국과 EU는 2007년 5월에 FTA 협상을 시작한 이후 지난해 12월에 한- EU FTA 확대 수석대표간 회담을 통해 주요 협상분야에서 실질적인 진전을 이룸에 따라 올해 1월에 한-EU 통상장관회담을 개최하기로 하였다.
  - 멕시코와의 FTA 협상은 지난해 6월 서울에서 FTA 체결을 위한 제2차 협상이 개최된 상태이다.

### 3)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와 한국경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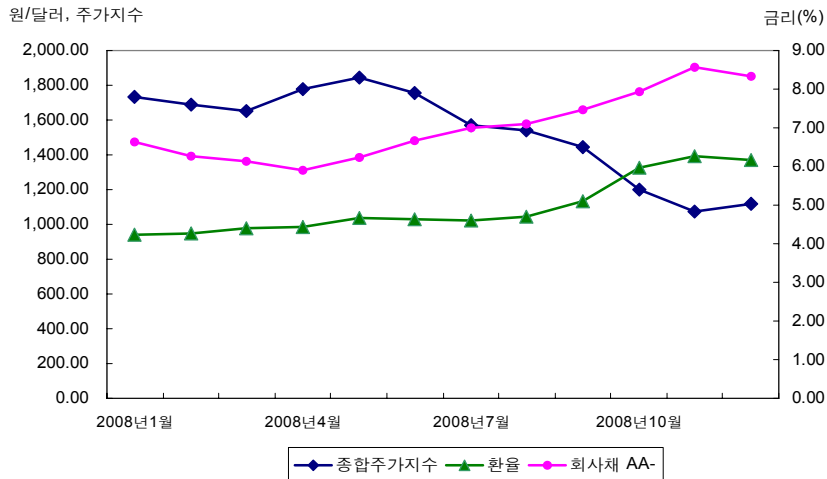
- 2007년부터 시작된 미국 서브프라임모기지 부실화는 세계 금융위기의 시발점이 되었다.
  - 미국내 부동산 가격하락에 따라 미국 양대 모기지업체인 Fannie Mae와 Freddie Mac 등의 서브프라임 모기지의 부실화 확대가 모기지 관련 업체 보증기관의



부실자산 증가 등 유동성을 압박하는 등 미국발 금융위기의 시발점이 되었다.

- 이와 같은 상황에서 지속되는 주택가격 하락의 여파로 부동산 관련 자산에 투자한 대형은행들의 파생상품 가격하락으로 대형은행 및 금융기관 부실 및 파산으로 확대되었다.
  - 다른 한편, 투자은행을 중심으로 과도한 레버리지 차입을 통한 신용파생상품 판매가 급격히 확산되면서 주요 투자은행의 신용위험이 급속히 증대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 이와 같은 미국 금융위기가 급속히 확산될 수 있었던 배경에는 ① 미국 소비자 가계부채 증가에 따른 부동산가격 하락과, ② 무분별하게 파생상품 구조를 확대해 나간 금융시스템의 고도화 등에서 연유하고 있다.
- 우리나라에서는 2008년에 들어서면서 원화 가치가 완만하게 하락하는 추세였으나 미국발 금융위기가 본격적으로 전 세계로 파급되기 시작한 8월경부터 급격히 하락하여 외환시장의 불안정성이 우리나라 금융위기를 주도하였다.
  - 2008년 연초에 원달러 환율은 930원 대였으나, 이후 7월말까지 완만한 상승세를 유지하다 8월부터 급등하여 '09년 1월 13일 현재 1,357원으로 전년 초 대비 45.9% 하락하였다.
  - 이에 따라 종합주가지수(KOSPI)도 2008년 5월부터 급격히 위축되어 2008년 말에 1천 포인트대로 급락하였다.
  - 우리나라 자금시장의 상황을 진단할 수 있는 회사채수익률(3년 만기)은 2008년 5월 6일의 5.86% 포인트를 연중 최저점으로 하여, 2008년 12월 1일에는 8.91% 포인트까지 급등하여 중장기 자금시장의 수급 불균형을 반영하였다. 그러나 이후 금융당국등 정부의 유동성 공급 확대에 힘입어 2009년 1월 14일 현재 회사채수익률은 7.25% 포인트로 다소 안정된 상태를 보이고 있으나, 여전히 전년 평균대비 높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그림 1-3〉 국내 금융시장 동향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http://ecos.bok.or.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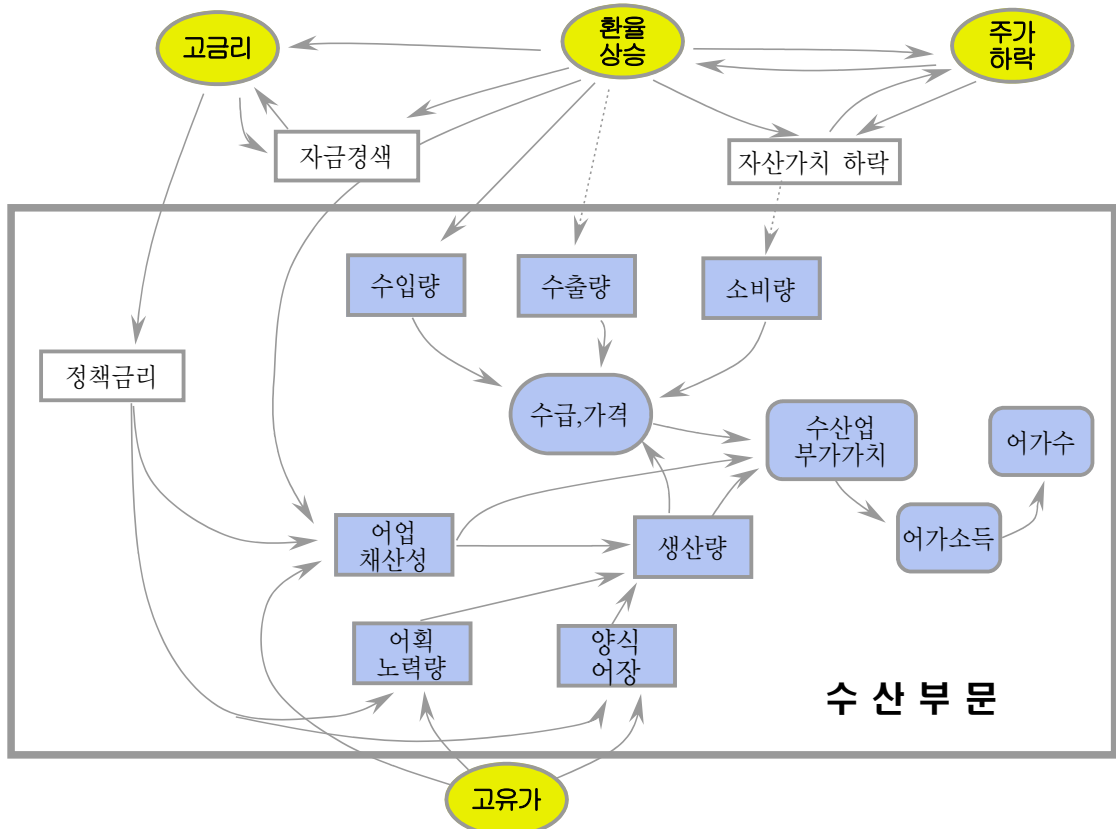
- 한편, 원화가치가 급격히 하락하는 동안 엔화 및 위안화 가치는 같은 기간에 급격히 절상되어 대중국 및 대일본으로의 수산물 수출이 단기적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 최근 주요 통화가치 추이

	2007. 6.1(A)	'08.11.25(B)	'09.1.13(C)	B/A(%)	C/B(%)
원/달러환율	927.9	1,498.3	1,360.3	61.5%	-9.2%
원/엔	762.3	1,545.0	1,523.9	102.7%	-1.4%
원/위안	121.3	219.0	199.0	80.9%	-9.4%

- 이와 같은 환율 상승에 따른 유류가격 상승, 수입원자재 가격 상승 등의 수출입 효과와 고금리로 인한 정책금리 상승 압박 등이 가중되면서 어업생산 및 수출입과 수산물 소비 등에 영향을 미치고, 결국은 수산업 부가가치 및 어가소득의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

〈그림 1-4〉 국내 거시경제 변수가 수산부문에 미치는 영향



자료 : 홍현표 외(2004), 『수산부문 전망을 위한 총량모형의 구축』, KMI, pp.9-16

#### 4) 지구온난화와 기후변화협약

- 최근 세계 각지에서 기후 변화로 인해 자연재해와 생태계 파괴, 해수면 상승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기에 이르자, 기후 변화대책의 필요성에 대한 전세계의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최우선 국제의제로 부상하고 있다.
- 유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는 지구온난화에 대한 평가보고서를 통해 지표면 온도 상승으로 생태계가 파괴되고 심각한 물 부족과 함께 해수면 상승으로 침수 위험에 직면할 수 있다는 내용을 발표하였다.
-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지는 2008년 3월 기후 변화를 세계적인 현안과제로 주목하

면서 관련 대책을 서둘러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으며, 세계경제포럼(WEF)도 기후 변화로 인해 향후 10년간 최대 2,500억 달러의 경제적 손실이 예상되며, 세계경제가 매년 GDP의 5%를 잃게 될 것이라는 어두운 전망을 내놓았다.

- 사실 기후 문제와 관련해 국가간 공조가 그 어떤 때보다도 중요하게 강조되고 있는 가운데, 이미 1988년에 기후 변화에 대한 정부간 협의체(IPCC)가 구성되었으며, 1992년에는 160여개국이 서명한 가운데 기후변화협약이 채택되었다.
- 기후변화협약은 여러 차례 회의를 거쳐 1997년에 온실가스 감축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교토의정서가 비준되었는데, 대상국가는 이에 근거해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 2002년 교토의정서를 인준한 EU 15개 회원국은 2008년~2012년 동안 이산화탄소 배출 수준을 1990년대의 8% 수준으로 인하하기로 합의하였고, EC 위원회는 유럽기후 변화프로그램(European Climate Change Programme, ECCP)을 시행하며 광범위한 정책 및 대책을 채택하였다.
  - 일본은 기후협약 이행을 위해 전 분야를 포함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국가적인 캠페인을 계획하는 등 체계적인 대응에 나서고 있다.
  - 반면 미국은 지금까지 경제적 부담을 이유로 기후변화에 관한 교토의정서 비준을 거부하기도 했으나, 차기 대통령인 버락 오바마 당선자가 기후 변화 대응에 주력할 것임을 밝혀 기후변화협약에 관련된 미국 정부의 입장 변화가 예상된다.
- 이러한 가운데 우리나라는 2002년에 교토의정서를 비준한 바 있으나 교토의정서 비준 당시 1차 의무감축기간(2008~2012년)에는 개도국의 지위를 확보하여 예외를 인정받았다.
- 그러나 2차 이행기간(2013년~2017년)부터는 국제사회로부터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위한 의무 동참 압력이 거세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 우리나라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세계 9위이고 OECD 국가 중 이산화탄소 배출량 증가율은 1위, 누적배출량은 세계 23위로, 2차 이행기간 이후에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국제적 노력에 동참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 물론 우리 정부도 2008년 일본 도야고에서 개최된 선진8개국 정상회의에서 기후 변화에 대한 적극적 대처 의지를 표방하고, 녹색성장을 국정 주요과제로 선정하는 등

기후 변화대책과 관련된 활동을 시작하였다.

- 그런데 온실가스는 상당히 많은 산업부문의 활동과 연계되어 있어 교토의정서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이 실제로 이행될 경우 폭넓은 분야에 적용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수산부문에 대해서도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 기후협약의 이행이라는 개념이 우리나라 전체는 물론 수산업에 있어서도 아직은 생소한 이슈이기는 하지만, 우리나라의 방침이 정해지는 바에 따라 수산업에 대한 영향도 부정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 세계적으로는 주요 국제기구와 NGO 단체를 중심으로 수산업의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일부 국가에서는 기후변화와 수산업에 관련된 연구를 통해 관련대응을 모색하기 시작하는 등 발 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는 만큼 우리 수산업도 이에 대한 대비책 마련에 서두를 때이다.
  - 국제식량농업기구(FAO)가 2008년 2월에 개최한 제2차 수산업포럼에서는 수산업과 기후변화, 이산화탄소 배출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진 바 있다.
  - 국가별로는 캐나다와 영국, 호주 등 주요 수산국가가 수산부문과 기후 변화와 관련해 이산화탄소 배출 연구 등을 진행하였으며, 일본, 베트남 등은 수산자원의 바이오 에너지화 연구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 3. 2009년 전망과 이슈

#### 1) 전망

##### (1) DDA 협상 전망

- 향후 DDA는 라미 사무총장이 2009년 새해 들어서 농업과 NAMA협상을 포함한 모든 협상그룹들이 즉시 협상을 재개할 것으로 제안하고 있으므로 각 회원국들은 보다 적극적으로 협상에 참여할 것으로 예견된다.
  - 특히 미국 신정부가 출범한 이후 미국 입장이 분명해짐에 따라 협상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 수산물 관세를 다루고 있는 NAMA 협상의 경우, 지난 2008년 7월 각료회의에서 관세 감축과 관련한 공식 및 계수, 분야별 무세화 등 대부분의 내용에 대해 잠정적인 합의를 이룬 상태이다. 따라서 향후 협상이 재개되면, 별다른 이견 없이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 특히 우리 정부는 NAMA 협상에서 선진국 계수를 적용할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의 수산물 실행관세율은 17.02%(2008년 기준)에서 6.10%로 크게 하락한다.
- 전체적으로 선진국 계수를 적용할 경우에 수산물 관세율은 조정관세 및 고관세 품목일수록 그 감축정도가 크게 나타난다. 이들 고관세 품목이 우리나라 수산업의 보호를 목적으로 높은 관세가 부여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NAMA 협상 타결에 따른 수산분야 영향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 다만, 우리 정부는 수산분야 보호를 위해 개도국 신축성 조항을 준용해 관세감축률을 최소화해나간다는 입장인데, 이러한 개도국 신축성 적용 여부에 따라 관세 하락률은 매우 크게 차이가 난다. 이는 협상과정에서 이들 민감품목에 대한 신축성 적용 여부에 따라 우리나라 수산물 수입증가액과 국내 피해 정도가 크게 달라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 따라서 향후 협상에 있어 민감품목에 대한 신축성 확보가 최대 관심사가 될 전망이다. 수산물에 대해서는 분야별 무세화에 불참한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 수산보조금과 관련한 규범협상은 의장이 2009년 상반기에 3차례 협상일정을 제시하면서, 기존 의장안을 배제하고 세부적인 논의를 통해 새로운 협정문안을 만들 것을 제안한 상태이다. 이는 간접적으로 기존 금지 보조금 수준 보다는 다소 약화된 금지수준에 대해 합의를 이룰 가능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 그러나 우리나라는 다른 국가들에 비해 면세유 등 민감 보조금 금지 시, 국내어업에 상당한 직간접적 영향이 예상된다. 이는 2007년도 수산보조금 약 1조 7천억 원 중 면세유가 약 8천억 원으로 절반가량을 차지하기 때문이다.
- 특히 WTO/DDA가 일괄협상 타결 방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 DDA 타결 차원에서 다른 협상분야가 먼저 합의된다면 우리나라의 수산보조금과 관련한 협

상력은 크게 약화될 수밖에 없다.

- 따라서 수산보조금 협상 시, 타 협상분야의 진행과정을 예의주시하면서 금지보조금의 범위를 최소화하되, 면세유 규제의 범위에 따라 국내 수산업에 미치는 영향 정도가 크게 달라질 전망이다.

## (2) FTA 협상 전망

- 현재 FTA 추진을 위한 여건이 조성되고 있는 나라들은 중국, 호주, 뉴질랜드, MERCOSUR, 페루, 터키, 러시아 등이다.
  - 우리나라는 이들 국가들과 산·관·학연구, 예비협의를 개최, 공동 연구 등을 통해 FTA 협상 체결을 대비한 사전적인 조사와 연구를 실시하고 있다.
- 특히, 호주와 뉴질랜드는 지난 16일 공청회를 개최함으로써 조만간 FTA 협상을 개시할 것으로 전망된다.
  - 호주는 FTA를 위한 민간공동연구보고서를 완료한 이후 지난해 12월 한-호주 FTA 제2차 예비협의를 개최하였다.
  - 뉴질랜드와는 제2차 예비협의를 개최하여 FTA 대상 분야별 기본 입장 및 관심사항에 대한 의견을 교환한 상태이다.
- 그리고 우리의 주변국가인 일본과 중국과의 FTA 협상 역시 새 정부에서 적극성을 보이고 있어 금년 내에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
  - 일본과의 FTA 협상은 2004년 11월 이후 중단되었으나 2008년 4월 한-일 정상회의에서 FTA 재개를 선언함으로써 6월과 12월에 한-일 FTA 협상 재개 검토 및 환경 조성을 위한 실무협의를 개최하기에 이르렀다.
  - 중국과는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5차에 걸친 산관학 공동연구를 실시하여 양국간 FTA 타당성 및 기대효과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이다.
- 중남미의 MERCOSU와는 무역협정 공동연구 보고서를 통해 향후 양자간 FTA 추진방안을 검토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페루와 터키 등도 민간공동연구를 완료하였거나 개시한 상태이다.

### (3) 국제유가 전망

- 2008년 상반기까지 급등했던 국제유가가 경기침체로 인한 유류소비 수요의 감소로 급락하는 경향을 보였고, 현재 세계적인 경기침체가 2009년 상반기까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이와 같은 약세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 2009년 들어 OPEC의 감산조치 및 중동지역 전쟁 요인 등이 유가에 일시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는 있으나 유가급등 요인으로 작용하지는 않을 것으로 분석된다.
- 이에 따라 2009년 들어 국제유가는 두바이유 현물 기준으로 배럴당 50달러 내외 수준에서 형성될 것으로 전망된다<sup>5)</sup>.
- 2009년 1월 1일부터 1월 7일까지의 최근 국제유가를 살펴봐도 WTI유가가 배럴당 46.59달러, Dubai유가가 배럴당 46.79달러인 것으로 나타나서 2009년 상반기에는 여전히 글로벌 경제위기의 영향을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표 1-2〉 국제유가 추이

단위 : US\$/bbl, %

유 종		2007년 (A)	2008년 (B)	'09.1.1 ~1.7(C)	B/A	C/B
선물	WTI	72.43	99.74	46.59	37.7	-53.3
	Brent	72.66	98.52	48.23	35.6	-51.0
현물	Dubai	68.43	94.29	46.79	37.8	-50.4
	Oman	68.92	95.03	47.17	37.9	-50.4
	Tapis	78.07	104.99	48.79	34.5	-53.5

- 이와 같은 유가의 하락 전망은 면세유에 의존하는 어업인들에게 일정부분 경영비 하락의 요인으로 작용하여 어업경영에 긍정적인 면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된다.

5)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전망자료에 따르면 2009년 상반기 두바이 유가는 배럴당 40달러대를 유지하다 하반기로 접어들면서 배럴당 50달러 선으로 소폭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경기회복이 완연하게 나타날 경우 유가는 배럴당 50달러대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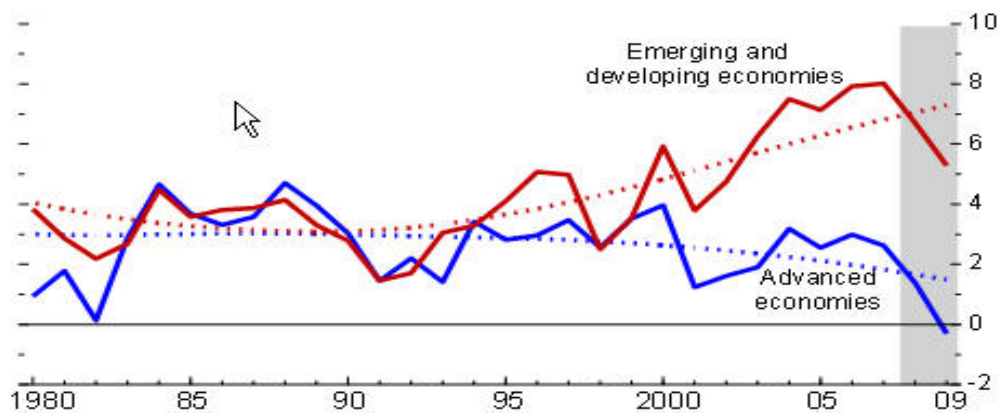


- 그러나 최근의 OPEC의 감산결의, 이스라엘-팔레스타인의 전쟁으로 인한 중동 지역의 불안으로 인해 유가가 일시적으로 상승하는 등 언제든지 불안정해질 수 있는 유류가격의 추세를 보이고 있다.

#### (4) 세계경제 전망

- 2009년 세계경제는 1.8%의 경제성장률에 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특히 미국, EU, 일본 등의 선진국들은 각각 0.1%, 0.2%, 0.5%의 경제성장률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 이러한 세계적인 경기침체는 서브프라임 사태로 파생된 금융위기로 발생한 만큼 미국의 주택경기 회복여부가 글로벌 금융위기 해소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판단된다.<sup>6)</sup>

〈그림 1-5〉 개도국과 선진국의 경제성장률



자료: 국제통화기금(IMF), World Economic Outlook Update

- 국제통화기금(IMF)의 세계경제 전망자료에 따르면, 세계적인 금융시장 불안의 여파로 2009년에는 선진국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큰 성장을 이어왔던 개도국에

6) 그러나 전미부동산협회(NAR)의 자료에 따르면 미국의 주택경기 침체가 2009년에도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어 2009년 하반기에도 세계경제를 낙관할 수 없는 상황이다.

있어서도 경기둔화의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 특히, 미국, EU, 일본 등 선진국들의 경제성장률 둔화는 세계의 공장역할을 했던 중국, 인도, ASEAN 국가들의 생산 증가세 위축에 불가피하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 그러나 2009년 들어 세계 경제의 성장 엔진으로 자리잡고 있는 중국 경제에 대한 전망이 엇갈리면서 금년의 세계 경제는 당초 예상보다 낮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 2009년 중국 경제가 당초 성장률 전망치인 8.1% 보다 훨씬 밑도는 수준을 시현할 것으로 조심스럽게 전망되면서 세계경제도 적잖은 영향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 (5) 환율 등 국내경제 전망

- 그동안 국내 금융불안의 핵심 요인으로 작용해왔던 원화환율은 2009년 들어서 1,100원 수준에서 박스권을 형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 우리나라 원화환율은 2009년 들어 주식시장에서의 외국인 자본 유출 현상이 약화되고, 한미 및 기타국 등과의 통화스왑의 단계적 확대 조치, 정부의 유동성 공급 대책 등에 힘입어 점차 안정화 추세를 보일 것으로 분석된다.
- 그동안 원화환율은 다른 통화 대비 평가절하 폭이 과도하게 높은 오버슈팅된 경향을 보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므로, 2009년 들어서는 금융시장 안정 전망을 기반으로 상반기 1,200원대, 하반기 1,000원대(연평균 1,100원 대)를 각각 형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 2009년 들어서도 원화가치의 상대적 절하 속에 위안화와 엔화가치의 강세가 지금처럼 유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대중국 및 일본 수산물 교역구조는 당분간 호조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 엔고와 위안화 강세 여파로 우리나라 수산물의 수출경쟁력은 당분간 강화되어 어류 및 해조류 등의 수출시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 그동안 금융위기 여파로 인한 금융경색, 자산가치의 하락, 경기 하강, 세계적인 경제성장 하락 등의 요인에 따라 2008년 하반기와 2009년 상반기까지는 금융위기 요인이 국내 경제에 크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지만, 하반기부터는 점차 회복될

것으로 전망되었다.

- 특히, 수출증가율이 2008년 9.6% 수준에서 2009년 5.2% 수준으로 급격히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어 2009년 경제성장률이 3.3% 수준으로 머물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고용악화로 인자 실업률 증가로 2009년 상반기까지는 민간소비의 둔화가 지속될 것으로 판단된다.
- 그러나 소비자 물가는 2009년 상반기까지 4.4% 수준을 유지하다가 하반기에는 2.8%대로 안정될 것으로 보인다.

〈표 1-4〉 2008~2009년 국내경제 부문별 전망

단위: 전년 동기 대비 %, 억 달러

구 분	2008년				2009년		
	상반 <sup>P</sup>	3/4 <sup>P</sup>	4/4	연간	상반	하반	연간
국내총생산(%)	5.3	3.9	2.7	4.2	2.1	4.4	3.3
총소비(%)	3.1	1.7	1.3	2.3	1.7	4.4	3.0
총고정투자(%)	0.3	1.8	0.8	0.8	1.9	3.0	2.5
설비투자(%)	1.0	4.9	1.8	2.1	1.5	2.2	1.9
건설투자(%)	-1.2	-0.9	-0.4	-0.9	1.8	3.3	2.6
총수출(물량)(%)	12.2	9.7	4.9	9.6	3.9	6.4	5.2
총수입(물량)(%)	8.8	8.9	2.4	7.1	3.9	6.0	4.9
경상수지(억달러)	-53	-84	56	-82	54	32	86
상품수지(억달러)	45	-33	85	96	129	112	241
수출(억달러) (증가율, %)	2,212 (23.3)	1,174 (25.1)	1,179 (11.5)	4,565 (20.4)	2,282 (3.2)	2,430 (3.3)	4,712 (3.2)
수입(억달러) (증가율, %)	2,167 (30.2)	1,207 (43.4)	1,094 (10.5)	4,468 (27.8)	2,153 (-0.6)	2,318 (0.7)	4,471 (0.1)
소비자물가 (근원물가, %)	4.3 (3.5)	5.5 (4.8)	5.2 (5.1)	4.8 (4.2)	4.4 (4.8)	2.8 (3.3)	3.6 (4.0)
실업률 (계절조정, %)	3.3 (3.1)	3.1 (3.2)	3.3 (3.4)	3.2	3.7 (3.6)	3.5 (3.6)	3.6

자료 : KDI, 경제전망, 2008

-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세계적인 경제성장률 둔화로 발생하는 소비침체로 인해 국제무역량의 감소가 불가피 할 것으로 전망된다.
- 특히, 2009년 수출전망이 밝지 않아 원/달러 환율 상승으로 반사이익을 봤던 대표적인 수출 품종인 원양 참치, 양식 넙치 및 김 등의 수출이 세계적인 소비침

체로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또한 2009년 상반기까지는 국내 금융시장의 불안이 지속될 것으로 판단되어 내수 시장의 진작이 조기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영세 어업인들의 경영불안이 가중될 것으로 판단된다.

## 2) 이슈

- 새해 들어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되는 WTO/DDA 협상의 결과로 관세의 인하와 수산보조금, 특히 연료보조금(면세유) 공급이 금지보조금으로 분류될 경우 수산업 전반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 이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관세 감축을 최소화할 위한 신축성 반영 및 금지보조금 범위의 최소화를 위한 대책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 이와 함께, FTA 협상추진에 있어서는 국가적인 큰 틀은 유지하되, 수산분야 영향에 대한 분석과 영향을 받는 부문에 대한 지원 대책도 지속적으로 강구되어야 한다.
  - 아울러 주요 대중어종, 조정관세 품목 등에 대해서 장기 이행기간 확보 등 수산분야 민감성 확보에도 노력이 필요하다.
  - 또한 주요 협상시 민관대책회의 등 현지 의견을 수렴하여 협상에 최대한 반영할 필요가 있으며, 어업인 역시 정부 협상에 신뢰를 가지고 적극적인 협조 및 수산분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자구노력 역시 필요하다.
- 거시변수 중 환율, 유가, 수입원자재 가격은 어업경영비와 소비에 대한 영향을 통해 어업부가가치와 어가소득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최근 유가는 하방 안정추세이나 환율 효과로 상쇄되어 여전히 높은 수준에 있다.
  - 이 같은 상황에서 2009년 들어 우리나라 수산업을 어떻게 연착륙시킬 것인가는 매우 중요한 정책 과제가 될 것이다. 지금과 같은 조건에서 수산경제 살리기 대책은 소프트 랜딩이 최선이기 때문이다.
- 환율은 수입수산물 가격과 해외시장의 점유율 경쟁에 영향을 주고, 이는 다시 국내 생산에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2009년 이후 세계경제의 침체 기간이 길어지면 그만큼 소비 둔화로 인하여 환율상승 효과가 상쇄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 그러므로 수산물 수출 경쟁국(중국, 일본)과의 가격비교우위를 확보하여 해외 수출시장 점유율을 유지하거나 확대시키기 위한 방안이 꾸준히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해외는 기회의 땅이므로 새로운 시장 개척을 위한 본격적 대책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 수산부문의 저리 정책 자금의 공급에도 불구하고, 회사채 금리의 상승과 자금경색은 어업경영에 영향을 미치고, 나아가 어업경영의 금융 기반이 되고 있는 수협 경영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부실 및 부실우려 조합이 전체 수협의 약 40%에 이르는 현 상황 하에서, 수협에 대한 올바른 구조조정 방향의 모색은 2009년 수산업의 향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된다.
- 유가가 안정되고는 있으나 환율상승에 따른 고유가의 지속으로 어업생산요소 중 유류비가 어업생산비의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연근해어업의 경영에 미치는 영향은 2009년 들어서도 초미의 관심사가 될 것으로 보인다.
- 이에 따라 외생변수의 변화에 취약한 구조를 지닌 연근해어업을 저에너지 친환경 어업으로의 전환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대대적인 구조재편 정책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 향후 교토의정서 이행과 관련해 수산부문에 있어서도 온실가스 감축 의무가 부과될 경우에 대비해 감축에 따른 영향을 예측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전략 개발이 시작되어야 할 시점이다.
- 특히 이명박 정부의 국정 주요과제로 ‘녹색성장’이 부각된 가운데 2010년에는 OECD에서 주최하는 수산부문 기후변화 심포지엄이 한국에서 개최될 예정으로, KMI에서는 이에 대비해 2009년에 기후변화와 사회경제적 영향에 대한 연구와 해조류 바이오산업화에 대한 연구가 추진될 계획이다.
- 중국어선의 북한수역 조업의 조속한 퇴출과 기 합의한 북측 동해수역 남측어선 입어의 실행은 동해안 조업조건의 개선과 어업인의 생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 그러므로 2009년에는 경색된 남북 관계 속에서 북측 동해수역 입어를 위한 실무 협상을 원활히 성사시킬 수 있도록 다각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9년 세계경전망』, 2008. 12.
- 삼성경제연구소, 『2009년 세계경제 및 국내경제 전망』, 2008. 10.
- \_\_\_\_\_,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이후 미국경제 전망』, 2008. 8.
- 한국금융연구원, 『2009년 경제전망』, 2009. 1.
- 한국개발연구원, 『KDI 경제동향』, 2009. 1.
- \_\_\_\_\_, 『세계경제 동향 및 전망』, 2008. 11.
- \_\_\_\_\_, 『2008~2009년 국내경제 전망』, 2008. 11.
-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http://ecos.bok.or.kr/>)
- 홍현표 외(2004. 12), 『수산부문 전망을 위한 총량모형의 구축』, KMI 기본연구.
- \_\_\_\_\_(2008. 11), “수산부문 upgrade 전략” 『최근 경제여건 변화와 농수산 부문의 대응 방안』 KREI 및 KMI 등 공동주최 심포지움.
- IMF, World Economic Outlook Update, 2008.



## 제2장

# 2009년 수산부문 전망과 과제

홍현표\* · 이현동\*\*

### 목 차

- |                     |                 |
|---------------------|-----------------|
| 1. 2008년의 회고        | 2) 수산물 도소매가격 전망 |
| 2. 전망을 위한 분석 모형과 자료 | 3) 수산물 수출입 전망   |
| 1) 분석 모형            | 4) 수산물 소비 전망    |
| 2) 전망을 위한 가정        | 5) 수산업 부가가치 전망  |
| 3) 자료               | 6) 어가경제 전망      |
| 3. 2009년 수산부문 전망    | 4. 정책 과제        |
| 1) 어업생산             |                 |

## 1. 2008년의 회고

- 전세계적으로 WTO/FTA체제가 확산되는 등 갈수록 개방화·자유화되면서 우리나라 수산분야에서도 시장의 불확실성은 더욱 확대되고 있다.
  - 2008년 한 해 동안은 한미FTA협정(2007년 2월 타결)에 따라 피해가 불가피한 수산 등의 취약업종을 중심으로 각종 대책과 구조조정에 대한 논의가 첨예하게 전개되던 시기였다.
- 이와 함께 2008년의 상반기는 국민경제 및 수산분야를 통틀어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충격과 위기의식이 무차별적으로 팽배했던 시기였다.
  - 우선 2007년 1월 3일 58.3달러였던 텍사스원유가격(WTI)은 2008년 7월 11일 147.27달러까지 급등한 후, 2008년 12월 18일 36.22달러로 다시 주저앉으면서,

\* 연구위원; \*\* 연구원

작년 상반기 동안 고유가에 따른 파급효과와 불안심리가 모든 분야를 휩쓸었다.

- 이어서 2008년 하반기는 그 이전부터 잠재되었던 미국발 금융위기가 우리나라 금융 시장에 모습을 드러내면서 외환시장을 필두로 금융불안에 따른 거시경제 파급효과가 또 한번 수산부문 등 모든 업종에 위기의식을 가져왔던 긴장된 기간이었다.
  - 2007년 12월말 936.1원이었던 원화환율이 작년 하반기 이후 급격히 폭락하여 장중 1500원을 기록한 이후 최근까지 환율 급락의 여파가 완전하게 아물지 않고 있다.
- 이처럼 작년 한 해 동안의 급격한 거시적 불안 현상은 사실상 크게 두 가지 유형의 불안정성에서 비롯되고 있다.
  - 하나는, 한미 FTA 및 WTO 타결에 따른 수입 개방의 확대에 가격 불안정성이 커지고 이로 인한 경쟁력 상실 우려 등이 그것이다.
  - 그리고 다른 하나는, 주택과 금융부문 등 수산물 이외의 다른 시장에서 불안정성 증대에 따른 외생적 충격이 수산부문을 뒤흔들고 있기 때문이다.
- 이에 따라 2008년 한 해 동안 우리나라 수산부문의 모든 경제주체들은 적잖은 혼란과 거시적 충격 앞에서 이에 따른 대응책 마련을 위해 동분서주하였다.
  - 그럼에도 여전히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거시지표와 외부적 환경 속에서 우리 수산부문은 취약한 부분을 그대로 노출한 채로 2009년을 맞이하고 있다.
- 이제 우리 수산부문은 이 같은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기 위한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 2. 전망을 위한 분석 모형과 자료

### 1) 분석모형

- 본 연구에서 이용된 ‘수산부문 총량모형(KMI-FSM04)’은 유가, 환율, 금리 등 거시지표의 충격이 어업생산, 수출입, 어업부가가치 및 어가소득 등 수산부문에 미치는 영향을 체계적으로 분석하는데 유용한 모형이다.



- 수산부문 총량모형<sup>1)</sup>은 i) 수산업 총량지표 모형, ii) 어가경제모형, iii) 어류 수급 모형, iv) 패류 수급모형, v) 해조류 수급모형과 같이 5개의 하위모형이 일련의 시스템 체계로 구성되었다.

## 2) 전망을 위한 가정

- 2009년의 수산부문 전망을 위해서 본 모형에서는 주로 외생적인 거시변수들에 대해 다음과 같은 가정을 사용하였다.
- 우선 2008년 기간중 가장 큰 폭의 변동을 보였던 원유가격과 원달러 환율에 대해 <표 2-1>과 같이 가정하였다.
  - 두바이유 원유가격은 2007년 배럴당 69달러였으며, 2008년 중에는 연평균 105달러를 적용하였다. 그리고 2009년 들어서는 50달러에서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최근 원유가격이 배럴당 30달러 대까지 내려갔으나, 중동 지역의 긴장이 다시 고조되면서 원유가격 안정을 저해하는 요인이 상존하기 때문이다.
  - 원달러 환율은 2008년 연평균 1,103원이었으며, 이는 연평균으로 전년대비 18.6% 상승한 것이다. 2009년에도 연평균 1,100원 수준이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표 2-1> 수산부문 전망을 위한 가정

단위 : 달러, 원, %

구 분	2008	2009	2010~ 2012	증감률(연간, %)		
				08/07	09/08	12/08
원유가격 (달러/배럴)	105	50	50	52.1%	-52.4%	-16.9%
원달러환율	1,103	1,100	1,100	18.6%	-0.2%	-0.1%

- 수산부문 어가들의 자금조달 금리에 해당되는 회사채수익률(3년 만기)과 수산정책 금리는 2008년에 각각 6.9%, 4.0% 포인트로 가정하였으며, 2009년에도 이 같은 금리 수준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1) 상기 모형에 대한 세부 설명은 “수산부문 전망을 위한 총량모형의 구축”(KMI, 홍현표 외, 2004)의 연구를 참조 바란다.

- 소비자물가지수(CPI)는 2008년 4.9%, 2009년 4.0% 상승, 생산자물가지수(PPI)는 2008년 12.1%, 2009년 10.4% 상승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sup>2)</sup>

### 3) 자료

- 본 연구에서 사용된 총량모형의 시계열 변수는 총 192개이며, 수집된 자료를 성격에 따라 분류하면 아래의 <표 2-2>와 같이 7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 자료의 수집기간은 총량모형을 구성하는 변수별로 일부 차이가 있으나 대부분 1970년~2007년의 시계열 자료가 이용되었다.
  - 단, 생산량 및 금액, 수출입, 물가지수 통계는 2008년 11월까지의 누적통계가 있으므로 전년 12월 실적을 합산하여 잠정치로 사용하여, 모형의 예측력이 향상되도록 하였다.

<표 2-2> 수산부문 총량모형에 이용된 시계열 자료

구분	자료수	주요 시계열 변수
거시경제 자료	29	명목 및 실질 총산출, 명목 및 실질 총생산 디플레이터(deflator), 환율, 1인당 GDP 등
어업생산 자료	62	생산량 및 생산액, 주요 업종별 어선세력(척수, 톤수, 마력수) 등
소비·물가지수 자료	19	소비량, 소비자물가지수, 생산자 물가지수 등
수출입 자료	16	수산물 수입량, 수입액, 수출량, 수출액
어가경제 자료	24	어가소득, 어업조수입 세부항목, 어업경영비 세부항목 등
인구·가구자료	12	어업인구 및 어업가구 등
기타 자료	30	유류공급량, 출어일수, 류별 재고비율 및 감모비율 등

자료 : “수산부문 전망을 위한 총량모형의 구축”, 홍현표 외, 2004, p.48

- 분석자료에 대한 설명을 개략적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거시경제자료 : 총산출, GDP(부가가치), 디플레이터(환가지수, deflator), 환율 및 금리 등 한국은행의 DB를 이용하였다.

2) 그리고 2009년 이후 2012년까지 장기 전망을 위해서는 금리 및 각 물가지수 등이 2009년과 같은 수준에서 그대로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 어업생산자료 : 생산은 어류, 패류, 해조류로 구분하였으며, 어업은 일반해면, 천해양식, 원양, 내수면으로 구분하였다.
- 소비·물가지수자료 : 어류, 패류, 해조류의 연간 소비량 및 품목별 소비자, 생산자 물가지수를 수집하였다.
- 수출입자료 : 수산물의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를 이용, 어류, 패류, 해조류의 수출입(물량, 금액) 자료를 수집하였다. 수산물의 가공정도에 따라 수율을 달리 적용하였다.<sup>3)</sup>
- 어가경제자료 : 어업조수입, 어업경영비, 어가부채, 어가자산 등에 대한 세부 항목별 자료를 수집하였다.
- 인구·가구자료 : 통계청의 인구총조사 및 인구추계, 어업인구 및 어업가구통계를 이용하였다.
- 기타자료 : 기타 총량모형을 구성하는 하위모형 및 개별함수의 추정에 필요한 변수를 고려하여 총 30개의 자료를 수집하였다.

### 3. 2009년 수산부문 전망

- 본 연구는 앞의 「총량모형」을 이용하여 2009년 수산부문의 주요 총량변수들의 전망치를 제시하였다.
- 어업생산 및 수출입량은 2008년 잠정집계치를 기준으로 2009년을 전망하였으며, 나머지 모든 내생적 총량변수들은 2008년도 예측치를 추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2009년 전망치를 제시하였다.
- 이에 본 연구에서는 어업생산, 수산물 도소매가격, 수출입량, 수산물 소비량 등의 2009년 전망치를 제시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어업부가가치와 어가소득 등의 전망치를 제시하였다.
- 이와 함께, 각 총량변수별로 2012년 전망치를 부기하여 다소 신뢰도는 저하되더라도 장기 추세를 조망하는데 약간의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

3) “수산부문 전망을 위한 총량모형의 구축”(KMI, 홍현표 외, 2004), p.54의 수산물 증량환산 및 수율표 참조.

## 1) 어업생산

- 본 모형에서 어업생산 부문에서는 어선어업 투입요소, 양식어업 시설투입량, 주요 투입재 가격 등의 추이와 전망을 제시하였으며,
- 이를 토대로 류별 투입산출 생산성 전망과 함께, 업종별 어업생산량 전망치를 제시하였다.

### (1) 어업 투입요소의 추이와 전망

- 우리나라 연근해어선 전체가 연간 출어한 조업일수는 누적 개념으로 2003년 1,250만 일, 2007년 1,160만 일, 그리고 2008년 1,130만 일이었으며, 2009년에는 1,140만 일을 투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 ※ 어선어업의 생산을 위한 투입요소로서 본 모형에서는 출어횟수 및 출어당조업일수, 그리고 어선척수 등의 지표를 사용하였으며, 이를 하나의 지표로 묶은 어획노력량 지표의 추이와 전망치를 제시하였다.
- 실제로 어획노력량은 고유가 및 외환위기가 격렬하게 몰아치던 2008년 중 전년대비 2.0% 감소하였으며, 2009년 들어서는 다소 경제위기가 진정되면서 어획노력량이 0.9% 가량 증가세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된다.
- 2008년 중 상반기는 국제유가 등귀로, 그리고 하반기는 원화환율의 급락으로 각각 실제 면세유 공급가격을 인상시켜 어획노력량의 감소에 일조하였다. 그러나 2009년에는 이같은 추세가 상당부분 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표 2-3〉 어획노력량 추이와 전망

단위 : 백만일, 일, %

구 분	2003	2005	2007	2008	2009	2012	증감률(연간, %)		
							08/07	09/08	12/08
어획노력량 (백만일) <sup>1)</sup>	12.5	12.0	11.6	11.3	11.4	11.7	-2.0	0.9	0.8
척당평균조 업일수(일) <sup>2)</sup>	187.0	186.0	185.0	181.3	183.0	186.9	-2.0	0.9	0.8

주 : 1) 어선척수x출어당조업일수x 출어횟수로 산출(즉 모든 어선들의 연중 총 누적조업일수, 단위는 백만 일).

2) 어선1척의 연중 총조업일수(출어당 조업일수 x 연평균 출어횟수)

## (2) 양식어장 시설량 추이와 전망

- 양식어업 생산에 투입된 2008년 어류시설량은 면적기준으로 전년대비 23.6% 증가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그리고 해조류 어장은 16.1% 증가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 이는 어류의 경우 2000대 초반 이래 수 년에 걸쳐 어류 양식분야 일면서 꾸준히 양식장 시설이 확대되는데 기인하고 있다.
- 그러나 2008년의 고유가 및 금융위기 등이 어류 및 해조류 등에 미치는 여파는 2009년 들어서부터 시설면적 감소로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 패류의 양식어장 시설량은 2008년에 이어 2009년에도 계속 감소하여 전년 대비 2.7%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표 2-4〉 양식어장 시설량 추이와 전망

단위 : ha, %

구 분		2003	2005	2007	2008	2009	2012	증감률(연간, %)		
								08/07	09/08	12/08
양식장 면적	어류	2,136	1,822	1,963	2,420	1,850	1,470	23.6	-23.6	-11.7
	패류	51,655	53,343	54,270	52,400	51,000	48,900	-3.4	-2.7	-1.7
	해조류	68,062	69,503	76,183	88,440	87,000	79,000	16.1	-1.6	-2.8

## (3) 주요 투입재 가격 추이와 전망

- 어로 및 양식어업 등에 투입되는 면세유, 자금, 노동력 등의 주요 투입재들의 가격은 2008년 중 전년대비 크게 상승하여 수산부문에 있어서도 비용상승 인플레이션(cost push inflation) 요인이 상존하였다.
- 2008년의 면세유가격은 2007년 대비 리터당 71.3% 상승하여 809원을 기록하였으며, 자금조달 가격에 해당하는 회사채수익률과 수산정책금리 등은 같은 기간 중 각각 21.1%, 33.3% 상승하였다.
- 이와 함께, 수산부문에 투입되는 노동력의 가격을 대표하는 어선원 임금수준은

실질치 기준으로 2008년에 전년대비 38.1% 상승한 것으로 추정된다.

〈표 2-5〉 주요 투입재가격의 추이와 전망

단위 : 달러, 원, 천원, %

구 분		2003	2005	2007	2008	2009	2012	증감률(연간, %)		
								07/08	09/08	12/08
유 가	원유(달러/배럴) <sup>1)</sup>	27.5	48.9	69.0	105.0	50.0	50.0	52.2	-52.4	-16.9
	면세유(원/리터) <sup>2)</sup>	270	378	472	809	418	419	71.3	-48.4	-15.1
회사채수익률(3년) <sup>1)</sup>		5.43	4.68	5.7	6.9	6.9	6.9	21.1	0.0	0.0
수산정책금리 <sup>1)</sup>		4.0	3.0	3.0	4.0	4.0	4.0	33.3	0.0	0.0
어선원임금(실질) <sup>3)</sup>		15,063	20,932	24,730	34,100	32,600	30,000	37.9	-4.4	-3.2

주 : 1) 2009~2012년 기간 중에는 일정 수준에서 가정하였음  
 2) 환율 반영후 각종 세금 등의 면제 후 어업인 공급가격  
 3) 근해어업 어선원 연평균실질임금 수준

- 그러나 최근 금융위기가 다소 둔화되는 2009 들어서는 면세유 가격 및 어선원 임금 등이 각각 48.4%, 4.4%씩 하락하는 약세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된다.
- 이는 2008년의 금융위기가 2009년부터 경제위기로 본격 전환됨에 따라 국내 수산물 수요의 둔화로 이어지고, 이것이 다시 수산부문 노동력 등의 파생수요 감소를 야기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 (4) 류별 생산성 추이와 전망

- 2008년 어선어업의 어류 생산성(단위어획노력량당 어획량)은 전년대비 14.9% 증가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이는 2008년 들어 주요 어종을 중심으로 풍어 현상을 반영한 것이다.
- 그러나 양식어류의 생산성은 2008년에 전년대비 20.0% 감소하였으며, 2009년 들어서는 28.5%로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는 2009년 이후의 불황에 따른 양식시설 감소에 대비하여 생산성 증대로써 이를 보상하려는 경영관행이 반영되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 양식 패류는 2008년에 이어 2009년에도 지속적으로 생산성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

된다. 다만, 2009년 이후는 2008년 보다 다소 감소 폭이 둔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표 2-6〉 어업별·류별 생산성 추이와 전망

단위 : 톤, %

구 분		2003	2005	2007	2008	2009	2012	증감률(연간, %)		
								08/07	09/08	12/08
어로어업 <sup>1)</sup> (1일1톤당)	어류	52.6	60.1	65.8	75.6	75.1	85.3	14.9	-0.7	3.1
	패류	34.9	30.0	32.2	35.0	35.8	37.6	9.0	2.2	1.8
양식어업 <sup>2)</sup> (ha당)	어류	33.9	44.7	49.8	39.8	51.1	103.4	-20.0	28.5	27.0
	패류	5.8	6.3	9.1	7.5	7.3	6.6	-18.2	-2.7	-3.2
	해조류	6.6	8.9	10.4	10.5	9.9	11.0	0.8	-5.4	1.2

주 : 1) 어로어업 생산성 = 연근해어업 총어획량 ÷ 총톤수(CPUE)

2) 양식어업생산성 = 양식 총생산량 ÷ 총양식시설면적(ha)

#### (5) 업종별 생산량 추이와 전망

- 이에 따라 우리나라 총어업생산량은 2008년에 338만 톤을 기록하여 전년대비 3.3%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 그리고 2009년의 총어업생산량도 전년대비 3.0% 감소한 328만 톤에 머물 것으로 전망되어, 전반적인 경제위기 여파가 어업생산 부문에도 본격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 업종별로는 2008년에는 원양어업을 제외하여 생산량이 증가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2009년 들어서서는 연근해를 제외하고는 전업종 생산량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 우선 연근해 어선어업에서는 2009년에 어류 및 패류 생산량이 전년에 이어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 그러나 해조류는 2008년 대폭 생산량이 감소할 것으로 추정되지만, 2009년부터는 감소폭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전망된다.
  - 이에 따라 연근해생산량은 2009년에 전년대비 1.2% 증가한 128만 톤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 그러나 양식어업의 경우는 2008년 생산량이 패류 감소·해조류 증가로 특징지워지고 있으나, 2009년 들어서는 어류를 포함하여 패류 및 해조류 등 전 품종에 걸쳐 감소하여 133만 톤을 생산하는데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 내수면 생산량은 2009년 들어 전년대비 14.3%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 원양어업에서는 갈수록 해외 조업구역의 축소 및 연안국 입어권 감소 추세에 따라 매년 어획량이 위축되어 2009년에는 전년대비 4.1% 감소하는 64만 톤에 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표 2-7〉 어업별 생산량 추이와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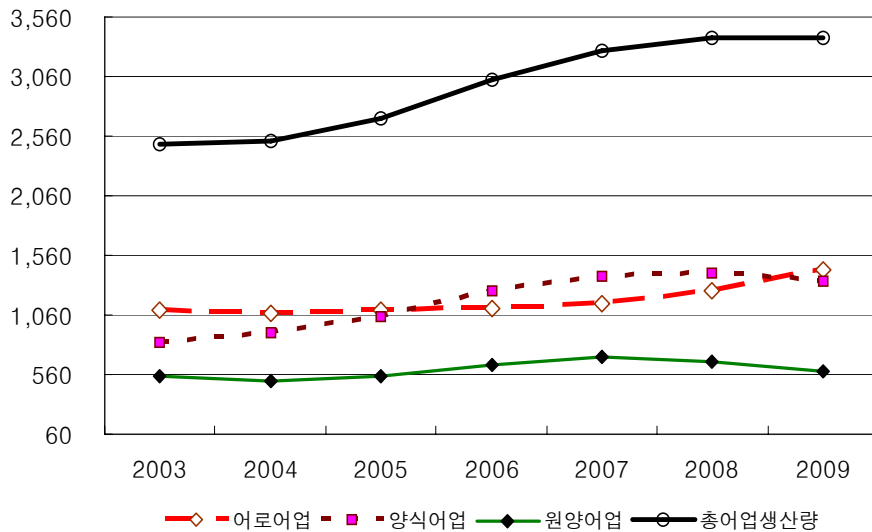
단위 : 톤, 천톤, %

구 분		2003	2005	2007	2008	2009	2012	증감률(연간, %)		
								08/07	09/08	12/08
연근해	어류	656,528	721,947	761,970	857,800	860,000	997,600	12.6	0.3	3.8
	패류	434,791	359,882	372,140	397,400	410,000	440,000	6.8	3.2	2.6
	해조류	5,154	15,212	18,189	13,560	13,400	13,000	-25.4	-1.2	-1.0
	소계(천톤)	1,096	1,097	1,152	1,269	1,283	1,451	10.1	1.2	3.4
양식	어류	72,393	81,437	97,663	96,500	94,500	152,300	-1.2	-2.1	12.1
	패류	301,851	338,481	495,188	391,400	371,000	321,000	-21.0	-5.2	-4.8
	해조류	452,054	621,156	792,953	928,200	864,400	870,000	17.1	-6.9	-1.6
	소계(천톤)	826	1,041	1,386	1,416	1,330	1,343	2.2	-6.1	-1.3
내수면어업(천톤)		20	24	27	30	25	23	10.7	-14.3	-6.0
원양	원양어로	397,196	439,711	446,641	448,526	435,000	350,000	0.4	-3.0	-6.0
	원양패류	147,395	112,385	263,319	218,603	205,000	150,000	-17.0	-6.2	-9.0
	소계(천톤)	545	552	710	667	640	500	-6.0	-4.1	-7.0
총어업생산량(천톤)		2,487	2,714	3,275	3,382	3,279	3,317	3.3	-3.0	-0.5

자료 : 2008년 자료는 2008년 1월~11월의 어업생산통계에 2007년 12월의 생산량을 합산한 잠정치임.



〈그림 2-1〉 어업생산량 추이와 전망



## 2) 수산물 도소매가격 전망

- 우리나라 수산물의 류별 도매가격 지수 추이를 살펴보면, 2008년 어류 도매가격은 전년대비 1.7% 상승한 102.2에서 2009년에는 전년대비 17.4% 하락한 84.4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 그러나 패류 도매가격은 2008년 일시적으로 100.9를 기록하여 14.1% 상승한 것으로 추정되지만, 2009년에는 전년대비 23.6% 감소하는 등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 이 같은 도매가격 지수의 하락은 추세는 경기침체에 따른 수요 부진과 함께, 시장개방 확대에 의한 시중 공급 능력의 확대도 일조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 이와 같은 추세는 해조류 도매가격 지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2009년 들어 대체로 모든 수산물도매가격 지수는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 2009년 이후 이와 같은 도매가격지수의 약세 전망은 전반적인 거시경제 불안에 따른 수산물 소비감소로 인해 상대적인 과잉공급이 불가피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표 2-8〉 류별 도매가격 지수 추이와 전망

구분	2003	2005	2007	2008	2009	2012	증감률(연간, %)		
							08/07	09/08	12/08
어류도매가격	96.4	100.0	100.5	102.2	84.4	88.9	1.7	-17.4	-3.4
패류도매가격	93.9	100.0	88.4	100.9	77.1	76.0	14.1	-23.6	-6.9
해조류도매가격	80.1	100.0	101.8	119.9	108.7	89.2	17.8	-9.3	-7.1

주 : 2005년 기준(100.0)

- 그러나 어류 및 해조류 소매가격 지수는 향후 꾸준히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패류소매가격 지수는 하락 추세를 면치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
- 패류 소매가격지수는 2008년 102.5로서 전년대비 0.6% 상승한 것으로 추정되지만, 2009년 들어서는 92.5로 하락하고 이후 지속적인 하락세를 벗어나기 힘들 것으로 전망된다.
- 이와 달리 어류소매가격 지수는 꾸준히 상승하여 어류 국내소비가 향후 본격 대중화 시대를 맞이할 것으로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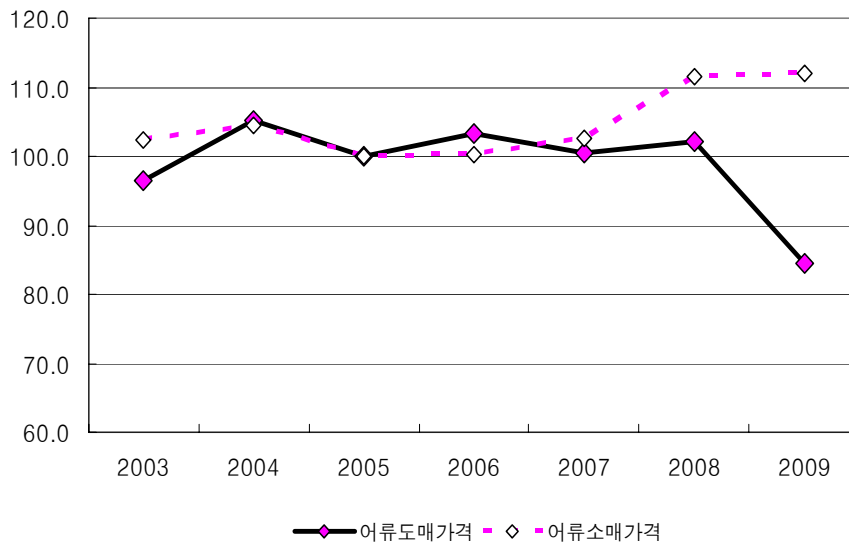
〈표 2-9〉 류별 소매가격 지수 추이와 전망

구 분	2003	2005	2007	2008	2009	2012	증감률(연간, %)		
							08/07	09/08	12/08
어류소매가격	102.3	100.0	102.5	111.5	111.9	132.2	8.8	0.4	4.3
패류소매가격	94.7	100.0	101.8	102.5	92.5	91.1	0.6	-9.8	-2.9
해조류소매가격	103.1	100.0	110.1	108.4	108.2	116.9	-1.5	-0.3	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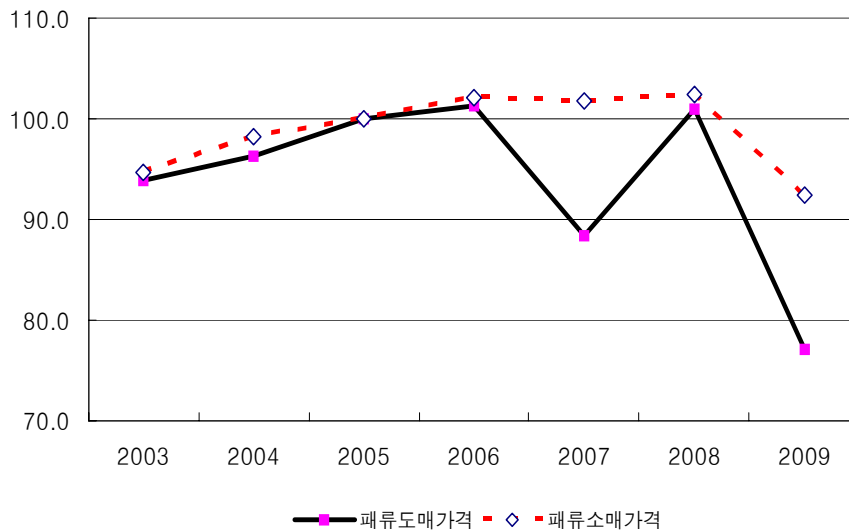
주 : 2005년 기준(100.0)

- 다음의 그림에서는 류별로 도·소매가격지수의 추이를 도식화한 것이다. 2009년 들어 경기침체에 따른 요소가격 안정세가 예상되므로 도매가격 하락으로 인한 도·소매가격 편차는 패류 및 어류에서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 그러나 해조류는 최근 소매가격지수가 안정적인 구조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2008년도 도매가격지수가 급등한 후, 2009년의 경기 침체 여파에 따른 반락이 예상되므로 도·소매가격 격차는 훨씬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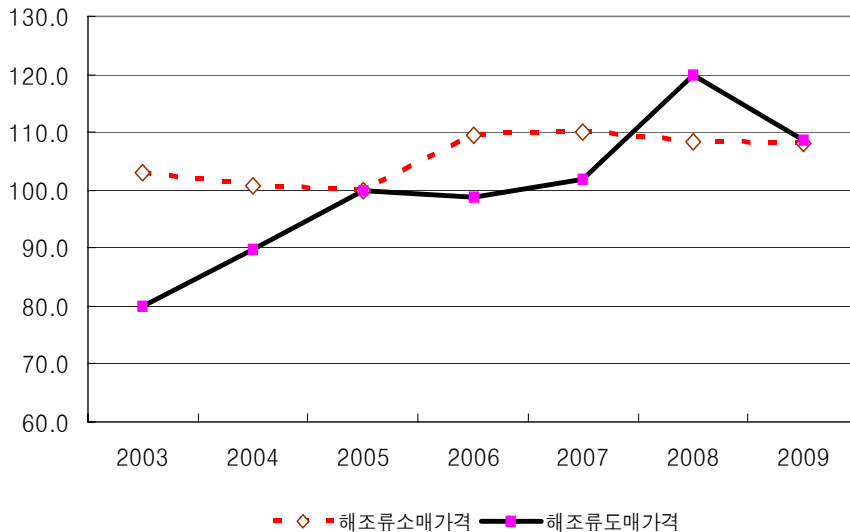
〈그림 2-2〉 어류 도소매가격 지수 추이와 전망



〈그림 2-3〉 패류 도소매가격 지수 추이와 전망



〈그림 2-4〉 해조류 도소매가격지수 추이와 전망



### 3) 수산물 수출입 전망

- 2008년 수산물 수출은 총 86만 톤(원어 환산 기준)으로 잠정 추정되고 있으며, 이는 전년 대비 13.6% 증가한 것이다.
  - 류별로는 특히 어류 및 해조류가 지난 한 해의 원화환율 급락 효과를 받으며 수출물량의 증가로 이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 이에 따라 2008년 어류 수출량은 전년대비 15.7% 증가한 40만 톤, 패류 수출량은 전년대비 10.0% 증가한 32만 톤, 해조류는 15.8% 증가한 14만 톤을 각각 기록한 것으로 추정된다.
- 그러나 2008년 수산물 수입은 총 177만 톤으로 잠정 추정되고 있으며, 이는 전년 대비 13.6% 감소한 것이다.
  - 류별로는 어류 및 패류의 수입 감소 폭이 두드러졌는데, 이는 지난 한 해의 원화환율 변동에 따른 수입 가격 상승 효과에 기인한 것으로 추정된다.
  - 이에 따라 2008년 어류 수입량은 전년대비 15.3% 감소한 105만 톤, 패류 수입량은 전년대비 11.0% 감소한 70만 톤, 해조류는 5.8% 감소한 2만 1천 톤을 각각 기록한 것으로 추정된다.

- 2009년 들어 수산물 수출량은 전년 대비 11.7% 증가하는 96만 톤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2009년 수산물 수입량은 전년대비 4.5% 증가하는 185만 톤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 이는 2009년 들어서 거시경제 지표가 다소 안정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수산물 수입물량은 증가세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나, 경기 침체 여파가 해외 수산물 소비 둔화로 이어지면서 수출물량 증가 폭은 다소 둔화될 것으로 분석되기 때문이다.
- 류별로는 2009년 어류 수출량이 전년에 이어 15.1%의 증가율을 시현하여 46만 톤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김 등 해조류 수출량도 전년대비 14.3% 증가세를 기록하여 16만 톤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패류는 6.2% 증가율에 머물러 34만 톤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 2009년 수입부문에서는 어류 수입량이 전년대비 4.8%의 증가세로 돌아서서 110만 톤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패류도 4.3% 증가하는 73만 톤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해조류는 전년대비 0.3% 감소한 2만 1천 톤의 수입에 머물 것으로 전망된다.

〈표 2-10〉 류별 수산물 수출입 추이<sup>1)</sup> 및 전망

단위 : 천톤, %

구분		2003	2005	2007	2008 <sup>2)</sup>	2009	2012	증감률(연간, %)		
								08/07	09/08	12/08
수출량	어류	303	288	345	400	460	500	15.7	15.1	5.8
	패류	297	249	291	320	340	440	10.0	6.2	8.3
	해조류	152	161	121	140	160	280	14.8	14.3	18.9
	소계	752	698	757	860	960	1220	13.6	11.7	9.1
수입량	어류	1,143	1,138	1,240	1,050	1,100	1,200	-15.3	4.8	3.4
	패류	559	657	787	700	730	770	-11.0	4.3	2.4
	해조류	21	22	23	21	21	22	-5.5	-0.3	0.2
	소계	1,723	1,816	2,049	1,771	1,851	1,992	-13.6	4.5	3.0

주 : 1) 상기 수출입 통계 실적치는 HS코드 세세분류 수출입실적량을 각 제품유형별(건조, 연육, 피레트, 훈제, 통조림 등)로 수율가중치를 적용하여 류별 원어로 환산·집계한 것이다. 이에 대한 상세한 내역과 산출방법에 대해서는 홍현표 외(2004) 참조.

2) 2008년 수출입실적은 1월~11월 실적 합계치에 전년도 12월 실적치를 합산한 잠정치를 사용하였다.

#### 4) 수산물 소비 전망

- 2008년 수산물 총소비량은 급작스러운 금융위기 등의 여파에 따라 전년대비 3.4% 감소한 440만 톤으로 추정된다.
  - 류별로는 패류 1인당 소비량이 2007년 31.2kg에서 2008년 35.4kg으로 13.4% 증가한 것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국민 1인당 어류 및 해조류의 2008년 연간 소비량은 각각 2.4%, 15.7% 감소한 43.2kg, 11.8kg을 기록할 것으로 추정된다.
- 2009년 들어서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등 거시경제 여건이 침체를 면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수산물 총소비량은 전년대비 2.3% 감소하는 430만 톤에 머물 것으로 전망된다.
  - 류별로 살펴보면, 패류 및 해조류의 2009년 1인당 연간소비량은 전년대비 각각 3.8%, 11.3% 감소하는 34.1kg, 10.4kg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 그러나 2009년 어류 1인당 연간소비량은 43.5kg을 기록하여 전년대비 0.7%의 증가율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표 2-11〉 류별 수산물 소비량 추이 및 전망

단위 : kg, 천톤, %

구분		2003	2005	2007	2008 <sup>2)</sup>	2009	2012	증감률(연간, %)		
								08/07	09/08	12/08
국민1인당 연간 소비량 (kg)	어류	39.5	41.5	44.2	43.2	43.5	44.5	-2.4	0.7	0.8
	패류	23.4	24.4	31.2	35.4	34.1	31.6	13.4	-3.8	-2.8
	해조류	6.5	9.8	14.0	11.8	10.4	8.7	-15.7	-11.3	-7.4
수산물총소비량 (천톤)		3,503	3,852	4,548	4,400	4,300	4,160	-3.3	-2.3	-1.4

#### 5) 수산업 부가가치 전망

- 우리나라 수산업(어업 기준) 부가가치는 2008년 현재 1조 3600억원(명목가치 기준)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이는 전년 대비 8.3% 감소한 것이다.
  - 2008년 한 해 동안의 고유가 및 환율 급락 등의 여파로 어업경영 채산성이 악화

되면서 부가가치 생산금액이 감소한 것으로 추정된다.

- 2009년 들어서는 지속적인 경기 침체가 예상되므로 소비 둔화에 따른 가격 하락 및 채산성 악화 등이 잇따를 것으로 분석되어 수산업 부가가치는 명목기준으로 1조 2,700억원을 기록하여 전년 대비 6.6%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표 2-12〉 수산업부가가치 추이 및 전망

단위 : 십억원, %

구분	2003	2005	2007	2008	2009	2012	증감률(연간,%)		
							08/07	09/08	12/08
어업부가가치 (십억원, 실질 <sup>1)</sup> )	1,765	1,723	1,996	1,850	1,680	1,280	-7.3	-9.2	-8.8
어업부가가치 (십억원, 명목)	1,972	1,723	1,483	1,360	1,270	1,100	-8.3	-6.6	-5.2

주 : 1) 2005년 기준 수산물디플레이터로 산출한 실질치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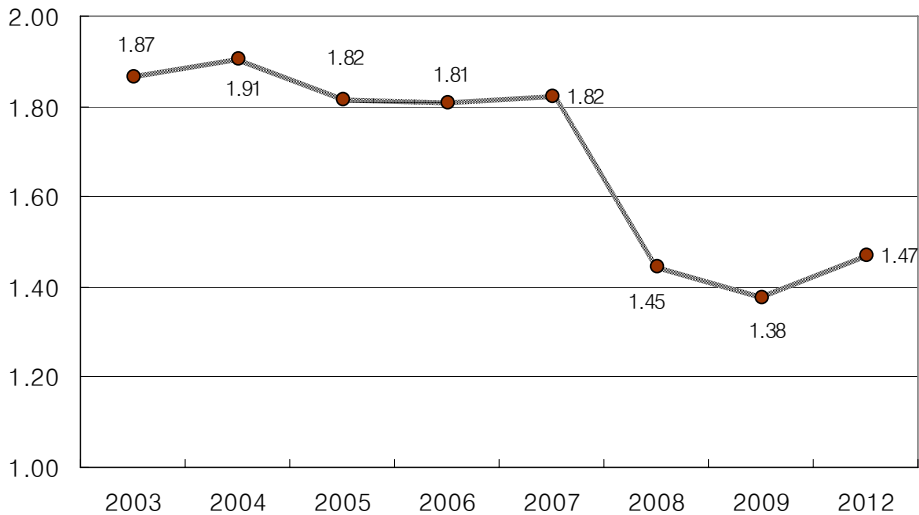
## 6) 어가경제 전망

### (1) 어업 경영수지

- 어가의 어업 경영비 대비 어업생산 수입의 비율<sup>4)</sup>은 그동안 1.8 수준을 유지하였으나, 지난 2008년의 고유가 및 환율 급락 등의 여파로 1.45 수준으로 급격히 악화되었다.
- 이와 같은 어업채산성 악화는 2009년에도 지속되어 1.38 수준으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회복되는 데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4) 어업경영수지 비율 = 어업수입÷어업경영비

〈그림 2-5〉 어가 경영수지 비율 추이와 전망



## (2) 어가수

- 우리나라 총어가수는 2005년 7만 9천여 가구를 정점으로 하여 최근의 국내외 여건 악화에 따라 추세적으로 감소 경향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 외생적 충격과 경영채산성이 급격히 악화되었던 2008년에 다소 큰 폭으로 어가수가 감소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나 이후 조정 과정을 거치면서 향후 3~5년 간 다소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 우리나라 총어가수는 2008년 약 6만 9천여 가구로 감소한 것으로 추정되고, 2009년에는 이보다 다소 증가한 7만 2,300가구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 이는 2008년 기간중 어업경영 환경이 급격히 악화되면서 양식어가를 중심으로 어업 일선을 떠나는 어업인들이 늘어난데 기인한 것으로 추정된다.
  - 그러나 2009년 들어서는 어로어가를 중심으로 소폭 어가수가 증가하여 전체 어가수의 증가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양식어업 경영이 상대적으로 양호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2009년 대비 양식어가수가 소폭 증가세로 돌아서고 어로어가수는 보합 내지는 소폭 감소세로 돌아설 것으로 전망된다.



〈표 2-13〉 어가수 추이 및 전망

단위 : 호, %

구 분	2003	2005	2007	2008	2009	2012	증감률(연간, %)		
							08/07	09/08	12/08
총어가	72,760	79,942	73,934	69,450	72,300	71,160	-6.1	4.2	0.6
어로어가	50,947	55,867	50,577	49,050	51,500	50,160	-3.0	5.0	0.6
양식어가	21,814	24,075	23,356	20,400	20,800	21,000	-12.7	2.0	0.7

### (3) 어가소득

- 2008년 우리나라 전체어가의 평균 어가소득은 3,250만원으로 추정되며, 그중 어업소득은 평균적으로 1,290만 원, 이전소득 및 비경상소득 등으로 구성되는 어업외 소득은 1,960만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 이는 최근들어 경영환경의 악화에도 불구하고 열악한 어가의 이탈에 따른 어가수 감소 효과에서 기인하고 있다.
  - 그러나, 2009년 부터는 경영환경 악화 여파가 어가에 본격 파급되면서 어업소득을 중심으로 급격히 감소추세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 이에 따라 2009년 어가소득은 평균적으로 3,260만 원을 기록하여 전년대비 보합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 이는 2009년 경영악화에 따른 어업소득 감소분을 어업외 소득 증가분으로 보전할 것으로 분석되기 때문이다.
- 소득원천 별로는 2009년부터 어업 채산성 악화에 따른 어업소득 감소가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비경상소득 등으로 구성되는 어업외 소득 증대로 이를 보전할 것으로 전망된다.
- 어가별로는 2009년부터 경영환경 악화 영향을 더욱 크게 받을 것으로 보이는 어로어를 중심으로 어업소득 감소 폭이 더 클 것으로 예상되어 2009년 어로어가 총소득은 2,675만 원에 머물 것으로 전망된다.
  - 그러나 양식어가는 2009년 들어 소폭의 어업소득 감소에도 불구하고 어업외 소득 증대에 힘입어 전년대비 0.4% 증가한 3,617만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 그러나 물가요인을 고려한 실질어가소득은 2009년 이후 당분간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 2009년 들어 실질 총어가소득은 전년대비 2.0% 감소하고, 그중 어업소득은 6.9%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 어가 유형별로 보면 2009년의 실질어가소득은 양식어가 1.8%, 어로어가는 2.4%씩 각각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어, 어가 유형에 상관없이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표 2-14〉 어가소득 추이와 전망

단위 : 천원, %

구분		2003	2005	2007	2008 <sup>P</sup>	2009	2012	증감률(연간, %)		
								08/07	09/08	12/08
전체 어가	어가소득	23,916	28,028	30,668	32,500	32,600	36,700	6.0	0.3	3.1
	어업소득	10,741	11,950	11,975	12,900	12,300	12,600	7.7	-4.7	-0.6
	어업외소득	13,175	16,078	18,693	19,600	20,300	24,100	4.9	3.6	5.3
어로 어가	어가소득	23,324	25,898	29,198	26,800	26,750	30,100	-8.2	-0.2	2.9
	어업소득	9,234	9,426	10,672	10,900	10,250	10,500	2.1	-6.0	-0.9
	어업외소득	14,090	16,472	18,526	15,900	16,500	19,600	-14.2	3.8	5.4
양식 어가	어가소득	25,477	34,221	35,177	36,010	36,170	40,000	2.4	0.4	2.7
	어업소득	14,710	19,289	15,972	20,850	20,170	20,400	30.5	-3.3	-0.5
	어업외소득	10,767	14,932	19,205	15,160	16,000	19,600	-21.1	5.5	6.6

주 : 명목금액 기준임. 2008년 자료는 추정치임.

## 5. 정책 과제

### 1) 요약

- 2008년 이후 어업경영 환경이 급격히 악화됨에 따라 우리나라 수산업은 불가피하게 당분간 위축 국면에 돌입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 WTO/FTA 확대 등 제도적으로 수산물 시장 개방과 자율의 파고가 더욱 확산되

고 있는 가운데, 외생적·거시적 충격의 여진이 영향을 미치는 최소 향후 2~3년간 우리나라 수산업은 U자형 침체 국면에 접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 2009년 들어 거시적 경기 침체가 지속되면서 국민 1인당 패류 및 해조류 소비량은 전년대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 그러나 우리 국민의 소득수준 향상과 함께 식습관으로 자리잡고 있는 어류 소비량은 미세하게나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한편, 어업생산 분야의 투입재 가격 인상 효과가 2009년 들어서는 다소 완화되면서 어업생산에 다소 활기를 불어넣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나, 내수 소비의 둔화로 인한 도소매가격 하락 유인이 더 클 것으로 분석된다.
- 이에 따라 우리나라 총어업생산량은 2008년 풍어에 따른 증가에 이어, 2009년 들어서는 전년대비 3.0%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 이와 함께 2008년의 금융시장 충격이 2009년 들어 경제위기로 심화되면서 수산물 소비 둔화로 인한 가격하락 효과 등이 가중되면서, 어업 채산성은 2008년 이후부터 급격히 악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 이와 같은 전망 속에서 2009년의 어업생산 부가가치 및 어가수 등의 수산업 규모 변수들은 당분간 감소 추세를 벗어날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 이에 따라 2009년 명목 어업부가가치는 전년대비 6.6%(실질치 기준으로는 9.2%) 감소하는 1조 2,700억원에 머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 우리나라 총어가수는 2005년 7만 9천여 가구를 정점으로 하여 최근의 국내외 여건 악화가 가세하면서 추세적으로 감소 경향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 어업경영 환경 악화에 따라 어업소득 자체는 감소하고 있으나, 어업외 소득의 증대로 인해 명목어가소득 자체는 2008년에 다소 증가하고, 2009년 들어서는 전년대비 보합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 그러나 2009년 들어 실질 총어가소득은 전년대비 2.0% 감소하고, 그중 실질어업소득은 6.9%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 이 같은 실질소득 추세는 정도의 차이는 다소 있으나 어로 및 양식어가 유형에 상관없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 2) 정책 과제

- 이 같은 전망 하에서 가장 먼저 돌아봐야할 과제로서는 요즘과 같은 환경 하에서도 우리 수산업이 과연 발전가능성과 희망이 남아있는가 하는 비전의 확인이 시급하다.
  - 요즘 같은 경제위기를 기회로 전환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실현가능한 수산업의 비전을 제대로 세우는 것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다. 희망과 꿈이 있어야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는 의욕과 추진력이 만들어지기 때문이다.
- ※ 경영채산성이 악화되는 위기상황에서도 어업인들은 더욱더 생산을 위한 노력 투입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모습은 수산업의 자생력을 가감없이 보여주고 있다.
- 수산부문의 안팎에서 도전해오는 오늘과 같은 경영여건과 위기 하에서는 적극적인 재정금융 정책 등을 통해 U자형 수산경제의 침체 국면을 적극 돌파해야 할 것이다.
  - 이제 수산부문에서도 경기변동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거시적 정책 수단들을 개발하여 요즘같이 어려운 상황에서는 수산경제 살리기에 앞장설 필요가 있다.
- ※ 수산발전기금 규모 확대, 각종 경영안정자금의 확보 및 조기 집행, 수산투자 활성화 위한 국내펀드 도입 등을 통해 수산분야 일자리 창출 등 수산경제 살리기에 주력해야할 것이다. 이와 함께 최근 일부 시행준비 단계에 들어간 수산보전제의 조기 도입 등을 통한 어촌경제 살리기도 병행 추진해야할 것이다.
- 최근 수산물 소비감소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면서 다각도로 현실적인 대응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할 것이다.
  - 경기순환 상의 수산물 소비감소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고부가가치화 전략도 중요하지만, 당분간은 저가어종 및 저가제품 등의 대중화를 위한 홍보 정책 등에도 역점을 둘 필요가 있다.
- 또한 최근 거시적 충격의 영향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별도의 대책들이 시급히 마련될 필요가 있다.
  - 적어도 경쟁력 있는 양식품종임이라면 최근 경제위기 하에서 흑자 도산하는 일은 없도록 하여 수산경제 살리기와 일자리 유지 및 창출의 진원지를 확보해야 하기 때문이다.
- ※ 연근해어업의 어획량은 비교적 양호한 어황과 자원관리 효과 등에 힘입어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최근의 외부 충격에 전격 노출된 양식어업은 생산량 감소가 두드러진 특징으로 자리잡고 있다.

- 이를 위해서는 우수한 사업체를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영어자금등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 이 같은 정책이 실효성을 가지려면 영어자금 운영손실에 대한 이차보전 확대 등을 통한 적극적 수산금융 정책 기조가 당분간 강화될 필요가 있다.
- 향후 일부 투입재가 구조적으로 고비용인 경우에는 차제에 직접적인 비용절감 방안을 마련하거나 혹은 이를 투입재로 사용하는 업종에 대해 퇴출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할 것이다.
- 저탄소 에너지 산업을 중심으로 녹색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산업구조로 재편이 시급한 것도 이와 같은 이유 때문이다. 둘러갈 수 있는 방법은 없다. 문제를 정면에서 해결해야 하기 때문이다.
- 이와 함께, 대내외적인 불확실성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경제 주체의 사업 리스크를 극소화하고 채산성을 확보하기 위한 규모와 범위의 경제를 동시에 확보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경영방식이 적극 도입되어야 할 것이다.
- 소위 규모화와 다각화 방식의 경영 기법 및 이를 지원하는 고도의 수산금융 기법 등도 적극 도입될 필요가 있다.
- 그리고 수산부문의 글로벌화는 새로운 가치와 새로운 기회를 창출할 수 있는 또다른 영역이므로 이를 적극 활용하여 돌파구를 찾아야 할 것이다.
- 해외에서의 사업기회의 창출은 수출 증대 및 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이와 같은 글로벌화는 다른 한편, 수산분야의 국내 유희 인력의 해외진출과 일자리 마련을 위한 또다른 기회를 제공할 것이기 때문이다.

## 참고문헌

- 박우규·오상훈·이진면, “거시모형을 이용한 중장기 정책효과 분석,” 「정책연구」, 한국개발연구원, 제17권 제4호, 1995 겨울.
- 수협중앙회, 수협수산통계 각연도.
- 통계청, 어업생산통계, 각연도.
- 한국무역협회, 수출입통계, 각연도.
- 한국개발연구원, 「한국의 산업경쟁력 종합연구(II)」, 2004.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식품수급표』, 각 년도.
- 한국은행, 『계간 국민계정』, 각 분기별.
- \_\_\_\_\_, 『조사통계월보』, 각 월별.
- \_\_\_\_\_, “한국경제의 연관계량모형”, 「조사월보」, 1972, 6월.
- 홍현표 외(2004. 12), 『수산부문 전망을 위한 총량모형의 구축』, KMI 기본연구.
- \_\_\_\_\_(2008. 11), “수산부문 upgrade 전략” 『최근 경제여건 변화와 농수산 부문의 대응 방안』 KREI 및 KMI 등 공동주최 심포지움.
- \_\_\_\_\_(2008. 10), “국내외 금융위기와 수산부문의 대책”, KMI 수산정책연구부 세미나 자료집.
- Maddala, G. S, Introduction to Econometrics, John Wiley & Son, 2001.
- Hertel, T. W., Applied General Equilibrium Analysis of International Agricultural Trade Research Consortium, December 12-14, 1991, New Orleans, Louisiana, 1991.
- Intriligator, M. D., Econometric Models, Techniques, & Applications, 1978.



## 제 3 장 어가경제의 동향과 전망

최성애\* · 김봉태\*\*

### 목 차

- |              |                  |
|--------------|------------------|
| 1. 서론        | 4) 어가부채          |
| 2. 어가경제 동향   | 5) 경영의 규모화 및 정보화 |
| 1) 어가 및 어가인구 | 3. 2009년 전망과 이슈  |
| 2) 어가소득      | 1) 전망            |
| 3) 어가지출      | 2) 이슈            |

### 1. 서론

- 제2장에서 2009년도 어가경제에 대한 전망으로 어가의 어업경영수지는 어업채산성의 악화로 하락하고, 어가 수는 소폭 감소하며, 어가소득은 전년과 거의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 정부는 그동안 수산정책의 핵심대상을 수산관련 산업 중심에서 어촌자원의 산업화 및 정주여건 향상 등으로 그 범위를 확대하여 정책을 추진해오고 있으나 아직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지는 못하다.
  - 어촌의 소득원이 충분하지 못하고, 일자리 창출은 도시에 비해 크게 저조하여 젊은층이 어촌을 떠나면서 노령화가 가속화되고 어촌 경제의 활력이 떨어지는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다.
  - 또한 어촌은 도시에 비해 상하수도 보급률이 저조하고, 보건의료 및 교육문화 서비스가 부족한 등 지역 주민들이 생활 속에서 느끼는 정주여건도 매우 취약한

\* 연구위원; \*\* 책임연구원

실정이다.

-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어가의 소득증대, 어촌의 고용기회 확대와 정주 여건 개선을 통해 어촌에 일정 수준의 인구 유지를 촉진함으로써 어촌지역과 국가 발전이 연계되는 선(善)순환 구조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 본 장에서는 통계청의 어업조사, 어가경제조사 등에 기초하여 수산업의 경제적 주체이며 어촌지역의 생활주체인 어가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노령화, 경영의 규모화, 소득원 다양화 등을 주제로 2009년 전망과 이슈를 제시한다.

## 2. 어가경제 동향

### 1) 어가 및 어가인구

- 2007년 현재 우리나라 어가수는 7만 3,934가구로 2003년보다는 늘어났으나 2005년 이후 감소하는 추세에 있다.
  - 농가수와 비교할 때 비슷한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2005년 대비 감소폭은 어가가 7.5%, 농가가 3.3%로 어가가 더 크다.
- 전·겸업별로는 2005년 이후 전업어가가 겸업어가보다 더 많이 감소하고 있으며 겸업어가 내에서는 1종 겸업어가(어업소득>어업외소득) 수는 줄어드는 반면 2종 겸업어가(어업소득<어업외소득) 수는 크게 늘어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 이로써 어가경제에서 어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전반적으로 낮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어업형태별로는 2005년 이후 어로어가는 크게 감소하고 있으나(55,867→50,577) 양식어가는 소폭 감소에 그치고 있다(24,075→23,356).
  - 이 같은 어로어가의 감소는 연근해 어업자원 감소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표 3-1〉 어가수 추이

단위: 가구, %

구 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증가율 ('07/'05)
계		72,760	72,513	79,942	77,001	73,934	-7.5
전 · 겸업별	전업	25,424	23,580	25,342	23,932	22,407	-11.6
	겸업	47,337	48,933	54,600	53,068	51,527	-5.6
	1종겸업	29,255	29,519	28,410	26,962	25,203	-11.3
	2종겸업	18,083	19,414	26,190	26,106	26,324	0.5
어업 형태별	어로어업	50,947	51,817	55,867	53,012	50,577	-9.5
	어선비사용	13,605	14,069	19,134	16,924	15,886	-17.0
	어선사용	37,342	37,748	36,733	36,088	34,691	-5.6
	양식어업	21,814	20,696	24,075	23,989	23,356	-3.0

자료: 통계청, 어업조사.

〈표 3-2〉 농가수 추이

단위: 가구, %

구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증가율 ('07/'05)
농가수	1,264,431	1,240,406	1,272,908	1,245,083	1,231,009	-3.3

자료: 통계청, 농업조사.

- 어가수와 함께 어가인구도 2005년 이후 8.9% 줄었는데 같은 기간 농가인구 감소율인 4.6%에 비하면 아주 크다.
- 어가인구는 50세를 기준으로 50세 미만은 계속 줄어들고 있는 반면 50세 이상은 계속 늘어나 2006년에는 50세 이상의 인구가 50세 미만의 인구를 처음으로 추월하였다.
  - 2005년 대비 2007년 어가인구의 50세 미만 감소율은 18.0%, 11.8%인 농가인구에 비해 감소폭이 크다.
  - 이는 어가인구의 노령화가 아직 진행단계에 있다면 농가인구의 노령화는 이미 성숙단계에 접어들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 15세 미만 인구 대비 65세 이상 인구의 비율인 노령화지수를 보면 농어가 모두 지수가 상승하여 노령화 정도가 심화되는 추세에 있으나 농가에 비해서는 어가의

노령화 정도가 높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표 3-3〉 연령별 어가·농가 인구 추이

단위: 가구. %

구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증가율 (’07/’05)
어가 인구	계	212,104	209,855	221,132	211,610	201,512	-8.9
	50세 미만	114,308	109,887	111,857	100,857	91,748	-18.0
	50세 이상	97,796	99,968	109,275	110,752	109,763	0.4
	노령화지수	130.4	138.6	172.7	192.1	219.1	
농가 인구	계	3,530,102	3,414,551	3,433,573	3,304,173	3,274,091	-4.6
	50세 미만	1,573,592	1,473,940	1,481,657	1,355,201	1,306,323	-11.8
	50세 이상	1,956,509	1,940,612	1,951,916	1,948,973	1,967,769	0.8
	노령화지수	260.3	284.2	298.2	323.4	341.7	

주: 노령화지수=(65세 이상 인구)/(15세 미만 인구)×100.

자료: 통계청, 어업조사; 통계청, 농업조사.

- 주종사분야별 어가인구를 보면 어업분야는 2005년 대비 5.5% 감소하고 있으나 어업 이외분야는 0.3% 늘어나 어가경제에서 어업의 비중이 축소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이는 전업어가와 1종 겸업어가 수가 감소하고 2종 겸업어가 수가 늘어나는 상황을 재확인한 것이다.

〈표 3-4〉 주종사분야별 어가인구 추이

단위: 가구. %

구 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증가율 (’07/’05)
계	186,208	184,052	197,019	189,348	181,219	-8.0
어업	95,753	95,121	93,120	91,485	88,023	-5.5
어업이외일	53,246	53,602	61,726	63,839	61,931	0.3
기타(가사,환자,무직)	37,209	35,329	42,173	34,025	31,265	-25.9

자료: 통계청, 어업조사.

- 어가인구와 함께 어업종사가구원도 줄어들고 있으나 어가인구 감소폭보다는 작다

(5.9%<8.9%). 이는 어업종사가구원이 이미 중장년층이어서 은퇴하거나 이직하는 비율이 낮기 때문이다.

- 이에 따라 어가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점점 높아지고 있다.
- 어업종사가구원은 50세 미만이 2005년 대비 2007년에 15.2% 줄어든 반면 50세 이상은 1.3% 감소에 그쳐 어가인구의 노령화 추세보다 그 속도가 더 빠르다. 젊은 신규인력의 진입이 잘 되지 않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표 3-5〉 연령별 어업종사가구원 추이

단위: 가구. %

구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증가율 ('07/'05)
계	125,023	122,384	130,589	128,048	122,916	-5.9
50세미만	49,428	45,900	43,207	40,690	36,648	-15.2
50세이상	75,596	76,483	87,382	87,357	86,270	-1.3
어가인구대비 비중	58.9	58.3	59.1	60.5	61.0	

자료: 통계청, 어업조사.

- 종사기간별로는 1~3개월 미만은 2005년 대비 2007년에 4.8% 줄었으나 3개월 이상은 이보다 높은 6.1%가 감소하여 어가경제의 겸업화 현상이 진전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3-6〉 종사기간별 어업종사가구원 추이

단위: 가구. %

구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증가율 ('07/'05)
계	125,023	122,384	130,589	128,048	122,916	-5.9
1-3개월 미만	22,360	20,627	24,119	23,982	22,963	-4.8
3개월이상	102,662	101,757	106,470	104,065	99,953	-6.1

자료: 통계청, 어업조사.

- 한편 2008년에는 경기침제와 어업경영비 상승에 따라 양식어가를 중심으로 어업경영을 중단하는 가구가 늘었기 때문에 어가수는 6만 9천 가구, 어가인구는 18만 7천 명으로 감소한 것으로 추정된다.

## 2) 어가소득

- 어가의 가구당 소득은 2003년에 비해 28.2% 증가하였다. 세부내역별로는 어업소득이 11.5% 늘어난 데 그친 반면, 어업외소득 27.4% 이전소득 238.3%, 비경상소득 29.9% 증가하였다.
- 2003~2007년 동안 어업외소득과 비경상소득의 비중은 거의 일정한 가운데 어업소득 비중은 45%에서 39%로 줄어든 반면 이전소득은 4%에서 9%로 늘어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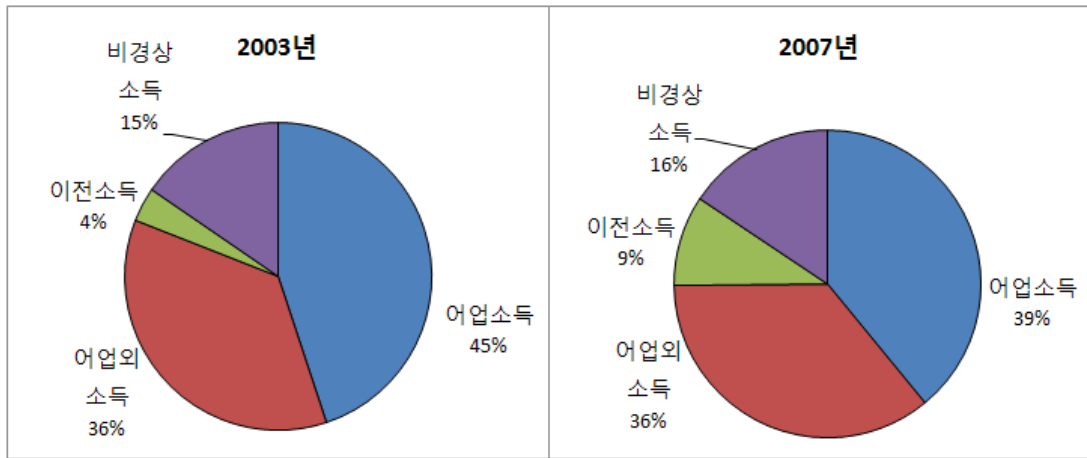
〈표 3-7〉 어가소득 동향

단위 : 천원, %

구 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증가율 (‘07/’03)
어가소득(A=B+C)	23,916	26,159	28,028	30,006	30,668	28.2
경상소득(B)	20,221	22,604	23,594	24,692	25,868	27.9
어업소득(D)	10,741	11,959	11,950	11,603	11,975	11.5
(어업총수입)	(23,114)	(25,114)	(26,576)	(25,910)	(26,535)	(14.8)
(어업경영비)	(12,373)	(13,185)	(14,307)	(14,307)	(14,560)	(17.7)
어업외소득	8,619	9,168	9,399	10,361	10,981	27.4
이전소득	861	1,477	2,245	2,728	2,913	238.3
비경상소득(C)	3,695	3,555	4,434	5,315	4,799	29.9

자료: 통계청, 어가경제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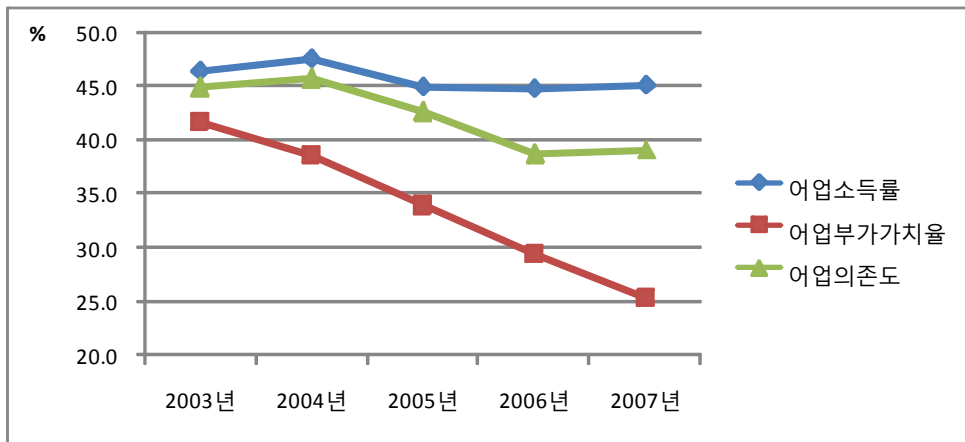
〈그림 3-1〉 어가소득 세부내역의 비중 변화



자료: 통계청, 어가경제조사.

- 어업소득 증가율이 상대적으로 저조한 것은 어업총수입에 비해 어업경영비가 더 많이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 이는 수산물 수입 증가, 양식 생산량 증가 등으로 수산물 가격은 안정세를 보인 반면, 어업 생산에 필요한 연료비, 인건비 등은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 이에 따라 어업총수입에서 어업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인 어업소득률은 2003년 이후 하락 또는 정체 상태에 있다.
  - 이는 수산업의 거시경제지표인 어업부가가치율(=어업생산액÷어업산출액)에서도 확인되는데, 2003년 41.7%였던 어업부가가치율은 2007년 25.4%로 크게 하락하였다.
- 그리고 어업소득이 어가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인 어업의존도도 2003년 44.9%에서 2007년 39.0%로 하락하고 있다.

〈그림 3-2〉 어업소득률 · 어업부가가치율 · 어업의존도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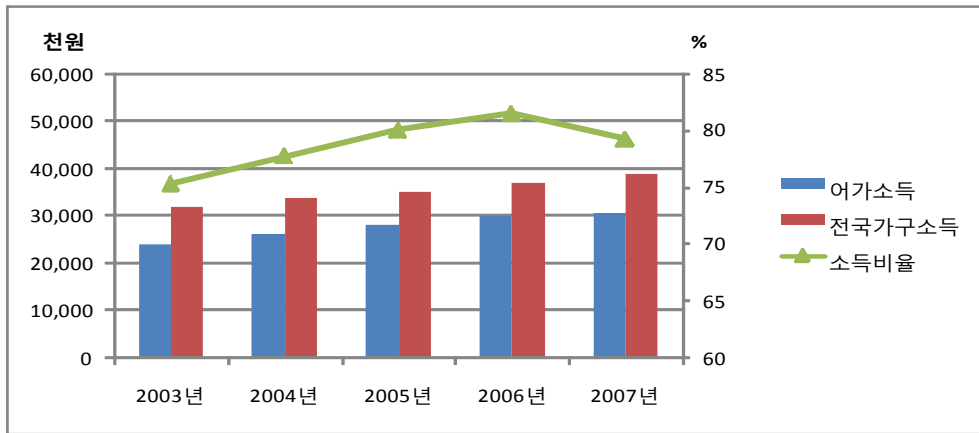


주: 어업소득률=어업소득÷어업총수입×100(%); 어업부가가치율=어업생산액(GDP)÷어업산출액×100(%); 어업의존도=어업소득÷어가소득×100(%).

자료: 통계청, 어가경제조사; 한국은행, 국민계정.

- 어업외소득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김, 멸치 등 수산물 가공수입 등의 영향으로 겸업소득이 11.9% 증가한데 기인한다.
  - 어업외소득은 겸업소득과 사업외소득으로 구성되는데 겸업소득 비중은 2006년에 비해 2.8% 높아지는 등 증가 추세인 반면, 사업외소득의 비중은 줄어들고 있다.
- 이전소득의 증가는 국민·농어민 연금 등의 공적보조금 및 사적보조금이 증가한 데 따른 것이다.
- 2007년 어가소득이 정채되면서 전국가구 대비 소득비율이 79.2%로 하락하여 2006년까지의 상승세가 반전되었다.

〈그림 3-3〉 어가소득 · 전국가구소득의 비교



자료: 통계청, 어가경제조사;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 한편 2008년 어가소득은 3,250만원으로 2007년 대비 6.0%, 어업소득은 1,290만원으로 7.7% 늘어난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경영환경 악화에도 불구하고 한계 어가의 퇴출에 따른 효과로 분석된다.

### 3) 어가지출

- 어가소득의 증가와 함께 어가지출도 계속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소비지출보다 비소비지출의 증가율이 더 높은 특징을 보인다.
- 2007년 어가의 소비지출은 보건의료비가 2003년 대비 41.0% 늘어난 반면 교육비는 16.5% 감소하여 노령화에 따른 가계 소비구조의 변화를 잘 드러내고 있다.
  - 이밖에 교양오락비 35.8%, 식료품비 15.2%가 늘어나 소비지출 증가세를 이끌었다.
- 2007년 어가의 비소비지출은 공적연금 지출이 2003년 대비 23.2% 늘어나고 기타 항목이 29.9% 늘어나 크게 증가하였다.
- 어가의 저축인 어가경제잉여는 2003~2007년 사이에 어가소득이 어가지출보다 더 많이 증가한 데 힘입어 두 배 가까이 늘어났다.
  - 이에 따라 저축률이라 할 수 있는 어가경제잉여율도 상승 추세에 있다.
- 한편 2008년 어가지출은 경기위축에 따른 소비심리 악화로 2007년 수준인 2,300만

원으로 추정된다.

〈표 3-8〉 어가지출 및 어가경제잉여 동향

단위 : 천원, %

구 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증가율 (‘07/’03)
가계지출(A+B)	20,019	21,082	22,895	23,885	22,964	14.7
소비지출(A)	16,250	16,602	17,682	18,156	18,236	12.2
비소비지출(B)	3,770	4,479	5,214	5,729	4,700	24.7
처분가능소득(C)	20,147	21,680	22,815	24,277	25,968	28.9
어가경제잉여(D=C-A)	3,897	5,077	5,133	6,121	7,704	97.7
어가경제잉여율(D/C)	19.3	23.4	22.5	25.2	29.7	

자료: 통계청, 어가경제조사.

#### 4) 어가부채

- 어가부채는 2005년까지 소폭 증가하였으나 그 이후 큰 변화가 없다.
- 2003~2007년 동안 어업용 부채는 변화가 없지만 어업용이외 부채는 34.8% 증가하여 어가부채 증가를 주도하고 있으며, 2007년에 처음으로 어업용이외 부채의 규모가 어업용 부채를 넘어섰다.

〈표 3-9〉 어가부채 동향

단위 : 천원, %

구 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증가율 (‘07/’03)
어가부채(A)	29,836	32,544	34,531	34,422	34,407	15.3
어업용부채 (구성비)	16,696 (56.0)	17,665 (54.3)	18,560 (53.7)	17,275 (50.2)	16,690 (48.5)	0.0
어업용이외부채 (구성비)	13,140 (44.0)	14,880 (45.7)	15,971 (46.3)	17,148 (49.8)	17,716 (51.5)	34.8
당좌자산(B)	32,585	40,159	47,608	53,865	64,341	97.5
단기상환능력(A/B)	91.6	81.0	72.5	63.9	53.5	

자료: 통계청, 어가경제조사.



- 2007년 어가의 ‘단기상환능력’ 평가지표인 부채/당좌자산 비율은 53.5%로 2003년 이후 계속 낮아지고 있어 어가의 부채상환 능력은 나아지고 있는 편이다.
- 한편 2007년 어가부채는 전국가구부채의 87.2% 수준이지만 농가부채 2,995만원보다 많은 수준이다.
- 한편 2007년 현재 경영주 연령별 어가소득은 39세 이하 연령층의 소득이 가장 많고, 다음으로 40대, 50대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는데, 70세 이상은 39세 이하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 어가자산은 39세 이하가 310,342천원으로 가장 많고, 부채도 80,699천원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령이 높을수록 자산, 부채 모두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10〉 경영주 연령별 어가경제 현황('07)

단위 : 천원, %

구 분	평 균	39세 이하	40-49세	50-59세	60-69세	70세 이상
어가소득	30,668	47,621	42,302	31,852	26,984	16,221
가계지출	22,963	33,418	27,057	25,233	20,115	15,918
자 산	226,185	310,342	261,068	226,112	223,854	159,797
부 채	34,407	80,699	49,986	40,286	25,414	9,211
부채/자산	15.2	26.0	19.1	17.8	11.4	5.8

자료: 통계청, 어가경제조사.

- 어업형태별 어가소득과 어가지출, 어가자산과 어가부채는 모든 항목에서 양식어가 가 가장 많고 어선사용 어로어가, 어선비사용 어로어가의 순이었다.

〈표 3-11〉 어업형태별 어가경제 현황('07)

단위 : 천원, %

구 분	전체평균	어 로 어 가			양식어가
		평 균	어선비사용	어선사용	
어가소득	30,668	29,198	24,835	30,957	35,177
가계지출	22,963	21,697	18,612	22,941	26,848
자 산	226,185	213,259	216,701	211,872	265,846
부 채	34,407	29,484	16,186	17,226	49,512
부채/자산	15.2	13.8	7.5	16.4	18.6

자료: 통계청, 어가경제조사.

## 5) 경영의 규모화 및 정보화

- 어선사용규모별로 어로어업 주업 가구수 추이를 보면 2톤 미만은 증가, 2~20톤은 감소, 20톤 이상은 증가하여 어로어업 경영규모가 양극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특히 50톤 이상의 대형 어선을 사용하는 어가 수가 연평균 21.5% 늘어나 경영규모화가 진전되고 있음이 확인된다.
- 이는 양식어업에서도 비슷한데, 어장면적별로 양식어업 주업 가구 수에서 1ha 미만은 증가, 1~3ha는 감소, 3ha이상은 증가로 나타나 경영규모의 양극화가 나타나고 있으며, 10ha 이상의 대형 양식장을 경영하는 어가수가 2003~2007년 동안 39.3% 늘어나 경영규모화의 방증으로 볼 수 있다.
  - 한편 양식품종별로는 어류와 갑각류가 각각 40.8%, 51.2%씩 줄어드는 반면, 패류가 22.7% 늘어나고, 해조류는 거의 정체 상태에 있다.

〈표 3-12〉 어선사용규모별 어로어업 주업 가구수 추이

단위: 톤, %

구 분	2003년	2004년	2006년	2007년	증가율 ('07/'03)
계	37,342	37,748	36,088	34,691	-7.1
2톤 미만	16,669	16,827	19,229	18,889	13.3
2-5톤	11,343	11,109	8,379	7,773	-31.5
5-10톤	6,244	6,641	4,596	4,264	-31.7
10-20톤	1,333	1,281	1,033	913	-31.5
20-50톤	1,229	1,308	1,645	1,712	39.3
50톤 이상	523	583	1,206	1,140	118.0

주: 2005년 어업총조사에서는 어선규모별로 통계가 집계되지 않음.

자료: 통계청, 어업조사.

〈표 3-13〉 어장면적별 · 품종별 양식어업 주업 가구수의 추이

단위: 가구, %

구 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증가율 ('07/'03)
계	21,814	20,696	24,075	23,989	23,352	7.1
어장 면적별	1ha미만	9846	9560	11750	11609	17.9
	1-3ha	5,408	4,644	6,711	4,252	-36.2
	3-10ha	4,766	5,317	4,213	5,313	17.3
	10ha이상	1,794	1,175	1,401	2,657	50.5
품종별	어류	2,285	2,035	2,309	1,430	-40.8
	패류	11,215	11,181	14,097	14,466	22.7
	갑각류	172	68	185	52	-51.2
	해조류	6,958	6,545	6,270	7,153	3.3
	기타	554	536	668	362	-44.4
	종묘생산	630	331	546	525	5.4

자료: 통계청, 어업조사.

- PC보유 어가수가 늘어나 외형적으로는 정보화가 꾸준히 진행되고 있으나 2005년 이후에는 PC활용 어가수가 감소하고 있고, 농가보다 정보화의 수준이 낮음을 알 수 있다(2007년 현재 19.4% < 24.0%).

〈표 3-14〉 어가의 정보화 추이

단위: 가구. %

구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증가율 ('07/'05)
어가수	72,760	72,513	79,942	77,001	73,934	-7.5
PC보유	25,098	27,213	27,529	29,641	28,968	5.2
PC활용	3,304	4,600	6,255	5,187	5,631	-10.0
PC활용 비율	13.2	16.9	22.7	17.5	19.4	

자료: 통계청, 어업조사.

〈표 3-15〉 농가의 정보화 추이

단위: 가구. %

구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증가율 ('07/'05)
농가수	1,264,431	1,240,406	1,272,908	1,245,083	1,231,009	-3.3
PC보유	419,796	433,343	470,379	473,762	495,564	5.4
PC활용	71,611	82,228	135,098	114,728	119,106	-11.8
PC활용 비율	17.1	19.0	28.7	24.2	24.0	

자료: 통계청, 농업조사.

### 3. 2009년 전망과 이슈

#### 1) 전망

- 2009년에 어가수는 전년 대비 소폭 늘어나 7만 2,300가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 외생적 충격과 경영환경 악화로 채산성이 급격히 악화됨에 따라 2008년에 다소 큰 폭으로 감소하였으나 2009년에는 퇴출 어가수보다 유입 어가수가 다소 많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2009년의 어가인구도 전년 대비 소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 2009년에도 어촌의 노령화는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 이는 경기침체가 지속되면서 어업경영 수지 악화가 예상되어 다른 부문에서 신규

인력이 유입되더라도 기존 장년 인력의 노령화를 상쇄할 수 있는 규모의 젊은 인력의 유입은 기대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 현재 어가인구는 농가인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젊기 때문에 이미 노령화가 많이 진행된 농가보다 노령화의 속도가 더 빠를 것으로 예상된다.
- 그리고 지금까지의 추세로 볼 때 어업노동력의 노령화가 어가인구의 노령화보다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 어촌 경제에서 어업의 비중은 당분간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 이는 어업경영여건의 악화에 따라 채산성 회복이 힘들어지고, 젊은 어가원의 어업종사 기피 경향과 다른 소득원의 확대에 이러한 경향은 당분간 지속될 것이기 때문이다.
- 또한 경기침체에 따른 어업수익성 악화, 최근의 유동성 악화에 따른 금리 상승 등으로 인해 2009년 들어 어가부채가 다시 늘어날 것으로 분석된다.
  - 어업에 대한 투자는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위축되어 어업용 부채는 정채 내지는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며, 어업용이외 부채는 어가경제 사정이 악화되면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 경기침체에 따른 산업 구조조정의 움직임이 활발해지면서 어로어업과 양식어업 모두 경영의 규모화가 계속 진전될 것으로 전망된다.
  - 이는 어가수 감소와 함께 나타나는 자연스런 과정으로 이해되는데 산업 차원의 경쟁력 제고에 긍정적인 신호로 풀이된다.

## 2) 이슈

- 어가인구 구성으로 볼 때 당분간은 40~50대가 고령 어업인의 뒤를 잇는 후계자 구실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그 이후는 다음 세대로의 어업 승계가 힘든 상황이다. 따라서 향후 10년 이후를 대비하여 어업의 인적 기반을 유지하는 장기적인 대책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 어촌·어업의 인적 기반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역 수산업의 부가가치를 높여 외부로부터 지속적인 인력이 유입되도록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따라서 유통·식

품 산업과의 연계, 수산업클러스터 유치 등으로 경쟁력을 키우는 대책이 필요하다.

- 현재 자생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어업경영 규모화는 경쟁력 확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수산업 내부의 자연스런 구조조정을 유도하여 규모화가 촉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이 요청된다.
- 어가경제에서 어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축소되고 있으므로 지역특산 수산품을 활용한 고부가가치 사업화 확대, 어촌관광 활성화, 사회적 기업 발굴 등을 통한 다양한 소득원 개발이 시급하다.
- 어업이외 일자리로 농업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등 어가의 소득원이 다양하지 못하고 취업분야가 제한되어 있는 점은 지역 경제 활성화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 참고문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각 연도별.

\_\_\_\_\_, 농업조사, 각 연도별.

\_\_\_\_\_, 어가경제조사, 각 연도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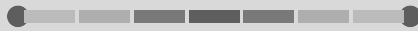
\_\_\_\_\_, 어업조사, 각 연도별.

한국은행, 국민계정, 각 연도별.





## 제2부



# 수산부문별 동향과 전망

제4장 연근해어업의 동향과 전망

제5장 원양산업의 동향과 전망

제6장 수산식품산업의 동향과 전망





## 제 4 장 연근해어업의 동향과 전망

류정곤\* · 조정희\*\* · 김대영\*\*\* · 이정삼\*\*\*

### 목 차

- |                   |                 |
|-------------------|-----------------|
| 1. 서론             | 4) 어업 생산액 및 어가  |
| 2. 2008년 연근해어업 동향 | 5) 주요 근해어업별 경영  |
| 1) 어업 자원          | 3. 2009년 전망과 이슈 |
| 2) 어선             | 1) 2009년 전망     |
| 3) 어업 생산          | 2) 이슈 및 대책      |

### 1. 서론

- 우리나라 연근해어업은 위기상황에 처해 있다는 진단이 일반적이다. 그 논거로는 어업자원감소에 따른 어업생산량 감소로 어업수익이 감소하고 있고, 유가상승 등 비용급증으로 어업경영이 악화되고 있으며, 고비용 다획성 어업구조로 인한 국제경쟁력 저위 등을 들 수 있다.
- 2008년의 경우는 이미 언급된 바와 같이 고유가, 미국발 금융위기, 국내경기 침체 등으로 더욱 더 연근해어업의 여건은 나빠졌다. 다만 후술하는 바와 같이 자연여건이 양호하여 어업생산량이 증가하였고, 고환율로 인한 수출가격 상승으로 커다란 위기를 넘겼다고 할 수 있다.
- 본 연구의 목적은 연근해어업의 2008년 동향을 파악하고 2009년 전망 및 주요 이슈를 발굴하여 업계의 연간사업계획 수립과 정부의 정책수립 및 집행에 도움이 되

\* 연구위원; \*\* 부연구위원; \*\*\* 책임연구원

는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다.

-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자원동향, 어선 및 생산통계자료, 업계의 의견 및 국내외 동향정보를 활용하였다.
- 먼저 어업자원의 동향은 국립수산물학원의 월간 어황정보를 기초로 분석하였다. 분석 대상은 우리나라 연근해어업의 주요 생산어종이면서 대중어인 멸치, 고등어, 갈치, 고등어를 중심으로 동향을 파악하였다.
- 연근해어업 생산을 구성하고 있는 연근해어업의 종류는 크게 연안어업과 근해어업으로 구분하였다. 통계상 연안어업은 먼허어업(정치망어업, 마을어업), 구획허가어업 및 연안허가어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일컫는 연안어업은 연안허가어업에 속한다.
- 근해어업은 근해허가어업으로 본고에서는 대형선망어업, 쌍끌이대형기선저인망어업, 외끌이대형기선저인망어업, 대형트롤어업 및 기선권현망어업 등 5개 어업을 중심으로 동향과 전망을 하고자 한다. 그 이유는 우리나라 연안어업의 경영에 관한 연도별 자료가 없기 때문이다. 국립수산물학원에서 5년마다 연안어업실태조사를 하고 있으나 본 연구는 연도별 분석이기 때문에 활용하기가 곤란하다. 다만 국립수산물학원의 연안어업실태조사 자료를 기초로 향후 5년 단위로 연안어업은 분석할 예정이다.
- 우리나라 어선통계는 1년이 지난 후에야 총계를 알 수 있다. 따라서 2009년 1월 현재로는 2007년 어선통계밖에 알 수가 없다. 그러나 2008년에 약 2,000여 척의 어선 감척이 있었기 때문에 이를 반영하고, 근해어선은 2007년 통계를 그대로 적용하여 2008년 어선세력을 잠정 추정하였다.
- 본 연구는 전술한 우리나라 수산업 전체의 전망을 기초로 연근해어업의 특성을 반영하여 분석하였다. 금년의 경우는 연근해어업에 대한 동향과 전망을 처음으로 다루기 때문에 분석대상, 분석기법 및 자료 활용에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2010년에는 금년도 수산전망대회를 거울삼아 분석대상을 확대하고, 공식통계자료 이외의 활용가능한 자료를 충분히 수집함과 아울러 업계의 동향을 연중 조사하여 내실있는 동향분석, 보다 정확한 전망 및 정책대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 2. 2008년 연근해어업 동향

### 1) 어업 자원

- 연근해어업자원은 해황과 어황에 의하여 예측할 수 있다. 본 동향은 국립수산물과학원의 월간 어황정보를 기초로 분석하였다.
- 2008년 주요 어종별 어황을 보면 고등어와 갈치는 평년대비 큰 변화가 없었고, 멸치는 순조로웠던 반면에 오징어는 다소 부진한 상황을 보였다(<표 4-1> 참조). 결론적으로 2008년 한 해의 자원동향은 청신호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표 4-1〉 2008년 연근해 주요 어종의 어황

구 분	고등어	갈치	오징어	멸치
1월	▽	▽	○	▲
2월	▽	○	▽	▽
3월	▽	▲	○	▲
4월	▽	▲	▽	▲
5월	○	▲	▽	○
6월	▽	○	▲	▽
7월	▽	▲	▲	▲
8월	○	○	▽	▲
9월	▲	▽	▽	▲
10월	▲	▽	▽	▲
11월	○	▽	○	▲
12월	▲	○	▽	▲
전체	○	○	▽	▲

주 : 1) ▲ 평년대비 순조, ○ 평년수준, ▽ 평년대비 저조

2) 본 자료는 국립수산물과학원의 월간 어황정보를 기초로 작성하였음.

- 본고에서는 불과 몇 종을 대상으로 동향을 설명하고 있으나, 이 어종들은 후술하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 연근해어업 생산량의 대부분을 점하고 있다. 또한 2008년의 어업생산 실적을 보면 전반적으로 양호한 상황을 보이고 있다.
- 전술한 주요 어종을 어획하는 어업을 중심으로 어업별 자원동향을 보면 <표 4-2>와 같이 오징어를 주로 어획하는 대형트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양호한 상태를 보이고 있다.
- 고등어를 주로 어획하는 대형선망은 어종 동향은 평년수준이었으나 어업 동향은 양

호한 편이었고, 갈치를 주로 어획하는 대형기저와 멸치를 주어획어종으로 하는 기선권현망은 자원동향과 어업동향이 같은 추세를 보였다.

〈표 4-2〉 2008년 주요 근해어업의 어황

구 분	대형선망	대형기저	대형트롤	기선권현망
1월	○ (▽)	○ (▽)	▽(○ )	○ (▲)
2월	▽(▽)	○ (○)	▽(▽)	○ (▽)
3월	○ (▽)	▲(▲)	○ (○)	○ (▲)
4월	○ (▽)	▲(▲)	▽(▽)	○ (▲)
5월	휴어(○)	▲(▲)	▽(▽)	○ (○)
6월	○ (▽)	○ (○)	○ (▲)	▽(▽)
7월	▲(▽)	○ (▲)	○ (▲)	▲(▲)
8월	○ (○)	▽(○)	▽(▽)	▲(▲)
9월	▲(▲)	▽(▽)	▽(▽)	▲(▲)
10월	▲(▲)	▽(▽)	○ (▽)	▲(▲)
11월	○ (▲)	○ (▽)	▲(○)	○ (▲)
12월	▲(▲)	▽(○)	▲(▽)	▲(▲)
전체	▲(○)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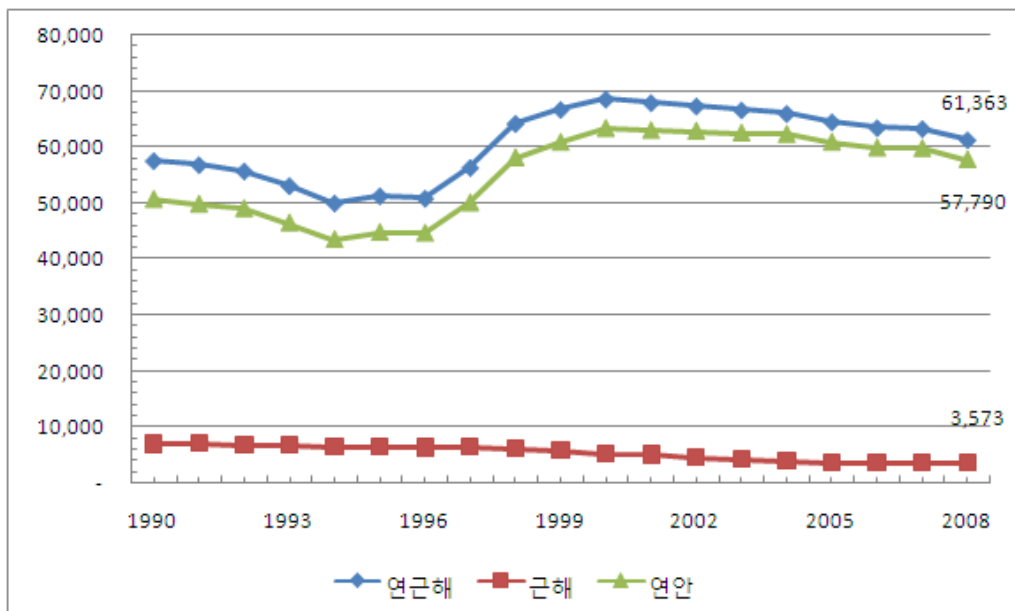
주 : ▲ 평년대비 순조, ○ 평년수준, ▽ 평년대비 저조, ( )는 <표 4-1>의 어종별 어황임.

- 이상과 같이 2008년 해는 어종별 자원동향과 어업별 동향 모두 양호한 상황이었는 데, 그 이유로는 자연적 요인과 인위적인 요인이 작용하였다고 할 수 있다.
- 자연적인 요인으로서는 태풍, 홍수, 장마 등의 자연재해가 없었다는 것과 예년에 비하여 기상이 대단히 양호하였다는 것을 들 수 있다. 특히 부어류 자원 상황이 좋아진 것은 지구온난화로 인한 수온상승이 원인이라는 지적이 있다. 물론 장기적으로 볼 때 수온상승은 반드시 유리한 것만은 아니지만 단기적으로 우리나라 연근해어업 생산에 기여한 것은 사실이다.
- 인위적인 요인으로서는 2000년대 들어서 정부의 강력히 추진한 어선감척사업, 방류를 비롯한 수산자원조성사업의 확대, 자율관리어업, 자원회복 및 TAC제도 확대 실시 등을 들 수 있다. 즉 이상과 같은 자원관리 노력의 결과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정책들로 인하여 자원이 회복되었다고 단정하기에는 무리가 없는 것도 아니다. 하지만 지속적인 자원관리 정책의 시행과 어업인들의 자원에 대한 인식전환이 자원회복에 기여하였을 것이라는 가설을 부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 2) 어선

- 어선은 어업생산 요소중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우리나라 연근해어업은 어선의 규모에 따라 구분하는데, 8톤 이상은 근해어업이고 그 미만은 연안어업에 속한다.
- 전술한 바와 같이 어선통계는 2007년말까지 밖에 없다. 그러나 2008년에 약 2,000척의 연안어선 감척사업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를 감안하고, 근해어업은 2007년과 동일하다고 가정하여 2008년을 어선실태를 잠정 추정하였다.
- <그림 4-1>은 1990년부터 2008년까지의 어선추이를 보여주고 있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근해어선은 1990년부터 계속 감소하고 있다. 그러나 연안어선은 1997년까지 감소하다가 1998년부터 2001년까지 증가하다가 그 이후 감소추세이다. 특히 2004년부터 2008년까지 5년 동안 연안어선 6,300여 척을 감척한다는 정부정책에 의하여 2003년 62,532척이던 연안어선은 2008년 현재 약 57,800여 척으로 감소하였다.

〈그림 4-1〉 연근해어선 추이(1990-2008년)



자료 : 농림수산식품부, 수산종합포털시스템, <http://www.fips.go.kr>.

- 따라서 연근해 전체 어선세력은 2003년 66,698척에서 2008년 현재는 약 61,363척으로 감소하였다(<표 4-3> 참조).

〈표 4-3〉 연근해 어선 현황

(단위 : 척, 톤, 천마력)

구분	연근해어업			근해어업			연안어업		
	척수	톤수	마력수	척수	톤수	마력수	척수	톤수	마력수
2003	66,698	345,066	13,570	4,166	185,773	2,421	62,532	159,293	11,149
2004	66,063	330,203	13,942	3,773	169,724	2,221	62,290	160,479	11,721
2005	64,579	322,811	10,089	3,687	164,037	1,763	60,892	158,774	8,326
2006	63,518	312,580	11,699	3,629	162,831	1,880	59,889	149,749	9,819
2007	63,363	309,003	11,154	3,573	162,264	1,975	59,790	146,739	9,179
2008	61,363	304,095	10,847	3,573	162,264	1,975	57,790	141,831	8,872

자료 : 상계자료

주 : 2008년 연안어선은 2,000척 감척을 고려하였고, 근해어선은 2007년을 그대로 적용하여 잠정 추정하였다.

- 공식통계가 존재하는 2007년을 기준으로 연근해 어선실태를 <표 4-4>에서 보면, 총 어선척수는 약 86천 척, 66만 톤에 1,400만 마력이다. 이중 연근해어업은 63천여 척으로 약 74%를 점하고 있고, 톤수는 31만 톤으로 47%, 마력수는 1,156만 마력으로 81%에 달한다(<표 4-4> 참조).

〈표 4-4〉 2007년 연근해 어선 현황

(단위 : 척, 톤, 천마력)

어업종류	척수	톤수	마력수
합 계	85,627	663,869	14,352,851
연근해어업	63,363	309,003	11,557,007
○ 연안어업	59,790	146,739	9,581,158
- 먼허어업	745	4,086	276,668
- 구획어업	1,220	2,228	124,972
- 연안어업	57,825	140,424	9,179,518
○ 근해어업	3,573	162,264	1,975,849
- 대형선망어업	191	28,004	236,838
- 쌍끌이대형기선저인망어업	88	11,132	101,392
- 외끌이대형기선저인망어업	40	3,214	21,309
- 대형트롤어업	60	8,114	81,848
- 기선권현망어업	448	17,847	187,538

자료 : 상계자료



- 연안어업 어선수는 총 약 6만 척으로 연근해어업 전체의 94% 이상을 점하고 있으나 그 규모는 아주 작아 톤수면에서는 47%에 불과하다. 근해어업 어선수는 약 3,500여 척으로 연근해어업의 6%에 불과하지만 톤수는 53%로 규모가 연안어선에 비하여 크다.

### 3) 어업 생산

#### (1) 연근해어업 전체

- 2006년부터 2008년까지의 연근해어업 전체생산량 추이를 보면,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표 4-5> 참조). 근해가 연안에 비하여 증가세가 크고, 계절적으로는 사계절 거의 동일하게 증가추세이다.

〈표 4-5〉 연근해어업 월별 생산량(2006-2008년)

(단위 : M/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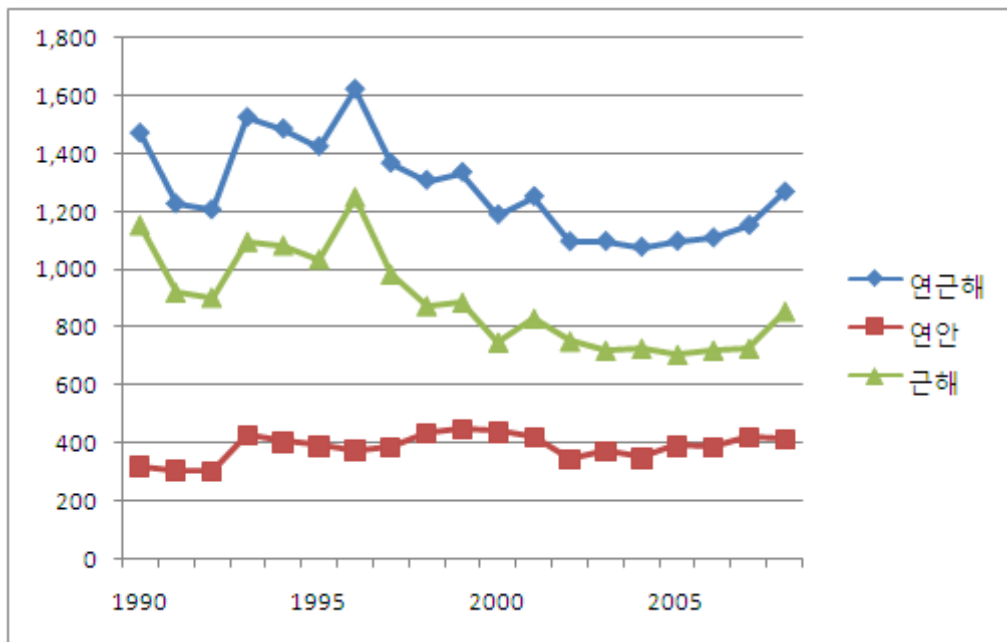
구분	연근해어업			연안어업			근해어업		
연도 월	2006	2007	2008	2006	2007	2008	2006	2007	2008
합계	1,108,815	1,152,299	1,268,337	360,695	395,788	411,655	748,120	756,511	856,682
1	108,311	114,612	116,676	25,320	28,103	27,860	82,991	86,509	88,816
2	69,266	71,578	58,830	18,293	22,877	20,862	50,973	48,701	37,968
3	69,296	69,944	82,578	19,888	23,462	27,730	49,408	46,482	54,848
4	45,604	65,705	59,709	22,617	30,986	24,041	22,987	34,719	35,668
5	59,714	59,777	63,840	34,345	30,305	34,038	25,369	29,472	29,802
6	67,750	66,570	64,907	38,727	35,742	34,513	29,023	30,828	30,394
7	71,625	71,332	89,380	29,968	34,013	38,494	41,657	37,319	50,886
8	95,152	80,521	83,048	28,274	32,755	35,664	66,878	47,766	47,384
9	117,636	87,265	120,415	33,737	30,132	42,965	83,899	57,133	77,450
10	144,538	163,949	201,145	40,339	51,642	47,480	104,199	112,307	153,665
11	120,009	147,887	174,650	34,633	38,955	41,192	85,376	108,932	133,458
12	139,914	153,159	153,159	34,554	36,816	36,816	105,360	116,343	116,343

주 : 2008년 12월 생산량은 2007년 12월분을 적용한 것임.

자료 : 통계청, 어업생산통계시스템, <http://fs.fips.go.kr/main.jsp>.

- 1990년대 중반 160만 여톤 이었던 연근해어업 생산량은 계속 감소하여 2000년대 초반 110만톤으로 격감하였다. 그러나 전술한 바와 같은 사유로 2006년부터 어획생산량이 회복추세이다(<그림 4-2> 참조). 이러한 연근해어업의 생산량 변동은 주로 근해어업에 의하여 좌우되었다.
- 2008년 월별 생산동향을 보면 1월, 3월, 5월, 7월, 9~11월은 전년대비 증가추세이고, 나머지는 약간 감소 내지는 보합추세이다. 연근해어업의 생산량 변동은 대부분 근해어업의 생산량 변동에 의하여 이루어졌으나, 9월은 연안어업의 생산증가 요인이 크게 작용하였다.

〈그림 4-2〉 연근해어업 생산량(1990-2008년)



자료 : 상계자료.

## (2) 주요 어종별

- 우리나라 연근해에서 어획되는 수산물은 약 200여 종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공식 어업생산통계에 어종명이 등재돼 있는 수산물은 총 112개이다. 이중 어류는 64종, 갑각류는 13종, 연체동물(패류와 오징어 등 기타 연체동물) 29종, 기타수산

동물 5종 그리고 해조류가 12종이다(<표 4-6> 참조).

〈표 4-6〉 연근해어업 어획 어종 수(2008년 기준)

구 분	합 계	어 류	갑각류	연체동물	기 타 수산동물	해조류
연근해어종	112	64	13	29	5	12

- 우리나라 연근해에서 생산되는 어종중 2008년 기준 10대 어종으로는 멸치류, 오징어류, 고등어류, 갈치, 청어, 삼치류, 참조기, 붉은대게, 굴류 및 전갱이이다. 전갱이는 매년 10대 어종으로 등록되지는 않았는데 <표 4-7>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가자미류 및 붕장어와 함께 10대 어종으로 될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2008년의 경우 전갱이가 10대 어종으로 등록된 것은 수온이 예년에 비하여 높아 서식환경이 양호하였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표 4-7〉 연근해 주요 어종별 생산량 순위(2006-2008년)

(단위 : M/T)

연도	2006		2007		2008.11현재	
순위	어종명	어획량	어종명	어획량	어종명	어획량
1	멸치류	265,346	멸치류	221,110	멸치류	237,363
2	오징어류	197,084	오징어류	174,479	오징어류	155,403
3	고등어류	101,427	고등어류	143,776	고등어류	152,448
4	갈치	63,739	갈치	66,029	갈치	66,315
5	삼치류	36,484	삼치류	42,199	청어	37,746
6	굴류	31,016	참조기	34,221	삼치류	30,640
7	붉은대게	23,890	굴류	29,316	참조기	27,413
8	전갱이류	23,227	청어	28,280	붉은대게	25,544
9	참조기	21,428	붉은대게	25,388	굴류	21,539
10	가자미류	19,879	붕장어	19,399	전갱이류	21,498

주 : <http://fs.fips.go.kr/main.jsp> 어종별 생산량 통계에서 작성  
자료 : 상계자료.

- 10대 어종의 연근해어업 생산량 비중을 보면 <표 4-8>과 같이 약 70%에 달하고, 5대 어종은 약 58%이다. 따라서 우리나라 연근해에서 어획되는 수산물의 종류는 다

양하지만 사실상 상업적으로 가치가 있는 어종은 약 20 어종 내외에 불과함을 알 수 있다.

〈표 4-8〉 연근해 10대 어종의 생산비중(2008년 기준)

(단위 : M/T)

구 분		생산량	누적생산량	구성비	
연근해		1,115,662		생산량	누적생산량
1	멸치	237,363	237,363	21%	21%
2	오징어	155,403	392,766	14%	35%
3	고등어	152,448	545,214	14%	49%
4	갈치	66,315	611,529	6%	55%
5	청어	37,746	649,275	3%	58%
6	삼치	30,640	679,915	3%	61%
7	참조기	27,413	707,328	2%	63%
8	붉은대게	25,244	732,572	2%	66%
9	굴	21,539	754,111	2%	68%
10	전갱이	21,498	775,609	2%	70%

주 : <http://fs.fips.go.kr/main.jsp> 어종별 생산량 통계에서 작성

자료 : 상계자료.

- 연근해에서 가장 많이 어획되는 4대 어종의 생산액을 보면 <표 4-8>와 같이 1,700억원에서 약 3,000억원에 이르고 있다. 이들 대량생산 어종의 어구어법도 대부분 20개가 넘고 있어 우리나라 연근해 전역에 분포하며, 이들을 어획하는 어구나 어법 또한 다양함을 알 수 있다(<부표 4-1>~<부표 4-4> 참조).

〈표 4-9〉 연근해 4대 어종의 어구어법과 생산액(2008년 기준)

(단위 : M/T, 천원)

구 분		생산량	생산금액	어구어법 수		
				합계	연안	근해
1	멸치	237,363	264,922,797	24	13	11
2	오징어	155,403	240,623,972	26	12	14
3	고등어	152,448	174,602,492	25	11	14
4	갈치	66,315	295,671,523	26	11	15

자료 : 상계자료.

### (3) 주요 근해어업별 생산량

- 어업별 생산량 동향은 후술하는 경영동향 및 전망과 연계하기 위하여 금년도에는 근해어업중 주요 어업을 대상으로 하였다. 그 대상어업으로는 대형선망어업, 근해트롤어업(대형트롤과 동해구트룰), 대형기선저인망어업(외끌이대형기선저인망과 쌍끌이대형기선저인망) 그리고 기선권현망어업 등 4개 어업이다.
- 이들 4개 어업의 월별 생산동향을 2006년부터 2008년까지 3년간 추세를 <표 4-10>를 통해 보기로 한다. 대형선망어업은 9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가 주 어기이고, 예년에 비하여 7월과 중어기인 9~11월 사이에 어황이 좋은 반면 2월과 4월은 예년에 비하여 어황이 나빴다. 근해트롤어업은 봄과 여름을 제외한 기간이 주어기이고, 1월 10-11월은 예년에 비하여 어황이 좋은 반면 2월은 나빴다.

〈표 4-10〉 근해어업 주요 어업별 월별 생산량(2006-2008년)

(단위 : M/T)

구분	대형선망			근해트롤			대형기선저인망			기선권현망		
연도 월	2006	2007	2008	2006	2007	2008	2006	2007	2008	2006	2007	2008
합계	146,839	194,093	225,681	108,386	99,009	105,935	95,971	76,290	64,374	142,618	108,934	151,025
1	21,115	18,932	19,046	13,879	14,675	<b>17,931</b>	12,042	11,674	9,217	17,661	16,393	<b>19,095</b>
2	6,573	9,885	6,167	3,723	3,774	2,232	9,036	9,107	8,313	17,030	11,363	5,548
3	9,433	12,702	11,331	1,004	574	588	7,781	7,007	7,025	15,501	9,357	<b>16,178</b>
4	3,721	11,466	6,341	80	308	243	4,997	4,688	4,247	2,058	1,085	2,751
5	4,199	722	1,247	71	372	153	3,823	3,889	2,464	228	328	<b>1,291</b>
6	5,976	6,154	6,657	86	77	115	1,734	1,321	816	319	451	435
7	2,853	6,273	<b>10,047</b>	211	487	56	3,565	1,906	1,083	18,719	9,938	<b>18,440</b>
8	7,398	10,241	11,070	9,231	5,019	230	6,798	4,564	1,713	25,541	12,600	<b>19,356</b>
9	15,401	15,158	<b>23,072</b>	14,749	5,677	5,536	9,637	4,412	3,941	13,467	8,854	<b>14,704</b>
10	22,084	24,148	<b>43,463</b>	26,644	28,541	<b>36,150</b>	11,368	8,610	7,094	10,522	14,436	<b>21,628</b>
11	21,571	44,641	<b>53,469</b>	17,502	17,221	<b>20,417</b>	12,060	9,358	8,707	7,803	6,780	<b>14,250</b>
12	26,515	33,771	33,771	21,206	22,284	22,284	13,130	9,754	9,754	13,769	17,349	17,349

주 : 2008년 12월 생산량은 2007년 12월분을 적용한 것임.

자료 : 상계자료.

- 대형기선저인망어업은 6월, 8~9월과 11월이 예년보다 어황이 나빴고 다른 달에는 보합세이었다. 따라서 전반적으로 2008년의 어황이 좋지 못했다. 반면에 기선권현망어업은 2월을 제외한 1월, 3월, 5월 및 7~11월 동안 어황이 예년보다 좋아서 전반적으로 2008년 어황이 아주 좋았다.

#### 4) 어업 생산액 및 어가

##### (1) 생산액

- 생산액 기준 연근해어업의 주요 10대 어종은 생산량과는 다소 차이를 보였다. 즉 <표 4-11>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8년 기준으로 볼 때 낙지, 붕장어, 문어, 참조기가 10대 어종으로 편입되었다.
- 지난 3년간 생산액 기준 10대 어종은 동일하였고, 순위만 다소 변경이 있었다. 다만 2008년의 경우는 12월 통계가 기록되어 있지 않아서 정확하지는 않으나 거의 유사한 경향을 보일 것으로 추정된다.

〈표 4-11〉 연근해 주요 어종별 생산액 순위(2006~2008년)

(단위 : 천원)

연도	2006		2007		2008.11 현재	
순위	어종명	생산액	어종명	생산액	어종명	생산액
1	오징어류	348,618,363	오징어류	263,462,618	갈치	295,671,523
2	멸치류	274,886,140	멸치류	233,260,385	멸치류	264,922,797
3	갈치	198,611,418	갈치	228,329,815	오징어류	240,623,972
4	고등어류	147,817,335	고등어류	179,313,628	꽃게	185,294,818
5	가자미류	142,891,768	참조기	148,377,203	고등어류	174,602,492
6	낙지	120,150,923	꽃게	141,175,702	낙지	127,955,870
7	꽃게	92,141,605	낙지	132,481,233	가자미류	120,471,743
8	참조기	91,509,922	붕장어	108,691,993	붕장어	116,523,034
9	붕장어	88,125,290	문어	97,704,078	참조기	94,153,422
10	문어	73,101,393	삼치류	55,065,309	문어	85,437,582

자료 : 상계자료.

- 월별 생산액을 보면 2008년은 2006년과 2007년에 비하여 근해어업을 중심으로 1, 2월을 제외한 3-11월 사이에 좋은 상황을 보였다. 물론 연안어업도 5월, 7-9월 사이에 예년에 비하여 상황이 좋았다. 다만 연안어업의 경우 1-2월, 4월 및 10월에는 상황이 나빠서 전반적으로 근해어업에 비하여 좋지 못했다(<표 4-12> 참조).

〈표 4-12〉 연근해어업 월별 생산액(2006-2008년)

(단위 : 백만원)

구분	연근해어업전체			연안어업			근해어업		
연도 월	2006	2007	2008	2006	2007	2008	2006	2007	2008
합계	2,751,251	2,939,109	3,186,731	1,373,275	1,546,745	1,531,592	1,377,976	1,392,365	1,655,139
1	233,415	253,063	247,981	87,429	103,055	95,178	145,986	150,008	152,803
2	143,693	176,239	153,611	55,485	88,032	66,261	88,208	88,207	87,350
3	167,768	187,685	214,340	79,824	103,710	100,207	87,944	83,975	114,134
4	163,947	219,211	221,789	101,456	133,650	123,463	62,491	85,561	98,326
5	211,698	208,009	252,666	139,388	140,850	157,754	72,310	67,159	94,912
6	212,393	205,966	232,003	144,874	140,874	145,042	67,518	65,092	86,961
7	165,739	193,994	233,777	98,629	119,697	123,940	67,109	74,297	109,837
8	205,626	208,829	229,376	103,820	118,225	125,840	101,806	90,605	103,536
9	316,996	254,733	317,994	151,227	135,223	159,990	165,769	119,511	158,004
10	336,566	377,644	409,191	155,494	190,541	167,307	181,071	187,103	241,883
11	289,693	342,487	362,758	130,892	150,898	144,620	158,801	191,590	218,137
12	303,718	311,246	311,246	124,757	121,989	121,989	178,961	189,256	189,256

주 : 2008년 12월 생산량은 2007년 12월분을 적용한 것임.

자료 : 상계자료.

- 근해어업 주요 어업별 생산액을 보면 대형선망의 경우 3월을 제외한 6~11월중에는 전년보다 월등한 생산액 증가를 보였고 나머지 달에는 보합세였다. 따라서 2007년 약 2,222억 원에서 2008년에는 약 2,600억원으로 증가하였다.
- 근해트롤은 10월과 11월을 제외하고는 전년대비 보합 내지는 감소추세를 보였다. 따라서 2007년 총 생산액 약 1,040억 원에 비해서는 약간 증가한 약 1,140억 원대이지만 2006년에 1,460억 원대에 비해서는 상당히 감소한 추세이다. 그러나 근해트롤 중 대형트롤어업의 경우 주어획 어종인 오징어가 사매매되고 있어 정확한 통계라고 하기에는 곤란하다.

- 대형기저는 예년에 비하여 모두 좋지 않은 상황인 반면, 기선권현망은 멸치자원 상황이 좋아져서 대부분의 달에서 생산액이 예년에 비하여 양호한 상황을 나타내었다(<표 4-13> 참조).

〈표 4-13〉 근해어업 주요 어업별 생산액(2006-2008년)

(단위 : 백만원)

구 분	대형선망			트롤어업			대형기선저인망			기선권현망		
	2006	2007	2008	2006	2007	2008	2006	2007	2008	2006	2007	2008
합계	186,256	222,200	259,496	143,329	103,993	114,084	137,856	131,916	135,847	131,449	113,177	162,918
1	19,804	24,780	24,255	25,825	18,826	17,924	16,013	15,589	18,652	16,064	11,582	<b>15,968</b>
2	7,244	12,866	8,345	4,706	5,159	3,062	11,423	10,189	11,916	12,506	6,148	6,073
3	12,527	15,268	<b>16,972</b>	1,344	1,186	1,132	10,910	9,465	<b>12,750</b>	10,595	5,159	<b>10,782</b>
4	4,581	15,450	11,553	304	629	783	9,393	9,370	10,623	1,324	715	1,614
5	4,646	1,142	4,123	288	810	507	6,781	6,621	6,288	255	273	1,268
6	9,794	11,999	<b>14,826</b>	403	247	375	3,060	2,638	2,649	941	829	829
7	4,622	10,625	<b>19,524</b>	453	736	214	5,093	3,986	3,153	16,592	12,578	<b>24,952</b>
8	11,223	12,082	<b>17,464</b>	11,374	5,455	500	9,001	7,018	4,474	15,394	13,764	<b>21,803</b>
9	30,580	17,605	<b>22,961</b>	17,650	6,266	6,110	12,872	9,319	9,379	18,904	11,880	<b>19,995</b>
10	25,269	22,194	<b>41,097</b>	32,527	23,715	<b>36,593</b>	15,181	17,035	16,392	21,078	22,372	<b>24,117</b>
11	25,311	43,225	<b>43,411</b>	22,277	18,144	<b>24,065</b>	17,881	20,849	19,734	10,044	9,056	<b>16,694</b>
12	30,657	34,966	34,965	26,184	22,819	22,819	20,248	19,838	19,838	7,753	18,822	18,822

주 : 2008년 12월은 2007년 12월분 적용함

자료 : 상계자료.

## (2) 어가

- 2008년 어가는 연근해어업 전체를 볼 때는 전반기에는 예년에 비하여 다소 높았으나 후반기에 들어서면서 어가가 예년보다 떨어진 양상을 보였다(<표 4-14> 참조). 연안과 근해를 비교해 보면, 근해는 연근해 전체와 비슷한 양상을 보인 반면, 연안의 경우는 4월과 5월을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예년에 비하여 어가가 좋지 못했다.
- 근해어업 주요 어업의 경우는 <표 4-15>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형기저를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예년에 비하여 어가는 나뻤다.



〈표 4-14〉 연근해어업 월별 어가(2006-2008년)

(단위 : 천원/M/T)

구분	연근해어업전체			연안어업			근해어업		
연도 월	2006	2007	2008	2006	2007	2008	2006	2007	2008
합계	2,481	2,551	2,513	3,807	3,908	3,721	1,842	1,841	<b>1,932</b>
1	2,155	2,208	2,125	3,453	3,667	3,416	1,759	1,734	1,720
2	2,075	2,462	<b>2,611</b>	3,033	3,848	3,176	1,730	1,811	<b>2,301</b>
3	2,421	2,683	2,596	4,014	4,420	3,614	1,780	1,807	2,081
4	3,595	3,336	<b>3,714</b>	4,486	4,313	<b>5,136</b>	2,719	2,464	<b>2,757</b>
5	3,545	3,480	<b>3,958</b>	4,058	4,648	4,635	2,850	2,279	<b>3,185</b>
6	3,135	3,094	<b>3,574</b>	3,741	3,941	<b>4,203</b>	2,326	2,111	<b>2,861</b>
7	2,314	2,720	2,616	3,291	3,519	3,220	1,611	1,991	<b>2,158</b>
8	2,161	2,593	<b>2,762</b>	3,672	3,609	3,528	1,522	1,897	<b>2,185</b>
9	2,695	2,919	2,641	4,483	4,488	3,724	1,976	2,092	2,040
10	2,329	2,303	2,034	3,855	3,690	3,524	1,738	1,666	1,574
11	2,414	2,316	2,077	3,779	3,874	3,511	1,860	1,759	1,635
12	2,171	2,032	2,032	3,610	3,313	3,313	1,699	1,627	1,627

자료 : 상계자료.

〈표 4-15〉 근해어업 주요 어업별 월별 어가(2006-2008년)

(단위 : 천원/M/T)

구분	대형선망			트롤어업			대형기선저인망			기선권현망		
연도 월	2006	2007	2008	2006	2007	2008	2006	2007	2008	2006	2007	2008
합계	1,268	1,145	1,150	1,322	1,050	1,077	1,436	1,729	<b>2,110</b>	922	1,039	1,079
1	938	1,309	1,273	1,861	1,283	1,000	1,330	1,335	2,024	910	707	836
2	1,102	1,302	1,353	1,264	1,367	1,372	1,264	1,119	1,433	734	541	1,095
3	1,328	1,202	1,498	1,339	2,067	1,925	1,402	1,351	1,815	683	551	666
4	1,231	1,347	1,822	3,805	2,042	3,221	1,880	1,999	2,501	643	659	587
5	1,106	1,582	3,306	4,051	2,179	3,315	1,774	1,703	2,552	1,118	833	982
6	1,639	1,950	2,227	4,681	3,211	3,263	1,765	1,997	3,246	2,949	1,838	1,907
7	1,620	1,694	1,943	2,147	1,511	3,815	1,429	2,091	2,911	886	1,266	1,353
8	1,517	1,180	1,578	1,232	1,087	2,172	1,324	1,538	2,612	603	1,092	1,126
9	1,986	1,161	995	1,197	1,104	1,104	1,336	2,112	2,380	1,404	1,342	1,360
10	1,144	919	946	1,221	831	1,012	1,335	1,979	2,311	2,003	1,550	1,115
11	1,173	968	812	1,273	1,054	1,179	1,483	2,228	2,266	1,287	1,336	1,171
12	1,156	1,035	1,035	1,235	1,024	1,024	1,542	2,034	2,034	563	1,085	1,085

자료 : 상계자료.

## 5) 주요 근해어업별 경영

### (1) 생산동향

- 대형선망어업은 2008년 현재 허가정수는 29건이고 실제조업 통수는 25통인데, 어종별 월별 동향을 보면 갈치와 방어만이 예년에 비하여 다소 증가하였고 나머지 어종은 보합 내지는 저조한 상태이었다(<부표 4-5> 참조).
- 대형트롤어업은 허가정수 37건이고 실제조업 척수는 부산 54척, 경남 4~5척이며, 2008년에 20여 척이 감척을 신청하였다. 생산동향을 보면 모든 어종의 생산이 저조하였다(<부표 4-6> 참조).
- 쌍끌이대형기저는 허가정수가 38건이고 2007년에는 38통이 조업한 반면 2008년에는 폐업 및 조업중단이 8-9통으로 실제 조업통수는 약 28통이다. 생산동향은 모든 어종이 예년에 비하여 저조하였다(<부표 4-7> 참조).
- 외끌이대형기저는 허가정수가 34건이고 2008년 현재 부산 21척, 통영 3척, 여수 1척이다. 생산동향을 보면 예년과 보합세를 유지하면서 가자미, 눈볼대, 아귀의 경우는 예년보다 호조세를 보였다(<부표 4-8> 참조)
- 기선권현망어업은 허가정수 54건이고 2008년 66통 모두 조업하고 있으며 여기는 7월 1일에서 익년 3월 말일까지이다. 어황을 보면 멸치와 청어는 호조인 반면 나머지 어종은 어황이 좋지 못했다. 그러나 멸치자원이 호황을 보이면서 예년보다는 못하지만 2007년에 비해서는 좋은 어황을 보였다(<부표 4-9> 참조).

### (2) 어업별 수익성

#### 가) 대형선망어업

- 대형선망어업의 경영상황을 보면 대형선망어업 전체 2007년 대비 생산량 및 생산액은 약 20% 증가하였고, 통당 생산량 및 생산액은 약 40%가 증가하였다. 이러한 통당 어업생산고 증가는 선단의 축소에 기인하였다고 볼 수 있다. 즉 2007년 27개 선단이 2008년에는 23개 선단으로 축소하였다.

- 대형선망어업의 면세유 사용 상황을 보면 D/M 당 평균가격이 2007년에는 100,606 원이었으나 2008년에는 169,905원으로 약 70% 상승하여 경영압박의 큰 원인으로 작용하였다고 할 수 있다. 통상 업계에서는 통당 손익분기점을 110억 원(감가상각 포함)대로 보고 있다.
- 2008년 어업비용 구조를 업계의 의견청취 결과로 정리하면, 빙대 및 유류비가 28%, 인건비 26%, 판매비 12%, 선박수리 11%, 보험료 4%, 감가상각 4%, 일반관리비 4%, 선용품 3% 등으로 파악되었다. 그러나 아직까지 2008년 경영조사보고서가 출간되지 않아 구체적인 경영상황을 알 수가 없다.

〈표 4-16〉 대형선망어업 수익성

(단위 : 천원)

구 분			2005	2006	2007	2005	2006	2007
어 업 수 입			8,665,966		8,375,296	8,911,944		어업비용 구성비
어업 비용	출어비	어 구 비	190,006	259,640	243,074	2.3%	3.2%	2.9%
		연 료 비	1,924,523	2,010,495	2,023,439	23.7%	24.6%	24.2%
		용 기 대	271,680	282,262	318,798	3.3%	3.5%	3.8%
		얼음·소금대	352,426	315,262	318,201	4.3%	3.9%	3.8%
		소 모 품 비	228,808	178,440	143,440	2.8%	2.2%	1.7%
		주 부 식 비	131,575	125,774	136,365	1.6%	1.5%	1.6%
		후 생 비	185,163	203,665	253,938	2.3%	2.5%	3.0%
		수 리 비	989,527	810,390	733,813	12.2%	9.9%	8.8%
		소 계	4,273,708	4,185,928	4,171,068	52.6%	51.2%	49.8%
	임금 및 관리비	임 금	2,164,697	2,289,680	2,372,257	26.7%	28.0%	28.3%
		사 무 비	487,052	414,457	412,800	6.0%	5.1%	4.9%
		공제및보험료	282,887	290,317	347,618	3.5%	3.6%	4.1%
		판 매 비	433,065	483,230	533,230	5.3%	5.9%	6.4%
		조 세 공 과	85,426	75,824	76,802	1.1%	0.9%	0.9%
		기 타	138,549	130,334	136,516	1.7%	1.6%	1.6%
		소 계	3,591,676	3,683,842	3,879,223	44.2%	45.1%	46.3%
	감 가 상 각 비		257,036	302,775	327,679	3.2%	3.7%	3.9%
어 업 비 용 계		8,122,420	8,172,545	8,377,970	100.0%	100.0%	100.0%	
어 업 이 익		543,546	202,751	533,974				
어 업 외 비 용		318,524	349,995	296,748				
총 비 용		8,440,944	8,522,540	8,674,718				
당 기 순 이 익		225,022	-147,244	237,226				
어업이익률		6.3%	2.4%	6.0%				

자료 : 수협중앙회, 2007년 어업경영조사보고, 2008.

## 나) 대형트롤어업

- 2008년도 대형트롤어업의 경영상황은 생산량은 약간 감소한 반면 생산액은 오징어 어가의 상승으로 다소 증가한 상황이다. 그러나 수협중앙회 어업경영조사보고에 의하면 2007년까지 어업이익율이 (-)로 나타나 있는데, 실제 업계의 동향은 (+)로 조사되었다. 이에 대한 정확한 조사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 업계의 조사에 의하면 대형트롤어업의 손익분기점은 약 20억 원이고, 비교적 어황이 좋았던 업계는 2008년에 약 25억 원의 생산액을 올린 것으로 파악되었다.
- 2008년의 경비를 보면 유류비가 약 30%인데, 2008년 고유가 파고를 비교적 덜 받았다. 그 이유는 동 업종의 조업시기가 9월 중순부터 익년 2월까지이기 때문이고, 인건비는 26%이다.

〈표 4-17〉 대형트롤어업 수익성

(단위 : 천원)

구 분			2005	2006	2007	2005	2006	2007
어 업 수 입			1,870,205	1,751,385	1,222,206	어업비용 구성비		
어업 비용	출어비	어 구 비	101,896	94,180	87,320	5.2%	4.9%	5.3%
		연 료 비	439,029	474,680	410,185	22.2%	24.5%	24.7%
		용 기 대	68,233	92,292	64,675	3.5%	4.8%	3.9%
		얼음·소금대	76,080	65,299	54,839	3.9%	3.4%	3.3%
		소 모 품 비	128,221	108,371	96,673	6.5%	5.6%	5.8%
		주 부 식 비	55,676	56,051	51,346	2.8%	2.9%	3.1%
		후 생 비	62,375	61,837	53,720	3.2%	3.2%	3.2%
		수 리 비	154,261	126,005	93,820	7.8%	6.5%	5.6%
		소 계	1,085,771	1,078,715	912,578	55.0%	55.6%	54.9%
	임금 및 관리비	임 금	490,100	501,547	424,370	24.8%	25.9%	25.5%
		사 무 비	48,896	42,511	46,834	2.5%	2.2%	2.8%
		공제및보험료	63,363	59,922	50,011	3.2%	3.1%	3.0%
		판 매 비	115,393	118,786	92,874	5.8%	6.1%	5.6%
		조 세 공 과	26,029	11,481	13,576	1.3%	0.6%	0.8%
		기 타	76,174	54,683	45,675	3.9%	2.8%	2.7%
		소 계	819,955	788,930	673,340	41.5%	40.7%	40.5%
	감 가 상 각 비		69,653	71,413	75,214	3.5%	3.7%	4.5%
어 업 비 용 계		1,975,379	1,939,058	1,661,132	100.0%	100.0%	100.0%	
어 업 이 익		-105,174	-187,673	-438,926				
어 업 외 비 용		24,936	24,577	28,670				
총 비 용		2,000,315	1,963,635	1,689,802				
어 업 외 수 입		1,678	0	-				
당 기 순 이 익		-128,432	-212,250	-467,596				
어업이익률		-5.6%	-10.7%	-35.9%				

자료 : 상계서.

## 다) 쌍끌이대형기선저인망어업

- 2007년 대비 2008년의 쌍끌이대형기선저인망어업 경영상황을 보면 생산액은 약 5% 증가, 어가 약간 정체, 상반기 어획 매우 부진하였으나 하반기 삼치 등 생산 증가 및 환율급등으로 수출어종 어가가 좋아져서 다소 회복된 상황이다.
- 동 업종의 손익분기점에 관한 업계 의견은 2007년 기준 약 38억 원인데 2008년은 약 42억원에서 44억 원이 되어야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2008년의 어업비용 구조를 보면 유류비가 약 40%로써 예년의 34~37%에 비하여 유가상승으로 대단히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인건비는 약 22%이다.

〈표 4-18〉 쌍끌이대형기선저인망어업 수익성

(단위 : 천원)

구 분			2005	2006	2007	2005	2006	2007
어 업 수 입(천 원)			3,223,047	3,131,870	3,045,213	어업비용 구성비		
어업 비용	출어비	어 구 비	159,664	149,128	156,350	5.1%	4.7%	4.8%
		연 료 비	1,068,506	1,115,191	1,219,890	34.4%	35.4%	37.7%
		용 기 대	112,988	94,940	87,560	3.6%	3.0%	2.7%
		얼음·소금대	43,385	37,332	30,764	1.4%	1.2%	0.9%
		소 모 품 비	110,245	180,677	190,380	3.5%	5.7%	5.9%
		주 부 식 비	92,052	60,256	63,548	3.0%	1.9%	2.0%
		후 생 비	59,450	63,438	67,851	1.9%	2.0%	2.1%
		수 리 비	160,352	150,385	157,065	5.2%	4.8%	4.8%
		소 계	1,806,642	1,851,347	1,973,408	58.1%	58.8%	60.9%
	임금 및 관리비	임 금	709,446	695,965	712,656	22.8%	22.1%	22.0%
		사 무 비	70,927	75,834	80,132	2.3%	2.4%	2.5%
		공제및보험료	85,354	96,811	74,008	2.7%	3.1%	2.3%
		판 매 비	243,615	249,086	226,785	7.8%	7.9%	7.0%
		조 세 공 과	29,704	30,758	27,650	1.0%	1.0%	0.9%
		기 타	66,296	52,274	47,930	2.1%	1.7%	1.5%
		소 계	1,205,342	1,200,728	1,169,161	38.8%	38.1%	36.1%
	감 가 상 각 비		97,763	96,605	96,605	3.1%	3.1%	3.0%
어 업 비 용 계			3,109,747	3,148,680	3,239,174	100.0%	100.0%	100.0%
어 업 이 익			113,300	-16,810	-193,961			
어 업 외 비 용			28,040	29,859	32,650			
총 비 용			3,137,787	3,178,539	3,271,824			
어 업 외 수 입			7,267	-	-			
당 기 순 이 익			92,527	-46,669	-226,611			
어업이익률			3.5%	-0.5%	-6.4%			

자료 : 상계서.

## 라) 외끌이대형기선저인망어업

- 2008년 외끌이대형기선저인망어업의 경영상황을 2007년과 대비해 볼 때 생산액과 생산량 모두 다소 증가하였고, 척당 어획량 또한 2007년 약 5.5~6억 원에서 2008년 6~7억 원으로 증가하였다. 이와 같은 어업생산의 증가는 소형기선저인망과 중국어선 조업 축소에 기인한 것으로 추정된다.
- 업체에서 바라보는 동 업종의 손익분기점은 약 6억 원 정도이고, 2008년 어업경비 구조를 보면 유류비가 25%, 인건비 27%, 판매비 6%, 선박수리 11% 등이다.

〈표 4-19〉 외끌이대형기선저인망어업 수익성

(단위 : 천원)

구 분			2005	2006	2007	2008	2005	2006	2007	2008
어 업 수 입			538,607	605,849	595,158	700,000	어업비용 구성비			
어업 비용	출어비	어 구 비	52,236	27,777	29,543	31,000	10.5%	5.2%	5.3%	4.7%
		연 료 비	67,799	85,111	93,423	160,000	13.6%	15.8%	16.6%	24.5%
		용 기 대	13,425	13,356	12,760	13,000	2.7%	2.5%	2.3%	2.0%
		얼음·소금대	15,739	17,898	16,482	18,000	3.2%	3.3%	2.9%	2.8%
		소 모 품 비	14,667	19,041	20,753	21,000	3.0%	3.5%	3.7%	3.2%
		주 부 식 비	30,054	30,834	29,784	30,000	6.0%	5.7%	5.3%	4.6%
		후 생 비	22,194	19,774	20,367	25,000	4.5%	3.7%	3.6%	3.8%
		수 리 비	58,173	62,207	64,753	70,000	11.7%	11.5%	11.5%	10.7%
		소 계	274,287	275,998	287,775	368,000	55.2%	51.2%	51.3%	56.3%
	임금 및 관리비	임 금	151,376	167,266	173,250	180,000	30.5%	31.0%	30.9%	27.5%
		사 무 비	12,288	16,347	17,605	18,000	2.5%	3.0%	3.1%	2.8%
		공제및보험료	16,777	18,199	19,682	20,000	3.4%	3.4%	3.5%	3.1%
		판 매 비	20,716	35,933	36,243	40,000	4.2%	6.7%	6.5%	6.1%
		조 세 공 과	4,263	6,502	6,870	7,000	0.9%	1.2%	1.2%	1.1%
		기 타	10,526	12,924	13,790	15,000	2.1%	2.4%	2.5%	2.3%
		소 계	215,946	257,171	267,440	280,000	43.5%	47.7%	47.6%	42.8%
	감 가 상 각 비		6,672	6,176	6,176	6,200	1.3%	1.1%	1.1%	0.9%
어 업 비 용 계			496,905	539,345	561,391	654,200	100.0%	100.0%	100.0%	100.0%
어 업 이 익			41,702	66,504	33,767	45,800				
어 업 외 비 용			2,665	7,282	8,036					
총 비 용			499,570	546,627	569,427					
당 기 순 이 익			39,037	59,222	25,731					
어업이익률			7.7%	11.0%	5.7%	6.5%				

자료 : 상계서.

### 마) 기선권현망어업

- 기선권현망어업의 2007년 대비 2008년의 경영상황은 생산량 약간 증가, 어가 kg 400원 상승 등으로 인하여 2008년 한 해 동 업종의 경영상황은 양호해진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러한 생산증가는 전술한 자원동향에서도 본 바와 같이 전반적으로 수온이 상승하고 해황이 안정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 동 업종의 1통당 손익분기점은 약 25억 원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어업경비 구조를 보면 인건비 45%, 유류비 30%로 두 생산요소 비용이 가장 큰 비중을 점하고 있다.
- 그러나 2008년 어황의 호조에 힘입어 2007년 적자경영에서 2008년에는 탈피한 상황임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유류사용이 많은 업종으로써 고유가에 대한 대비가 있지 않으면 경영은 더 나빠질 수도 있을 것이다.

〈표 4-20〉 기선권현망어업 수익성

(단위 : 천원)

구 분			2005	2006	2007	2005	2006	2007
어 업 수 입			1,943,103	1,885,599	1,692,949			
어업 비용천	출어비	어 구 비	79,971	80,740	75,800	4.4%	4.4%	4.2%
		연 료 비	385,091	414,953	452,669	21.0%	22.6%	25.0%
		용 기 대	55,035	58,861	48,305	3.0%	3.2%	2.7%
		얼음·소금대	22,473	20,251	15,860	1.2%	1.1%	0.9%
		소 모 품 비	30,237	21,260	23,496	1.7%	1.2%	1.3%
		주 부 식 비	45,406	48,220	45,681	2.5%	2.6%	2.5%
		후 생 비	26,927	21,590	27,207	1.5%	1.2%	1.5%
		수 리 비	130,040	109,097	102,850	7.1%	5.9%	5.7%
		소 계	775,180	774,972	791,868	42.3%	42.2%	43.8%
	임금 및 관리비	임 금	812,090	829,609	799,983	44.4%	45.2%	44.2%
		사 무 비	36,750	31,750	27,355	2.0%	1.7%	1.5%
		공제및보험료	38,574	39,111	34,342	2.1%	2.1%	1.9%
		판 매 비	81,430	78,719	66,755	4.4%	4.3%	3.7%
		조 세 공 과	33,510	23,930	19,800	1.8%	1.3%	1.1%
		기 타	19,080	20,640	24,999	1.0%	1.1%	1.4%
		소 계	1,021,434	1,023,759	973,234	55.8%	55.8%	53.8%
	감 가 상 각 비		34,457	37,382	44,223	1.9%	2.0%	2.4%
어 업 비 용 계			1,831,071	1,836,113	1,809,325	100.0%	100.0%	100.0%
어 업 이 익			112,032	49,486	-116,376			
어 업 외 비 용			19,464	21,464	26,476			
총 비 용			1,850,535	1,857,577	1,835,801			
어 업 외 수 입			0	0	-			
당 기 순 이 익			92,568	28,022	-142,852			
어업이익률			5.8%	2.6%	-6.9%			

자료 : 상계서.

### 3. 2009년 전망 및 이슈

#### 1) 2009년 전망

##### 수산자원과 어업생산량 증가 추세

- 2008년의 자원 및 생산은 전반적으로 양호한 편이었다. 그 원인으로는 수온의 상승, 무자연재해 그리고 어업자원관리의 결과로 진단한 바 있다.
- 2009년의 자원상황도 금년도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대부분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그 논거로는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온상승은 지속될 것이기 때문에 이로 인한 부어류 중심의 자원은 증가할 것이고, 정부의 어선감척 및 자원관리 노력의 결과가 점차 나타나고 있고, 자원관리 규제가 강화되는 상황이므로 어업자원관리의 효과는 더욱 커질 것이기 때문이다.
- 자원동향과 제2장에서 전망한 투입어획노력량의 결과를 종합하면 2009년 어업생산은 약간 증가추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할 수 있다. 즉 연근해어업 생산량은 2008년보다 약 1.2% 증가한 128만톤 정도가 될 전망이다.

##### 연근해 어업경영 호전 전망

- 2009년의 어업생산은 다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나, 경기침체로 인하여 수산물 소비는 위축되고 이에 따라 수산물 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즉 제2장에서 전망한 바와 같이 2009년 수산물 총소비량은 전년대비 2.4%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어류 및 해조류 소매가격 지수는 향후 꾸준히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어 소비위축에 따른 가격하락은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 어업경영에서 어업비용은 아주 중요한 요소이다. 2008년의 고유가가 후반기 들어서면서 진정되어 면세유 가격이 약 48% 하락하고, 경기침체에 따라 임금 또한 4.6% 하락 추세가 전망되어 비용측면에서 어업경영의 여건은 다소 호전될 전망이다. 다만 일시 다량 어획의 경우 소비위축에 따른 가격 폭락이 예상되어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할 것이다.



### 근해어업 업종별 어업경영 희비 교차

- 2009년 대형선망어업의 생산은 고등어 가입군이 증가하여 약간 증가할 것으로 전망할 수 있다. 어업경영은 유가 안정, 임금 하락 등으로 인하여 2008년 대비 호전될 것으로 전망한다. 다만 전반적인 경기침체에 따른 소비위축으로 다량 생산시 가격 폭락이 예상되고 있어 TAC 운용시 이를 잘 반영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2009년의 쌍끌이대형기선저인망어업 생산은 중국어선 및 국내 어선척수 감소로 다소 증가가 예상된다. 어가는 동 업종 어획어종의 환율상승에 따른 수출가격 상승이라는 긍정적 측면과 국내소비 정체에 따른 가격하락이라는 부정적 측면이 작용하여 전반적으로 작년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어업경영 수익성은 약간의 생산의 증가와 유가 및 임금의 하락으로 전년에 비하여 호전될 전망이다.
- 2009년 외끌이대형기선저인망어업의 생산은 소형기선저인망 금지, 중국어선 조업 축소 등으로 정체 혹은 약간 증가가 예상된다. 어업경영은 유가 안정, 임금 하락 등으로 2008년에 대비하여 다소 호전될 것으로 전망할 수 있다.
- 대형트롤어업의 2009년 생산은 오징어 생산량의 약간 증대가 예상되고, 어업경영은 어가 회복, 유가 안정 등으로 전년대비 보합 내지는 약간 호전될 것으로 전망된다.
- 2009년 기선권현망어업의 생산을 전년과 동일하거나 약간 증가할 전망이다. 어업수익성은 유가 안정, 임금 하락 등의 요인이 작용하고는 있으나, 2008년 생산증가로 인한 재고 증가와 경기하락으로 인한 소비둔화 등으로 어가 하락이 예상되어, 전반적으로 전년대비 다소 악화 내지는 보합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 2) 이슈 및 대책

### 자연재해 발생 예상

- 2008년의 수산업은 하늘이 도왔다고 할 수 있다. 전반적인 경기침체와 고유가 파고, 미국발 외환위기가 있었으나, 자연상황이 좋아서 생산이 호전되어 전년대비 보합 내지는 다소 증가하는 경우도 있었다. 즉 2008년에는 주지하는 바와 같이 고유가, 경기침체에 따른 소비감소, 원자재 상승 등 경제적으로는 대단히 불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산업은 생산이 호조를 띄게 되었는데, 이는 전적으로 자연재해가 없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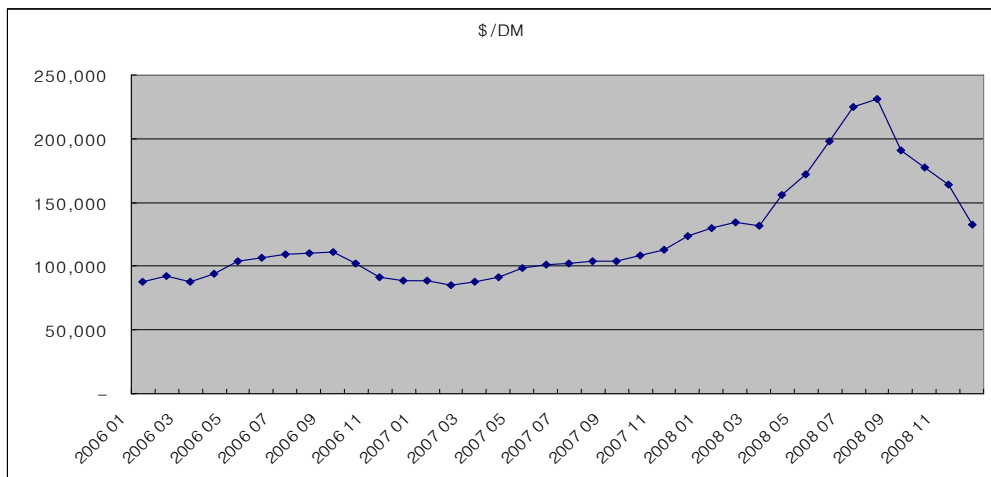
고, 자원상황이 좋았기 때문이다.

- 연근해어업에 있어서 2009년의 가장 큰 이슈는 태풍과 같은 자연재해가 얼마나 없는가에 달려 있다. 현재까지의 전망으로 자원 및 생산여건이 좋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나, 예기치 않은 자연재해가 발생할 경우 생산 및 경영여건을 급속히 악화될 수가 있다. 따라서 정부와 업계에서는 최악의 자연재해를 예상하고 준비하여야 할 것이다.

### 유가상승 요인 잠재, 저탄소 녹색성장산업으로 재편 가속화

- 유가는 2007년말부터 상승하기 시작하여 2008년 8월 드림당 231달러를 정점으로 하락추세에 있다(<그림 4-3> 참조). 그리고 본 전망에서는 전반적으로 2008년에 비하여 대단히 안정될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그림 4-3〉 어업용 면세유 가격 추세



- 그러나 최근 중동의 전쟁, 미국경기 침체를 위한 탈출구 모색, 세계 경제회복 추세에 따른 유류 소비 증가 등을 감안할 때 유가의 안정이라는 전망은 불확실한 전망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만일 이상과 같은 상황이 도래한다면 2009년 유가는 2008년 최고 수준 내지는 그 이상으로 상승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
- 또한 최근 지구온난화에 대한 책임론이 제기되면서 2009년 우리나라 주요 정책의

하나로 부상한 것이 “탄소제로 녹색성장”이다. 이는 단순히 탄소를 저감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미래의 성장동력으로써 발전시킨다는 것이다.

- 고유가에 대한 대비는 단순한 유가상승에 대한 대책만이 아니라 구조적으로 화석연료를 적게 사용하는 산업구조로 전면 재편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 우리나라 연근해어업이 장기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자원적으로 지속가능한 수산업, 지구온난화 측면에서는 저탄소 산업이라는 구도로 전면 변화하여야 할 것이다.

## 부 록

〈부표 4-1〉 멸치류 어업별 생산량과 생산금액(2008년)

(단위 : M/T, 천원)

구분	생산량				생산금액			
	계	활어	선어	냉동냉장	계	활어	선어	냉동냉장
합계	237,363	3,804	225,346	8,213	264,922,797	3,737,821	252,131,115	9,053,861
외끌이대형기저	135	0	135	0	205,716	0	205,716	0
쌍끌이대형기저	6,976	0	6,116	860	3,018,380	0	2,690,192	328,188
외끌이서남해기저	337	0	337	0	515,068	0	515,068	0
쌍끌이서남해기저	4,417	0	4,417	0	3,124,598	0	3,124,598	0
대형트롤	56	0	56	0	53,686	0	53,686	0
대형선망	134	0	1	133	55,192	0	1,825	53,367
소형선망	1,705	0	1,705	0	2,150,725	0	2,150,725	0
연안선망	8,117	0	8,073	44	9,278,324	0	9,164,053	114,271
근해채낚기	0	0	0	0	316	0	316	0
기선권현망	130,275	508	127,759	2,008	138,192,462	459,044	135,573,871	2,159,547
근해자망	5,834	0	5,834	0	4,929,412	0	4,929,412	0
연안자망	1,678	0	1,678	0	1,482,254	0	1,482,254	0
근해안강망	8,318	7	7,969	342	9,679,791	8,568	9,451,711	219,512
연안개량안강망	6,548	0	6,524	24	7,921,948	0	7,900,438	21,510
연안통발	0	0	0	0	120	0	120	0
연안들망	16,927	0	16,882	45	10,811,474	0	10,735,125	76,349
새우망	1	0	1	0	916	0	916	0
연안복합	0	0	0	0	739	0	739	0
정치망	16,237	3,256	12,796	185	27,466,672	3,196,466	24,000,013	270,193
주목망	30	0	30	0	33,242	0	33,242	0
각망	43	0	43	0	74,071	0	74,071	0
낭장망	12,565	4	12,555	6	20,748,303	15,318	20,724,431	8,554
새우조망	48	0	48	0	64,349	0	64,349	0
기타구획	1,389	29	1,360	0	2,762,600	58,425	2,704,175	0
기타어업	15,593	0	11,027	4,566	22,352,439	0	16,550,069	5,802,370

〈부표 4-2〉 갈치 어업별 생산량과 생산금액(2008년)

(단위 : M/T, 천 원)

구분	생산량				생산금액			
	계	활어	선어	냉동냉장	계	활어	선어	냉동냉장
소계	66,315	26	55,621	10,668	295,671,523	262,276	243,870,864	51,538,383
외끌이대형기저	53	0	18	35	186,049	0	68,616	117,433
쌍끌이대형기저	6,625	0	4,206	2,419	12,769,256	0	6,727,642	6,041,614
동해구기저	0	0	0	0	617	0	0	617
외끌이서남해기저	83	0	82	1	287,654	0	286,175	1,479
쌍끌이서남해기저	1,387	0	1,387	0	2,389,153	0	2,389,153	0
대형트롤	2,251	0	2,217	34	3,413,377	0	3,355,570	57,807
동해구트롤	1	0	1	0	196	0	196	0
대형선망	12,540	0	12,540	0	12,927,965	0	12,927,965	0
소형선망	1,601	0	1,601	0	1,397,486	0	1,397,486	0
연안선망	30	0	30	0	208,755	0	208,755	0
근해채낚기	3,525	0	3,525	0	24,317,321	276	24,317,045	0
기선권현망	844	0	844	0	988,384	0	988,384	0
근해자망	1,028	0	1,023	5	4,201,773	6,794	4,141,915	53,064
연안자망	491	0	491	0	2,013,191	0	2,013,191	0
근해안강망	7,569	0	4,826	2,743	29,297,068	0	20,210,730	9,086,338
연안개량안강망	456	0	456	0	1,490,223	0	1,490,223	0
근해봉수망	5	0	5	0	36,267	0	36,267	0
연안통발	0	0	0	0	60	0	60	0
근해연승	15,538	0	10,620	4,918	120,716,956	0	88,123,291	32,593,665
연안복합	11,466	26	10,928	512	77,173,214	254,954	73,334,211	3,584,049
정치망	201	0	201	0	667,010	74	666,936	0
각망	181	0	181	0	159,297	0	159,297	0
낭장망	2	0	2	0	10,036	178	9,858	0
새우조망	0	0	0	0	1,853	0	1,853	0
기타구획	6	0	6	0	9,524	0	9,524	0
기타어업	432	0	431	1	1,008,838	0	1,006,521	2,317

〈부표 4-3〉 고등어 어업별 생산량과 생산금액(2008년)

(단위 : M/T, 천 원)

구분	생산량				생산금액			
	계	활어	선어	냉동냉장	계	활어	선어	냉동냉장
소계	152,448	384	151,740	324	174,602,492	630,230	173,422,774	549,488
외끌이대형기저	4	0	2	2	6,371	0	3,588	2,783
쌍끌이대형기저	319	0	118	201	380,141	0	80,913	299,228
외끌이서남해기저	2	0	2	0	5,618	0	5,510	108
쌍끌이서남해기저	267	0	267	0	392,412	0	392,412	0
대형트롤	45	0	45	0	57,708	0	57,708	0
동해구트룰	5	0	5	0	1,613	0	1,613	0
대형선망	130,305	0	130,250	55	154,711,079	0	154,546,382	164,697
소형선망	2,993	0	2,992	1	4,264,773	0	4,264,108	665
연안선망	89	0	89	0	122,420	0	122,420	0
근해채낚기	125	0	125	0	339,204	0	338,881	323
기선권현망	26	0	26	0	29,587	0	29,587	0
근해자망	469	4	464	1	878,023	22,287	855,145	591
연안자망	455	4	451	0	643,475	13,861	629,614	0
근해안강망	136	0	118	18	166,407	0	146,357	20,050
연안개량안강망	20	0	20	0	27,072	0	27,072	0
근해봉수망	0	0	0	0	1,047	0	1,047	0
연안통발	0	0	0	0	381	91	290	0
근해연승	41	0	41	0	99,148	0	99,148	0
연안복합	473	1	470	2	1,316,032	4,455	1,309,321	2,256
정치망	15,172	366	14,805	1	9,491,594	574,999	8,914,658	1,937
주목망	6	0	6	0	11,348	0	11,348	0
각망	281	0	281	0	132,606	0	132,606	0
낭장망	1	0	1	0	1,282	0	1,282	0
기타구획	502	9	493	0	500,013	14,537	485,476	0
기타어업	712	0	669	43	1,023,138	0	966,288	56,850

〈부표 4-4〉 오징어 어업별 생산량과 생산금액(2008년)

(단위 : M/T,천 원)

구분	생산량				생산금액			
	계	활어	선어	냉동 냉장	계	활어	선어	냉동냉장
소계	155,403	18,553	121,502	15,348	240,623,972	61,297,535	152,272,648	27,053,789
외끌이대형기저	84	0	60	24	131,372	534	86,812	44,026
쌍끌이대형기저	396	16	292	88	460,936	16,236	344,241	100,459
동해구기저	291	0	290	1	240,271	1,083	237,542	1,646
외끌이서남해기저	300	0	300	0	397,779	596	397,183	0
쌍끌이서남해기저	484	0	484	0	596,821	0	596,821	0
대형트롤	40,369	0	39,862	507	44,323,130	0	43,800,411	522,719
동해구트롤	37,373	0	36,647	726	34,017,876	0	33,450,234	567,642
대형선망	4,463	4	4,459	0	4,174,723	11,632	4,162,981	110
소형선망	1,408	0	1,400	8	1,692,759	2,332	1,682,283	8,144
연안선망	119	0	119	0	172,959	32	172,927	0
근해채낚기	47,100	13,969	19,651	13,480	115,649,219	48,774,066	41,708,351	25,166,802
기선권현망	5	0	5	0	4,049	0	4,049	0
근해자망	654	122	484	48	1,214,601	451,109	683,125	80,367
연안자망	3,164	752	2,407	5	6,220,871	1,909,372	4,307,764	3,735
근해안강망	175	0	105	70	230,028	108	132,385	97,535
연안개량안강망	4	0	4	0	10,211	1,893	8,263	55
연안통발	27	0	27	0	34,967	974	33,993	0
근해연승	169	105	62	2	344,908	229,454	112,077	3,377
연안복합	7,367	952	6,406	9	12,443,389	3,165,681	9,265,676	12,032
정치망	6,129	1,778	4,351	0	10,597,730	5,041,021	5,556,709	0
패·조류채취	2	2	0	0	12,254	12,254	0	0
각망	4,166	733	3,433	0	5,948,414	1,418,739	4,529,675	0
낭장망	6	1	5	0	58,680	16,925	41,755	0
새우조망	2	0	2	0	3,748	0	3,748	0
기타구획	524	89	435	0	829,226	185,335	643,891	0
기타어업	622	30	212	380	813,051	58,159	309,752	445,140

〈부표 4-5〉 대형선망어업 주요 어종별 월별 생산량(2006-2008년)

(단위 : M/T)

	구분	합계	고등어류	갈치	전갱이류	다랑어류	방어	삼치류	오징어류
합계	2006년	146,839	93,787	6,795	17,815	2,512	3,687	10,144	10,056
	2007년	194,093	138,086	8,555	9,566	3,678	4,575	14,289	9,264
	2008년	191,911	130,305	12,540	10,702	2,807	5,565	9,261	4,463
	평균	177,614	120,726	9,297	12,694	2,999	4,609	11,231	7,928
1월	2006년	21,115	11,995	163	4,603	174	418	1,988	1,686
	2007년	18,932	8,674	1,158	1,559	602	775	3,624	1,663
	2008년	19,047	7,890	391	855	356	4,342	3,252	1,213
	평균	19,698	9,520	571	2,339	377	1,845	2,955	1,521
2월	2006년	6,573	2,076	34	2,365	57	1,555	177	274
	2007년	9,885	3,699	454	1,224	298	213	3,209	632
	2008년	6,167	1,423	382	215	284	152	1,338	402
	평균	7,542	2,399	290	1,268	213	640	1,575	436
3월	2006년	9,433	3,480	106	1,747	142	342	3,298	279
	2007년	12,702	6,960	75	823	218	469	1,574	432
	2008년	11,331	2,922	498	224	157	40	3,018	158
	평균	11,155	4,454	226	931	172	284	2,630	290
4월	2006년	3,721	1,341	168	1,345	250	88	301	76
	2007년	11,466	8,081	149	1,406	64	381	733	509
	2008년	6,341	1,136	1,260	203	333	57	239	74
	평균	7,176	3,519	526	985	216	175	424	220
5월	2006년	4,199	1,732	399	1,625	30	20	79	272
	2007년	722	356	18	30	2	2	5	37
	2008년	1,247	297	93	311	256	58	-	9
	평균	2,056	795	170	655	96	27	28	106
6월	2006년	5,976	1,830	530	2,829	150	19	116	345
	2007년	6,154	3,724	728	1,421	34	16	1	134
	2008년	6,657	1,371	725	3,040	96	401	-	237
	평균	6,262	2,308	661	2,430	93	145	39	239
7월	2006년	2,853	958	399	617	260	2	-	471
	2007년	6,273	3,889	584	415	467	22	5	485
	2008년	10,047	3,996	1,898	3,108	178	5	5	466
	평균	6,391	2,948	960	1,380	302	10	3	474
8월	2006년	7,398	4,485	409	499	465	-	47	1,133
	2007년	10,241	6,837	1,298	748	355	-	7	521
	2008년	11,070	7,736	924	937	183	1	37	241
	평균	9,570	6,353	877	728	334	0	30	632
9월	2006년	15,401	13,404	720	197	43	1	205	709
	2007년	15,158	12,429	1,186	419	41	2	82	543
	2008년	23,072	17,979	656	366	151	101	254	528
	평균	17,877	14,604	854	327	78	35	180	593
10월	2006년	24,148	20,322	1,907	484	196	14	132	825
	2007년	24,148	20,322	1,907	484	196	14	132	825
	2008년	43,463	35,440	5,398	455	220	239	462	1,068
	평균	30,586	25,361	3,071	474	204	89	242	906
11월	2006년	21,571	18,272	1,531	276	533	323	289	158
	2007년	44,641	42,948	603	209	54	50	515	133
	2008년	53,469	50,115	315	988	593	169	656	67
	평균	39,894	37,112	816	491	393	181	487	119
12월	2006년	26,515	20,328	167	1,100	76	890	2,998	553
	2007년	33,771	20,167	395	828	1,347	2,631	4,402	3,350
	평균	30,143	20,248	281	964	712	1,761	3,700	1,952



〈부표 4-6〉 대형트롤어업 주요 어종별 월별 생산량(2006-2008년)

(단위 : M/T)

구분		합계	오징어	갈치	삼치	고등어	병어
합계	2006년	75,375	65,246	5,242	1,331	1,031	387
	2007년	58,797	43,762	10,161	1,701	217	691
	2008년	45,084	40,369	2,251	749	45	183
	평균	59,752	49,792	5,885	1,260	431	420
1월	2006년	9,395	8,234	439	302	4	76
	2007년	9,126	7,900	242	651	26	43
	2008년	11,108	10,401	398	108	3	27
	평균	9,876	8,845	360	354	11	49
2월	2006년	3,612	952	1,119	282	97	149
	2007년	2,537	1,111	137	482	39	68
	2008년	1,611	533	275	267	11	58
	평균	2,587	865	510	344	49	92
3월	2006년	929	11	142	292	110	33
	2007년	483	39	21	79	21	44
	2008년	465	7	240	78	2	30
	평균	626	19	134	150	44	36
4월	2006년	21	-	3	1	11	4
	2007년	170	8	7	19	4	2
	2008년	141	2	17	2	-	3
	평균	111	3	9	7	5	3
5월	2006년	-	-	-	-	-	-
	2007년	263	-	-	-	-	-
	2008년	60	1	-	-	-	-
	평균	108	0	-	-	-	-
6월	2006년	1	-	-	-	-	1
	2007년	-	-	-	-	-	-
	2008년	40	1	-	-	-	-
	평균	14	0	-	-	-	0
7월	2006년	128	128	-	-	-	-
	2007년	422	35	361	-	-	10
	2008년	1	-	-	-	-	-
	평균	184	54	120	-	-	3
8월	2006년	9,050	7,196	1,804	-	1	6
	2007년	4,961	736	4,038	-	19	60
	2008년	207	62	103	1	1	11
	평균	4,739	2,665	1,982	0	7	26
9월	2006년	11,017	9,629	642	38	542	52
	2007년	4,403	471	3,286	39	99	208
	2008년	1,955	1,371	309	25	11	16
	평균	5,792	3,824	1,412	34	217	92
10월	2006년	14,249	14,167	48	10	-	2
	2007년	14,249	14,167	48	10	-	2
	2008년	18,821	18,610	87	27	4	1
	평균	15,773	15,648	61	16	1	2
11월	2006년	10,151	8,965	709	44	240	31
	2007년	9,879	7,592	1,627	333	4	202
	2008년	10,675	9,381	822	241	13	37
	평균	10,235	8,646	1,053	206	86	90
12월	2006년	13,149	12,290	374	337	16	33
	2007년	12,304	11,703	394	88	5	52
	평균	12,727	11,997	384	213	11	43

〈부표 4-7〉 쌍끌이대형기선저인망어업 주요 어종별 월별 생산량(2006-2008년)

(단위 : M/T)

구분		합계	갈치	강달이	고등어류	멸치류	병어류	밴댕이	참조기
합계	2006년	84,899	19,982	9,072	1,821	14,079	3,414	20,727	2,885
	2007년	66,184	12,550	7,173	500	11,744	2,699	19,924	4,579
	2008년	44,385	6,654	4,344	328	6,976	1,803	2,014	2,317
	평균	65,156	13,062	6,863	883	10,933	2,639	14,222	3,260
1월	2006년	10,893	388	1,809	72	4,058	540	3,151	70
	2007년	10,547	1,302	1,612	104	2,456	339	3,720	445
	2008년	7,771	1,079	626	15	1,386	263	2	386
	평균	9,737	923	1,349	64	2,633	381	2,291	300
2월	2006년	8,373	109	1,912	80	2,902	235	2,522	180
	2007년	8,333	146	799	89	3,514	189	2,564	216
	2008년	7,419	151	130	2	4,076	208	10	48
	평균	8,042	135	947	57	3,497	211	1,699	148
3월	2006년	6,616	381	1,155	42	3,192	376	909	58
	2007년	6,207	65	446	62	2,342	192	1,293	98
	2008년	6,015	302	1,396	11	651	289	932	4
	평균	6,279	249	999	38	2,062	286	1,045	53
4월	2006년	4,156	360	164	20	1,557	534	897	4
	2007년	3,974	100	155	9	404	316	2,815	-
	2008년	3,061	579	716	2	24	289	6	-
	평균	3,730	346	345	10	662	380	1,239	1
5월	2006년	2,904	191	91	-	887	275	749	-
	2007년	3,020	275	8	1	781	138	1,033	-
	2008년	1,468	310	108	4	28	122	59	-
	평균	2,464	259	69	2	565	178	614	-
6월	2006년	844	142	52	-	238	27	30	-
	2007년	499	54	11	-	230	19	109	-
	2008년	100	29	-	9	-	10	-	-
	평균	481	75	21	3	156	19	46	-
7월	2006년	2,873	371	28	10	448	79	197	3
	2007년	1,187	665	2	-	261	82	106	-
	2008년	334	141	-	4	8	38	-	-
	평균	1,465	392	10	5	239	66	101	1
8월	2006년	6,335	3,518	119	40	352	44	89	44
	2007년	4,299	3,308	56	24	223	97	308	13
	2008년	1,269	643	3	4	174	49	2	35
	평균	3,968	2,490	59	23	250	63	133	31
9월	2006년	8,799	4,502	721	366	111	189	672	266
	2007년	3,813	1,840	257	49	55	257	305	420
	2008년	3,288	1,207	78	8	191	156	161	405
	평균	5,300	2,516	352	141	119	201	379	364
10월	2006년	7,582	1,909	1,508	57	510	424	1,070	1,430
	2007년	7,582	1,909	1,508	57	510	424	1,070	1,430
	2008년	5,969	1,443	408	159	141	212	483	909
	평균	7,044	1,754	1,141	91	387	353	874	1,256
11월	2006년	10,850	2,916	912	438	40	359	3,559	918
	2007년	8,169	1,630	1,499	94	597	319	2,089	1,373
	2008년	7,591	741	879	101	297	157	359	530
	평균	8,870	1,762	1,097	211	311	278	2,002	940
12월	2006년	11,860	2,499	970	204	180	257	6,401	424
	2007년	8,554	1,256	820	11	371	327	4,512	584
	평균	10,207	1,878	895	108	276	292	5,457	504

〈부표 4-8〉 외끌이대형기선저인망어업 주요 어종별 월별 생산량(2006-2008년)

(단위 : M/T)

구분		합계	가자미류	강달이	눈볼대	민어	아귀	붕장어
합계	2006년	11,072	823	700	1,335	618	2,078	339
	2007년	10,106	451	425	1,669	1,206	1,588	344
	2008년	11,045	1,073	300	1,575	1,395	1,596	299
	평균	10,741	782	475	1,526	1,073	1,754	327
1월	2006년	1,149	81	50	69	121	208	25
	2007년	1,127	51	40	102	171	185	36
	2008년	1,446	75	9	50	274	100	30
	평균	1,241	69	33	74	189	164	30
2월	2006년	663	79	17	22	39	194	10
	2007년	774	54	20	95	71	242	14
	2008년	894	130	5	48	197	154	21
	평균	777	88	14	55	102	197	15
3월	2006년	1,165	183	21	57	61	412	17
	2007년	800	112	23	61	48	321	12
	2008년	1,010	97	5	61	158	257	12
	평균	992	131	16	60	89	330	14
4월	2006년	841	74	9	56	32	337	13
	2007년	714	71	6	50	37	211	11
	2008년	1,186	204	1	148	117	260	20
	평균	914	116	5	85	62	269	15
5월	2006년	919	103	24	107	51	228	27
	2007년	869	37	12	170	52	133	35
	2008년	996	121	-	224	131	190	40
	평균	928	87	12	167	78	184	34
6월	2006년	890	102	7	193	3	164	28
	2007년	822	33	7	329	11	154	42
	2008년	716	120	1	155	40	125	40
	평균	809	85	5	226	18	148	37
7월	2006년	692	45	10	290	1	137	23
	2007년	719	25	5	189	3	123	38
	2008년	749	84	4	31	7	96	31
	평균	720	51	6	170	4	119	31
8월	2006년	463	24	9	161	-	85	12
	2007년	265	9	-	129	-	58	7
	2008년	444	22	-	259	-	81	5
	평균	391	18	3	183	-	75	8
9월	2006년	838	29	34	174	-	110	40
	2007년	599	17	1	215	-	73	31
	2008년	647	29	9	241	12	90	15
	평균	695	25	15	210	4	91	29
10월	2006년	1,028	19	43	194	147	59	54
	2007년	1,028	19	43	194	147	59	54
	2008년	1,125	27	135	77	189	98	18
	평균	1,060	22	74	155	161	72	42
11월	2006년	1,210	35	217	83	100	81	39
	2007년	1,189	6	109	86	357	13	21
	2008년	1,116	44	130	126	230	20	27
	평균	1,172	28	152	98	229	38	29
12월	2006년	1,270	35	193	45	204	37	51
	2007년	1,200	17	159	49	309	16	43
	평균	1,235	26	176	47	257	27	47

〈부표 4-9〉 기선권현망어업 주요 어종별 월별 생산량(2006-2008년)

(단위 : M/T)

구분		합계	멸치	청어	갈치	병어	전어
합계	2006년	142,618	141,837	254	14	41	114
	2007년	108,934	105,319	221	1,912	542	252
	2008년	134,111	<b>130,710</b>	<b>1,438</b>	844	427	111
	평균	128,554	125,955	638	923	337	159
1월	2006년	17,661	17,368	-	-	9	49
	2007년	16,393	16,182	1	-	19	182
	2008년	19,095	18,888	-	24	29	91
	평균	17,716	17,479	0	8	19	107
2월	2006년	17,030	16,990	-	-	3	1
	2007년	11,363	11,351	-	-	1	11
	2008년	5,548	5,333	3	20	161	5
	평균	11,314	11,225	1	7	55	6
3월	2006년	15,501	15,445	1	-	3	11
	2007년	9,357	9,321	20	1	-	15
	2008년	16,178	16,001	39	4	92	14
	평균	13,679	13,589	20	2	32	13
4월	2006년	2,058	2,057	-	-	-	-
	2007년	1,085	1,085	-	-	-	-
	2008년	2,751	2,731	-	1	17	-
	평균	1,965	1,958	-	0	6	-
5월	2006년	228	228	-	-	-	-
	2007년	328	328	-	-	-	-
	2008년	1,291	1,291	-	-	-	-
	평균	616	616	-	-	-	-
6월	2006년	319	319	-	-	-	-
	2007년	451	451	-	-	-	-
	2008년	435	435	-	-	-	-
	평균	402	402	-	-	-	-
7월	2006년	18,719	18,716	-	-	3	-
	2007년	9,938	9,921	5	-	4	1
	2008년	18,440	18,216	181	-	2	-
	평균	15,699	15,618	62	-	3	0
8월	2006년	25,541	25,539	-	-	2	-
	2007년	12,600	12,499	11	3	25	7
	2008년	19,356	19,092	254	-	3	1
	평균	19,166	19,043	88	1	10	3
9월	2006년	13,467	13,464	-	-	2	1
	2007년	8,854	8,835	-	1	6	12
	2008년	14,704	14,464	208	-	1	-
	평균	12,342	12,254	69	0	3	4
10월	2006년	14,436	14,363	-	-	-	-
	2007년	14,436	14,363	-	-	-	-
	2008년	21,628	21,053	66	315	11	-
	평균	16,833	16,593	22	105	4	-
11월	2006년	7,803	7,497	253	10	7	11
	2007년	6,780	5,082	1	1,185	265	1
	2008년	14,250	12,771	687	480	111	-
	평균	9,611	8,450	314	558	128	4
12월	2006년	13,769	13,696	-	3	11	39
	2007년	17,349	15,901	183	722	222	23
	평균	15,559	14,799	92	363	117	31

## 참고문헌

농림수산식품부, 수산종합포탈시스템, <http://www.fips.go.kr>.

통계청, 어업생산통계시스템, <http://fs.fips.go.kr/main.jsp>.

국립수산과학원, 어황정보.

수협중앙회, 2007년 어업경영조사보고, 2008.



## 제 5 장 원양산업의 동향과 전망

정명생\* · 임경희\*\* · 마창모\*\*\*

### 목 차

- |                  |                 |
|------------------|-----------------|
| 1. 서론            | 3. 2009년 전망과 이슈 |
| 2. 2008년 원양산업 동향 | 1) 전망           |
| 1) 국제수산물규범 논의 동향 | 2) 이슈 및 대책      |
| 2) 원양산업 동향       |                 |

### 1. 서론

- 원양어선어업이 중심으로 이루고 있는 우리나라의 원양산업은 1970~1980년대를 정점으로 생산량이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 그러나 최근 2004년을 저점으로 오징어류와 다랑어류의 생산이 늘어나면서 원양산업의 전체적인 생산량이 늘어나고 있다.
- 원양산업은 연안국과의 협정 등을 통해 연안국 EEZ 내에 입어 또는 합작을 하거나 공해에서 조업이 이루어지고 있어 연안자원국이나 국제기구의 자원관리조치에 따라 조업에 영향을 받는다.
  - 최근 세계적으로 수산자원보호 및 환경관리규제 마련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바탕으로 자원관리가 강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 반면 수산물에 대한 세계적인 수요 증대 등을 배경으로 중국, 대만 등 후발 원양어업국가는 원양세력의 확대가 가속화되고 있는 등 대외적인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 부연구위원; \*\* 책임연구원; \*\*\* 연구원

- 그러나 국내적으로는 지난해 원양산업발전법이 발효되어 원양어업의 산업화와 지속적 발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다.
- 이러한 가운데 세계적인 금융위기로 환율이 급등한 2008년도 우리나라 원양산업은 어획물의 많은 부분이 수출로 이어지는 특성으로 인해 호황기를 누리기도 했다.
- 따라서 본 전망에서는 우리나라 원양산업의 조업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국제적 규범의 변화와 원양산업의 동향 분석을 통해 2009년의 원양산업 전망과 이슈를 제시하고자 한다.

## 2. 2008년 원양산업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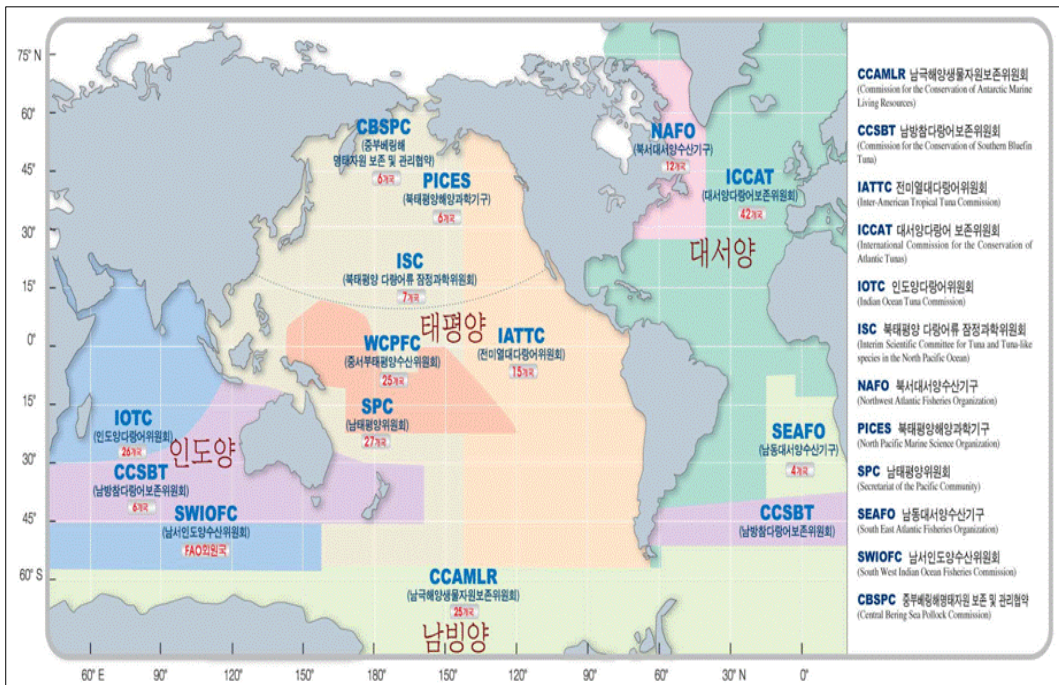
### 1) 국제수산규범 논의 동향

- FAO의 통계에 따르면 세계의 주요 어업자원 중 향후 개발여지가 있는 것은 4분의 1로, 약 절반의 자원은 최대한도로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수산자원의 안정적 유지·공급을 위해 관련국간의 협력에 기초한 자원관리방안조치 마련이 더욱 설득력을 얻고 있다.
- 이처럼 세계적으로 수산자원보호 및 환경관리규제 마련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을 바탕으로 양국 내지는 다자간 기구체(협약) 설립을 통한 어업협력이 강조되면서 국제수산규범 상의 자원관리나 조업관리·규제 내용이 강화되고 지역수산기구(협약)의 역할이 증대되어 원양국가에 있어서는 조업환경이 까다로워지고 있는 실정이다.
- 국제사회에서 환경문제가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게 되면서 혼획문제를 필두로 어업활동이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어, 향후 이에 관련된 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 실제로 1977년 국제적인 EEZ 선포로 인해 과거 공해어장의 90% 이상이 연안국 EEZ에 편입되면서 우리나라 원양어업은 해외어장의 상당부분을 상실하게 되었고(2008년 5월 현재 152개국 중 126개국이 EEZ 선포, UN 홈페이지), 동시에 주요 수산기구 등이 선박위치추적장치(VMS) 설치 의무화, 어획쿼터 감축 등을 통해

관리를 강화한 결과 우리나라의 원양어업생산은 2004년까지 감소하다 이후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 현재 원양어업은 해양생물자원 보존·관리를 위한 국제적인 어업규제 강화와 지역 수산기구의 역할 증대로 이에 동참하지 않고서는 조업이 어려운 것이 현실로, 우리나라와 관련된 국제수산규범 또는 지역수산기구(협약)는 다음 표와 같다.

〈그림 5-1〉 국제수산기구 해역도



자료 : 원양산업협회



〈표 5-1〉 우리나라의 지역수산기구 가입 현황(2006년 12월 기준)

번호	기 구 명	본 부 (설립일)	가입일	회 원 국	주 요 활 동
1	FAO 수산위원회	로 마 (1965. 5)	1965.12	일본, 미국 등 190개국	세계 수산업 발전을 위한 회원국간 협력방안 논의
2	OECD 수산위원회	파 리 (1961. 9)	1996.12	OECD 가입 30개국	회원국 수산전반에 관한 정보교환
3	APEC 수산실무그룹	싱가포르 (1991. 3)	1991. 3	APEC 회원국 21개국	역내 수산자원관리 기술이전 등
4	국제포경위원회(IWC)	케임브리지 (1946.12)	1978.12	일본, 미국 등 59개국	고래자원의 보존 및 관리
5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 위원회(CCAMLR)	호 주 (1982.4)	1985. 4	칠레, 아르헨티나 등 24개국	남극해양생물자원 보존 이용
6	중부베링공해명태자원 보존관리협약(CBSPC)	시 애 틀 (1995.12)	1995.12	미국, 러시아 등 6개국	중부베링해 명태자원보존
7	북서대서양수산위원회 (NAFO)	캐 나 다 (1979. 1)	1993.12	캐나다, 러시아 등 13개국	북서대서양 수역 수산 자원 보존 관리 및 이용
8	중동대서양수산위원회 (CECAF)	로 마 (1967. 9)	1968. 1	미국, 일본 등 33개국	중동대서양 수역 수산 자원 보존 관리 및 개발
9	중서대서양수산위원회 (WECAFC)	로 마 (1973.11)	1974. 1	이태리, 스페인 등 33개국	중서대서양 수역 수산 자원 보존 관리 및 개발
10	아시아·태평양 수산위원회(APFIC)	방 콕 (1948.11)	1950. 1	일본, 베트남 등 20개국	회원국의 합리적 수산정책 수립 지원
11	대서양다랑어보존위원회 (ICCAT)	스 페 인 (1969. 3)	1970. 8	스페인 등 39개국	대서양 다랑어자원 보존 및 이용
12	인도양다랑어위원회 (IOTC)	세 이 셸 (1996. 3)	1996. 3	호주, 인도 등 23개국	인도양 다랑어자원 보존이용
13	남방참다랑어보존위원회 (CCSBT)	호 주 (1994. 5)	2001.10	일본, 호주 등 5개국	남방참다랑어 자원 보존관리
14	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 (WCPFC)	마이크로네시아 (2004. 6)	2004.10	호주, 뉴질랜드 등 17개국	태평양 수역 고도회유성 어종 보존관리
15	북태평양소하성 어족위원회(NPAFC)	벤 쿠 버 (1993. 2)	2003. 5	캐나다 등 5개국	연어자원의 보존관리
16	남동대서양수산기구 (SEAFO)	나미비아 (2003. 4)	가입 추진	앙골라 등 3개국	남동대서양 수산자원 최적이용
17	전미열대다랑어위원회 (IATTC)	미국, 라호야 (1950.3)	"	미국, 일본 등 14개국	동부태평양 수역 다랑어자원 보존관리
18	아·태지역 양식기구 (NACA)	방 콕 (1990. 1)	미가입	북한, 중국 등 14개국	양식기술 정보교환 등
19	태평양공동체사무국 (SPC)	뉴칼레도니아 (1947. 2)	"	프랑스 등 27개국	다랑어관련 자료수집, 과학조사
20	남인도양수산협약 (SIOFA)	미 정 설립준비	"	호주, 뉴질랜드 등	남인도양 수산자원의 보존관리

자료 : 농림수산식품부, 「수산업동향에 관한 연차보고서」, 2007.

- 지금까지 주요 국제수산규범이나 지역수산기구(협약)가 마련한 주요 규제·관리조치는 다음과 같다.

〈표 5-2〉 주요 국제·지역수산기구의 보존·관리조치 현황(2007년 12월 기준)

기구명	수역	대상어종	보존·관리조치
FAO	전수역	수산자원	책임있는 수산업 규범 작성, 국제행동계획(IUU어업, 어획능력관리, 상어 및 바다새 보존) 마련 등
NAFO	북위3 5도 이서 북서대서양	수산자원(연어, 다랑어류, 새치류, 고래류와 대륙붕 정착성 종 제외)	TAC 및 국가별어획할당량 설정, 망목규제, 체장규제, 단속 실시 등
CCAMLR	남위 60도 이남 및 남위 60도와 남극수축선(收束線) 사이 수역	크릴새우, 메로 등 남극해양생태계에 속한 해양생물자원	어획가능량, 금어기, 금어구역, 보호종 설정 등
WCPFC	중서부태평양	다랑어류, 새치류 등	어획통계, 조사연구, 자원평가에 관한 과학적 논의
ICCAT	대서양	다랑어류 및 다랑어류어업으로 어획된 기타어종	TAC 및 국가별어획할당량 설정, 소형어 어획금지, 어획노력 제한, FADs조업금지, 정규선리스트, 눈다랑어통계증명제도, 참다랑어통계증명제도, 황새치통계증명제도 등
CCSBT	인도양다랑어 회유수역(한계 규정 없음)	인도양다랑어	총어획가능량과 협약국에 대한 할당량 등의 조치 결정, 무역통계증명제도 등
IATTC	동부태평양	가다랑어 및 다랑어류, 다랑어어업으로 어획된 기타어종	위원회 권고(제2조), 눈다랑어어획규제, 선망어획 노력량규제, 정규선리스트, 눈다랑어통계증명제도 등
CCBSP	베링해 연안국의 200해리 외측 공해수역	명태, 기타 해양생물자원	어획가능수준 설정, 국가별 할당량 설정 등

### (1) 국제식량기구 수산위원회(FAO COFI)의 논의 동향

- FAO 수산위원회의 최근 회의(2007년 3월)에서는 지역수산관리기구의 기능 강화, 어업에 대한 생태계 접근법 적용, IUU대책, 책임있는 어업에 관한 행동규범 및 국제행동계획의 추진 현황 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 지역수산기구의 기능 강화에 대해서는 2007년 1월에 개최된 다랑어류 지역수산기구의 합동회의에서 채택된 행동방침에 근거하여 각 지역수산기구 및 관련국의 실행이 중요하다는 데에 회원국가간의 공감대가 마련되었다.

- 어업에 대한 생태계 접근법 적용의 경우 심해어업관리 문제를 둘러싸고 2006년 UN결의를 바탕으로 악화상태에 있는 해양생태계의 지정 및 어업 영향평가 등 심해어업관리를 위한 기술가이드라인 책정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다. 또한 IUU 대책으로 향후 IUU 어업에 대한 대책 마련이 중점적으로 필요하다는 인식대 마련과 함께 FAO가 항만국 조치에 관한 새로운 협정 작업에 착수하고 FAO가 전세계 어선의 리스트 작성 가능성을 검토하는 것에 대한 지지가 이루어졌다.
- 책임있는 어업에 관한 행동규범 및 국제행동계획의 추진 현황에 대한 검토도 이루어졌는데, 책임있는 어업에 관한 행동규범 및 4가지 국제행동계획(어획능력, IUU, 상어, 바다새)의 시행 촉진 필요성이 확인되었다. 특히 어획능력관리에 대해 각종 대응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 점이 인식되었다. 또한 바다새국제행동계획 실시를 촉진하기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이 제안되어 FAO가 관련기관 등과 협력하여 작업에 나서기로 하였다.
- 한편 2008년에는 IUU어업 근절을 위한 항구국 조치 협정 초안의 부속서 검토를 위한 FAO의 비공식 기술회의가 개최되었는데, 부속서의 간소화에 대한 회원국간의 공감대가 마련되었다.
- 항구국 조치 협정은 2007년부터 논의되어 온 것으로 불법어업 어선에 대한 입항·항구 사용 거부, 항구국 검색관에 의한 IUU활동 여부 조사 등 강화된 관리내용을 담고 있는데, 기존 부속서의 경우 이행이 불가능하거나 지나치게 과도한 사항을 담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이는 올 1월에 개최되는 FAO 제2차 기술자문회의에서 재논의될 예정이다.
- 이와 함께 공해상의 심해어업 규제에 관련된 국제지침도 발표되었다. 심해 생태계에 현저한 악영향이 발생한 경우 어업중지 등을 결정할 수 있게 한 것인데, 그 대상으로 친숙한 심해어류(명태, 아귀, 금눈돔 등)도 대상으로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 FAO는 심해어류 대상어업이 보다 엄격하게 관리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 어업에 대한 환경 평가 실시 및 정보 수집과 함께 특정어종이 감소할 경우 어업중지 조치를 결정키로 하였다.

## (2) 지역수산기구의 논의동향

### 〈다랑어류 지역수산기구〉

#### ① 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WCPFC)

- 2008년 과학위원회가 눈다랑어 어획량의 감축을 권고함에 따라 이를 근거로 눈다랑어 보존관리를 위한 어획량 삭감조치(2009년부터 3년간 눈다랑어 어획량 30% 삭감)와 불법어업 방지를 위한 어업감시제도 등이 채택되었다.
- 구체적으로 연승어업에 대해서는 과거 어획량을 기준으로 삭감을 결정하였고, 선망어업의 경우 수량 뿐만 아니라 집어장치를 사용한 조업을 일정기간 금지하는 조치로 대응하는 것을 인정하였다. 또한 이의 준수여부를 감시하기 위한 옵서버 승선에도 합의하였다.
- 동시에 올 4월부터 선박위치추적장치(VMS)를 이용한 감시·단속도 실시하여 불법어업 방지에 노력하기로 하였다.

〈표 5-3〉 눈다랑어 보존관리조치의 세부내용

어업종류	내 용	
선망어업	2009년	어류군집장치(FAD) 이용 조업금지(2개월) 또는 어획량 10% 삭감(선택사항)
	2010~2011년*	어류군집장치 이용 조업금지(3개월)
연승어업	3년간 매년 어획량 10% 삭감	

주 : 1) \*는 2009년 연차회의에서 대체조치를 검토

2) 미국, 중국, 인도네시아는 2004년 어획량 기준, 기타국가는 2001~2004년 평균 어획량 기준

- 전세계 눈다랑어 총어획량의 30%가 WCPFC 관할해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리나라 다랑어 어업의 중심어장인 중서부 태평양에서의 조업활동에 대한 감시 및 국제규제가 강화되는 추세라고 볼 수 있다.

#### ② 대서양참치보존위원회(ICCAT)

- ICCAT는 제16차 특별회의를 통해 참다랑어 자원의 보존관리조치 채택과 이행위원

회 개최에 합의하였다. 참다랑어 자원 보존관리조치의 경우 참다랑어 TAC 감축, 선망어업과 축양에 대한 관리 강화, 어획증명제도의 개선 등으로 구성되었다.

- 참다랑어 TAC를 2008년 2만 8,500톤에서 2009년 2만 2,000톤, 2010년 1만 9,950톤으로 감축키로 합의하였으나, 이러한 수치는 동기구의 과학위원회 권고수준인 1만 5천 톤을 넘어서는 수준이다.
- 우리나라의 참다랑어 쿼터는 2009년 131.26톤, 2010년 119.90톤으로 설정되었는데, 2007년 이후 2010년까지 연평균 12.3% 감축하도록 되어 있다.

〈표 5-4〉 ICCAT의 참다랑어(동대서양) 국가별 쿼터

단위 : 톤

구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합계	29,500	28,500	2,2000	19,500
EC	16,779.55	16,210.75	12,406.62	11,237.59
일본	2,515.82	2,430.54	1,871.44	1,696.57
모로코	2,824.30	2,728.56	2,088.26	1,891.49
한국	177.80	171.77	132.26	119.90

주 : 2010년 이후의 TAC는 필요에 따라 재검토, 2011년 이후의 국가별 할당은 2010년에 검토

- 또한 선망어업 및 축양시설을 대상으로 하는 옵서버제도를 창설하고, 참다랑어를 가두리에 이식할 때 수중비디오카메라를 이용한 기록과 모니터링을 의무화하였다.
- 그리고 올해 6월부터 시행되는 참다랑어 어획증명제도에 대한 문제점 개선이 이루어졌다.
- 2009년 3월로 예정된 이행위원회 중간회의를 통해 참다랑어 어획, 수출입 및 축양 관련 회원국의 이행사항을 점검·평가하여 미이행 국가에 대해서는 쿼터를 일시동결하거나 삭감하기로 결의하였다.

### ③ 남방참다랑어보존위원회(CCSBT)

- 제15차 연례회의에서 지역수산물관리기구 중 최초로 다랑어어업의 감시단속조치의 일환으로 남방참다랑어에 대한 포괄적 어획증명제도와 어선감시시스템을 채택하였다.

- 어획증명제도의 채택은 어획 이후 양륙, 전재, 수출, 재수출에 이르는 운송과정 전부를 어획증명서에 기록하고 개체당 태그(TAG) 부착을 통해 불법어획물의 유통 방지를 추구하는 등 투명성을 추구하였다는 점에 의의를 지닌다.
- 이로 인해 2010년 이후 어획증명서가 없거나 표식이 없는 남방참다랑어의 거래는 금지되는데, 동위원회 자원평가그룹과 과학위원회의 평가에서 자원이 고갈단계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는 평가결과를 반영한 결과로 풀이된다.
- 또한 어선위치감시시스템을 통해 인공위성을 이용한 어선의 위치 모니터링 제도도 도입하기로 하였다.
- 우리나라는 2001년 CCSBT에 가입한 이후 현재까지 1,140톤의 쿼터를 유지하고 있다.

#### ④ 전미열대참치위원회(IATTC)

- 제79차 총회에서 눈다랑어 및 황다랑어 자원보존관리조치 채택을 시도하였으나 2008년 이후 보존관리조치에 대한 합의는 도출되지 못한 채 종료되었다. 2006년 제74차 총회이후 6차례의 협상노력이 모두 무산된 것이다.
- 그 동안 위원회는 2004~2006년간 선망을 대상으로 금어기를 설정(6주)하고, 연승으로 어획되는 눈다랑어에는 어획쿼터를 설정하여 관리해 왔다.
- 79차 회의에서는 금어기 확대, 눈다랑어 어획량이 많은 수역에 대한 1개월 간의 금어구역 신규 설정, 연승어업 눈다랑어 어획쿼터 감축(6%) 등에 대한 의견접근이 일부 이루어지기도 하였으나, 최종합의에는 이르지 못하였다.
- 2009년 이후의 보존관리조치는 다음 회의에서 논의하기로 하였다.
- 동부태평양 수역에서는 전세계 참치 어획량의 약 14%(61만 톤) 가량이 생산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연승어업이 눈다랑어 5,611톤(2007년 쿼터 12,657톤)을 어획한 바 있다.

## 〈기타 지역수산기구〉

### ①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CCAMLR)

- 제27차 연례회의에서 2009년 어기(2008년 12월~2009년 11월) 동안의 자원보존조치와 메로어업에 대한 IUU대책이 논의되었는데, 최근 관련조치 개정, 심해어업 제약 등 자원보호조치가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 2009년 어획가능량의 경우 메로는 자원량 악화가 우려되는 만큼 일부 해역에 대한 어획가능량이 삭감되었으며, 크릴새우에 대해서는 올해와 동일한 수준의 어획가능량이 설정되었다.
  - IUU어업 방지를 위한 항구국 조치(불법어획물의 몰수 조치), 크릴조업선 옵서버 의무승선 등 협약수역 내 조업활동에 대한 규제강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 ② 북서대서양수산위원회(NAFO)

- 제30차 회의에서 북서대서양 저어 등에 대한 보존관리조치 논의 결과를 보면, 그린랜드넙치의 보존관리조치로 2009년도 TAC를 현재수준으로 유지하는 데 합의하였다.
  - 동기관의 과학이사회는 그린랜드넙치에 대해 과잉어획이 과잉상태에서 이루어진 만큼 2009년 TAC를 현행의 1만 6,000톤을 1만 471톤~1만 755톤 사이로 제한해야 한다고 권고한 바 있다.
  - 그러나 NAFO는 과학이사회가 지적한 과잉어획 문제는 각국 어업 동향으로 볼 때 자원이 악화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간주하고 2009년 TAC는 현재 수준(TAC 1만 6,000톤)을 1년간 연장하기로 하였다.
- 이와 함께 3L(3L은 서경 46° 30', 북위 46°00', 남경 54°30')지역에서의 북방새우 TAC를 3만 톤으로 늘리고 3M(3M은 북위 49°15', 서경 46°30' 지역임)지역의 어획일수도 유지하기로 하였다.
  - 또한 해양생태계가 취약한 포고(Fogo) 해산지역(seamount)에서 트롤어업을 금지하는 내용 등에도 합의하였다.

### ③ 명태류 지역수산기구(CBSPC)의 최근 논의동향

- 중부베링공해명태자원보존관리협약(CBSPC)은 제 13차 당사국회의에서 협약수역(베링공해) 내 명태자원량이 조업재개 가능수준(167만 톤)에 크게 못 미치는 48만 톤에 불과한 것으로 평가되자 1993년부터 시행되어 온 모라토리엄을 2009년에도 유지하기로 하였다.
- 일부 국가는 어획가능수준을 설정한 뒤 어업을 재개하자고 주장해 왔으나, 중부 베링해의 연안국인 미국, 러시아, 폴란드 등이 과학적인 데이터가 부족한 상태에서 어획가능수준을 설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반복한 결과이다.

### (3) 주요 연안국의 자국자원 보호주의 강화

- UN 해양법 발효 이후 식량자원화에 대한 세계적인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주요 연안국들이 자국자원 보존을 위해 외국어선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정책을 도입하고 있다.
- 자원을 보유한 주요 연안국들이 자원자국화 정책을 통해 입어로 인상, 입어방식의 변화, 최소입어규정(MTCs), 옵서버 승선 등을 요구하고 나서면서 원양어업을 둘러싼 국제여건이 날로 악화되고 있다.
- 우리나라는 조업수역 확보를 위해 러시아 등 다양한 연안국가들과 어업협정 내지는 수산협정을 맺고 있는데, 현재 우리나라가 체결한 어업협정은 2007년 기준으로 13개국이며 중국과 일본을 제외하고서는 우리나라가 원양어업국가로서 연안국의 EEZ에 입어하기 위한 것이다.
- 어업협정을 체결한 국가 중 우리나라가 입어한 연안국은 2007년 기준으로 7개국(중국, 일본 포함)에 이른다.
- 수산협력약정은 4개국으로 노르웨이, 베트남, 아르헨틴, 알제리와 체결하였다.



〈표 5-5〉 우리나라의 양국간 어업협정 체결현황

구 분	체 결 일	발 효 일	비 고
중 국	'00. 8. 3.	'01. 6. 30	12개월전 통보시 종료
일 본	'98. 11. 28.	'99. 1. 22	6개월전 통보로 종료
파푸아뉴기니	'92. 1. 25.	'92. 4. 15	12개월전 통보시 종료
러 시 아	'91. 9. 16.	'91. 10. 22	6개월전 폐기통보 없을 시 매 1년씩 연장
에쿠아도르	'84. 5. 22.	'84. 9. 19	6개월전 통보시 종료
모리타니아	'84. 1. 7.	'84. 1. 8	6개월전 통보시 종료
호 주	'83. 11. 23.	'83. 11. 24	12개월전 통보시 종료
프 랑 스	'80. 9. 19.	'80. 12. 19	3개월전 통보시 종료
키 리 바 시	'80. 12. 18.	'80. 12. 18	6개월전 통보시 종료
솔 로 몬	'80. 12. 12.	'80. 12. 12	12개월전 통보시 종료
쿡아일랜드	'80. 8. 25.	'80. 8. 25	3개월전 통보시 종료
투 발 루	'80. 6. 18.	'80. 6. 18	6개월전 통보시 종료
이 란	'77. 5. 11.	'78. 4. 1	6개월전 통보시 종료

자료 : 농림수산식품부, 『수산업동향에 관한 연차보고서』, 2007.

#### ① 러시아 정부의 수산자원 관리 강화

- 우리나라 원양 명태, 꽁치 등의 주요 조업국가인 러시아의 최근 동향을 보면 자원에 대한 국가관리 강화 정책을 배경으로 수산자원에 대한 통제·관리도 강화하고 있어, 관련된 원양어업국가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
  - 2001년부터 러시아는 극동지역의 불법자원 남획 방지와 불법 수출 방지를 위해 러시아 EEZ 내 모든 수산물에 대해 옥션제도를 도입하였고, 2003년에는 ‘러시아 어업발전 2020’이라는 정책을 채택하여 정부쿼터와 산업쿼터를 구분하여 배정하고 있다.
- 러시아 어업발전 2020에서 제기한 선결과제에는 자국 수산자원 관리 강화를 위한 사항들이 상당 수 포함되어 있어, 향후 자국 EEZ내 외국어선 관리에 대한 러시아 정부의 정책 방향을 가늠해 볼 수 있다.
  - 세부사항을 보면 i)수산자원 할당의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한 장기적이며 효과적인 관리 제도의 마련 및 시행, ii)국제협약이 이행되는 다른 국가의 배타적경제

수역 또는 공동수역으로 자국어선을 재배치하여 수산자원을 보존하고 합리적으로 이용, iii) 수산자원 모니터링 강화 및 불법 어업에 대한 국가 통제력의 강화 등을 들 수 있다.

- 이처럼 러시아가 자국 EEZ내 어업자원 보호를 위하여 매년 총 허용어획량을 감축하고 외국정부에 할당해 온 정부쿼터도 축소하면서, 우리나라도 명태 등의 어획쿼터 확보에 곤란을 겪고 있다.
  - 신 한일어업협정 체결로 일본 홋카이도 수역의 명태트롤어선 철수로 인해 북양트롤은 러시아어장에만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실정인데, 동어장은 명태 외에도 청어, 대구, 꽁치, 오징어, 가오리 등 대중성 어종 자원량이 풍부하여 자원확보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어장으로 평가받고 있다.
  - 러시아 수역에서의 어획쿼터는 한-러 어업협정에 따라 명태, 대구, 오징어, 꽁치, 가오리, 청어 등에 대한 양국 정부간 쿼터가 결정되고 있으며, 기타 민간에 의한 산업쿼터도 배정받고 있다.
- 러시아정부는 TAC 감축 이외에도 위성자동위치발신기 부착, 치어보호망 부착, 읍 서버 승선 등 조업규제를 강화하고 있어 조업에 곤란을 겪고 있다.

## ② 기타 연안국가의 자원관리 동향

- 주요 연안국들이 다투어 EEZ를 선포하면서 자국 EEZ내 수산자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있다. 각국의 EEZ 선포로 해외공해어장의 상당부분이 상실된 가운데, 우리나라 원양어업의 연안국 EEZ 어장 내 의존도가 높아 어려움이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 원양오징어의 주어장인 포클랜드의 경우 입어료가 꾸준히 증가하여, 2008년 시점에서 볼 때 과거 5년간 입어료가 약 85%나 증가하였다.
  - 또한 라스팔라스를 기지로 하는 아프리카 서부대서양 트롤어업의 경우 연안국들의 자원자국화와 감시가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례로 2007년에 앙골라는 트롤어선에 대한 금어기 설정과 위성추적장치 부착을 의무화하였으며, 서부아프리카연안 14개국 협의체는 이러한 제도 도입을 위한 논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 연안국 중에서도 우리나라가 주로 입어해 있는 개발도상국이 자국수역 내 입어 조건으로 경제협력 강화를 요구하는 경향이 증가하고 있다.
- 이에 정부를 중심으로 해외어장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연안국(태평양 도서국(키리바시, 솔로몬 등), 아프리카 연안국(기니, 기네비소 등) 등)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거나 모색되고 있다.

### (3) 후발 원양어업국의 세력 확대

- 원양어업을 둘러싼 국제정세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수산물에 대한 세계적인 수요 증대 등을 배경으로 중국, 대만 등 후발 원양어업국가의 세력 확대가 가속화되고 있다.
- 후발 원양어업국가의 활발한 진출은 이들 국가가 우리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비용구조를 지니고 있다는 측면에서 문제시된다.

#### ① 중국의 원양어업에 대한 전략적 투자

- 중국은 1980년대 중후반부터 원양어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왔는데, 2003년 중국어업법에 근거하여 원양어업관리규정을 제정하는 등 국가적인 사업으로 정부의 적극적인 투자가 진행되고 있다.
- 이를 바탕으로 순조로운 성장세를 보여 현재 30여개국 이상의 연안국과 3대양 공해에서 조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 이는 중국이 자국내 자원 감소와 환경오염 등 문제로 연근해어업의 어획노력량은 일정한 수준에서 제한하고, 원양어업을 통해 수산물 공급 확대를 도모하는 쪽으로 정책 방향을 설정하였기 때문이다.
- 실제로 중국의 원양어선세력 추이를 보면 척수와 톤수가 2005년 현재 2,100척, 75만 톤으로 2000년 이후 연평균 4.3%, 1.2%씩 증가하였으며, 원양어업 생산은 144만 톤으로 2000년 대비 66%씩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중국 농업부가 발표한 ‘어업발전 11.5계획’에서는 원양어업 생산량을 2010년까지 170만 톤으로 늘릴 것이라고 제시하고 있는 만큼, 중국 원양어업의 세력 확대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 이를 바탕으로 원양어선 건조에 대해 세금 면제, 유류 보조금 지급 등 지원정책을 수립하여 원양어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동시에, 남미 다양한 수산국가와 수산협력을 통한 해외어장 개발에도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 ② 대만 원양어업의 IUU 조업

- 대만은 1960년대부터 원양어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였으며 1980년부터 1990년대에 전성기를 이루었다. 그러던 것이 200해리 체제의 구축 및 국제기구의 규제로 대만의 원양어업은 1990년대 말부터 쇠퇴기에 접어들었다고 하나 여전히 전체 어업생산의 절반 이상을 차지(2004년 53.8%)하고 있어 어업의 주요 세력을 형성하고 있다.
- 대만의 원양어업이 자국내 공급보다는 해외로 주로 수출하고 있는데, 대만 정부의 발표에도 불구하고 다랑어류 등의 조업을 둘러싼 각종 위법행위가 발각되면서 주목을 받게 되었다.
- IACCT가 1997년에 눈다랑어의 어획량과 어선척수를 제한하는 조치를 취한 바 있는데, 대만은 편의치적선, 어획물 위장 등의 부정행위를 통해 어선척수 제한, 어획량 삭감, 감척척수 상향 조정 등의 규제를 받은 바 있다.
- 또한 WCPFC와 관련하여 편의치적선을 이용해 어선척수를 늘린 바 있어 이에 대한 조정조치도 이루어진 바 있다.
- 한편 대만의 오징어원양어선이 일본 EEZ 인근에서 쾡치를 어획하여 우리나라, 일본, 중국 등지로의 수출에 본격 나서면서 우리나라 쾡치 봉수망어업이 타격을 입기도 하였다.

## (4) 원양산업발전법 발효

- 수산업법과는 별도로 2007. 8. 3. 원양산업발전법을 제정한 이유는 원양산업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원양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책임있는 어업의 경영을 통하여 경쟁력을 강화하고 해외수산자원의 안정적 확보와 국제협력을 촉진하여 국민경제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이다.
- 여기서 원양산업이란 원양어업과 원양어업 관련 사업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원양어업은 대한민국 국민이 해외수역에서 단독 또는 외국인과 합작으로 수산동식

물을 포획·채취하는 사업을 말한다.

- 또한 원양어업 관련사업은 위와 같은 원양어업에서 생산된 수산물과 해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투자하여 생산한 수산물을 운반·가공·유통·판매 등을 하는 사업(양식 및 이에 부대되는 사업포함)을 말한다.
- 원양산업발전법의 주요내용은 원양산업발전종합계획의 수립, 원양어업의 허가, 국제협력과 연구개발, 명예해양수산물관제도의 운영, 원양어업관련사업의 신고 및 지원, 조세에 대한 특례 등이 있다.
- 이와 같이 2008년 2월 4일부터 시행된 원양산업발전법은 수산업법에 의해 관리되던 원양어업이 원양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 법으로서 원양어업이 각종 해외의 환경변화에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할 수 있다.
- 또한 원양어업은 국내 수산업과는 달리 국제기구 등에 의한 협약 준수사항이 많아서 이러한 협약 사항들이 국내법에 수용될 필요가 있어 원양산업발전법이 이러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 기대된다.
- 특히 해외수산자원의 운반·가공·유통·판매 등을 통한 해외 수산자원 확보를 위해서는 해외수산물펀드, 해외양식어장 개발 등을 포함해 원양산업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개발이 필요하다.

## 2) 2008년 원양산업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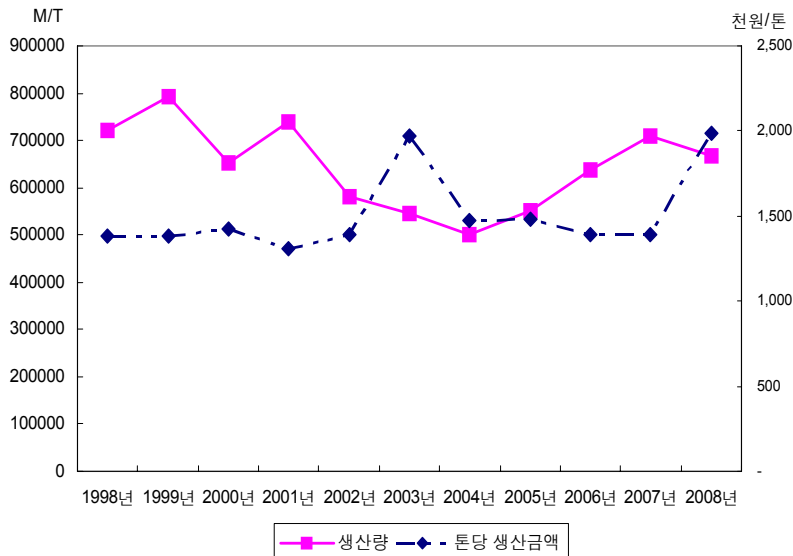
### (1) 원양 수산물 생산 및 수출 실태

#### ① 전체 생산량 추이

- 원양수산물의 생산량은 2004년 약 50만 톤으로 떨어졌으며 이후 2008년까지 연간 7.5%씩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 그러나 톤당 생산금액은 2003년과 2008년에 2백 만원을 기록한 것을 제외하고는 생산량 증감에 관계없이 톤당 생산금액(연중 판매금액)이 150만원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특히 원양수산물은 해외수출이 많을 뿐만 아니라 다랑어류의 경우에는 일본 수출에 의존 하므로 최근의 원/달러 환율급등 및 엔화강세가 원양어획물의 톤당 가격에 영향을 미쳐서 2008년 톤당 생산금액이 급등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5-2〉 원양수산물 생산량 추이



주 : 2008년 생산량은 11월까지의 공식통계를 이용하였고, 미집계된 12월의 생산량은 전년 동월 생산량으로 대체하여 추정함

자료 : 통계청, 어업생산통계(<http://fs.fips.go.kr/>)

## ② 주요 어종의 생산실태

- 원양어획물의 주요 어종별 생산량을 살펴보면, 오징어류와 다랑어류의 생산량이 각각 연평균 10.1%, 5.3%씩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명태와 꽁치의 생산량은 각각 연평균 4.9%, 2.5%씩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따라서 최근의 원양수산물의 생산량 증대는 다랑어류의 생산량 회복과 오징어 생산의 급등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 주요 어종의 척당 생산량 추이를 살펴보면, 다랑어와 오징어를 생산하는 업종의 척수가 줄어든 반면 생산량이 점차 확대되어 각각 연평균 8.5%, 110.9% 생산량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 또한 명태는 러시아 쿼터에 따라 큰 영향을 받지만 명태는 척당 생산량이 연평균 28.1%씩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5-6〉 주요 어종별 생산량 및 척당 생산량 추이

구 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연평균 성장률
다랑어류	생산량	238,624	258,062	295,440	300,268	294,264	5.3
	척수	210	205	197	193	193	-2.9
	척당생산량	1,136	1,259	1,500	1,556	1,525	8.5
명 태	생산량	19,997	26,004	26,269	20,109	17,913	-4.9
	척수	11	8	7	7	7	-25.7
	척당생산량	1,818	3,251	3,753	2,873	2,559	28.1
오징어	생산량	69,999	81,172	170,211	223,338	179,411	10.1
	척수	50	50	50	49	49	-8.5
	척당생산량	1,400	1,623	3,404	4,558	34,491	110.9
꽂 치	생산량	22,625	40,509	12,009	16,976	34,491	2.5
	척수	19	19	19	19	19	0.0
	척당생산량	1,191	2,132	632	893	1,815	2.5

주 : 꽂치의 척수는 꽂치봉수망과 오징어채낚기 겸업 척수이고, 명태척수는 합작선이 제외된 숫자임

2008년 어선척수는 공식집계가 끝나지 않아서 2007년 척수를 사용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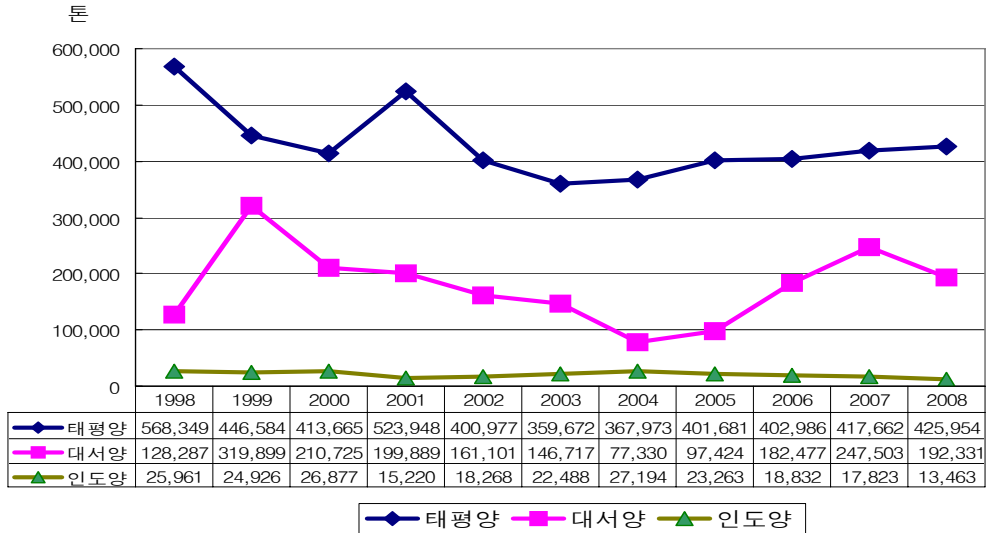
자료 : 한국원양산업협회, 「원양산업 통계연보」, 2008.

통계청, 어업생산통계(<http://fs.fips.go.kr/>)

### ③ 해역별 생산실적

- 최근 10년간 주요 해역별 생산실적을 살펴보면, 대서양에서 오징어 생산량 증가에 힘입어 2005년 이후 크게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 태평양에서 주로 어획되는 다랑어류의 경우에는 2002년과 2003년에 다소 감소되었다가 최근 생산량이 회복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 그러나 2008년에는 대서양의 생산량이 약간 줄었으며, 태평양 해역의 생산량은 완만한 증가세를 이어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5-3〉 해역별 생산추이



- 태평양은 다랑어류 및 오징어류가 주로 생산되는 해역으로서 전체 원양어획물의 67.5%가 생산되고 있으며, 생산금액으로는 69.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그 다음으로 오징어류를 주로 생산하는 대서양 해역에서 전체 원양어획물의 30.4%를 생산하였으며, 생산금액에 있어서는 25.5%를 기록하였다.

〈표 5-7〉 해역별 생산량 및 생산어종

단위: 천 톤, 억 원

구 분	2008년		주요 생산어종
	생산량	생산금액	
합 계	631 (100.0)	12,869 (100.0)	다랑어류, 오징어류, 크릴새우, 명태 순
태평양	426 (67.5)	8,966 (69.7)	다랑어류, 오징어류, 명태, 꽁치 순
대서양	192 (30.4)	3,286 (25.5)	오징어류, 민어류, 가오리류 순
인도양	13 (2.1)	617 (4.8)	다랑어류, 오징어류, 돔류 순

주 : 2008년 생산량은 11월까지의 공식통계를 이용하였고, 미집계된 12월의 생산량은 전년 동월 생산량으로 대체하여 추정함

자료 : 통계청, 어업생산통계(<http://fs.fips.go.kr/>)



## ④ 주요 어종의 수출실태

- 원양어획물의 수출은 연평균 6.6%씩 증가하였으며, 주요 어종의 수출량이 전반적으로 상승하였고, 특히 새우류의 수출이 크게 증가하여 연평균 86.8%씩 성장하였다.
  - 이외에도 오징어, 저서어류의 수출량이 각각 14.0%, 11.4%씩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원양어획물 수출에서는 다랑어류가 1990년 이후 매년 약 3억불 정도가 일본시장으로 수출되면서 전체 수산물 수출을 주도하고 있다.
  - 다랑어류는 어황이나 환율에 따라 주요 수출시장인 일본의 어가 변동에 영향을 받으며, 오징어류의 경우 포클랜드 어장의 생산규모가 수출금액의 변동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표 5-8〉 원양어업 어종별 수출추이

단위: 천\$

년 도	합 계	다랑어류	새우류	오징어	저서어류	기 타
2003년	365,422	231,500	866	39,304	73,256	20,496
2004년	395,534	260,744	2,143	54,230	67,945	10,472
2005년	380,162	232,072	7,727	59,164	72,185	9,014
2006년	410,424	282,007	13,018	23,422	88,006	3,971
2007년	471,041	239,895	10,490	66,371	112,873	41,412
연평균성장률	6.6	0.9	86.8	14.0	11.4	19.2

자료 : 원양산업협회, 「원양산업 통계연보」, 2008.

## (2) 원양어업 진출현황

## ① 태평양 해역

- 태평양 해역은 전체 원양어선의 58.4%인 226척이 조업하고 있으며, 남태평양 군도를 중심으로 157척의 다랑어연승과 선망이 솔로몬, 키리바시, PNG 어장 등에서 조업하고 있는 최대 원양어장이다.
  - 또한 일본과 러시아 해역에서 20척의 콩치 봉수망 어선들이 러시아·일본 EEZ

및 북태평양 공해에서 조업을 하고 있다.

〈표 5-9〉 태평양 해역의 원양어선 진출현황

해역	업종	척수	조업어장
러시아	저연승(대구)	2	러시아 서베링해
	트롤(명태)	6	러시아 서베링해
	붕수망(꽂지)	20	러시아·일본EEZ 및 북태평양공해
일본	붕수망(꽂지)		러시아·일본EEZ 및 북태평양공해
남태평양군도	다랑어연승, 선망	157	솔로몬, 키리바시, PNG, 투발루, 마셜 등
인도네시아	트롤	25	아라푸라해
뉴질랜드	트롤, 통발	13, 1	뉴질랜드수역
베트남	트롤	1	베트남수역
캄보디아	통발	1	캄보디아수역
합 계		226	총 387척 중 58.4%

자료 : 원양산업협회, 『원양산업 통계연보』, 2008.

## ② 대서양 해역

- 대서양 해역은 전체 원양어선의 33.3%인 129척이 조업하고 있으며, 서부아프리카 해역에서 원양트롤어선 49척이 기니비사우, 기니, 시에라리온 어장 등에서 조업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 또한 포클랜드 해역의 포클랜드 EEZ와 공해에서 원양오징어채낚기 어선 30척과 트롤어선 14척이 조업 중이다.

〈표 5-10〉 대서양 해역의 원양어선 진출현황

해역	업종	척수	조업어장
수리남	트롤	1	수리남수역
포클랜드	트롤	14	포클랜드공해
	오징어채낚기	30	포클랜드EEZ, 공해
서부아프리카	트롤	49	기니비사우, 기니, 시에라리온 등
	모선식외줄낚시	9	가봉, 기니비사우
공해	다랑어연승	14	공해수역
공해, 남빙양	원양트롤	3	공해, 남빙양수역
공해, 남빙양	저연승	9	공해, 남빙양수역
합 계		129	총 387척 중 33.3%

자료 : 원양산업협회, 『원양산업 통계연보』, 2008.

## ③ 인도양 해역

- 인도양 해역은 전체 원양어선의 8.3%인 32척이 조업하고 있으며, 이 중 인도양에 인접한 연안국에 입어하거나 공해수역에서 다랑어연승이 22척 정도 진출하여 조업하고 있고, 최근 해적이 빈번이 출몰하는 오만과 소말리아 어장에도 원양트롤어선이 10여척 진출해 있다.

〈표 5-11〉 인도양 해역의 원양어선 진출현황

해역	업종	척수	조업어장
오만, 소말리아	트롤	10	오만, 소말리아
공해	다랑어연승	22	연안국 입어, 공해수역
합 계		32	총 387척 중 8.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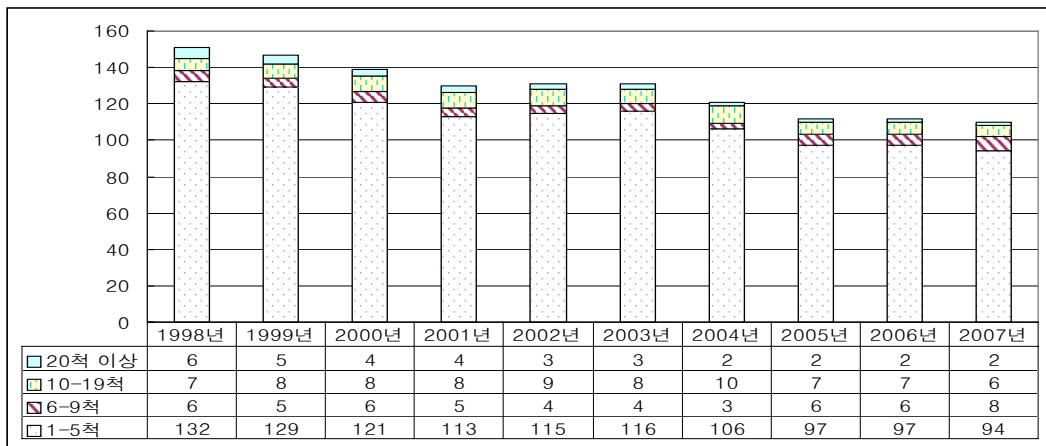
자료 : 원양산업협회, 『원양산업 통계연보』, 2008.

## (3) 원양어업 경영체 및 어선원 현황

## ① 어선보유 척수별 경영체 현황

- 전반적으로 원양어업 경영체가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 1~5척 미만의 어선을 보유하고 있는 경영체는 1998년 132개사에서 2007년 현재 94개사 줄어들었으며, 6~9척 미만, 10~19척 미만, 20척 이상 선박을 보유한 경영체는 큰 변동을 보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5-4〉 어선보유 척수별 경영체 현황



자료 : 원양산업협회, 『원양산업 통계연보』, 2008.

- 이는 1~5척을 보유하고 있는 영세 경영체가 경쟁력을 잃고 지속적으로 도산하였음을 보여준다.

## ② 어선척수 현황

- 2007년 말 현재 원양어업 어선척수는 387척이며, 5년 이하의 어선은 신조선인 다랑어선망 어선 1척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고, 21년 이상의 노후선박이 전체의 67.7%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 특히 전체 원양어선의 97.7%가 16년 이상의 노후 선박인 것으로 나타나 향후 유망업종에 대한 신조 등의 대책이 없다면 대만, 중국 등과의 경쟁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표 5-12〉 원양어업 어선척수 현황(2007년 말)

업종별	계	5년 이하	6~10년	11~15년	16~20년	21~25년	26~30년	31년이상
계	387	1	4	4	113	77	61	125
다랑어연승	165	-	2	1	91	53	15	3
다랑어선망	28	1	1	-	4	-	18	4
북양트롤	6	-	-	-	1	-	-	5
오징어채낚기	30	-	-	-	6	4	4	16
(오징어·외줄검업)	(1)	-	-	-	-	-	-	(1)
꽂치봉수망	20	-	-	-	5	2	4	9
(꽂치·오징어검업)	(19)	-	-	-	(5)	(2)	(4)	(8)
트롤소계	116	-	1	2	5	16	16	77
트롤	태평양	39	-	-	3	11	10	16
	대서양	67	-	1	2	5	6	51
	인도양	10	-	-	-	-	-	10
저연승	3	-	-	-	-	-	1	2
(통발·저연승검업)	(8)	-	-	-	-	(2)	(3)	(3)
모선식외줄	9	-	-	-	1	-	-	8
원양통발	2	-	-	1	-	-	1	-

자료 : 원양산업협회, 원양산업통계연보, 2008.

## ③ 어선원 현황

- 원양어업 어선원 취업현황을 살펴보면, 2003년 7,930명에서 연간 7.4%씩 감소하여

2007년 현재 5,841명으로 감소하였다.

- 국내어선원의 연평균 감소율은 11.4%에 달하고 있으며, 외국인어선원도 연평균 4.6%씩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또한 전체 원양어업 어선원 중 국내어선원이 차지하는 비중인 2003년 43.6%였으나 2007년 현재에는 36.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5-13〉 연도별 원양어업 어선원 취업현황

단위 : 명, %

업 종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연평균 증가율
국내어선원	3,460(43.6)	2,859(40.5)	2,535(40.3)	2,339(38.6)	2,145(36.7)	-11.4
외국인어선원	4,470(56.4)	4,194(59.5)	3,756(59.7)	3,719(61.4)	3,696(63.3)	-4.6
합 계	7,930	7,053	6,291	6,058	5,841	-7.4

자료 :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2008.

#### (4) 해외투자사업 현황

- 수산부문의 해외투자사업은 기존의 원양업체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기존에 수산업에 하지 않았던 기업도 해외 근거지를 중심으로 해외 수산자원을 이용해 사업하는 업체들이 생겨나고 있다.
- 대표적 원양업체인 동원산업(주)는 2008년 6월 미국 텔몬트의 수산사업 다랑어브랜딩인 스타키스트를 인수하여 공격적인 마케팅을 시도하고 있으며, 앙골라 등지에서 오랜 기간 사업을 시행한 인터볼고의 경우에도 현지에서의 수산물 가공 판매 등의 해외투자사업을 본격화 하고 있다.
- 또한 한성기업 및 아쿠아인터네셔널 등의 회사 등은 아르헨티나, 인도네시아 등지에 현지법인을 설립하고 수리미 및 새우 등을 생산하여 수출을 시도하고 있으며, (주)예송수산의 경우에는 팔라우 연안의 다랑어회획권을 확보하여 이를 이용한 사업을 진행 중에 있다.

〈표 5-14〉 해외수산투자사업 진출 현황

업체명	진출국	주요 사업내용
동원산업(주)	미크로네시아 미국	- 태평양, 인도양, 남빙양에서 다랑어어장 개척사업 지속적 추진 - 선망선, 연승선, 트롤선 등을 이용하여 다랑어 어획, 국내외 시장 판매 사업 추진(해외 사무실 미크로네시아 포나페 소재) - 2008년 6월 미국 델몬트의 수산사업 다랑어브랜드 '스타키스트' 인수
인터불고	앙골라 스페인 네델란드	- 원양산(대서양) 조기류, 돔류, 대구류, 새우류 등을 어획, 국내반입 및 아프리카, 유럽 등으로 수출 - 냉동창고, 선박대리점(선용품 공급) 및 수리 서비스 등 육상시설 투자 - 유럽 내 소매 체인점 및 대리점 브랜드화 사업, 식자재 수출입 - 관련 계열사 : (주)인터불고, INTER-BURGO S.A, WORLD-WIDE INTERNATIONAL LDA. 등
(주)서울오션 아쿠아리움	인도네시아	- 2003년부터 인도네시아 깔리만탄섬에서 새우양식사업 추진 - 냉동선단(4척) 구비, 새우 전처리 가공공장 설립 - 현지법인 : PT. Aquarium Shrimp
한성기업	아르헨티나	- 아르헨티나 수역에서 채낚기선단 투입, 오징어 어획 - 게맛살 주원료인 수리미의 수출을 위해 대형 트롤선 투입, 민대구 조업 확대 추진 - 현지법인 : Hansung AR S.A.
(주)아쿠아인터 네셔널	말레이시아	- 2002년부터 말레이시아 사바주에서 돌돔 및 능성어 양식 추진 - 사바주 수산청, 대학과 양식개발에 대한 기술협력 체결
(주)예승 수산	팔라우	- 2006년 팔라우 정부로부터 25년간 조업선박에 제한 없는 다랑어조업권 확보 - 팔라우 근해에서 다랑어 어획-유통-판매사업 추진 예정

### 3. 2009년 전망과 이슈

#### 1) 전망

##### 2009년 원양산업 생산량 소폭 감소 예상

○ 2009년 원양산업의 생산은 어종이나 업종별로는 다소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나 전체적으로는 전년에 비해 큰 차이는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 그러나 전세계적인 자원관리 강화나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소비위축 등으로 2009년 생산은 2008년에 비해 소폭 감소될 것으로 예상 된다.

○ 다랑어의 경우 최근 주요 지역수산기구를 중심으로 자원관리 강화 추세를 보이면서

쿼터 감소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 그러나 쿼터 기준시점이 대부분 2000-2004년의 시점을 기준으로 이루어지며 우리나라의 경우 대부분 쿼터보다는 연안국 입어형태로 조업이 이루어지고 있고 이미 2000년대 들어 어획능력이 많이 축소된 점을 고려할 때 올해에 쿼터감소로 인한 직접적인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 포클랜드 어장에 진출도가 높은 오징어의 경우 해당지역 진출이나 입어에는 커다란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 그러나 오징어 생산은 변동성을 보이고 있는 해당지역의 자원상황과 국제 오징어 시장의 수급이나 가격에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이들 요인의 변화에 따라 생산량의 등락도 예상된다.
- 아직까지 러시아 정부와 2009년 쿼터 협상이 완료되지는 않았으나 러시아 수역에서 조업이 이루어지는 명태나 꽁치 등의 경우 지난해 수준과 비슷한 수준에서 쿼터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 또한 물량면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합작어업(명태)의 경우 러시아의 명태 TAC 감축을 고려할 때 어려움이 예상되나 2009년 합작물량은 지난해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 원양 어획물의 수출단가 하락 예상

- 최근 전세계적인 금융위기로 인한 소비위축으로 수산물 소비 또한 감소세가 예상되는 시점으로 수산물 수요 감소로 인한 가격하락이 예상된다.
- 여기에 더해 2009년에는 지난해 말에 보였던 1500원 대의 환율이 다소 안정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앞선 전망치에서 보았듯이 금년 환율이 1100원 대로 안정될 경우 지난해 말에 비해 원양 어획물의 수출 단가가 크게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 어업이익 감소 및 경영비용 상승 전망

- 원양어업의 경우 어획물의 대부분이 수출되고 있기 때문에 수출가격의 변동은 업계의 수익과 직결될 수 밖에 없다.

- 그러나 2009년은 2008년에 비해 환율이 다소 안정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수출단가 하락으로 인한 원양업계의 어업이익도 전년에 비해서는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 더불어 입어로 측면에서 보면 세계적인 자원자국화 및 자원관리 강화 추세로 연안국에 지불하는 입어료는 지속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크며, 경영비용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유가 역시 경기회복 여하에 따라서는 상승가능성이 있는 만큼 2009년 원양업계의 경영비용도 전년에 비해 상승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 2) 이슈 및 대책

### 환율하락에 대비 수출경쟁력 강화 필요

- 2008년 900원대로 시작한 환율이 1500원 대까지 치솟으면서 국내 대부분의 기업들이 고환율로 인해 커다란 어려움을 겪었다.
- 그러나 원양어업의 경우 산업의 특성상 어획물의 대부분을 수출하기 때문에 2008년에는 고환율로 인한 어려움보다는 달러나 엔화의 상승으로 수출단가가 높아지면서 실보다 득이 많았던 것으로 평가된다.
- 문제는 최근 환율이 1300원대 아래로 내려가고 있으며 여러 전망에 의하면 올 하반기부터 우리나라 경제가 안정세를 찾으면서 환율도 하향안정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 특히 앞서 살려본 바와 같이 본 전망에서 제시한 2009년 평균환율이 1100원으로 안정될 경우 원양산업 입장에서는 지난해에 비해 수출가격의 크게 하락하게 되어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전가될 가능성도 예견된다.
- 따라서 환율이 수출가격에 직결된다는 측면에서 2009년에는 환율동향에 관심을 높일 필요가 있으며 경영안정이란 차원에서 환율하락에 대비 수출경쟁력 강화에 노력을 경주할 필요가 있다.



### 국제유가 상승에 대비 비용 절감방안 마련

- 유가변동 역시 연근해어업과 동일하게 원양산업의 경영비용 중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관심대상이다.
  - 2008년에는 150달러라는 유래 없는 고유가를 경험하면서 한때 위기감이 조성되었으나 세계적인 경기위축으로 인해 최근에는 국제유가가 50달러를 하회하고 있다.
  - 그러나 국제유가는 향후 세계적인 경기회복이나 여건변화에 따라 상승가능성도 배제할 없으며, 유가 상승시 경영비용 상승으로 전가될 가능성이 높다.
  - 더불어 향후 기후변화 협약과 관련 탄소배출 저감 방안 마련이 필수적인 바 원양산업의 지속적 발전 측면에서도 유류저감 방안 등을 포함한 원양산업의 비용 절감 방안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

### 글로벌 소비감소에 대비 안정적 수출선 확보

- 더불어 최근의 경기위축은 전세계적인 소비감소로 이어지고 있으며 2009년에도 이러한 소비위축 현상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수산물 소비 또한 감소를 경험할 것으로 예상된다.
  - 따라서 환율이나 유가부문 외에도 국제적인 수산물 수급상의 문제로 수산물 가격의 하락도 예상되는 만큼 원양어획물의 안정적인 수출선 확보 또한 2009년에 관심을 높여야 할 사항이다.

### 해외어장의 안정적 입어조건 확보 노력 강화

-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최근 국제기구나 지역수산기구의 동향을 보면 자원관리를 강화하는 추세이며 연안국들도 자원자국화 경향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 원양어업은 대부분 공해나 연안국 입어 형태로 이루어 질 수밖에 없는 현실로 이들 주요 수산기구나 연안국의 자원관리에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다.
  - 따라서 국제수산기구나 연안국과의 양자 혹은 다자협력 등 해외어장의 안정적 입어조건 확보를 위한 정부와 업계의 어장확보를 위한 노력이 지속될 필요가 있다.

### 해외생산능력 확대를 위한 관심 증대

- 해외양식어장 개척은 향후 원양어선어업의 생산 확대의 한계를 대체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다.
  - 2006년부터 아시아 일부지역을 중심으로 시도 되고 있는 해외양식어장 개척은 아직 초보단계로 민관의 체계적인 준비를 통한 확대가 필요한 시점이다.
  - 해외양식어장의 개척 및 성공 여부가 향후 원양산업의 성장과 부분적으로 맞물려 있다는 점에서 정부와 업계가 해외양식어장 개척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높일 필요가 있다.
- 지금까지의 해외수산업 투자는 많은 부분 원양어선어업의 어장개발과 관련되어 있으며 가공, 유통, 판매 등 생산부터 판매까지의 일관된 현지 공급체제 구축과 같은 부가가치 향상을 위한 투자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 못하다.
  - 그러나 머지않은 장래에 우리나라 원양어선의 조업 어장이 점차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중장기적인 원양산업의 구조 변화가 필요한 시점으로 원양산업의 부가가치 증대를 위한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 따라서 2009년에는 원양산업의 지속적 성장이란 측면에서 원양산업의 현지 투자 진출에 대한 관심을 보다 높여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농림수산식품부, 「수산업동향에 관한 연차보고서」, 2007.

한국원양산업협회, 「원양산업 통계연보」, 2008

\_\_\_\_\_, 「한국원양어업 50년 1957~2006」, 2007.

통계청, 어업생산통계, 각 년도.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http://www.mifaff.go.kr/>)

원양산업협회 홈페이지(<http://www.kosfa.org/>)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홈페이지(<http://www.koswec.or.kr/>)

일본 수산청 홈페이지(<http://www.jfa.maff.go.jp/>)



## 제 6 장 수산식품산업의 동향과 전망

주문배\* · 장홍석\*\* · 이언경\*\* · 임경희\*\* · 이현동\*\*\*

### 목 차

- |                      |                  |
|----------------------|------------------|
| 1. 서론                | 4) 수산식품의 위생안전 동향 |
| 2. 2008년도 수산식품산업의 동향 | 3. 2009년도 전망과 이슈 |
| 1) 수산식품의 소비동향        | 1) 전망            |
| 2) 수산유통 · 가공업의 동향    | 2) 부문별 주요 이슈     |
| 3) 수산물 수출입의 동향       |                  |

### 1. 서론

○ 실용 정부는 식품산업<sup>1)</sup>의 잠재력을 성장 동력화함과 동시에 농 · 수산업의 성장을 견인하도록 하기 위해 식품산업을 농수산정책 분야에서 가장 핵심적인 정책과제로 채택하였다. 이른바, 「식품산업육성」정책은 1차 산업(생산)에 2차, 3차 산업을 접목하여 6차 산업으로서 “돈 버는 농림수산업으로 육성”해나간다는 것이다.

- 우리나라의 식품산업은 총 100조원의 시장규모에<sup>2)</sup> 163만 명이 종사하는 국가경제의 중추 산업이다. 농림수산업의 생산액은 WTO 체제 출범 이후 정체되고 있으나, 식품산업은 지속적인 성장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sup>3)</sup>

\* 연구위원, \*\* 책임연구원, \*\*\* 연구원

1) 식품산업이란, 일반적으로 식품제조업, 식품유통업 및 외식산업으로 구성됨. 식재료의 생산에서 소비에 이르는 각 단계에 있어서 식품의 품질과 안전성을 유지하면서 안정적이고 더욱이 효율적으로 소비자에게 공급하는 한편, 소비자의 needs를 생산자에게 전달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함. 즉, 식품산업은 어장(농장)과 식탁, 농 · 어촌과 도시의 가교라고 할 수 있음.

2) 세계의 식품시장규모는 약 4조 달러(2004년 기준)로 추정되며, 자동차 시장(1.6조 달러) 및 IT시장(2.8조 달러) 보다 큰 규모임, 농림수산식품부, 「식품산업 발전 종합대책」(2008. 11) 재인용.

- 식품산업의 주요 부처인 농림수산식품부는 “국내 농·어업과 연결된 식품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설정하고, 식품제조업분야, 외식업분야, 식품산업 인프라분야의 3개 분야로 구분하고, 매출 1조원 이상의 식품기업 10개 육성, 한국 음식의 세계 5대 음식화, 농어업·식품산업 직거래 확대의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 추진하고 있다.

〈표 6-1〉 농림어업 및 식품산업의 생산액 규모와 종사자 추이

단위 : 조원, 천명

구분	농림어업		식품산업(유통업 제외)	
	생산액	종사자수	생산액	종사자수
‘00	37.2	2,243	72.7	1,608
‘06	41.7	1,785	99.8	1,629

주 : 농림수산식품부, 식품산업 발전 종합대책(2008.11),

- 이러한 맥락에서 정부가 주요정책과제로 채택하여 추진 중인 식품산업육성정책과 연계시켜 수산식품부문에 대한 동향과 전망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 그런데 식품산업부문, 특히 수산식품산업부문은 타 분야에 비해 시계열 통계 자료가 미비하여 정량적으로 수산식품산업의 동향과 전망을 하기에는 곤란한 실정이다.
- 따라서 여기서는 활용 가능한 2008년 이전 자료의 추이를 바탕으로 2008년도 동향을 기술하고, 2009년도 전망을 제한적으로 기술할 것이다.
- 또한 내용에 있어서도 수산식품의 소비, 수산유통 및 가공업, 수출입, 위생안전의 4가지 부문으로 구분하여 그 동향과 전망을 살펴보고자 한다.<sup>4)</sup>

3) 농림수산식품부, 「식품산업 발전 종합대책」, 2008. 11. 여기서의 식품산업의 규모 및 종사자 수는 식품유통업을 제외한 것임. 식품제조업의 주요 업종은 육가공품, 유가공품, 곡물가공품, 알콜음료, 빵·과자류, 수산가공·저장품 등으로 구분되는데, 이 중에서 수산가공·저장은 6.5%를 차지함.

4) 식품산업의 구조를 1차 산물을 중심으로 세분화하면, 농산물을 원재료로 하는 농식품산업, 축산물을 원재료로 하는 축산식품산업, 그리고 수산물을 원재료로 하는 수산식품산업으로 구분할 수도 있음.

## 2. 2008년도 수산식품산업의 동향

### 1) 수산식품의 소비 동향<sup>5)</sup>

- 우리나라의 식품 공급은 과학기술의 비약적인 발전과 시장 개방의 가속화에 따라 과거에 비해 공급량이 늘고 다양화·고급화로 이어지고 있다.
- 이러한 공급조건을 배경으로 식품소비는 양적으로 급증하여 2005년 현재 순식품 섭취량은 1인당 1,291g 수준에 이르고 있다.
- 우리나라의 수산물 공급 추이를 보면, 2000년부터 2006년까지 연평균 7.2%의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 품목별로는 어류의 동기간 대비 연평균증가율이 4.5%인데 비해, 갑각류·패류·연체동물의 연평균증가율은 7.4로 어류를 넘어서고 있으며, 해조류는 14.1%로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였다.

〈표 6-2〉 수산물 품목별 공급 추이

단위 : 천 톤

구분	2000	2002	2004	2005	2006	연평균증감율 (’00~’06)
합계	1,727	2,127	2,694	2,383	2,618	7.2%
어류	951	1,223	1,348	1,299	1,236	4.5%
갑각류 등	492	506	969	623	754	7.4%
해조류	284	398	377	461	628	14.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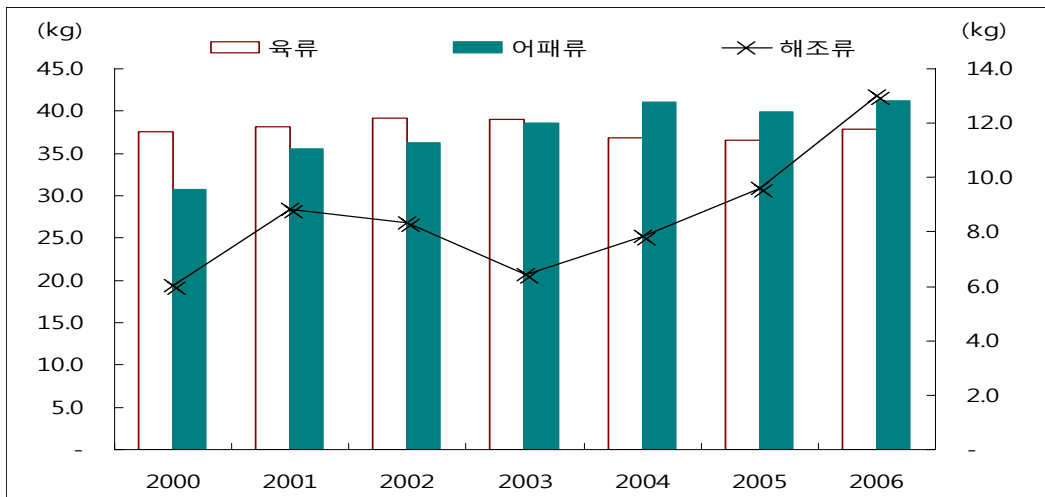
주 : 갑각류 등에는 어류 이외에 갑각류, 패류, 연체동물, 기타 수생동물 등이 포함됨

자료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식품수급표」, 각 년도.

5) 일반적으로 식품소비에 대한 통계 자료는 2 내지는 3년 이후에 작성되어 공표되고 있다. 따라서, 통계 수치를 활용하여 2008년도의 수산식품 소비동향을 분석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그러므로 이 장에서는 수산식품의 소비동향은 2006년도를 전후하여 매우 제한적으로 살펴 볼 수밖에 없었음.

- 육류와 어패류를 비교해 보면, 2004년 이후 어패류 공급량(1인 1년 기준)이 육류를 조금 넘어서는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 육류의 공급은 2000년부터 2006년까지 소폭 변화하면서 전반적으로 보합세를 보인 반면 어패류 공급은 동기간 동안 5.0%씩 증가하였다.
- 이는 2000년대에 들어서부터 건강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고조되는 가운데 최근에는 쇠고기 등 육류소비에 대한 부정적 정보(광우병, 구제역, 조류독감 등) 확산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 수산물 중 해조류 공급(1인 1년 기준)도 2006년의 경우 2000년 대비 2배 이상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6-1〉 주요 동물성단백질의 공급 추이(1인 1년 기준)



자료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식품수급표』, 각 년도.

- 어종별로 주요 공급어종으로는 멸치, 오징어류, 새우류, 명태, 고등어, 다랑어, 갈치 등의 어패류와 미역, 김, 다시마 등의 해조류가 있다.
- 주요 품목 중에서도 2000년 이후 다랑어, 쥐치, 꽁치, 볼락, 새우, 미역, 다시마 등의 공급이 크게 늘어났으며, 반면 오징어의 공급은 감소하였다.

〈표 6-3〉 주요 어종별 공급 추이(1인 1년 기준)

단위 : kg

구 분		2000	2002	2004	2005	2006	연평균증감율 (‘00~’06)
어류	멸치	4.24	5.02	3.86	5.11	5.38	4.0%
	명태	2.35	2.58	3.18	2.95	2.66	2.1%
	고등어	1.19	2.01	2.22	2.10	1.82	7.3%
	다랑어	0.19	1.24	3.07	1.01	1.29	38.1%
	갈치	1.39	1.57	1.51	1.39	1.45	0.6%
	취치	0.37	0.72	0.89	0.86	1.05	19.2%
	조기	0.89	0.73	0.90	0.85	0.79	-1.9%
	꽁치	0.32	0.54	0.91	0.65	0.92	19.3%
	전갱이	0.25	0.40	0.53	0.83	0.49	12.1%
	장어	-	0.25	0.40	0.37	0.39	-
	넙치	0.24	0.24	0.31	0.39	0.44	10.9%
	삼치	0.31	0.32	0.32	0.34	0.42	5.4%
	볼락	0.12	0.12	0.33	0.33	0.42	23.0%
	아귀	0.18	0.29	0.32	0.33	0.35	11.5%
	민어	0.32	0.34	0.26	0.30	0.30	-1.2%
	가오리	0.31	0.30	0.29	0.27	0.28	-1.8%
	대구	0.24	0.27	0.27	0.29	0.22	-1.9%
	돔류	0.15	0.20	0.22	0.26	0.24	8.3%
	강달이	0.37	0.23	0.22	0.18	0.22	-8.1%
	임연수어	0.25	0.21	0.19	0.20	0.18	-5.2%
갑각류	새우	1.70	1.78	2.68	2.89	3.87	14.7%
	꽃게	0.22	0.27	0.31	0.16	0.18	-3.3%
패류	굴	-	-	0.24	0.49	0.64	-
	홍합	0.07	0.08	0.12	0.23	0.41	35.8%
	가리비	0.08	0.12	0.12	0.19	0.21	16.3%
	반지락	0.14	0.11	0.19	0.15	0.15	0.9%
	키조개	0.10	0.04	0.05	0.11	0.09	-2.5%
연체 동물	오징어	6.10	5.02	4.08	4.10	4.80	-3.9%
	낙지	0.45	0.53	0.69	0.70	0.71	7.7%
	문어	0.30	0.44	0.36	0.38	0.41	5.0%
	주꾸미	0.20	0.27	0.37	0.35	0.35	9.6%
기타	우렁챙이	0.04	0.08	0.11	0.09	0.09	15.7%
	해삼	0.06	0.08	0.07	0.08	0.08	4.6%
해조류	미역	2.99	4.25	3.90	4.46	5.77	11.6%
	김	2.54	2.95	3.18	2.42	2.83	1.8%
	다시마	0.24	0.67	0.40	2.07	3.91	58.7%
	톳	-	0.14	0.14	0.28	0.16	-
	우뚝가사리	0.07	0.07	0.07	0.10	0.12	8.1%

자료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식품수급표」, 각 년도.



- 육류와 어패류의 소비지출<sup>6)</sup>을 보면, 2000년 이후 2007년까지 육류 소비지출은 연평균 6.3%씩 감소한 반면, 어패류 소비지출은 1.5% 감소하는 데 그쳤다.
  - 식료품 중에서도 주식류(곡류)와 육류, 낙농품 등의 소비지출이 모두 감소한 가운데, 어패류의 감소폭은 상대적으로 소폭에 그쳤다.
- 수산물 중 해조류의 소비지출은 동기간에 2.3%씩 감소하였으며, 어패류 중에서는 선어패류와 어패가공품의 소비지출은 증가한 반면 염건어패류에 대한 지출이 상대적으로 급감하였다.
  - 이는 2000년대에 들어서부터 소비자 선호의 다양화와 건강에 대한 관심 고조에 의해서 육류 안전성에 대한 문제가 대두되면서 수산물 소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표 6-4〉 식품류 소비 지출액의 비목별 구성 변화

단위 : 원

구 분	2000	2002	2005	2006	2007	연평균증감율 ('00~'07)
가구원수	3.54	3.44	3.38	3.33	3.3	-1.0%
소비지출	2,098,501	2,141,746	2,091,855	2,163,099	2,203,473	0.7%
식료품	578,050	562,861	551,581	556,118	554,889	-0.6%
- 곡류및식빵	59,884	56,414	45,839	44,286	42,563	-4.8%
- 육류	70,912	59,959	42,407	42,652	44,988	-6.3%
- 낙농품	24,954	23,619	22,726	22,083	21,537	-2.1%
- 어패류	37,811	37,342	32,544	33,454	34,016	-1.5%
· 선어패류	18,750	19,113	21,032	21,571	22,258	2.5%
· 염건어패류	7,923	8,002	5,133	5,254	5,272	-5.7%
· 어패가공품	5,123	5,092	6,379	6,574	6,823	4.2%
- 해조류	4,269	3,919	3,790	3,564	3,617	-2.3%
- 외식	204,065	222,370	255,850	253,465	257,876	3.4%
· 식사대	154,451	172,072	188,148	187,303	191,775	3.1%

주 : 소비지출액은 2005년 기준으로 디플레이트된 1가구당 1개월 지출액임.

자료 : 통계청, 「도시가계연보」, 각 년도

통계청, 「물가연보」, 각 년도.

- 한편 최근 식품의 간편화·외부화 지향이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6) 현재 우리나라의 소비지출은 가구조사를 통해 집계되고 있는 실정으로 해석에 주의가 요구됨

- ‘식의 외부화’는 가족형태의 다양화와 함께 가족 구성원의 사회참여가 증가하여 외부에서 식사를 해결하는 빈도가 높아지는 것을 의미하며, 이와 동시에 외식산업의 규모 확대에 영향을 준다.
- ‘식의 간편화’는 가정 내에서 과거에 비해 조리를 보다 간편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성향을 의미하며, 이는 주로 전처리 가공, 포장 및 재포장, 선별, 유통가공(Processing)의 산업적 성장에 영향을 준다.
- 수산물도 이러한 영향으로 인해 초밥, 생선회, 간편 포장품(조리 또는 반조리 등)에 대한 선호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 2) 수산물 유통 및 가공업의 동향

### (1) 수산물 유통의 동향

#### ① 수산물 산지유통의 동향

- 수산물 산지 유통의 동향을 유통 조직의 관점에서 보면, 산지 유통의 영세화와 계통 조직의 가격 결정 기능의 약화로 설명할 수 있다.
- 산지 계통 조직의 가격결정 기능의 약화는 계통 출하의 비중 감소라는 결과로서 나타나는데, 그 원인은 비계통의 산지가격 및 상승폭이 계통의 산지가격에 비해 높고 산지위판장(계통조직)의 경매 기능이 제대로 발휘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표 6-5〉 우리나라 어업별 계통 출하비중의 추이(생산량 기준)

단위 : %

	합계	일반해면	천해양식	원양	내수면
`04	47.8	84.8	31.8	0.0	0.0
`05	43.5	82.8	26.2	0.0	0.0
`06	40.9	82.7	25.6	0.0	0.0
`07	38.9	80.5	25.0	0.0	0.0
`08	39.0	81.8	21.3	0.0	0.0

주 : 2008년은 1월~11월까지의 생산량으로 비중을 도출함.

자료 : 통계청, 어업생산통계.

- 산지위판장은 전체의 85.9%인 73개가 연간 위판량 2만 톤 이하의 영세 규모로 최근 5년간 거의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즉, 산지에서의 수산물은 공급력이 집중되지 못하고 영세 규모로 거대 자본을 바탕으로 대량 구매의 경향을 보이는 소비지 소매기구의 변화에 대응하지 못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표 6-6〉 위판규모별 산지수협 수의 추이

단위 : 개, %

규모 구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평균 <sup>1)</sup>	
						개	비중
1만 톤 미만	54	52	57	54	57	54	63.5
1만-2만	18	23	16	19	18	19	22.4
2만-3만	3	4	4	3	2	4	4.7
3만-4만	4	1	2	3	2	2	2.4
4만-5만	0	1	1	1	1	1	1.2
5만-6만	1	0	0	1	0	0	0.0
6만-7만	2	0	0	0	3	0	0.0
7만-8만	1	1	1	1	1	2	2.4
8만 톤 이상	2	3	4	3	1	3	3.5
합계	85	85	85	85	85	85	85

주 : 수산물계통통계연보의 산지 수협 위판장을 대상으로 함(공판장 포함).

1) 평균의 수치는 총 대상 수협 위판장의 2004~2008년간의 평균 실적(양륙량)으로 계산한 것임.

자료 :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수산물계통통계연보.

## ② 수산물 소비지 유통의 동향

- 2008년도에도 수산물의 소비지 유통은 소비지도매시장의 위축과 대형소매업의 확산에 따른 구매자 주도 시장으로의 정착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 2006년에 대형소매업의 업체당 수산물 매출액은 약 38억으로 일반 수산물 소매업의 약 8천만 원에 비해 47.5배 정도의 규모 차를 보이면서 소매기구의 규모화를 나타내고 있다.
- 수산물 유통 관련 통계의 제약에 따라 2006년까지의 동향을 근간으로 2008년의 동향을 추정해 보면, 대형종합소매업의 성장세는 둔화되고 있지만 2000년대 초반에 확대된 대형종합소매점포의 판매실적 증가로 인해 2008년에도 대형종합소매업이 규모화와 일반 수산물 소매업과의 규모 차이는 2006년에 비해 더 벌어졌을

것으로 판단된다.

〈표 6-7〉 대형소매업과 일반 수산물 소매업의 수산물 취급액(2006년 기준)

단위 : 개, 백만 원, %, 백만 원/개

구 분	사업체수	매출액	수산물 취급비중 <sup>1)</sup>	수산물 매출액	업체당 수산물매출액
대형종합소매업	426	37,857,311	4.3	1,627,864	3,821.3
백화점	80	12,236,337	4.7	575,108	7,188.8
기타 대형종합소매업	346	25,620,974	4.1	1,050,460	3,036.0
수산물소매업	21,055	1,656,234	100.0	1,656,234	78.7

주 : 1) 수산물 취급 비중은 한국체인스토어협회의 '유통업체연감'의 업체 실적에서 도출함

자료 : 통계청, 도소매업 통계 ; 한국체인스토어, 유통업체연감, 2008.

- 동시에 대형마트의 M&A 및 점포 확산에 따라 폐쇄적 유통경로가 더욱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표 6-8〉 4대 대형마트의 대형종합소매업체 시장 점유율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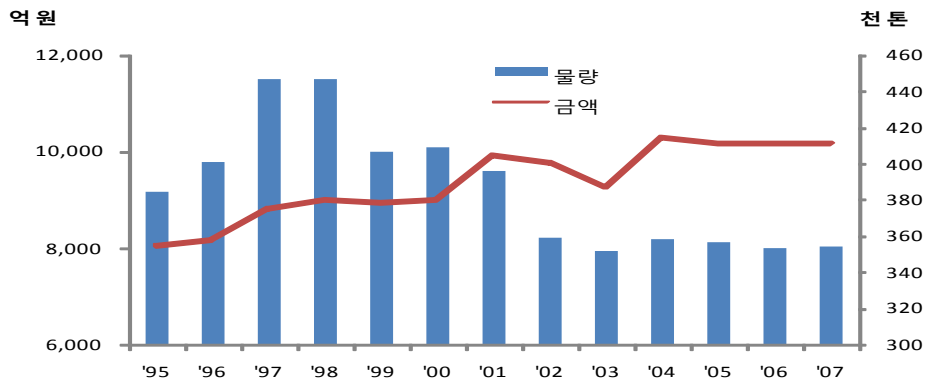
구 분	2003	2005	2007
매출액 점유율	54.9	75.3	80.6
점포수 점유율	69.9	72.7	75.0

주 : 4대 대형마트(신세계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홈에버) 중 홈에버는 2008년 중 홈플러스에 인수됨

자료 : 통계청, 도소매업 통계 ; 한국체인스토어협회, 유통업체연감

- 한편, 전통적으로 수산물 소비지 유통의 집하와 분산 기능을 담당하는 도매시장은 거래물량의 절대적 감소와 거래금액의 상대적 감소로 기능이 위축되고 있다.
- 수산물을 취급하는 도매시장(공영+법정)의 거래물량은 '97년의 44만 7천 톤에서 '07년의 35만 5천 톤으로 20.6% 감소한 반면 같은 기간 동안 거래금액은 15.4% 늘었다. 이러한 추세는 2008년도에도 계속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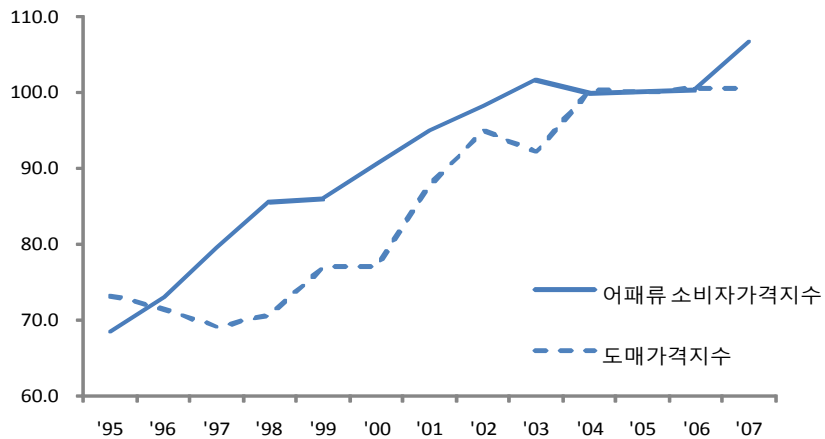
〈그림 6-2〉 공영 및 법정 도매시장의 수산물 거래 물량 및 금액



자료 : 농수산물유통공사KAMIS([www.kamis.co.k](http://www.kamis.co.k)).

- 그러나 도매시장 가격지수와 신선어패류 소비자 가격지수 비교에서 보듯이 도매 시장 가격지수가 신선 어패류 소비자 가격지수만큼 반영되지 못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거래금액이 감소한 결과로 나타났다.

〈그림 6-3〉 도매시장가격지수와 어패류 소비자가격지수 비교(2005년=100)



자료 : 농수산물유통공사KAMIS([www.kamis.co.k](http://www.kamis.co.k)) ; 통계청, 물가통계

## (2) 수산가공업 부문의 동향

### ① 수산가공업의 산업 동향

- 우리나라 수산가공업은 개별업체의 규모가 커지면서 개별업체의 시장지배력이 과거에 비해 강화되면서 매출은 늘어난 것으로 판단되지만, 이러한 개별적 규모화가 생산비 절감 등의 경제적 효과로 이어지지는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수산가공업체 수와 월평균 종사자 수는 모두 줄면서 사업체 당 종사자 수가 연평균 3.7%씩 줄어드는 결과로 나타났지만,<sup>7)</sup> 출하액, 부가가치액은 같은 기간 동안 모두 늘어나면서, 사업체 당 출하액이 연평균 4.3%씩 늘어나는 결과로 나타났다.
- 단, 주요 생산비는 같은 기간 동안 4.3% 늘어 업체 규모화가 비용 절감 효과를 나타내는 데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
- 동시에 2008년의 동향도 2007년까지의 구조적 변화와는 큰 차이가 없었을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2008년 중반 이후의 환율 상승 요인 등을 고려할 때, 사업체 당 생산비가 증가하는 등 수익성 악화에 따른 영세 업체의 도산 등이 늘어났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2008년에도 결과적으로는 2007년까지의 구조 변화의 흐름이 심화되고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표 6-9〉 수산물 가공 및 저장 처리업의 산업 현황(5인 이상 업체를 기준)

단위 : 개, 명, 백만 원, 백만 원/개, 명/개, 원/개

구분	업체수	월평균 종사자수	출하액	생산비	부가가치액	사업체당 출하액	사업체당 종사자	사업체당 생산비
2003	1,894	34,399	2,931,173	1,856,134	1,089,468	1,548	18	980
2004	1,850	32,021	3,031,632	1,946,772	1,115,843	1,639	17	1,052
2005	1,878	31,480	3,108,988	1,952,865	1,165,173	1,655	17	1,040
2006	1,833	29,659	3,182,635	2,018,728	1,141,094	1,736	16	1,101
2007	1,863	29,708	3,399,128	2,127,926	1,285,510	1,825	16	1,142

자료 : 통계청, KOSIS 국가통계포털 사이트(www.kosis.kr/)

7) 통계청 분류에 따라 ‘수산물 가공 및 저장처리업(5인 이상)’을 기준으로 수산가공업의 산업 동향은 ‘개별 업체 규모화’로 정의할 수 있다.

## ② 수산가공품의 생산 동향

- 수산가공품은 2002년에서 2006년 동안 생산량과 생산금액은 각각 연평균 1.8%와 0.8%로 늘었지만, 생산량의 증가분에 비해 생산금액의 증가분이 낮아 생산단가는 연평균 1.0%씩 줄었다.
  - 결과적으로 수산가공업 동향과 관련시켜 살펴보면 개별 가공업체의 규모화가 진전되고 있는 것과 생산비 증가 부담에도 불구하고 생산단가가 내려감으로써 개별업체의 수익률은 저하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 특히, 생산가격의 하락은 원료의 수입화, 수입 가공품과의 가격 경쟁 대응, 대형 소매업 등의 가격 인하 요청 등에 의한 것으로 추정된다.
  - 2008년의 경우에는 수산가공품 중 전통적 수산가공품(안동간고등어, 굴비, 건멸치 등)에 대한 수요는 과거와 크게 변하지 않았을 것으로 사료되며, 오히려 안동간고등어의 경우에는 수요 확산의 경향이 큰 것으로 고려되어 가공량이 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 한편, 조미가공품 등 수산 고차가공품의 경우에는 새로운 획기적인 가공기술을 응용한 상품이 시장에 반영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2007년의 동향과 비슷할 것으로 추정된다. 단, 2008년 중반 이후의 환율 상승에 따른 원재료 확보의 곤란 혹은 단가 상승에 의한 가공량 감소가 나타났을 것으로 예상된다.
- 생산량과 생산금액이 모두 증가한 수산가공품에는 소건품(6.7%, 4.3%), 염건품(146.5%, 129.5%), 자건품(9.2%, 15.9%), 통조림(15.8%, 4.1%), 냉동품(0.9%, 0.8%), 해조제품(13.1%, 9.8%)의 6개 품목군이었으며, 특히 염건품, 자건품, 해조제품의 성장이 두드러졌다.
  - 생산량이나 생산금액이 감소한 수산가공품에는 염장품(8.1%, -3.0%), 염신품(-0.6%, 2.9%), 한천(-4.6%, -11.7%), 연제품(-5.5%, -18.5%), 조미가공품(0.2%, -9.4%), 어유분(-21.3%, -14.8%), 수산피혁품(-26.7%, 41.0%)의 7개 품목군이며, 특히, 한천, 연제품, 어유분은 생산량 및 생산금액 모두 상대적 감소폭이 컸다.
  - 생산가격에서는 같은 기간 동안 자건품(6.1%), 염신품(4.6%), 어유분(8.2%)을 제외하고는 모든 품목군이 하락했으며, 연평균 10% 이상의 감소를 보인 품목군은 염장품(-10.2%), 통조림(10.1%), 연제품(13.7%)로 나타났다.

〈표 6-10〉 수산가공품의 생산량, 생산금액, 생산단가의 동향(2002년과 2006년 비교)

	생산량(톤)			생산금액(백만 원)			생산단가(원/kg)		
	2002	2006	연평균 증가율	2002	2006	연평균 증가율	2002	2006	연평균 증가율
총계	1,438,677	1,546,784	1.8	2,856,958	2,949,068	0.8	1,986	1,907	Δ1.0
소건품	18,402	23,837	6.7	72,736	86,226	4.3	3,953	3,617	Δ2.2
염건품	322	12,258	146.5	3,222	89,375	129.5	9,705	7,291	Δ6.9
자건품	23,280	33,164	9.2	121,845	219,555	15.9	5,234	6,620	6.1
염장품	3,665	5,006	8.1	11,739	10,404	Δ3.0	3,203	2,078	Δ10.2
염신품	38,933	37,992	Δ0.6	140,583	163,950	3.9	3,611	4,315	4.6
통조림	83,043	149,487	15.8	175,028	205,662	4.1	2,108	1,376	Δ10.1
냉동품	996,482	1,033,060	0.9	1,151,178	1,190,457	0.8	1,155	1,152	Δ0.1
해조제품	82,946	135,668	13.1	301,982	439,025	9.8	3,641	3,236	Δ2.9
한천	397	329	Δ4.6	10,235	6,214	Δ11.7	25,781	18,888	Δ7.5
연제품	87,015	69,350	Δ5.5	455,440	201,374	Δ18.5	5,234	2,904	Δ13.7
조미가공품	19,343	19,500	0.2	263,831	177,899	Δ9.4	13,640	9,123	Δ9.6
어유분	19,843	7,618	Δ21.3	14,995	7,904	Δ14.8	756	1,038	8.2
수산피해품	64,855	18,721	Δ26.7	1,117	4,411	41.0	17	236	92.3
기타	141	794	54.0	133,027	146,612	2.5	943,454	184,650	Δ33.5

주 : 연평균증감율의 단위는 %임. ‘Δ’는 연평균증감율의 감소에 해당함.

자료 : 통계청, 어업생산통계.

○ 각 품목군별로 세부품목 동향을 생산량 기준으로 2002년과 2006년으로 나누어 비교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 소건품은 동 기간 동안 연평균 6.7%씩 생산량이 늘었으며, 명태 및 기타(새우, 실치, 문어 등)가 감소한 반면, 건오징어의 가공량이 늘어났다.
- 염장품은 대부분이 염장 고등어이며, 이외에 청어알을 염장하는 품목이 있는데, 동 기간에 연간 8.1%씩 가공량이 늘었으며, 그 이유는 염장 청어알의 가공량이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염장 고등어의 가공량이 늘었기 때문이다.
- 염신품은 일반적으로 젓갈 가공품으로 동기간에 연간 -0.6%씩 가공량이 줄었으며, 이는 전통적으로 다양한 젓갈의 특성 상 대표적인 젓갈을 제외한 지역 특수성을 지닌 젓갈의 감소세(기타 분류)의 영향으로 보인다.
- 통조림은 동기간에 연간 16.0%씩 생산량이 늘었는데, 세부 품목의 변동을 보면,



가공량이 급증한 부류(바지락, 콩치, 참치, 골뱅이)와 급감한 부류(고등어, 홍합, 기타)로 구분되는 특성을 보이고 있다.

- 해조제품은 동기간에 연간 13.1%씩 생산량이 늘었는데, 세부 품목의 변동을 보면, 다시다(-15.2%)와 툇(-11.0%)을 제외한 주요 품목 대부분의 가공량이 늘었고 특히 비중이 높은 마른김(36.2%)과 건미역(57.1%)의 가공량 증가가 주된 원인으로 파악된다.
- 연제품은 동기간에 걸쳐 연간 6.9%씩 감소했는데, 대부분의 튀김어묵을 제외한 대부분의 세부품목이 연평균 10% 이상의 감소를 보였고, 구성비가 높은 맛살의 가공량 감소(연평균-13.4%)가 주요 원인으로 파악된다.
- 특히, 맛살의 경우에는 해외(러시아 등) 수출이 많았지만, 가공원료가 풍부한 러시아 등이 맛살 생산을 늘리면서 국내 기업은 맛살 시장의 고급화로 전략을 수정한 것이 생산량 감소로 이어졌다.
- 조미가공품은 동기간에 연평균 0.2%씩 늘어나 가공량에 큰 변화를 보이고 있지는 않지만, 세부 품목별로는 변화가 눈에 띈다.
- 구성비가 가장 높은 조미오징어가 연평균 11.8%씩 감소하고, 조미쥬치포 및 기타 조미가공품도 감소를 보였지만, 조미김의 생산량이 연간 39.4%씩 급증하면서 조미가공품 전체의 생산량 감소를 보합세로 상쇄하였다.
- 조미김은 수산물 수출품목 중에서도 효자품목으로 지속적인 수출시장의 확대와 더불어 생산량이 증가한 것으로 판단된다.
- 어유분은 동기간 동안에 연간 21.3%씩 감소했으며, 어유 중 오징어유와 어분어비가 각각 연간 54.8%씩과 13.1%씩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 냉동품은 동기간 동안에 연간 1.1%씩 감소했으며, 원형동결과 처리동결 모두 가공량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 원형동결은 냉동품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87.7%(2006년 기준)로 동기간에 연간 0.9% 감소를 보이고 있는데, 그 이유는 대구(연평균 80.5%), 조기(45.0%)가 급증한 것에 비해 전통적으로 구성비가 높은 오징어, 명태, 고등어의 동결량이 줄었기 때문이다.
- 처리동결은 냉동품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2.3%(2006년 기준)로 동기간에 연간

2.4%씩 감소하였는데, 그 이유는 명태의 증가(연평균 29.8%)에도 불구하고 굴(44.1%씩 감소), 연육(21.8%씩 감소)의 동결량이 줄었기 때문이다.

- 냉동물의 감소 경향은 국내 수산물 생산량, 수출입량, 재고량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으며, 이는 냉동냉장창고업의 직접적인 매출 감소로 이어진다.

〈표 6-11〉 소건품의 세부 품목별 가공량 동향(2002년과 2006년 비교)

구분	2002	2006	연평균 증감율(%)
오징어	3,009	13,019	44.2
명태	12,927	10,404	-5.3
기타	2,443	414	-35.8
총계	18,379	23,837	6.7

자료 : 통계청, 어업생산통계.

〈표 6-12〉 자건품의 세부 품목별 가공량 동향(2002년과 2006년 비교)

구분	2002	2006	연평균 증감율(%)
굴	1,368	259	-34.0
멸치	20,836	32,510	11.8
새우	682	105	-37.4
홍합	0	127	2002년 생산없음
기타	394	163	-19.8
총계	23,280	33,164	9.2

자료 : 통계청, 어업생산통계.

〈표 6-13〉 염신품의 세부 품목별 가공량 동향(2002년과 2006년 비교)

구분	2002	2006	연평균 증감율(%)
멸치젓	5,590	5,749	0.7
새우젓	6,844	9,068	7.3
오징어젓	1,285	2,556	18.8
조개젓	333	403	4.9
굴(어리굴젓)	283	445	12.0
성게젓	71	88	5.5
명란젓	2,361	2,709	3.5
창란젓	848	833	-0.4
황석어젓	177	724	42.2
기타	21,141	15,417	-7.6
총계	38,933	37,992	-0.6

자료 : 통계청, 어업생산통계.

〈표 6-14〉 통조림의 세부 품목별 가공량 동향(2002년과 2006년 비교)

구분	2002	2006	연평균 증감율(%)
콩치	1,624	3,734	23.1
고등어	2,733	1,406	-15.3
굴	6,983	5,855	-4.3
골뱅이	3,429	6,624	17.9
홍합	584	80	-39.2
바지락	42	840	111.5
참치	63,042	130,068	19.8
기타	4,108	880	-32.0
총계	82,545	149,487	16.0

자료 : 통계청, 어업생산통계.

〈표 6-15〉 해조제품의 세부 품목별 가공량 동향(2002년과 2006년 비교)

구분	2002	2006	연평균 증감율(%)
마른김	14,009	48,223	36.2
건미역	3,927	23,926	57.1
염장미역	38,901	47,082	4.9
다시다	14,758	7,620	-15.2
톳	9,630	6,050	-11.0
가사리류	7	117	102.2
해조류	586	1,770	31.8
기타	1,128	880	-6.0
총계	82,946	135,668	13.1

자료 : 통계청, 어업생산통계.

〈표 6-16〉 연제품의 세부 품목별 가공량 동향(2002년과 2006년 비교)

구분	2002	2006	연평균 증감율(%)
맛살	40,762	22,958	-13.4
어육소세지	15,765	13,932	-3.0
튀김어묵	20,872	30,064	9.6
찜어묵	7,847	1,139	-38.3
구운어묵	1,989	680	-23.5
기타	5,036	577	-41.8
총계	92,271	69,350	-6.9

자료 : 통계청, 어업생산통계.

〈표 6-17〉 조미가공품의 세부 품목별 가공량 동향(2002년과 2006년 비교)

구분	2002	2006	연평균 증감율(%)
조미김	2,412	9,096	39.4
조미오징어	12,445	7,540	-11.8
조미취치포	957	620	-10.3
조미명태포	443	446	0.2
기타	3,086	1,798	-12.6
총계	19,343	19,500	0.2

자료 : 통계청, 어업생산통계.

〈표 6-18〉 조미가공품의 세부 품목별 가공량 동향(2002년과 2006년 비교)

구분	2002	2006	연평균 증감율(%)
오징어유	8,391	351	-54.8
기타어간유	1,310	1,472	3.0
어분어비	10,142	5,795	-13.1
총계	19,843	7,618	-21.3

자료 : 통계청, 어업생산통계.

〈표 6-19〉 냉동품의 세부 품목별 가공량 동향(2002년과 2006년 비교)

구분	어종	2002	2006	연평균 증가율(%)
원 형 동 결	오징어	128,782	74,601	-12.8
	명태	11,802	8,318	-8.4
	가자미	1,327	1,322	-0.1
	고등어	95,207	52,428	-13.9
	대구	639	6,788	80.5
	조기	5,240	23,180	45.0
	꽁치	8,393	9,048	1.9
	갈치	12,766	13,939	2.2
	전갱이	12,550	8,027	-10.6
	새우	2,249	1,986	-3.1
	삼치	7,906	14,505	16.4
	정어리	8,485	5,146	-11.8
	병어	578	2,313	41.4
	복어	1,452	803	-13.8
	부세	39	19	-16.5
	낙지	536	664	5.5
	꽃게	5,099	8,777	14.5
	옥돔	0	893	
	기타	83,659	139,524	13.6
원형동결 계		386,709	372,281	-0.9
처 리 동 결	갑오징어	1,530	1,108	-7.8
	새우	389	180	-17.5
	붕장어	2,827	2,366	-4.4
	명태	1,718	4,870	29.8
	연육	5,487	2,053	-21.8
	새조개	744	56	-47.6
	굴	13,044	1,277	-44.1
	바지락	164	249	11.0
	홍합	90	137	11.1
	기타	31,490	39,806	6.0
처리동결 계		57,483	52,102	-2.4
총계		444,192	424,383	-1.1

자료 : 전계서

### 3) 수산물 수출입의 동향

#### (1) 류별 · 품목별 수출입 동향

- 2008년 12월의 수산물 수출이 2007년 12월 수준을 유지할 경우, 2008년의 전체 수산물 수출실적은 최소 14억 6천만 불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2007년 수출실적에 비해 19.2% 증가한 것이다.
  - 어류의 수출실적은 전년 대비 17.1% 증가하였으며, 참치(다랑어류)와 고등어(냉동) 등의 수출이 두드러지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참치는 주요 수출시장인 일본의 경기침체로 수출이 정체되었으나, 미국과 태국의 가공용(참치캔) 수요 증가에 힘입어 수출이 크게 증가하였다.
  - 또한 전통적인 수출 주력품목인 전복, 굴, 김 등의 2008년 수출실적도 전년 대비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한편, 최근 5년간(2004~2008년) 수산물 수출실적 평균은 금액기준으로 약 12억 5천만 불(중량기준 45만 톤) 수준이었다.
  - 어류가 전체 수출금액의 40.0%로 가장 많았으며, 연체동물이 17.8%, 수산가공품 17.7%, 해조류 11.2%, 어육 및 어란 9.9% 등의 순으로 집계되었다.
- 2008년 12월의 수산물 수입이 2007년 12월 수준을 유지할 경우, 2008년의 전체 수산물 수입실적은 작년과 비슷한 30억 5천만 불 수준으로 예상된다.
  - 최근 지속적으로 증가추세를 보이던 수입이 정체된 이유는 2008년 하반기의 원화 대비 환율 상승으로 수입국 현지가격이 상대적으로 오른 반면 국내 경기는 침체되면서 수입업체가 위축되었기 때문이다.
  - 수입비중이 상대적으로 큰 품목들 가운데 전년 대비 수입이 증가한 품목은 참치, 뱀장어, 낙지, 어육 등이다. 반면, 중국, 러시아, 일본, 태국 등으로부터의 참조기, 갈치, 명태, 대구, 새우, 게, 어란 등의 수입은 전년 대비 크게 감소하였다.
- 한편, 최근 5년간(2004~2008년) 수산물 수입실적 평균은 금액기준으로 약 27억 불(중량기준 127만 톤) 수준이었다.
  - 어류가 전체 수입금액의 43.1%로 가장 많았으며, 갑각류 15.9%, 수산가공품 15.7%,

어육 및 어란 12.3%, 연체동물 10.4% 등의 순으로 집계되었다.

- 참고로 수산물 가운데 양식용, 종패용, 치패, 부산물 등 비식용 수산물의 비중은 수출의 경우 약 3%, 수입의 경우 약 5%를 차지하였다. 따라서 대부분의 수출입 수산물이 식용(수산식품)으로 이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6-20〉 최근 5년간 류별·품목별 수출 실적

단위 : 백만 불

구 분		2004	2005	2006	2007 (A)	2008(p) (B)	증감률 (B/A)
어 류	참치	244.6	221.3	220.6	260.7	292.5	12.2
	조기	0.7	0.6	0.2	1.9	0.8	-57.7
	갈치	3.8	3.2	1.9	2.0	2.2	13.8
	명태	9.3	6.2	5.5	9.8	20.9	112.8
	넙치	55.4	63.7	52.0	44.2	44.4	0.6
	가자미	0.3	0.1	0.1	0.2	0.6	195.6
	대구	12.9	18.9	17.2	27.2	24.4	-10.2
	뱀장어	10.4	0.3	1.4	0.1	0.3	390.8
	기타 어류	112.2	120.5	106.8	210.1	265.3	26.2
	소계	449.5	434.6	405.8	556.2	651.5	17.1
갑 각 류	새우	4.1	6.2	14.1	8.1	9.2	13.9
	게	9.7	7.0	14.9	18.4	21.7	17.9
	바다가재	0.4	0.0	0.0	0.1	0.4	620.0
	기타 갑각류	0.0	0.1	0.4	0.1	0.0	-46.7
	소계	14.1	13.4	29.4	26.6	31.4	17.7
연 체 동 물	오징어	114.4	101.0	44.7	124.2	122.5	-1.4
	문어	4.0	0.4	0.5	5.1	9.3	83.8
	낙지	0.3	0.2	0.3	0.1	0.0	-65.4
	굴	51.5	44.9	42.6	28.5	34.1	19.7
	조개	49.7	38.3	32.6	27.6	36.3	31.9
	기타(전복 등)	41.9	43.1	41.7	31.9	41.0	28.3
	소계	261.8	227.9	162.4	217.4	243.3	11.9
해 조 류	김	15.7	18.3	27.3	22.4	27.5	22.7
	톳	30.6	23.9	23.8	24.5	36.2	47.5
	미역	35.9	29.9	21.8	17.7	20.5	16.0
	한천	8.6	15.5	18.5	10.8	10.0	-6.9
	기타 해조류	42.9	53.4	52.3	49.2	60.1	22.2
	소계	133.7	141.1	143.6	124.5	154.2	23.9

〈표 6-20〉 계속

구 분		2004	2005	2006	2007 (A)	2008(p) (B)	증감률 (B/A)
어육 및 어란	어육	89.5	88.3	91.9	110.7	178.4	61.1
	어란	28.4	11.5	6.7	5.6	5.1	-8.8
	소계	117.9	99.8	98.6	116.3	183.4	57.8
수산 가공품	수산물 통조림	40.1	30.5	29.3	29.7	28.7	-3.3
	염장 수산물	4.5	2.8	2.0	2.6	3.5	31.3
	건조 수산물	3.1	2.6	2.6	3.4	4.3	25.4
	기타가공품	234.1	220.3	197.0	121.9	140.4	15.2
	소계	281.8	256.2	230.9	157.6	176.8	12.2
수산부산물		8.4	10.9	8.9	17.3	11.7	-32.2
기타 수산물		11.4	9.2	9.4	9.9	9.1	-8.5
<b>수산물 전체 수출</b>		<b>1,278.6</b>	<b>1,193.1</b>	<b>1,088.9</b>	<b>1,225.8</b>	<b>1,461.4</b>	<b>19.2</b>
<b>수산식품 수출</b>		<b>1,247.2</b>	<b>1,166.1</b>	<b>1,063.2</b>	<b>1,173.9</b>	<b>1,413.3</b>	<b>20.4</b>

주 : 1) 류별, 품종별 구분이 용이한 MTI코드 분류방식으로 집계하였음. 수산식품 수출은 수산물 전체 수출에서 양식용, 종패용, 치패, 어류의 웨이스트 등 비식용 수산물의 수출실적을 제외하고 집계한 수치임

2) 2008년(p) 수출은 11월까지의 실적에 '07년 12월의 수출실적이 유지될 것이라는 가정 하에 집계된 잠정치임  
자료 :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www.kita.net)

〈표 6-21〉 최근 5년간 류별 · 품목별 수입 실적

단위 : 백만 불

구 분		2004	2005	2006	2007 (A)	2008(p) (B)	증감률 (B/A)
어류	참치	13.0	21.9	29.1	33.5	47.8	42.9
	조기	130.1	142.5	147.9	164.6	153.7	-6.6
	갈치	101.9	100.3	102.9	109.8	93.2	-15.1
	명태	174.0	180.2	196.5	246.4	214.0	-13.2
	넙치	3.9	7.1	1.0	1.1	1.6	47.1
	가자미	3.1	1.5	1.8	3.2	2.6	-19.0
	대구	23.3	25.7	20.5	29.5	25.1	-14.9
	뱀장어	46.2	39.3	31.1	24.6	84.1	242.3
	기타 어류	508.8	495.7	617.7	723.6	702.3	-2.9
	소계	1,004.3	1,014.3	1,148.5	1,336.1	1,324.3	-0.9
갑각류	새우	160.3	172.8	219.6	258.2	238.2	-7.7
	게	176.7	160.7	203.3	226.8	214.8	-5.3
	바다가재	25.8	21.3	22.4	21.8	19.9	-8.4
	기타 갑각류	1.3	0.9	1.0	0.6	0.3	-44.6
	소계	364.1	355.7	446.4	507.4	473.3	-6.7



〈표 6-21〉 계속

구 분		2004	2005	2006	2007 (A)	2008(p) (B)	증감률 (B/A)
연체동물	오징어	45.7	57.0	72.3	79.5	79.0	-0.6
	문어	63.6	70.2	84.3	95.2	95.9	0.7
	낙지	63.3	67.0	82.0	81.9	92.0	12.4
	굴	0.2	0.2	1.3	1.2	0.1	-92.9
	조개	19.4	22.6	34.1	35.2	33.4	-5.3
	기타 연체동물	23.2	28.7	28.4	26.2	24.7	-5.6
	소계	215.3	245.7	302.3	319.2	325.1	1.8
해조류	김	0.5	0.7	0.8	1.9	1.6	-18.0
	톳	0.2	0.1	0.2	0.1	0.4	333.3
	미역	2.9	2.9	2.8	3.9	2.9	-24.7
	한천	0.6	1.1	1.7	1.4	1.1	-24.1
	기타 해조류	10.7	13.4	17.7	10.5	15.5	47.1
	소계	14.9	18.1	23.3	17.9	21.5	20.2
어육 및 어란	어육	200.9	240.9	244.6	297.6	353.6	18.8
	어란	76.1	52.4	78.9	69.3	50.1	-27.7
	소계	277.0	293.3	323.5	366.9	403.8	10.0
수산가공품	수산물 통조림	13.2	14.0	13.2	18.6	17.8	-4.7
	염장 수산물	21.7	21.3	25.6	22.3	20.0	-10.4
	건조 수산물	30.0	33.1	32.9	37.2	36.9	-0.6
	기타 가공품	284.0	344.8	403.7	369.9	356.0	-3.7
	소계	348.9	413.2	475.3	448.0	430.7	-3.9
수산부산물		19.4	23.9	24.7	28.0	40.0	43.2
기타 수산물		17.3	18.1	24.1	30.8	34.5	12.0
<b>수산물 전체 수입</b>		<b>2,261.4</b>	<b>2,382.4</b>	<b>2,768.1</b>	<b>3,054.3</b>	<b>3,053.2</b>	<b>0.0</b>
<b>수산식품 수입</b>		<b>2,156.9</b>	<b>2,277.0</b>	<b>2,651.8</b>	<b>2,938.6</b>	<b>2,876.9</b>	<b>-2.1</b>

주 : 1) 류별, 품종별 구분이 용이한 MTI코드 분류방식으로 집계하였음. 수산식품 수입은 수산물 전체 수입에서 양식용, 종패용, 치패, 어류의 웨이스트 등 비식용 수산물의 수입실적을 제외하고 집계한 수치임

2) 2008년(p) 수입은 11월까지의 실적에 '07년 12월의 수입실적이 유지될 것이라는 가정 하에 집계된 잠정치임

자료 :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www.kita.net](http://www.kita.ne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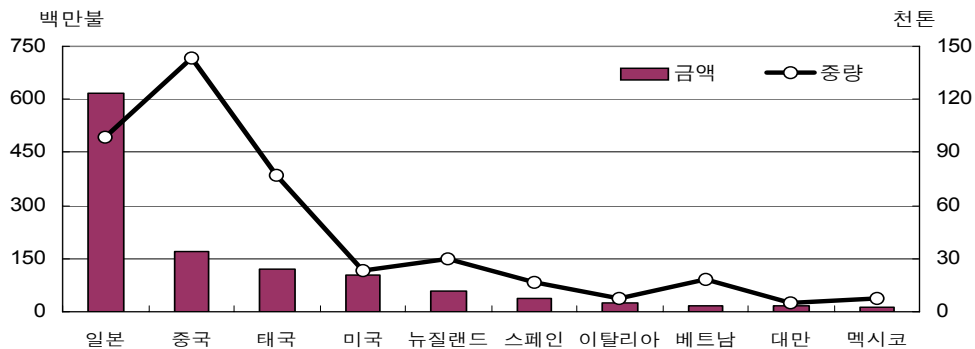
## (2) 국가별 수출입 동향

- 2008년(11월 누계) 우리나라 수산물의 국가별 수출실적을 살펴보면, 일본이 전체 수출금액의 46.7%로 가장 많고, 중국, 태국, 미국, 뉴질랜드 등의 순으로 수출이 많았다. 그러나 수출물량을 기준으로 하면, 중국이 전체의 33.4%로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되었다.

- 수출실적이 많은 상위 10개국이 전체 수산물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88.9% (금액기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한편, 일본으로 수출되는 수산물을 종류별로 살펴보면, 어류가 전체 수출금액의 35.3%, 어육 및 어란 23.1%, 연체동물 14.9%, 해조류 12.0%, 수산가공품 10.7%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6-4〉 우리나라 수산물의 국가별 수출현황(상위 10개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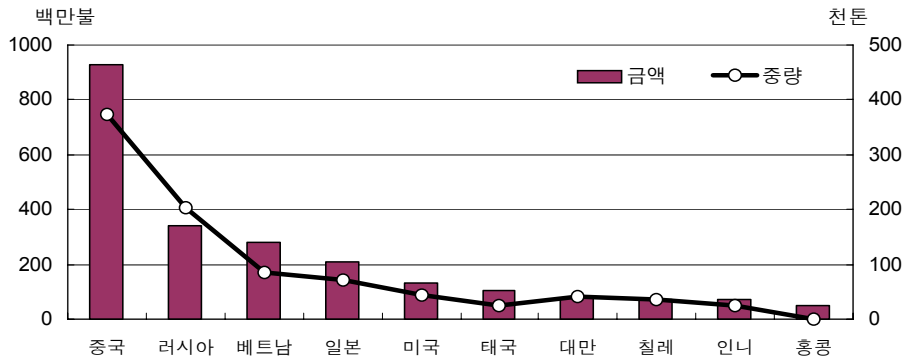


주 : 2008년 11월말까지의 누계실적임

자료 :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www.kita.net](http://www.kita.net))

- 2008년(11월 누계) 외국산 수산물이 우리나라에 수입된 실적을 국가별로 살펴보면, 중국이 전체 수입금액의 33.9%로 가장 많았다. 그리고 러시아, 베트남, 일본, 미국, 태국 등의 순으로 수입이 많은 것으로 집계되었다.
- 수입실적이 많은 상위 10개국이 전체 수산물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82.9% (금액기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중국에서 수입되는 수산물을 종류별로 살펴보면, 어류가 전체 수입금액의 51.2%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가운데, 연체동물 15.4%, 수산가공품 12.0%, 갑각류 11.8% 등의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6-5〉 외국산 수산물의 국내 수입현황(상위 10개국)



주 : 2008년 11월말까지의 누계실적임

자료 :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www.kita.net)

#### 4) 수산식품의 위생안전 동향

##### (1) 소비자 후생 측면의 식품안전 동향

###### ① 수산식품 소비 확대로 식품안전에 대한 요구수준 증대

- 식생활의 서구화로 생활습관병의 발병률이 상승하여 LOHAS (Lifestyle of Health And Sustainability)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으로써 수산식품의 소비가 증가하고 있다.
- 지난 10년간('97~'06년) 1인당 1일 수산물 소비량은 수산물이 연평균 2.51%, 축산물이 1.14% 증가하여 수산물 소비 증가율이 축산물보다 1.37% 포인트 높다.

〈표 6-22〉 연간 1인당 수산물 소비현황

(단위 : g/1인1일당)

구 분	1997	2003	2004	2005	2006	10년간 연평균 증가율(%)
합 계(B)	40.24	46.11	46.66	45.43	46.7	1.67%
수산물(A)	15.66	18.57	20.05	19.14	19.58	2.51%
축산물	24.48	27.54	26.61	26.29	27.12	1.14%
수산물비중(A/B)	38.92%	40.27%	42.97%	42.13%	41.93%	

주 : 연평균증가율은 CAGR(Compounded Annual Growth Rate)로 계산함.

자료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식품수급표(2006)』.

- 민물장어의 말라카이트그린 검출, 동물항생제 과다 사용, 노로바이러스에 의한 학교 급식 식중독 사고 등이 발생함으로써 소비자들은 식품 공급사슬 전체(Sea to Table)에 대한 식품 안전성 확보를 요구하고 있다.
- 정부의 식품안전관리에 대한 우리 국민의 만족도는 40%(’08.2월 서울시조사) 수준으로 영국의 65%(’05년) 수준보다 낮은 편이다.

## ② 외식문화 발달 및 물류기술 혁신으로 식품안전사고 대형화 추세

- 소득수준의 향상과 도시화·산업화가 진전됨에 따라 외식소비가 증가함으로써 소비자들은 신선한 식재료를 직접 구입하여 가정에서 조리하던 때에 비해 식품사고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커졌다.
- 도시가구의 식품소비지출에서 외식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1998년 33.5%에 비해 2007년 47.0%로 13.6% 포인트 급등했다.
- 구체적으로 지난 10년간(’98~’07년) 도시가구의 식품소비지출 추이를 살펴보면 외식비 지출 증가율은 연평균 9.56%로 식품지출의 연평균 5.50%를 상회한다.

〈표 6-23〉 도시가구의 식품소비지출에서 외식비 비중

(단위 : 만원)

구분	1998	2003	2004	2005	2006	2007	10년간 연평균 증가율
식료품(A)	36.4	51.0	54.5	55.2	55.9	59.0	5.50%
외식비(B)	12.2	23.3	25.4	25.5	25.9	27.7	9.56%
비중(B/A)	33.5%	45.7%	46.7%	46.2%	46.3%	47.0%	

주 : 연평균증가율은 CAGR(Compounded Annual Growth Rate)로 계산함.

자료 : 통계청, 「가계조사」, 각년도.

- 콜드체인 등 물류기술의 발전으로 식품의 유통망이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대형화됨으로써 과거에 비해 식품사고의 범위와 규모가 커졌다.

## ③ 소비자 불안·불신 증가

- 중국산 장어의 말라카이트그린 검출 등 식품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으로써 수산식품 안전에 대한 소비자 불안 심리가 증대되고 있다

- 중국산 꽃게에서 쇠가루 검출('00), 중국산 복어에서 납조각 검출('01), 중국산 장어 등에서 말라카이트그린 검출('05, '08), 중국산 냉동 꽃게에서 아황산나트륨 과다 검출('06), 노로바이러스에 의한 학교급식 식중독 사고('06), 참치캔에 칼날 이물질('08), 콩치캔에 구두충('08), 중국산 냉동골뱅이의 세균검출('08), 김스클립 판매 취포에서 황색포도상구균 검출('08) 등이 있다.
- 유통 소비 단계에서 수입 수산물이 국내산으로, 다른 산지 수산물이 유명 산지 수산물로 둔갑됨으로써 소비자 불신이 증가하고 있다.
- 중국산 뱀장어를 국산으로, 영광·함평산을 고창산 뱀장어로 둔갑시키는 사건('08년), 페루산 오징어를 혼합한 조미오징어를 국산으로 유통한 사건('08년), 중국산 미꾸라지를 국산으로 둔갑시킨 사건('08년), 중국산 냉동조기를 국산 영광굴비로 둔갑시킨 사건('08년) 등이 있다.

## (2) 수입수산물에 대한 식품안전관리 동향

- ① 수산식품의 해외의존도가 높아짐에 따라 식품안전 불안심리 확대
  - 수산식품의 해외 의존도가 매년 증가 추세에 있으며 수산물 소비 물량의 60%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 국내 소비 시장에서 수입수산물 의존도는 1998년 31.4%에서 2007년 56.4%로 24.9% 포인트 상승했다.

〈표 6-24〉 국내 수산물 소비시장에서 수입수산물 의존도

(단위 : 천톤)

	1998	2003	2004	2005	2006	2007	10년간 연평균 증가율(%)
국내생산	2,835	2,486	2,519	2,714	3,032	3,271	1.6%
국내소비(A)	2,395	3,578	3,922	4,169	4,568	4,621	7.6%
수입(B)	753	2,268	2,477	2,557	2,646	2,604	14.8%
비중(B/A)	31.4%	63.4%	63.2%	61.3%	57.9%	56.4%	

주 : 연평균증가율은 CAGR(Compounded Annual Growth Rate)로 계산함.

자료 : 수산물 수급 및 가격편람, 농림수산식품부, 2008.8.

- 수입수산물 검역 시 유해물질 검출 등 부적합률이 점차 증가추세('03년 0.41%→'08년 0.47%)에 있다.
- 2008년도 수입수산물 부적합률이 다소 떨어진 이유는 환율 급등 및 수입수산물 안전사고 발생으로 수입물량이 감소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표 6-25〉 수입수산물 저급(부적합) 건수

(단위: 건)

구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11 누적
불량건수 (A)	331	410	292	376	536	358
총검사건수(B)	80,031	95,695	96,112	101,441	100,355	75,436
부적합률 (A/B)	0.41%	0.43%	0.30%	0.37%	0.53%	0.47%

자료 :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정보,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각년도.

## ② 수입수산물 현지위생 점검 강화

- 중국, 태국, 인도네시아, 베트남의 수출 등록공장 및 양식장 60개소('08년)를 대상으로 현지 위생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 정부는 수입수산물 비중이 높은 중국을 대상으로 『한중 수산물 위생약정』개정안을 수립하여 양국 위생안전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 이 개정안에는 수산물 검사 시 부적합 요인을 일반적 위해요인과 중대 위해요인으로 나누고 중대 위해요인에 대한 공동조사 조항이 신설되어 있다.
  - 그리고 중대 위해요인이 년 2회 발생한 경우 가공등록공장의 등록이 취소될 뿐만 아니라 1년 이내에는 등록절차를 신청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 ③ 불량수산물 반입을 억제하기 위한 정밀검사 강화

- 정부는 수입수산물의 증대로 인한 외래 전염병 유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수산동물질병관리법('08.12.22시행)에서 수입물량이 많은 항구·공항에 검사인력을 전진배치하여 정밀검사를 5%로 높일 계획을 가지고 있다.
- 과거 6개월간 2회 이상 부적합 판정을 받은 품목의 경우 특별관리 대상으로 분류하

여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 (3) 식품안전관리체계 동향

#### ① Codex, WTO내 국가 간 상거래시 식품안전을 위한 법적인 표준

- 활발한 국제 무역이 전제되는 현대에서는 식품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수산 식품안전분야의 Codex Alimentarius 수용도를 높이고 국가간의 식품안전관련 규정 협정을 맺는 것이 필요하다.
  - WTO 출범이후 수산물을 포함한 식품무역에 있어서 Codex는 국제규범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식품생산 및 식품안전에 관한 국제적인 표준, 가이드라인, 기타 권장사항 등이 정의되어 있다.
- 우리나라는 항생제내성 특별위원회 의장국으로서 4년간('07~'10년) 회의를 주관하여 합의된 지침은 추후 수산식품의 항생제내성균 관리를 위한 국제규범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 ② 사전 예방적 관리체계 강화 추세이나 선진국에 비해 낮은 수준

- 예방적 위험관리 측면(Risk Assessment)<sup>8)</sup>에서 HACCP 등의 선진안전관리 제도 도입을 통한 바다에서 식탁까지 수산식품 이력관리를 확대 시행하고 있으나 EU 등 선진국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 우리나라의 HACCP 적용업체는 1.8%('08년)<sup>9)</sup>에 불과하나 일본 4.1%('08년), EU는 모든 제조업체에 적용토록 권유('06년)하고 있다.
  - 특히 수산분야에서는 HACCP을 일부 수산식품 가공공장에만 적용되고 있으며, 최근에 제주도 넙치양식장<sup>10)</sup>에 적용하였고 어선까지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8) FAO/WHO 가이드라인에 의하면 위험분석(Risk Analysis)은 위험평가(Risk Assessment), 위험관리(Risk Management), 위험정보교환(Risk Communication) 3단계로 이루어진다.

9) 식약청 발표에 의하면 HACCP 지정업소는 총 471개소로 그 중 식품제조가공업분야 432개소, 집단급식소 39개소, 의무적용업소 269개소, 자율적용업소 202개소이다('08.12.19기준)

10) 제주도 넙치양식장인 다익수산과 푸른수산이 국내 첫 HACCP 시설로 등록되었으며 양식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오염용수, 세균, 독성물질, 질병, 부패 미생물 등의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는 시설과 관리기술을 갖추었고, 폐사넙치 처리시설도 만들었다('08.7)

- 관리대상 유해물질도 우리나라는 1,683개인데 반해 일본은 1,844개, EU는 1,882개이다.
- 바다에서 식탁까지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서 양식장의 세균 등 위해요인에 대한 조사를 확대하고 해역별 등급에 따른 안전관리, 수산물이력제 등을 실시한다.
- 양식과정의 수산물에 대한 세균·유해물질 등 위해요인 조사건수는 6,000건('07년)으로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12년 8,500건 목표)이다.
- 60개 해역('05~'10년)에 대한 중금속, 세균, 패류독소 등을 조사하여 해역별 등급을 설정하여 등급에 따라 안전관리를 차별화하고, 수산동물질병관리법 시행('08.12월)으로 수산동물 질병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 넙치 등 7개 어종, 이마트 등 참여매장수 227개소, 생산·가공·유통업체 123개소에 대하여 수산물이력제('08.7월 수산물이력추적제 시범사업 3차 결과<sup>11)</sup>)를 실시하고 있으며, 수산물이력추적관리시스템([www.fishtrace.go.kr](http://www.fishtrace.go.kr))을 통해 조회가 가능하다.

### ③ 식품 안전 관련 국민 참여·소통 선진국에 비해 미흡

- 일본은 식품안전위원회, 미국은 식품안전모니터링 시스템 운영으로 국민과의 위해정보교류(Risk Communication)를 시행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최근『식품안전종합대책('08.7월)』에서 ‘식품안전정보센터’를 설립 운영할 계획을 발표했다.
- 식품안전에 대한 근거 없는 심리적 불안이 사회적 문제로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식품안전 평가 등 과학적 근거를 기반으로 한 식품안전정보 제공이 필요하다.

### ④ 식품안전사고에 대한 사후조치 조직 다원화되어 신속대응 어려움

- 이물 발생 시 신고의무가 부재하고 자체해결 시도 등으로 위해식품에 대한 신속대응 및 회수가 미흡한 실정이다.

11) 2008년 7월 기준 이력추적제 실시 품목은 김, 염장미역, 건미역, 다시마, 굴비, 넙치, 바지락 7개 품목이며, 향후 굴, 뱀장어, 멸치, 전복을 실시할 예정이다. 참여매장명은 이마트, 롯데마트, 롯데쇼핑, 수협바다마트, GS리테일로 매장수는 총 227개소이다.



- 미국의 위해식품 회수율은 36%인 반면에 우리나라는 10.1%에 불과하다.
- 위해식품 회수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이유는 식품안전을 책임지는 단일기구가 없어 안전사고 발생 시 범정부 차원의 신속대응이 어려웠기 때문이며, 이에 『식품안전사고 긴급 대응단』을 구성 운영하기로 하였다('08.7월).
- 『식품안전사고 긴급 대응단』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청, 농수산식품부, 교육과학부, 검찰, 경찰청 등이 합동으로 구성한다 .
- 또한 국무총리 산하 『식품안전정책위원회』를 설치 운영하여 식품안전관리기본계획 수립, 긴급대응체계 구축, 위해성 평가 등 범정부적 식품안전 관리 강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 3. 2009년도 전망과 이슈

#### 1) 수산식품산업의 전망

- ① 수산식품의 소비 전망
- 세계적인 경기 침체로 중단기적인 내수 부진이 우려되면서 수산물 소비에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 2008년에는 2사분기 이후 경기가 빠른 속도로 하강하였는데, 물가가 급등하고 고용이 불안정해지며 가계부채 부담이 높아지면서 2008년에는 민간소비가 크게 위축되었다.
- 2009년에도 글로벌 금융 불안으로 경기 전망이 어두운 만큼 소비심리의 위축이 지속될 것으로 점쳐지고 있는 만큼, 이는 수산물 소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IMF를 겪은 1997년을 기점으로 2~3년간 소비심리가 전반적으로 위축된 가운데 수산물의 소비도 감소한 바 있다.
- 이러한 가운데 수산물 소비는 주요 대중성 어종을 중심으로, 간편화 및 외부화 제품에 대한 선호를 여전히 강세를 보일 것으로 점쳐진다.

## ② 수산유통 및 가공업의 전망

- (구매자 주도 시장의 구조화 지속) 2009년에 들어서도 수산물 유통 구조는 구매자 주도 시장 하에서 소비지의 대형소매업의 시장 지배력이 강화될 전망이다.
  - 그러한 이유는 산지와 소비지의 유통 변화가 단기적인 변화가 아니라 장기에 걸쳐 구조화되어 있기 때문이다.
  - 산지 출하는 비계통 출하 비중이 늘어나고 있으며, 이는 곧 산지 계통 조직의 가격결정 기능의 한계 및 마케팅 기능의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
  - 소비지에서는 공영 및 법정 도매시장의 기능 위축과 대형소매점의 점포 확대가 한계점에 도달하여 현 상태를 유지할 것으로 보이지만, 대형소매점의 MD 활동 강화에 따라 구매자 주도 시장화는 지속될 것으로 판단된다.
- (산지의 조직 규모화를 통한 협력적 시장 구축 : 정부정책) 이러한 예상 속에서 정부는 농림수산업의 산업화 정책으로서 생산자 단체를 포함한 수산물 산지의 조직적 규모화를 도모하는 정책을 시작하였다.
  - 대표적인 사례로서 1시군 1유통회사, 품목별 국가대표 조직, 농어업대규모회사 등이 있다.
  - 수산분야에서는 ‘완도 전복주식회사(시군 유통회사)’와 ‘넙치 국가대표조직(품목별 국가대표조직)’가 선정되어 향후 구매자 주도 시장에서 협력적 시장 구축을 통한 수산업의 산업화가 추진된다.
  - 하지만, 2009년에 이들 조직적 규모화의 성과를 표면화하기는 힘들 것으로 고려되기 때문에 2009년 역시 현재의 수산물 유통 구조의 심화가 전망된다.
- (수산가공업 개별 업체의 규모화 가속) 5인 이상 기준 수산 가공 및 저장처리업의 통계에서 보았듯이 수산가공업체의 '질적 향상이 없는 규모화'는 5년 이상에 걸쳐 진행되어온 구조적인 현상으로 향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 이러한 이유 중에 하나는 시장 조건의 국제화에 따라 국내 수산가공품 시장으로 저렴한 수산가공품이 반입되면서 영세한 산지가공업체가 우선적으로 도태되기 때문이다.
  - 두 번째로서는 우리나라의 수산가공업은 산지의 잉여 수산물에 대한 부가가치 제

고를 근거로 발전해 왔지만, 대형소매점과 같은 소매기구의 규모화는 4정 조건<sup>12)</sup>을 만족시키는 거래를 전략으로 취하고 있어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일정 수준의 규모화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 (연제품, 조미가공품 등 고차 가공품의 후퇴) 수산가공품 중에서도 고차 가공에 속하는 연제품, 조미가공품의 생산력 감소와 가격 하락은 수입 가공품과의 경쟁 심화를 나타내고 있다.
  - 특히, 맛살은 과거에 수산가공기술의 총화라는 기술적 우위에도 불구하고 러시아 등의 외국과의 경쟁에서 밀려 차별화된 고급 맛살로의 전환을 하고 있다.
  - 연제품도 명태어육의 가격 상승, 국내 잉여 수산물의 감소 등에 따라 원료비용 상승의 문제 등을 배경으로 경쟁력이 뒤쳐진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 결국, 현재 수산가공품의 고차 기술이 국제화되면서 국내 수산가공업의 배도약을 다지기 위한 기술 혁신이 필요한 시기라고 할 수 있다.
- (수산식품산업화를 위한 정부 정책의 전환) 1차 산업의 2×3차 산업화는 수산업에서 특히 수산가공업의 활약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를 위해 정부에서는 수산식품클러스터, 수산업의 2×3차 융합 정책, 고기능성 수산식품 연구 지원책 등을 도출하고 있다.
  - 수산식품클러스터 사업은 기존의 개별 업체 위주의 수산가공업<sup>13)</sup>을 중심으로 연구, 관련산업의 총체적인 네트워킹을 통해 수산식품산업화의 목적을 달성하려는 정책이다.
  - 여기서 주안점은 본 전망에서 예시한 수산가공 기술의 혁신이 필요한 때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 그러므로 고기능성 수산식품 연구에 박차를 가하는 정책을 펼치는 것과 동시에 이를 어떻게 산업화 할 것인지에 대한 주체 역량 강화에 주안점을 두어야 한다.

12) 정시, 정가, 정량, 정규격

13) 물론, 수산가공업은 산지 가공의 형태로 산지에 집단화하는 경향을 보였지만, 그 주된 활동은 개별 업체 위주였으며, 집단화를 통한 공동의 경제적 이익을 발현하지는 못하고 있다.

### ③ 수산물 수출입의 전망

- 2008년 수산물 수출액은 약 13억 달러로 2006년 이후 지속적인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향후 수산물 수출은 환율과 더불어 국별 생산 및 소비 trend의 변동이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 특히, 최근의 환율상승 기조가 '09년 이후에도 계속 유지될 경우, 주요 수출국인 중국, 일본, 미국을 중심으로 수출이 꾸준히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품목별로는 참치, 고등어, 넙치, 김, 굴, 전복 등 지금까지 수산물 수출을 주도해 온 원양 및 양식 주력품종을 중심으로 수출 확대가 예상된다.
  - 그러나 해외의 주요기관(블룸버그, 매릴린치, JP모건)과 국내 경제연구기관 전문가들의 2009년 환율전망에 따르면 대부분 2/4분기 이후부터 원화환율은 하향 안정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전망이 현실화될 경우 수출 증가세는 다소 둔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 한편, 수산물 수입은 1999년 이후부터 꾸준히 증가하여 2007년 약 30억 5천만 달러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였지만, 2008년 하반기의 환율 급등은 영세한 수입업체의 환차손 확대, 신용경색으로 인한 자금압박 등을 초래하여 수입 상승세가 꺾임에 따라 2008년 수입액은 전년 수준에 머무르는데 그쳤다.
  - 앞서 언급된 2009년 환율전망이 현실화되는 경우, 상반기에는 조기, 갈치, 명태, 대구 등 어류와 새우, 게 등 갑각류를 중심으로 수입량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하반기에는 환율의 하향 안정세로 인해 서서히 수입실적이 예년 수준을 회복할 것으로 전망된다.

### ④ 수산식품의 위생안전 전망

- 2009년에는 안전을 중시하는 고객들이 육류보다는 수산물 소비를 늘릴 것이며, 이들은 수산식품생산 및 유통단계에서 선진국 수준의 품질·위생·안전 수준을 요구할 것이다.
  - 그 이유는 2008년에 발생한 수입식품 안전사고, 원산지둔갑 사건, 광우병 및 AI 등 질병 공포로 수입식품 및 육류 소비에 대한 불안 및 불신이 증대했기 때문이다.
- 2009년에는 식품 안전에 대한 국민의식이 고조되고 정부의 『식품안전 종합대책』강

력 추진으로 소비자 인지도가 높고 품질·위생·안전 측면에서 우수한 국산업체의 수산식품 호응도가 높을 것이다.

- 소비자들은 사전 예방적 관리(Risk Assessment) 차원에서 HACCP, 수산물이력제 등을 시행하여 품질인증을 받은 우수한 국산 수산식품을 구매할 것이다.
  - 소비자들은 국민과의 위해정보교류(Risk Communication) 차원에서 수산 식품의 품질·위생·안전에 대한 정보를 인터넷상에서 공개적으로 보여주는 업체를 선호할 것이다.
  - 소비자들은 사후조치(Risk Management) 차원에서 신속한 리콜이 가능한 업체를 선호하게 될 것이다.
- 전년도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위축된 소비심리에 의해 올해에는 가격 경쟁력이 있고 『한중 수산물 위생약정』개정에 따라 안전성이 검증된 중국 수산식품에 대해 수입이 다소 늘어나 국내 수산식품과의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 2) 수산식품산업의 주요 이슈

### ① 수산식품 소비부문 주요 이슈

- 건강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지속적으로 높아지면서 식품에 대한 기대치도 높아져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식품에 대한 선호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지향은 육류의 안전성 문제가 본격적으로 이슈화되면서 국내 수산물 소비에 호재로 작용해 오고 있다.
- 수산물의 경우 주로 중국산의 안전성이 문제시되면서 전체 수산물 소비에 영향을 주기도 하였다. 일례로 말라카이트 그린 파동, 납 등 이물질 혼입 등의 파동으로 국내 수산물 소비가 단기 혹은 중기적으로 소비가 위축되기도 하였는데, 장기적인 추세로는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 소비자의 안전성 지향 강화를 배경으로 기업 또는 생산자(단체)를 중심으로 제품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는 인증제도(HACCP, 이력추적제 등)의 도입이 진행되고 있는 실정으로, 국내 수산물 소비의 주요 키워드로 위생과 안전이 완전히 자리매김한 것으로 평가된다.

- 국내 외식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가운데, 외식메뉴로서 수산물의 채택 빈도가 증가하고 있다. 건강에 대한 소비자의 선호 증가와 외부화 지향 강화에 더해 수산물 교역 확대에 따른 공급여건 개선이 이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 웰빙 열풍과 함께 가족구성 변화 및 구성원의 사회활동 증가 등을 배경으로 식품 소비의 외부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다. 일례로 가구의 식품소비지출에서 외식이 차지하는 비중이 47%(2007년 기준)로 매우 높고, 조리가 일부 또는 전부 완료된 외부화 식품에 대한 지출도 높은 편이다.
- 그리고 공급조건이 과거에 비해 비교적 자유로워져 수산물을 대량식재료로서도 공급할 수 있게 되면서 생선회 등 전통적인 외식품목 이외에도 아귀, 낙지 등 특정품목이나 수산물(씨푸드)을 컨셉으로 내세우는 외식업체가 증가세에 있다. 또한 가정 내에서도 비교적 쉽게 섭취할 수 있는 다양한 손질가공품이 증가하고 있다.

## ② 수산유통 및 가공업 부문 주요 이슈

- 전년도에 발생한 미국발 금융위기에 따른 경제침체와 중국발 멜라민 사건에 의한 소비자의 식품안전에 대한 관심증가 문제가 수산물 유통 및 수산가공업 부문에도 주요 이슈로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 수산물 유통 및 가공업에 있어서도 소비자를 직접대상으로 한 마케팅이 어느 때 보다도 강조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소비자의 고품질, 안전 지향의 소비형태는 계속될 것이지만, 다양한 부문에서 나타나고 있는 경제위기 상황과 소비자의 가계 사정을 반영한 상품개발이 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 이에 따라 산지공급 주체들은 소비자의 구매패턴에 대응할 수 있는 체제로의 변화가 최근 어느 해보다 크게 강조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대형유통업체를 중심으로 한 소비자의 각 소매주체들은 PB상품 및 PPB상품을 중심으로 물류비용 절감을 통하여 경기침체하의 소비자의 구매욕구를 어느 정도 유지하고자 하는데 초점을 맞추게 될 것이다.
- 이러한 상황에서 지난해부터 시작된 새 정부의 “돈 버는 수산업 만들기”라는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1시군 1유통회사, 품목별 국가대표조직육성 사업 등은 속도를 조절하면서 꾸준히 추진해나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2009년은 이들 사업의 성과를 판단하기 보다는 사업조직의 조직화에 초점을 맞추어 미래에

대한 기반 구축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 특히, “돈 버는 수산업 만들기”라는 국정과제의 핵심으로 수산업의 6차산업화와 지역 특성에 맞는 (수산)식품산업 클러스터 조성(산지위판장의 다기능화 = 지역별 거점 해양수산복합공간 조성), 품목별 유통단계별 비용 절감을 위한 유통구조 개선 등의 기반 구축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추진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우리나라의 미래 수산물 유통 및 가공업 부문의 성패를 좌우할 것으로 판단된다.

### ③ 수산물 수출입 부문 주요 이슈

- 현재 정부는 「식품산업발전종합대책」을 수립, 2012년까지 100억 달러의 수출 목표를 설정하였으며, 이 가운데 수산물 수출목표를 25억 달러로 설정하였다. 수출 대표 품목으로는 참치, 오징어, 김, 전복, 넙치, 굴 등이 제시되었다.
  - 이에 따라 향후 25억 달러 수출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세부 실천계획의 수립과 더불어 국내 및 해외 수산물 수출기반을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가 정책적으로 중요한 이슈가 될 것이다.
  - 무엇보다 세부 실천계획의 수립에 있어서는 수출 대표품목의 국내 수급여건 뿐만 아니라, 철저한 수요조사를 통해 예측된 수출 적정물량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생산·유통·가공부문의 기반시설 지원이 필요하다.
- 또한 최근의 금융위기에 따른 환율 변동, 해외 마케팅 역량의 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한 수출입 업체에 대한 다양한 정책지원도 시급히 추진되어야 할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 수출지원을 위해서는 농업부문의 휘모리(Whimori)와 같은 수산물에 대한 공동브랜드의 개발, 수출 물류비 지원, 국제박람회 참가 및 해외 홍보를 위한 마케팅 지원, 농수산물수출보험 가입 등의 지원이 필요하며, 이러한 지원대책들이 수출업체의 주요 이슈로 부각될 것이다.
  - 한편, 2008년 하반기 환율 급등의 여파는 일부 수산물의 공급 감소와 가격상승으로 이어지면서 전반적인 수산물 수급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영세한 수입업체의 환차손 확대, 자금압박 등으로 도산이 현실화되고 있다. 그러나 수입업체에 대한 정책적 지원은 현실적으로 많지 않은 실정이므로 종합적인 국내 수급여건을

고려하여 적절한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 그리고 수산물의 수출입에 있어서는 식품으로서의 안전성(safety)과 신뢰성(credibility)이 중요해짐에 따라 수출입 수산물의 검역 강화, 국제 품질인증의 획득 등 식품위생 및 안전에 관련된 사항들이 주요 이슈로 부각될 것으로 예상된다.

#### ④ 수산식품 위생안전부문 주요 이슈

- 올해에는 선진국 수준의 품질·위생·안전한 수산식품을 생산하고 유통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전해역관리(Safety Map) 기반 구축, HACCP 적용 범위 및 업체 수 확대, 수산물이력제 및 품질인증제도 통합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 2009년 정부가 발표한 『식품안전 종합대책』이 성공적으로 수행되는데 농림수산식품부가 주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당 업무의 중요성을 부각시킬 필요가 있다.
  - 관련 부서 간 이견 해소와 업무수행 조직별 역할 및 책임 명확화 작업을 대비하여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
- 올해 HACCP 적용 등 안전성이 인증된 수산식품생산량을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정부주도하에 투자재원을 확보하고, 투자대상 선정 및 투자우선순위를 결정하고 투자 및 사후평가 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해야 한다.
  - HACCP 적용 식품생산량이 2008년 30%에서 2009년 50%로 확대하기 위해서는 79억원<sup>14)</sup> 투자가 예상('09년)되며, 『식품안전 종합대책』의 2012년 목표치는 95%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 농식품 부문에 비해 상대적으로 규모 및 관심도가 적은 수산식품 부문의 투자 우선순위가 뒤로 밀려나지 않도록 투자 당위성에 대한 논리 개발이 필요하다.
  - 또한 투자재원이 적시적소에 사용되는지와 민간업체의 HACCP 투자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사후평가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 2009년에는 전년에 비해 품질·위생·안전수준이 우수한 수산식품에 대한 국내소비 및 수출이 증가하여, 우수 수산식품의 생산 및 유통업체 매출이 증가하고 고용이 창출되어 수산업이 경제활성화에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14) 복지부 및 식약청에서 HACCP 제도 확대에 35억원, 농수산식품부가 HACCP작업장 확대에 44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 참고문헌

- 국무총리실(관계부처합동), 식품안전 종합대책, 2008.7.11.
- 김정선, “식품안전정책의 국제적 동향”, 『국제사회보장동향』,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8 가을호.
- 농림수산식품부, 수산물 수급 및 가격편람, 2008.8.
- \_\_\_\_\_, 식품산업발전종합대책, 2008.11.13.
- \_\_\_\_\_, 2009년 업무계획, 2008.12.22.
- \_\_\_\_\_, 세계일류 한국 수산업, 2008.12.
- \_\_\_\_\_, 농식품 안전관리 5개년 추진계획, 2008.6.
- \_\_\_\_\_, 유어내수면과 보도자료, “『한중 수산물 위생약정』개정안 장관급 서명을 통해 양국간 수산물 위생안전, 협력강화 기대”, 2008.8.25.
- 농수산물유통공사 KAMIS([www.kamis.co.k](http://www.kamis.co.k)).
- \_\_\_\_\_, 도매시장통계연보.
- 보건복지가족부, 「국민건강영양조사」, 2005.
-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수산물계통통계연보.
- 이선영, “식품안전정보”, 『Safe Food』, Vol.03, No.1, 한국식품위생안전성학회, 2007.
- 장홍석 외 2인, 대형소매업의 확산에 따른 수산물 산지공급주체의 대응방안,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기본과제 2007-12, 2007.
- 정기혜, “식품안전관리체계의 세계적 동향과 시사점”, 『국제사회보장동향』,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6년 여름.
- 정명생 외, 「주요 어류의 소비구조 분석에 관한 연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04.
- 조웅제, “소비자지향적 식품안전관리정책과 방향”, 한국환경농학회, 2008.
- 통계청, 가계조사, 각년도

\_\_\_\_\_, KOSIS 국가통계포털 사이트([www.kosis.kr/](http://www.kosis.kr/))

\_\_\_\_\_, 도소매업통계

\_\_\_\_\_, 「도시가계연보」, 각 년도.

\_\_\_\_\_, 물가통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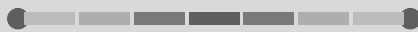
\_\_\_\_\_, 어업생산통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식품수급표」, 각 년도.

한국무역통계, 각년도.

한국체인스토아, 유통업체연감, 2008.

## 제3부



# 양식산업의 동향과 2009년 전망

제 7 장 양식분야의 경영환경 변화 및 수급전망

제 8 장 해조류의 수급동향과 전망

제 9 장 어류의 수급동향과 전망

제10장 패류의 수급동향과 전망





## 제 7 장

# 양식분야의 경영환경 변화 및 수급전망

옥영수\* · 고봉현\*\*

### 목 차

1. 서론
  - 1) 양식가구 변화
  - 2) 양식면허 건수 및 면적 변화
  - 3) 양식생산 변화
2. 양식산업을 둘러싼 환경 동향
  - 1) 원자재 가격 상승
  - 2) 수산물 수출입 동향
  - 3) 해양환경의 변화
3. 2009년 수급 및 가격 전망
  - 1) 2008년의 수급특성
  - 2) 2009년 양식수산물 수급전망
  - 3) 2009년 양식수산물 수출입전망
  - 4) 종합
4. 양식산업의 최근 이슈
  - 1) 과잉 생산 문제 해소
  - 2) 어장 정비
  - 3) 식품 안전성 문제 해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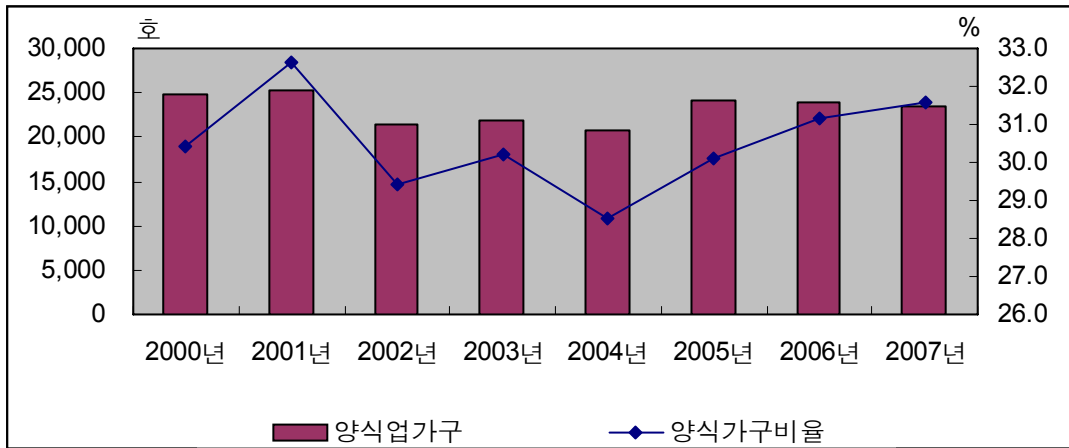
## 1. 서론

### 1) 양식가구 변화

- 2000년 이후 양식가구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2007년 양식가구 수는 약 2만 3천호로 2000년에 비해 5.9% 줄었다.
- 전체어가에 대한 양식어가의 비율은 2004년까지는 감소하다가 그 이후 증가추세에 있으며 2007년에는 전체 어가의 31.6%를 차지하고 있다.

\* KMI 수산업관측센터장; \*\* 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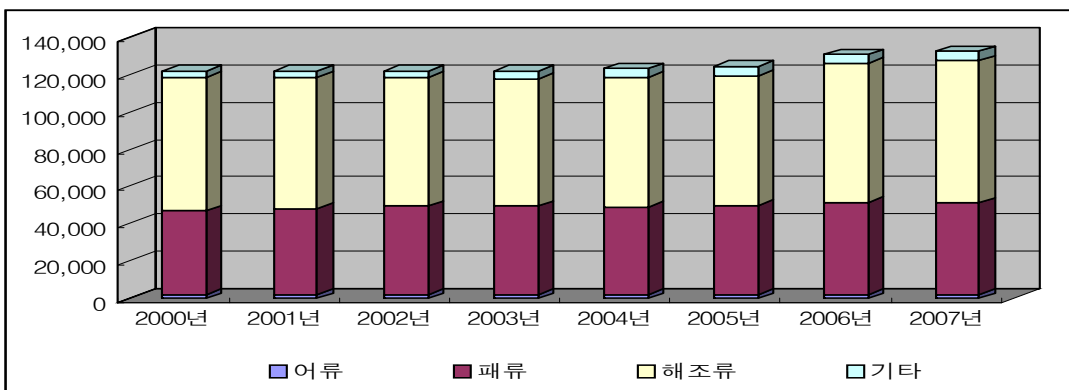
〈그림 7-1〉 연도별 양식가구 수 및 양식가구 점유비율 추이



## 2) 양식면허 건수 및 면적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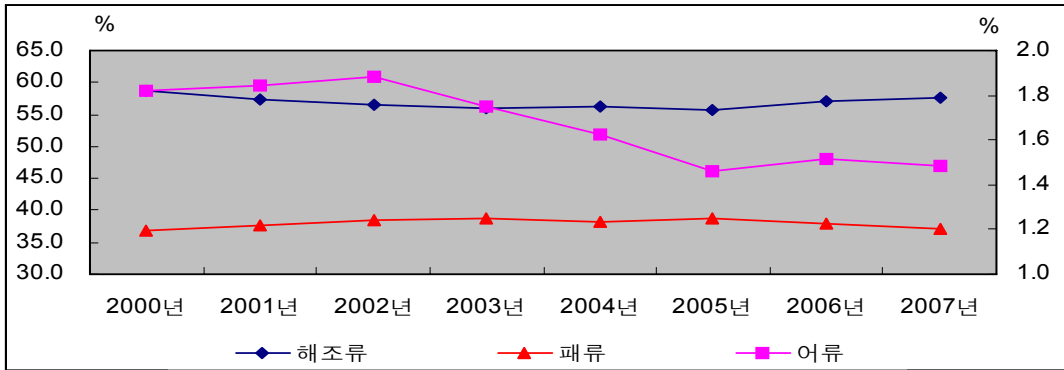
- 양식업의 물적 생산토대가 되는 면허 면적은 증가하고 있다. 2000년 12만 2천 ha이던 것이 2007년에는 13만 2천 ha로 8.6%가 증가하였다.
- 부류별 면허면적은 해조류가 가장 넓으며, 그 다음이 패류, 어류 등의 순이다.

〈그림 7-2〉 연도별 부류별 양식 면허면적 추이



- 한편 전체 면허면적에 대한 부류별 면허면적의 점유비율 추이를 보면 어류와 해조류는 소폭 감소하였지만, 패류는 소폭 증가하였다.

〈그림 7-3〉 연도별 해조류 및 어류의 면허면적 점유비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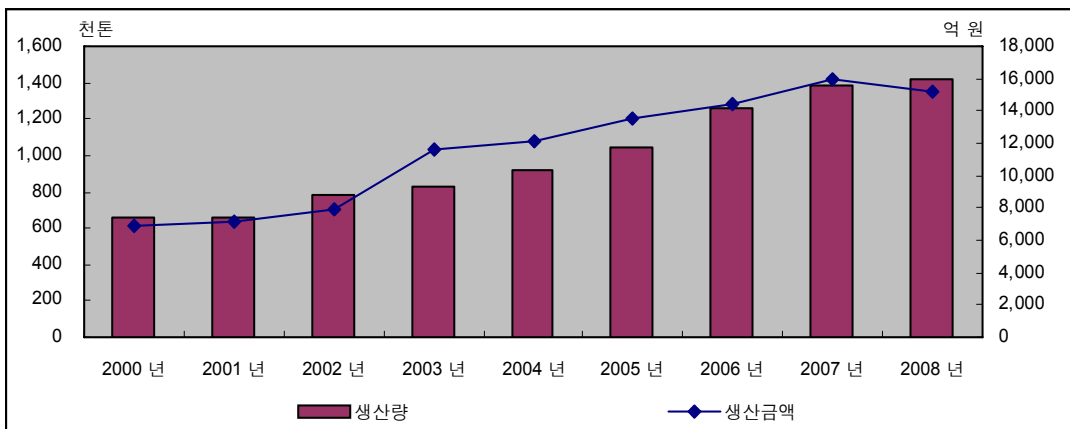


### 3) 양식생산 변화

#### (1) 총생산

- 양식생산량은 2000년 이후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 2000년 65만 톤이었던 양식생산량은 2005년 100만 톤을 초과하였으며, 2007년에는 139만 톤으로 2000년보다 2배 이상 증가하였다. 그리고 2008년 생산량은 약 140만 톤으로 추정된다.

〈그림 7-4〉 연도별 양식 총생산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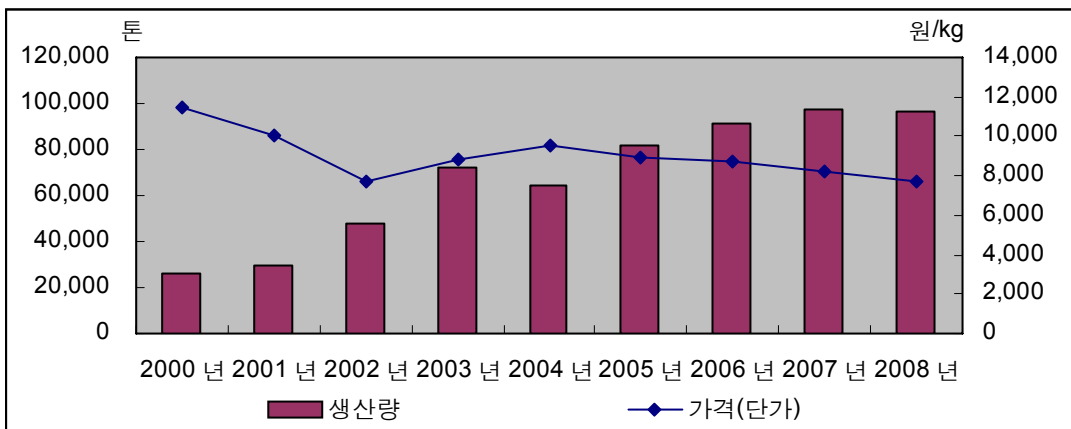
주 : 2008년은 KMI 전망치임  
 자료 : 통계청, 『어업생산통계』, 각년도

- 이와 같이 2000년 이후 양식수산물 생산량이 급속하게 증가한 이유는 정부의 ‘기르는 어업 육성정책’에 따른 어류, 패류 등의 생산량 증가에 기인하기도 하나, 무엇보다도 생산량이 가장 많은 해조류 생산 증가에 큰 영향을 받았다고 할 수 있다.

## (2) 어류

- 2000년 이후의 양식어류 생산량은 비약적으로 증가하였다.
- 이 기간 동안 전남을 중심으로 넙치육상수조식 양식이 확산되었고, 어류가두리양식 품목도 조피볼락에서 참돔, 농어, 감성돔, 복어 등으로 다양화되었다.
- 양식어류 생산량 또한 2000년 2만 6천 톤에서 2007년 9만 8천 톤으로 3.8배 증가하였다.
- 또한 육상수조식양식업계를 중심으로 대형화, 기업화가 진행되고 있다.

〈그림 7-5〉 연도별 양식어류 생산량 및 단가 추이



자료 : 통계청, 『어업생산통계』, 각 년도(2008년은 KMI 추정치)

- 한편 생산량의 지속적인 증가추세와는 다르게 가격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2000년 kg당 11,000원에 이르던 평균가격은 2007년에는 kg당 8,000대로 28.5% 하락하였다.
- 이와 같이 지속적인 하락추세 속에서 어종별로는 조피볼락이 3~4년 주기로 등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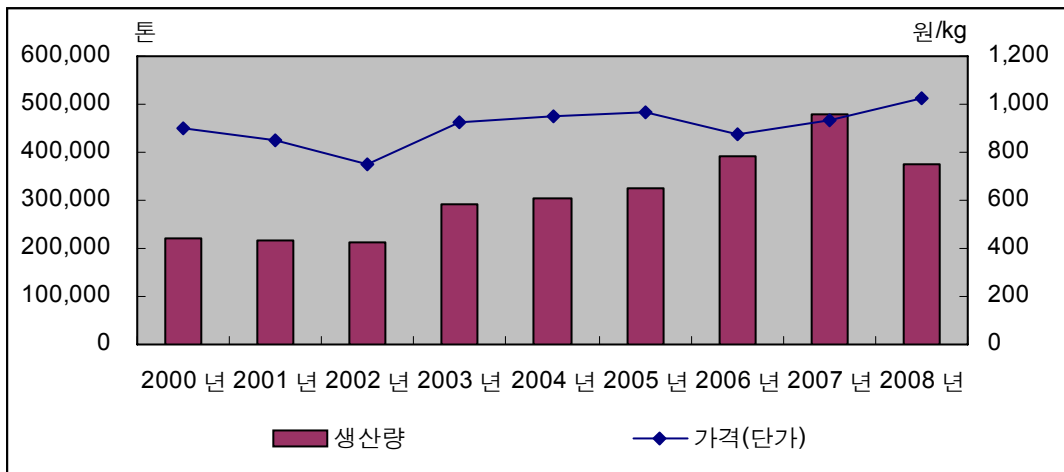


이 반복되고 있으며, 넙치의 경우도 같은 주기로 반복하고 있다. 특히 2008년 들어서 넙치의 가격이 크게 하락하여 생산자의 경영을 압박하고 있다.

### (3) 패류

- 2000년 22만 톤 수준이었던 양식패류 생산량은 2007년에는 48만 톤이 생산되었다.
- 이와 같은 생산량 변화는 패류 중 가장 많은 생산 비중을 차지하는 굴의 생산 등락에 따른 것이다.

〈그림 7-6〉 연도별 양식 패류 생산량 및 단가 추이



자료 : 통계청, 『어업생산통계』, 각 연도(2008년은 KMI 추정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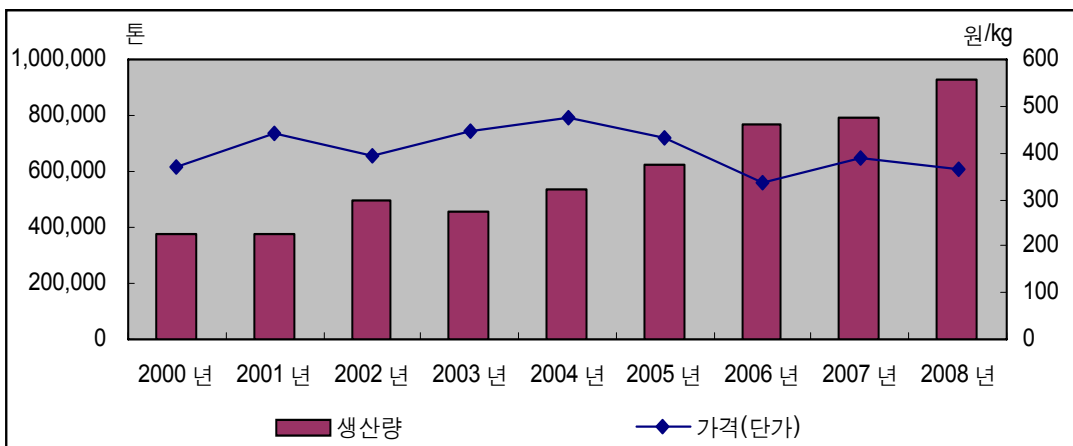
- 한편 패류 가격 추이는 어류와 달리 비록 완만하지만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최근 들어 고가 수산물인 전복 양식이 크게 늘어났기 때문이다.

### (4) 해조류

- 양식업 생산량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해조류는 2000년대 초 40만 톤 수준에서 2007년 8년에는 90만 톤을 넘어설 것으로 추정된다.

- 이처럼 최근 들어 해조류 생산이 급증한 것은 전복 양식이 크게 성행함에 따라 전복먹이용으로 사용되는 미역, 다시마 등의 생산이 크게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 한편 해조류 가격은 대체로 하락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생산은 증가하는 반면 국내 소비는 정체상태를 보이고 있으며, 수출수요 역시 중국과의 경쟁 등으로 인해 크게 늘지 않기 때문이다.

〈그림 7-7〉 연도별 양식 해조류 생산량 및 단가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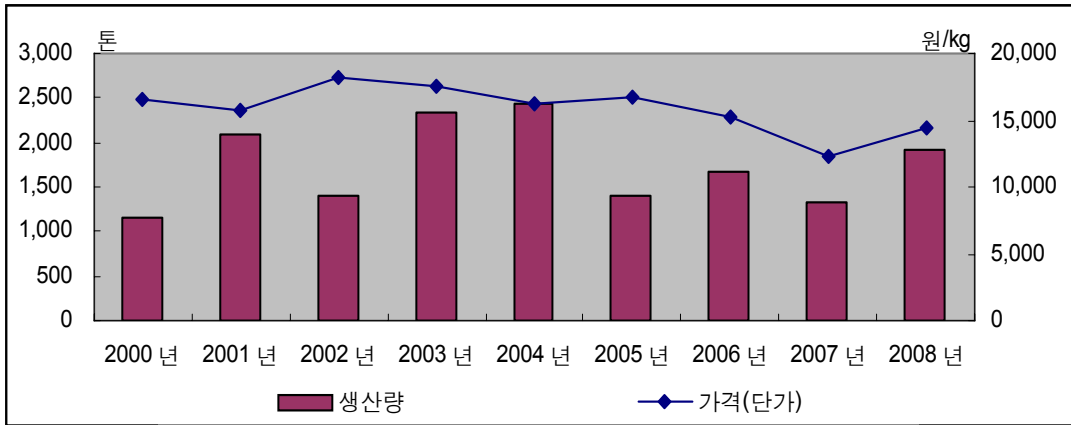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어업생산통계』, 각 연도(2008년은 KMI 추정치)

#### (5) 갑각류 및 기타수산동물

- 1990년 이후 생산량 증가세에 있던 갑각류는 생산량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새우류의 바이러스 피해에 따라 연간 생산량에 큰 편차를 보이고 있다.
- 가격은 중국 및 동남아지역의 저가품 수입 증가로 인해 국내산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여 하락추세를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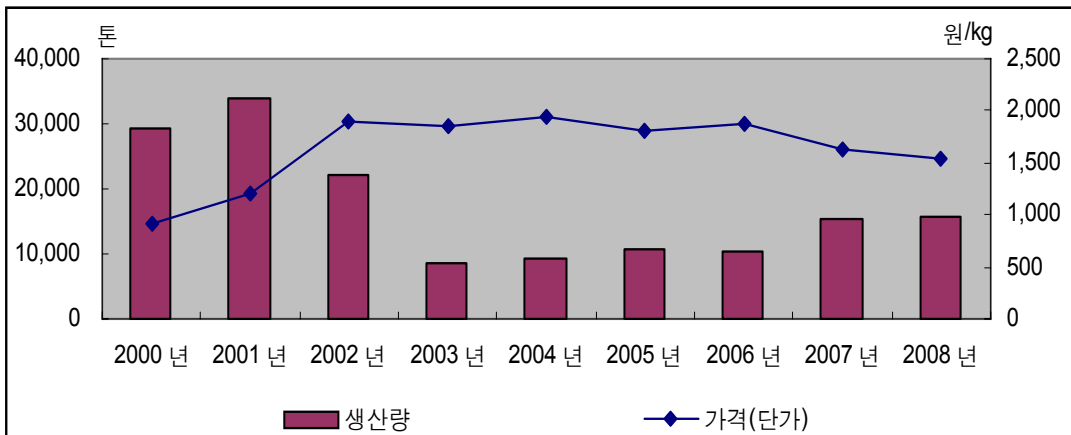
〈그림 7-8〉 연도별 양식 갑각류 생산량 및 단가 추이



자료 : 통계청, 『어업생산통계』, 각 년도(2008년은 KMI 추정치)

- 기타수산동물은 2000년대 초반까지는 3만 톤 전후 수준을 유지하였으나 2003년 이후 생산량이 크게 줄어들었다. 이는 기타수산동물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멧게에서 병해의 발생이 빈번함에 따라 생산이 부진을 보였기 때문이다.
- 생산량 감소에도 불구하고 가격은 2002년 이후 소폭 하락하고 있다.

〈그림 7-9〉 연도별 양식 기타수산동물 생산량 및 단가 추이



자료 : 통계청, 『어업생산통계』, 각 년도(2008년은 KMI 추정치)

## 2. 양식산업을 둘러싼 환경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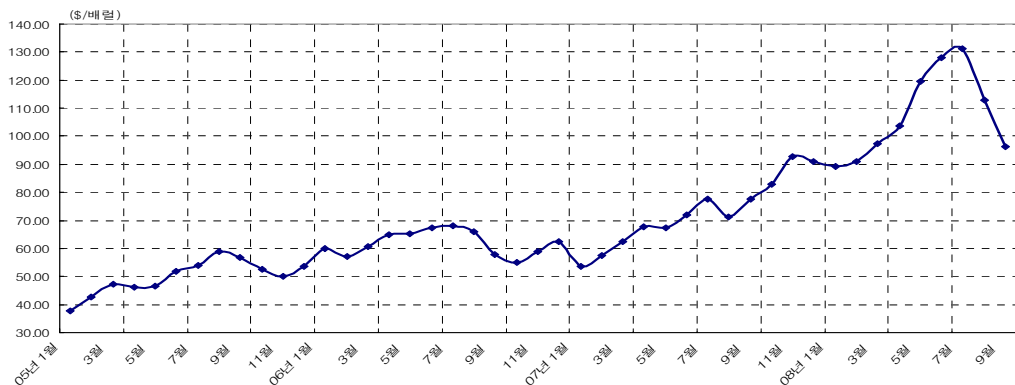
- 양식업은 자연환경뿐만 아니라 많은 경제적 혹은 제도적 요인에 의해서 급변하고 있다. 양식업이 본격적인 산업체제로 진입하기 전인 1980년대까지만 하여도 자연요인과 생산기술적 요인이 양식업 존립의 기반이 되었으나, 1990년대 이후부터는 각종 경제적 요인 또는 대외적 요인에 의해서도 많은 영향을 받게 되었다.
- 이런 점에서 이하에서는 양식어업을 둘러싼 대내외 경제 요인과 다양한 환경변화를 살펴보고 이를 이용하여 향후 전망에 활용하고자 한다.

### 1) 원자재 가격 상승

#### (1) 유류가격 상승

- 양식업에서 중요한 원가의 하나인 유류가격의 경우, 국제유가의 상승 추세에 따라 면세유 가격도 지속적으로 상승하였다. 즉 양식장 관리선 및 육상수조식 발전연료 등으로 많이 쓰이는 국내 어업용 면세유 공급가격은 2007년까지 완만한 상승세를 보이다가 2008년 들어 국제 유가의 급상승에 연동되어 크게 상승하였다.
- 최근 국제 유가의 하락으로 면세유 가격도 하락하였으나, 아직까지는 2007년보다 높은 수준이어서 당분간 어업경영에서의 고유가 부담 요인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그림 7-10〉 국제유가 동향(두바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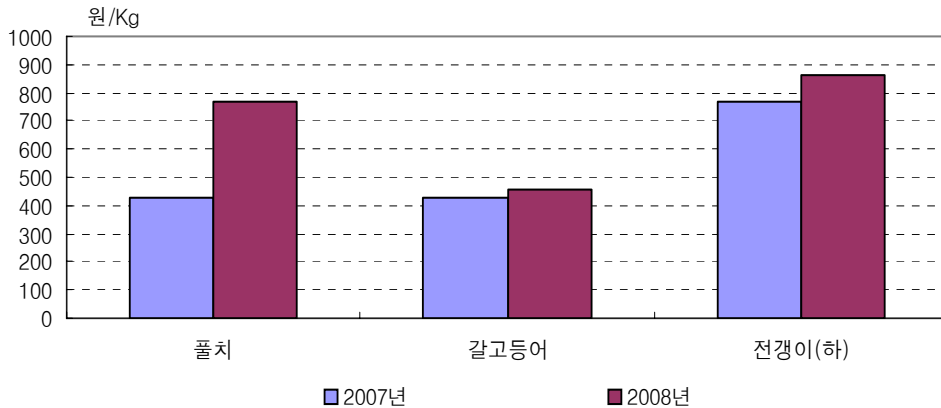


자료 : 한국석유공사 석유정보망(<http://www.petronet.co.kr>)

## (2) 사료 가격 상승

- 양식용 생사료용으로 사용되는 갈고등어, 전갱이, 풀치 등 사료어의 산지가격은 2008년 들어 큰 폭으로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 즉 풀치의 경우 2008년 770원/kg으로 2007년 대비 80% 가량, 갈고등어의 경우 460원/kg으로 8%, 하품 전갱이의 경우 860원/kg으로 12%의 상승률을 보이고 있다.
  - 이와 같은 상승추세는 전반적으로 어업자원이 감소되고 있는 상황에서 연안 어업 역시 면세유의 가격상승으로 어획단가가 올랐기 때문이다.

〈그림 7-11〉 주요 사료어의 산지가격 등락 동향



자료 : 부산 공동어시장

## (3) 기타 원자재 가격동향

- 국제유가 및 면세유의 상승은 2차적으로 다른 관련 원자재 가격의 상승을 불러와 전반적인 원가 상승을 유발시키고 있다.
  - 즉 양식업에서 중요한 원가요소인 치어나 종묘대의 상승을 유발하고 있으며, 그 외 합섬제품 등으로 이루어진 각종 시설재 가격의 동반상승을 촉발시키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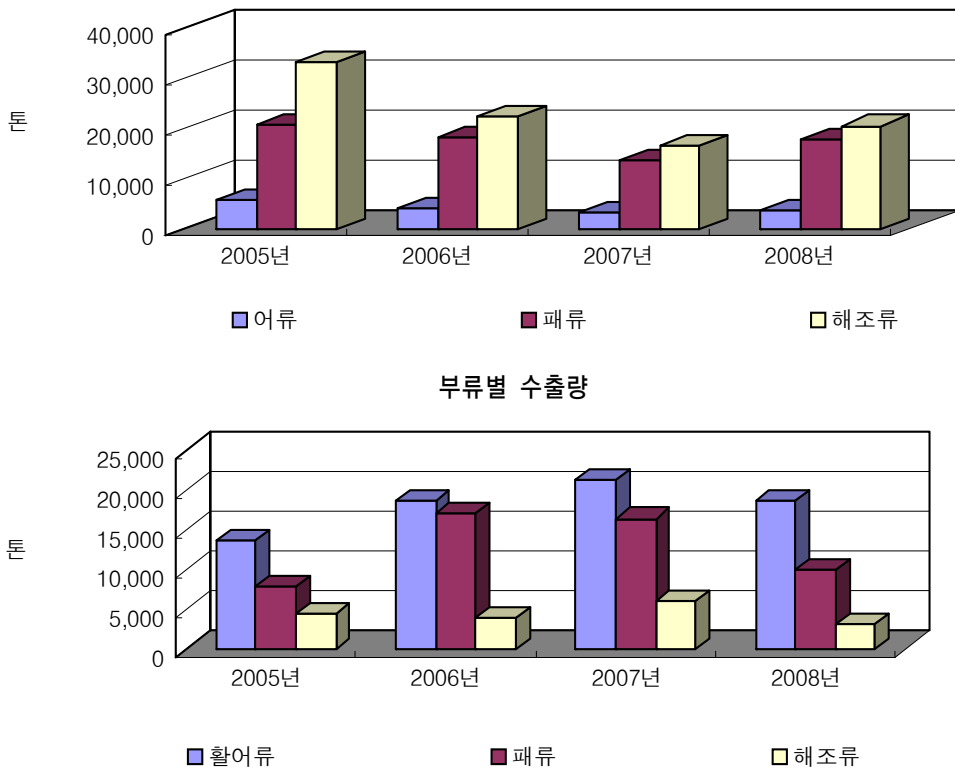
## 2) 수산물 수출입 동향

- 일반적으로 양식수산물의 수출은 패류 및 해조류가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어류 중

에는 넙치가 최근 주력 수출 품목으로 각광받고 있다.

- 양식업분야의 부류별 최근 수출실적은 전반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2008년 들어 환율 상승에 힘입어 다소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 양식수산물의 수입량은 어류와 패류의 경우 전반적으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해조류는 대체로 감소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그 양은 많지 않다.

〈그림 7-13〉 부류별 수출입동향



주 : 1) 각 품목의 수출입은 활·선어와 기초 가공품을 합한 실적으로 수출은 적용되지 않았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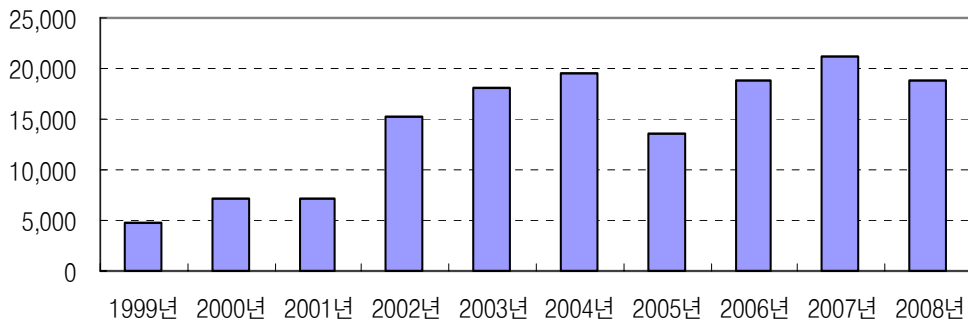
2) 2008년은 11월까지의 잠정치임

자료 : 농수산물유통공사, 『수출입통계』

- 양식수산물의 수입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어류, 특히 활어류의 경우 1990년대에 비해 2000년대 이후 크게 늘어나고 있다.

- 국내에 수입되고 있는 주요 활어로는 돔, 농어, 홍민어, 노래미 등이 있으며 넙치류와 조피볼락이 최근 일부 소량 수입되고 있다.
- 활어 수입량은 2000년대 이후 2만 톤 전후를 보이고 있으며, 2008년에는 환율 상승 등의 요인으로 인해 2007년보다 다소 감소하였다.

〈그림 7-14〉 활어류 수입량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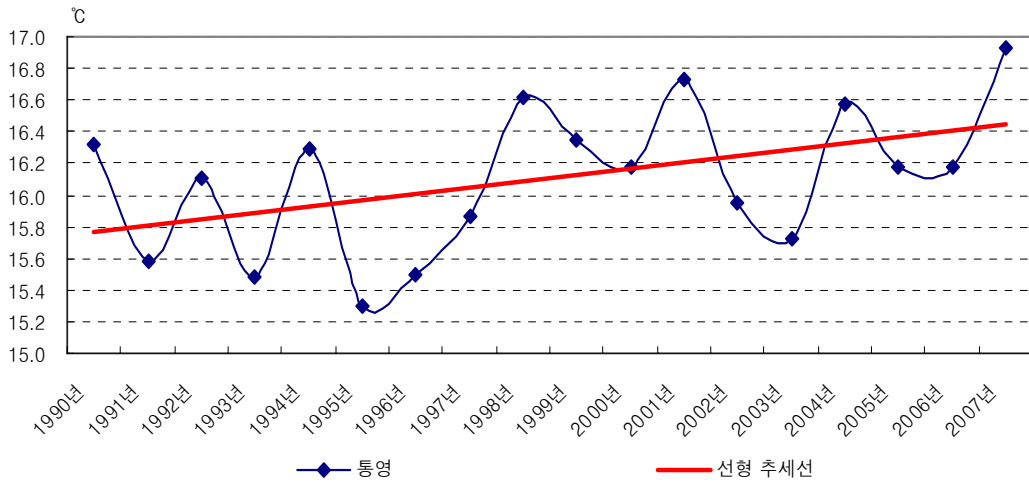
자료 : 관세청 및 한국무역정보통신(KTnet), 『수출입통계』에서 작성

### 3) 해양환경의 변화

#### (1) 지구온난화로 인한 해수온도의 상승

- 해수온의 변화에 따라 양식업의 생산여건은 상당한 영향을 받기 때문에 수온을 비롯한 기상여건의 변화는 향후 양식업분야의 전망을 하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 구체적인 예로써 우리나라 양식업이 매우 성한 통영지역의 경우 연별 등락이 있기는 하지만 지속적인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1990년 이후 대체로 0.6℃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 2006년~2008년 수온상승으로 김 등 해조류의 어기 초반(10~11월)의 작황이 좋지 않았으며, 2008년 어기 초반의 상황은 최근 들어 가장 좋지 않았다.
- 조기산 잇바디돌김의 작황이 예년에 비해 크게 나빠졌고, 미역은 고수온으로 염체가 녹아버리면서 조기산 나물용 물미역 공급에 차질이 있었다.

〈그림 7-15〉 연도별 연안 수온의 변화추이(통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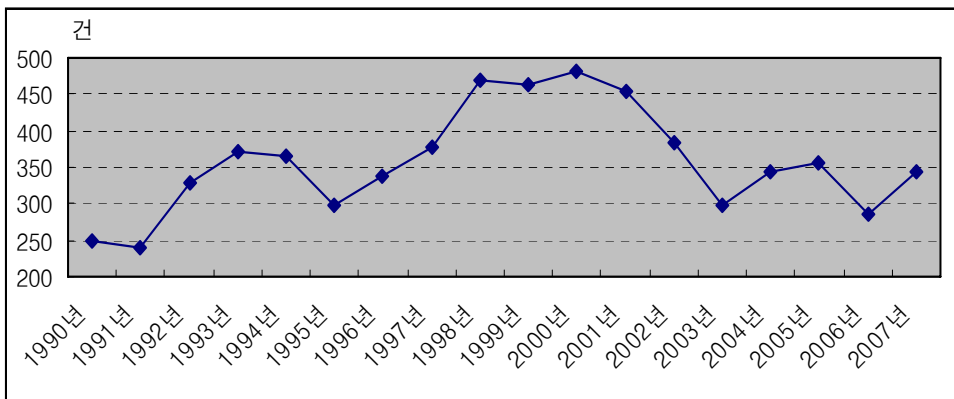


자료 : 국립해양조사원(www.nori.go.kr), 『연안 수온 통계』

## (2) 해양오염의 증가

- 우리나라 연안의 해양오염은 지속적으로 악화되어 왔는데, 1980년대 이후 중국의 급속한 산업화, 공업화는 한강해 해양환경을 크게 악화시켜 더 큰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 우리나라 연안의 해양오염건수는 1980년대에는 연간 200여건 전후였으나 2000년대에는 400~500건을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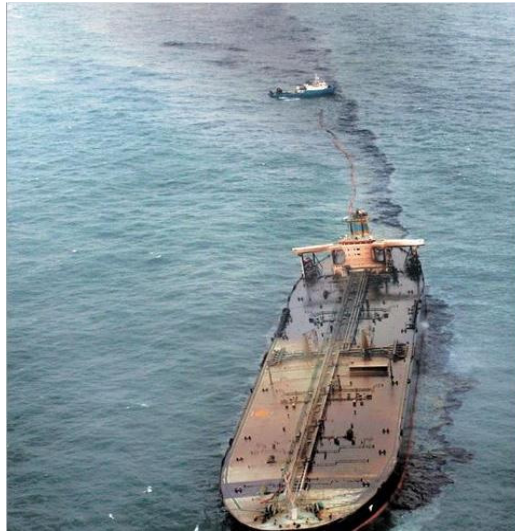
〈그림 7-16〉 연도별 해양오염건수



자료 : 해양경찰청

〈그림 7-17〉 2007 서해 유류오염 사고





- 한편 해양오염의 정도는 총오염건수의 증가도 문제이지만 대형오염의 사례가 늘어난다는 것에 더 큰 문제가 있다. 즉 산업화가 진전될수록 대형오염사례가 늘어나고 있으며, 2007년 12월에 발생한 서해유류오염사고는 그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다.

### 3. 2009년 수급 및 가격 전망

#### 1) 2008년의 수급특성

- 여기서는 2008년의 주요 양식 품목별 수급특성을 정리하고, 이를 바탕으로 양식수산물의 2009년 수급상황을 전망하고자 한다. 다만 이 장은 뒤의 각 품목별 수급전망과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정성적인 측면에서 전체를 전망해보고자 하였다.
- 2008년의 주요 양식품목 수급특성은 크게 고수온으로 인한 초기 작황 부진, 과잉공급, 수출호조의 3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이는 과거에 흔히 보았던 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처럼 보이나, 내부적으로 들여다보면 과거와는 다른 점을 많이 찾아볼 수 있다.
- 초기작황 부진은 해조류에 해당되는 것으로 지구온난화로 인해 해수온이 상승하면서 과거 몇 년간 김과 미역 등은 여기 초반(10~11월)의 작황이 좋지 않았다. 그러던

것이 2009년산(2008. 10.~2009. 4)의 초기생산시기에 접어들면서 김은 조기산 잇바 디돌김의 작황이 예년에 비해 크게 나빠졌고, 미역은 고수온으로 업체가 녹아버리면서 조기산 나물용 물미역의 공급이 차질을 빚을 만큼 작황이 나빠졌다.

- 이는 이미 기존의 어기 시작시기가 해수온의 상승으로 인해 현실과 맞지 않음을 보여주는 것이며, 해조류의 2010년산(2009. 10.~2010. 4.) 작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 다음으로 과잉공급은 김과 넙치, 전복에서 나타났는데, 각 품목의 양상이 다소 차이가 있다. 이중 전복은 전형적인 과잉공급 형태로, 생산량이 급증하면서 수요가 이를 따라가지 못해 과잉공급이 나타났다.
  - 하지만 김과 넙치는 전체 생산량의 문제라기보다는 생산되는 상품형태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공급과잉이다. 즉, 김은 김밥용 일반김의 재고량이 아주 많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생산자들이 이 제품의 생산을 늘렸기 때문에 김밥용 일반김만 과잉공급 되었다.
  - 또 넙치는 2006년 가을부터 2007년 봄까지의 치어입식이 급증하였고, 백신사업 확대로 치어의 폐사량이 감소하여 전체적인 물량 증가를 가져왔다. 그 결과 2008년 생산에 영향을 미쳐 1kg 이상의 큰 크기가 비정상적으로 많은 상황이 되었다. 이에 따라 1kg 이상 크기 넙치의 가격이 급락하면서 모든 크기의 가격을 동반 하락시켰다.
  - 이를 전체 넙치생산량의 증가 때문인 것으로 볼 수도 있으나, 생산 증가는 예년에 비해 약 1천 톤 정도였고, 수출이 늘어나면서 이 증가분을 일부 해소하였다는 점, 중국산 활어 수입이 환율 상승으로 인해 감소한 점 등을 보면 단순한 총생산량 증가만의 문제는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 이상의 2가지 요인들이 국내수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면, 2008년에 수출이 상당한 호조를 보였다는 점은 긍정적인 측면이라 할 수 있다.
  - 전복은 수출이 급증하면서 수출 시작 이래 최대의 수출량을 기록하였고, 이는 김, 미역 등도 마찬가지이다. 넙치도 상당한 수출 증가를 보였으며, 굴은 통조림의 경우 재고가 없어 수출을 못할 정도였다.
  - 이러한 수출호조는 크게 두 가지의 요인이 영향을 미쳤는데, 첫째는 당연히 환율

상승으로 인해 수출가격경쟁력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둘째는 중국의 식품안전성 문제로 인한 한국산 수산물에 대한 반사적 수요 증가이다.

- 수출되는 수산물은 넙치와 전복을 제외하면 대부분 중국산과 경합되는 상황인데, 과거 중국산 만두파동, 멜라닌사태 등 몇 차례 중국산 식품의 안전성사고 이후 중국산 수산물 수요가 한국산으로 대체되었다. 여기에 원화가치가 절하되면서 상승 효과를 불러일으킨 것이다.

## 2) 2009년 양식수산물 수급전망

- 이상에서 살펴본 요인들은 2009년의 수급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들이며, 이 요인들의 지속여부에 따라 수급전망이 좌우된다. 이하에서는 각 요인별 품목별로 수급을 전망해 보고, 전체 양식수산물의 수급을 전망해 보았다.
- 해조류에 있어서 고수온문제는 2009년에도 여전히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지구 온난화가 진행되면서 앞으로 더욱 심화될 소지가 있는 것으로, 해조류의 초기 채묘 및 시설시기를 늦추고 어기를 단축시키지 않는 한 상황이 호전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 김의 경우 생산량이 다소 감소하겠지만, 일반김의 과잉공급은 여전할 것으로 전망된다.
  - 미역의 경우 생산이 감소하는 가운데 전복 먹이용 수요가 늘 것으로 보여 전체적으로 수급불균형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 한편 해조류는 비교적 가격이 싸기 때문에 경기침체라는 사회적 현상과 맞물려 소비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전반적인 생산부진과 맞물려 수급불균형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다만 작년산의 재고물량이 다량 있기 때문에 가격은 전반적으로 보합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 어류의 경우는 넙치의 2007년 입식량이 평년수준을 보임에 따라 총생산량은 감소할 것으로 보이며, 전반기를 지나면 1kg 이상 크기의 과잉공급도 해소될 것으로 보여 가격도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 조피볼락은 가격이 다소 좋아지기는 했지만, 몇 년간 지속적인 가격불안정을 보여 생산어가들이 줄고 있어 2009년에도 생산량은 소폭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 하지만, 참돔, 감성돔 등 돔류의 생산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전반적인 어류 생산량은 작년보다 소폭 감소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 패류의 경우는 전복 생산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2009년에도 이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 전복은 특히 타 양식품목에 비해 중량 대비 가격이 높은 품목으로 생산액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수요에 비해 생산 증가 속도가 너무 빨라 초과공급이 예상되어 가격은 하락세를 보일 것이다.
- 굴은 작년 김장수요가 많았고 수출도 호조를 보이면서 금년 하반기로 이월되는 월하연이 많지 않을 것으로 보여 생산량은 소폭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 3) 2009년 양식수산물 수출입전망

- 수출은 2008년에 비해 소폭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환율이 여전히 좋은 상황에서 중국산 위안화의 절상으로 중국산 수산물의 가격경쟁력이 크게 낮아져 있는 상태이고, 식품안전성에 대한 불신 역시 2009년에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세계적인 경기침체의 여파가 수산물의 소비둔화로 이어지면서 양식수산물의 수출도 소폭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 김 수출은 중국과 일본의 2009년산 김 작황이 호조를 보이면서 다소 감소할 전망이다.
- 미역은 일본 내 중국산 미역에 대한 거부감이 여전히 2008년과 비슷한 수준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 넙치와 전복은 일본시장이 포화상태이고 일본 내 경기침체를 감안한다면 수출이 2008년보단 감소할 것이며, 특히 넙치는 일본산 양식 돔의 가격하락 등 경합요인으로 인해 감소폭이 클 수 있다.

### 4) 종합

- 2009년 전망을 종합하면, 전체 양식생산량은 2008년에 비해 소폭 감소할 것으로 전

망되며, 어류, 패류, 해조류 모두 소폭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 어류 중 돔류는 생산량이 증가하면서 1만 톤 전후의 생산량을 보일 것이며, 전복은 2009년에 8천 톤 생산을 거쳐, 2010년에는 1만 톤 이상이 생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 수출은 여전히 호조를 보이겠지만, 2008년보다는 소폭 감소할 전망이다.
- 공급과잉 품목 중 넙치 양식업에서는 시설규모에 대한 제약이 풀린다면 생산이 급증할 가능성이 있으며, 전복의 경우도 신규면허가 허용 된다면 생산량이 급증할 가능성이 아주 높다.
- 두 품목 모두 중국 등 중화권 시장에 대한 수출 잠재력이 높은 품목으로 향후 시장 확대가 기대된다. 하지만 아직 기초적 시장개척조차 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내 생산증가가 이루어지고 있어 가격폭락의 위험이 상존하고 있기 때문에 주의가 요구된다.

〈표 7-1〉 2009년 양식분야 부류별 수급 및 가격전망

구 분	어 류		패 류		해조류	
생 산	↓	(대체로 감소) - 넙치 ⇔ 감소 - 조피볼락 ⇔ 감소	↓	(총량 감소) - 굴 ⇔ 감소 - 전복 ⇔ 증가	↓	(총량 감소) - 김 ⇔ 감소 - 미역 ⇔ 감소
소 비	☁	부정적	☁	부정적(전복은 증가 가능성)	☀	긍정적
수출입	☀	수출 ⇔ 증가 수입 ⇔ 감소 (조피볼락 소폭 수입 증가 가능성)	☀	수출 ⇔ 증가 수입 ⇔ 감소	☀	수출 ⇔ 증가 수입 ⇔ 감소
수 급	생산 부진과 더불어 소비도 부진하나 수출은 증가		전반적으로 공급 부진과 더불어 소비도 부진		생산 감소 예상되나 하급재의 특성상 소비확대	
가 격	대체로 가격 상승 ↑ - 넙치 상승 - 조피볼락 하향 안정		하락 ↓		보합세 (재고분 반영)	

## 4. 양식산업의 최근 이슈

### 1) 과잉 생산 문제 해소

#### (1) 이슈 제기

- 2000년대 들어 양식업에 있어서 과잉 생산문제는 매우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2000년대 초의 조피볼락 과잉생산에 의한 가격 폭락은 어류양식업 종사자들을 심각한 경영악화 상태로 몰고 갔다. 더욱이 한 생산자가 도산할 경우 연대보증에 의해 연쇄도산을 야기하였으며, 이 결과 연안어촌의 경제는 심각한 상태를 맞이하였다.
- 그 이후에도 이러한 상황은 품목을 달리하면서 빈번하게 나타나 어촌경제를 매우 어렵게 만들었다. 2006년에 다시 조피볼락 과잉생산, 그리고 전어 파동, 2008년에는 넙치 생산 과잉을 불러 일으켜 가격 폭락사태를 야기하였다.
- 현재도 전복 양성물량을 두고 조만간 과잉생산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는 측과 그렇지 않을 것이라는 측에서 논란을 벌이고 있다.

#### (2) 원인

- 과잉생산의 1차적 원인은 양식시설이 과다하다는데 있다. 조금 가격이 높다고 생각되면 무분별하게 양식시설을 늘림으로써 총체적으로는 생산 과잉상태를 빚게 되었다.
  - 이런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 면허나 허가제도가 만들어졌으며, 사전에 이를 조정하기 위해서 어장이용제도 등이 있으나, 일부 품목에 있어서는 지자체 간에 경쟁적으로 신규면허를 확대하는 사례가 있어 법 본래의 취지가 무색하게 되었다.
  - 최근 이러한 이유로 과잉생산의 우려를 낳고 있는 것이 육상수조식양식에 의한 넙치와 가두리 양식에 의한 전복이다.
- 과잉생산의 두 번째 원인으로는 생산자들이 생산 및 소비에 대한 정보 및 예측력 부족이다. 이러한 정보부족을 해소하기 위해서 수산업 관측센터 등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어업자들이 생산비나 생산량 등에 관한 1차적 정보제공을 꺼리는 경향도 있고 생산, 유통의 복잡성은 정확한 생산정보나 가격예측에 어려움을 주고 있다.

- 세 번째 원인으로는 종묘 공급과 생산물 유통 체계상의 문제를 들 수 있다. 종묘 공급의 문제는 적정생산을 위한 적정량의 종묘 공급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 즉 종묘 생산자와 양식어업자 사이에서 합리적인 종묘 공급량을 설정하여 이 범위 내에서 종묘가 공급되면 과잉생산의 원초적인 문제가 해결될 수 있으나 상호 불신이나 각 협회의 구성원에 대한 적절한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아 합리적으로 종묘가 공급되지 못하고 있다.
  - 또한 생산물의 유통 상의 문제는 양식수산물에 대한 체계적인 유통 시스템이 마련되지 않아 정확한 유통정보를 알 수 없다. 이것도 적정 생산량 조절에 장애요인이 된다.

### (3) 향후 과제

- 빈번한 과잉생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적정 공급량 유지를 위한 자율 시스템이 확립되어야 한다.
  - 즉 유통협약사업을 보다 본격적으로 활용하여 생산자들이 자율적으로 생산량 조절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1차적으로 적정한 생산량을 설정하여 그 양을 양성하도록 노력하되, 생산량이 과잉의 기미가 보일 경우 폐기 등 자율적으로 물량조절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 또한 생산 및 가격 예측 기능이 강화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2, 3년 혹은 5, 6년의 중장기적 생산과 가격 예측을 할 수 있는 품목별 수급 모형이 수립되어야 한다.
  - 이를 통해 정확한 생산 및 가격 예측정보를 제공해 줌으로써 생산자들이 직접 생산량 조절을 할 수 있도록 한다.
- 아울러 종묘 생산자와 양식물 생산자 간의 유기적 협의체제가 시현되어야 한다. 이러한 협의체제는 각 조직 구성원에 대한 통제를 전제로 하는 것으로서 적정 물량공급과 가격안정이 지속적인 산업발전의 관건임을 상호 인식하여야 할 것이다.

## 2) 어장 정비

### (1) 이슈 제기

- 과거 양식면허어장은 무질서가 상존하였다. 따라서 불법어업 근절이 어업정책의 화

두가 되어 왔다. 이러한 무질서는 그동안 많은 정비 노력에 의해 상당히 해소되었으나 아직도 완전한 상태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

- 인공위성 판독사업에 의할 경우 각 품목 간에는 면허지 이탈, 초과 시설, 무면허 시설 등이 아직도 잔존하여 어장 질서 회복이 여전히 양식업의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이중 불법어업의 대명사라고 할 수 있는 무면허면적은 김과 미역, 굴에서 다소 있으나 비교적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면허지 이탈은 아직도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 즉 미역의 경우 57.0%, 김의 경우 31.2%가 면허지 이탈 비율이었으며, 그 외 어류가두리, 전복도 25% 가량이 면허지 이탈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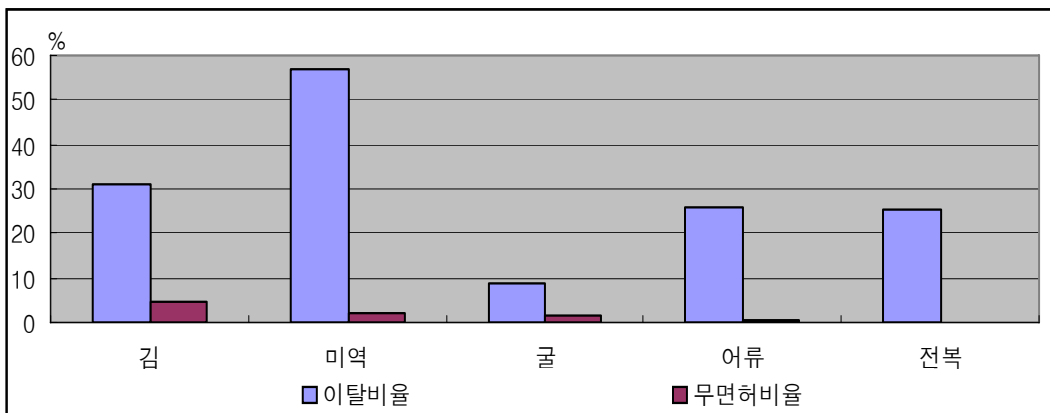
〈표 7-1〉 양식품목별 면허지 이탈 및 무면허 비율

단위: %

품 목	이탈 비율	무면허 비율	판독연도
김	31.2	4.6	2007
미 역	57.0	2.1	2008
굴	8.6	1.4	2008
어류(가두리)	25.7	0.7	2007
전 복	25.4	-	2008

자료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수산업관측센터.

〈그림 7-18〉 양식품목별 면허지 이탈 및 무면허 비율





## (2) 향후 과제

- 어장질서를 바로잡아 효율적인 생산체제가 확립되기 위해서는 면허지에 대한 GIS 체제가 구축되어야 한다.
  - GIS는 지리정보시스템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인공위성에 의한 정확한 지리정보를 어장이용제도에 활용함으로써 어장 질서 회복의 기본토대가 되도록 한다.
- 또한 인공위성 관측 정보에 의한 지속적인 정비 단속도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인공위성 영상판독작업이 보다 정교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공권력에 의한 정비 단속에 앞서 어업인의 자율적 생산조직에 의한 자율정비가 이루어지는 것이라 할 수 있다.

## 3) 식품 안전성 문제 해소

### (1) 이슈 제기

- 2000년대 들어 먹을거리에 대한 안전성 문제는 소비자들의 주된 관심사항이 되어 왔다. 그 결과 수산물에 있어서도 많은 안전성 문제가 야기되어 큰 영향을 받아 왔다.
  - 즉 양식어류에 있어서는 항생제문제, 말라카이트그린 문제, 패류에 있어서는 패류 독소 문제, 노로 바이러스 문제, 어패류의 비브리오균 문제, 해조류에 있어서는 황성처리제(무기산 문제) 등의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 이와 같은 문제가 제기될 때마다 소비에는 큰 악영향을 미쳐 양식물의 가격하락 및 소비부진을 초래하였으며, 이는 어업인들의 경영악화에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

### (2) 향후 과제

- 국내산 양식물에 대한 차별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국민 신뢰성을 유지하여야 하는데, 이런 점에 생산자들의 의식이 제고되어야 한다.
  - 국내산 양식물에 대한 신뢰도는 해외 수출 신뢰성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최근 들어 식품안전성 문제는 국내외에 동시에 알려지기 때문이다.

- 김활성처리제를 무기산에서 유기산으로 대체하는 등의 대체약품개발을 통한 식품 안전성에 대한 인식제고 또한 필요하다.
- 양식물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업인 상호 감시체제가 확립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유통협약이나 유통자조금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 한편 양식물은 생산자 만에 의해서 문제해결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생산자, 가공업자, 중간 유통인 모두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 즉 김이나 미역의 경우 아무리 원초가 안전하다 하더라도 중간 가공단계에서 안전성을 상실할 수 있고, 그 외 활어나 패류 등의 경우 유통단계에서 위해물질이 투입될 수 있기 때문이다.
- 따라서 생산자, 가공업자, 중간 유통인 간의 신뢰가 구축되어야 하며, 제도적으로는 합리적인 유통체계 시스템이 확립되어야 할 것이다.



## 제 8 장 해조류의 수급동향과 전망

안재현\* · 함영곤\*\*

### 목 차

- |                 |                  |
|-----------------|------------------|
| 1. 서론           | 3. 미역            |
| 2. 김 수급동향과 전망   | 1) 수급동향          |
| 1) 수급동향         | 2) 2009년 미역 수급전망 |
| 2) 2009년 김 수급전망 |                  |

## 1. 서론

### [김]

- 연도별 김 양식 시설 책수는 2005년산 이래 대체로 감소 추세이며, 생산량은 연간 1억 속 내외이다. 재고량이 예년보다 많고 판매가 부진하여 도매가격은 작년보다 하락하였다. 수출은 2001년 이후 증가추세이며 특히 2008년에는 중국과 일본의 김 생산 부진과 환율 여건이 좋아 2007년보다 크게 증가하였다.
- 2008년산 김 생산량 증가와 도매시장 거래부진 등으로 2007년 하반기부터 재고량은 증가 추세였으며, 2008년 12월 재고량은 예년보다 24% 이상 많았다.
- 2009년산 김 생산량은 2008년산보다 3~5% 감소한 9,400~9,600만 속으로 추정된다. 채묘기 이후 지속된 고수온과 강수량 부족 등 해황이 좋지 않아 어기 초부터 전남의 돌김과 충남 및 전북의 일반김 생산량이 작년보다 감소하였다. 올해 동아채묘 김 성장 상태도 좋은 편은 아니며, 또한 고수온으로 어기가 단축될 가능성도 감안한다면 2009년산 김 생산량은 2008년산보다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 책임연구원; \*\* 연구원

- 2009년 수출량은 작년보다 적은 980~1,100만 속으로 예상된다. 2008년산 중국과 일본의 김 생산이 크게 부진했기 때문에 기상이변이 없다면 올해 중국과 일본의 김 생산은 작년보다 증가할 전망이다. 또한 환율은 작년보다는 다소 안정되겠지만 예년에 비해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이므로 수출량은 예년보다는 많겠으나 작년보다는 다소 적을 것으로 보인다.

## [미역]

- 수출 감소로 1990년대 중반 이후 감소세를 보였던 미역 생산량은 2002년 이후 양식 전복 생산량 급증의 영향으로 다시 증가세로 반전되었다. 지역별로는 전복 주산지인 전남의 생산량은 증가한 반면 울산 등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생산량 증가에 따라 산지 가격은 하락세를 보여왔으나, 도매가격은 가격의 변동성이 작고 수요가 안정적인 특성에 따라 산지 가격에 큰 영향을 받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의 도매가격의 경우, 2008년산 생산량이 전년도보다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물가 상승에 의한 비용 증가의 영향으로 2007년보다 소폭 상승하였다.
- 1990년대 이후, 중국산 저가 미역 등장으로 수출은 감소세를 보여왔다. 국가별로는 1990년 대에는 대일 수출이 80% 이상을 차지하였으나 2000년대 들어 대일 수출은 감소한 반면, 중국으로의 수출이 크게 증가했고 기타 국가 수출 비중도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다. 한편 2008년에는 중국산 식품 안전성 문제 및 원/달러 환율 상승 등으로 전년 대비 36.2% 증가한 8만 4,524톤을 기록하였다.
- 2009년산 미역 생산량은 2008년보다 소폭 감소한 35만~37만 톤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어기 초 고수온 등으로 작황이 부진했으며 일부 어장의 시설은 재 설치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해황 여건이 예년 수준을 보인다면 2009년산 미역 생산량은 2008년보다 소폭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 2009년 하반기에는 환율이 안정될 것으로 예상되나, 2007년보다는 높은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중국의 미역 작황은 2009년에도 다소 부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같은 여건을 종합할 때, 2009년 수출량은 2008년보다 2~8% 감소한 8만톤 내외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 2. 김 수급동향 및 전망

### 1) 수급동향

#### (1) 생산 동향

##### ① 시설동향

- 연도별 김 양식 시설 책수는 2005년산 이래 대체로 감소 추세이다. 이는 정부에서 그 동안 어장정비와 불법 시설 단속을 꾸준히 시행하였고, 어업인들도 밀식, 불법 시설 등을 스스로 자제하려는 노력을 기울여 온 결과이다.
- 양식어가 설문조사 결과, 2009년산 김 시설 책수는 약 64만 책으로, 전년산보다 3.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지역별로는 부산에서 16.2% 감소한 반면, 전북과 전남은 각각 9.2%, 3.8% 증가하였고, 충남은 작년과 비슷하였다. 부산은 올해 면적당 시설 책수를 제한하였으며, 전남과 전북은 어업인수와 면적당 시설 부과량이 작년보다 증가하였다.

〈표 8-1〉 연도별 지역별 김 양식 시설 책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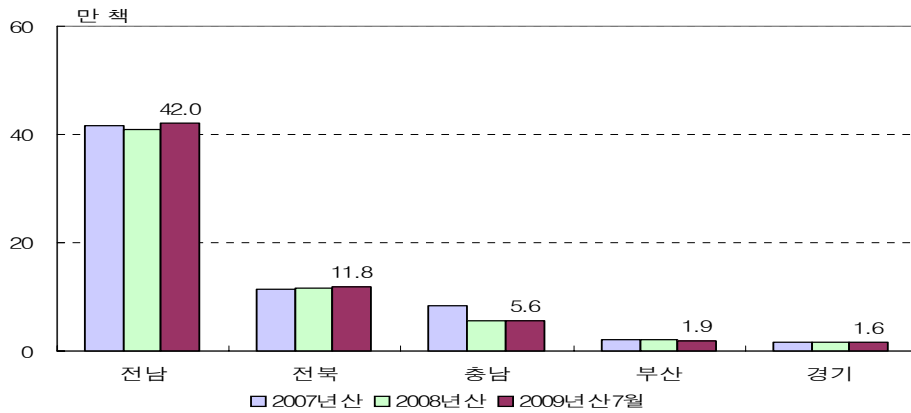
단위 : 만 책

구 분	전국	전남	전북	충남	부산	경기
2005년산	67.7	49.2	8.1	4.9	3.9	1.6
2006년산	68.5	48.4	9.7	6.5	2.5	1.5
2007년산	64.4	11.4	7.6	2.1	1.7	1.0
2008년산	61.8	40.9	11.5	5.5	2.2	1.7
2009년산 (점유율,%)	64.0 (100.0)	42.5 (66.3)	12.6 (19.7)	5.5 (8.6)	1.8 (2.9)	1.6 (2.5)
전년산 대비(%)	3.4	3.8	9.2	-0.1	-16.2	-7.1

주 : 책이란 양식용 김발의 단위 규격으로 1책 = 2.2m×40m(정부 공인 김발 규격)

자료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해조류 수산물측 각 월호, 2004~2007년산은 위성영상 판독 결과, 2008년산은 표본어가 시설조사 및 서천, 군산 지역의 위성영상 판독 결과, 2009년산은 표본어가 시설조사 결과

〈그림 8-1〉 연도별 지역별 김 양식 시설 책수



- 2005년산 이후 품종별 시설 비율을 보면, 일반김 시설비중은 증가하는 반면 돌김류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품종별 시설 불균형이 점차 커지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8-2〉 품종별 김 양식 시설 비율

단위 : %

품종별 점유율	일반김	돌김
2005년산	43.6	56.4
2006년산	54.2	45.8
2007년산	57.7	42.3
2008년산	61.7	38.3
2009년산	65.3	34.7

## ② 생산동향

- 김의 주요 양식생산 시기는 전년 10월에서 당해년 5월까지로, 이 기간 동안 약 1억 속 내외의 김이 생산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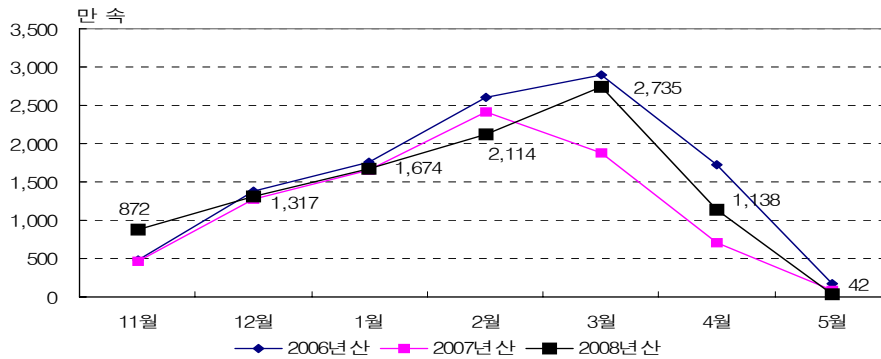
〈표 8-3〉 연도별 월별 김 생산 동향

단위 : 만 속

구분	합계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2005년산	10,513	48	511	1,125	1,793	2,446	2,801	1,734	55
2006년산	11,082	59	489	1,386	1,763	2,597	2,892	1,722	174
2007년산	8,455	0	467	1,268	1,662	2,405	1,875	700	78
2008년산	9,923	31	872	1,317	1,674	2,114	2,735	1,138	42
점유율(%)	100.0	0.3	8.8	13.3	16.9	21.3	27.5	11.5	0.4
전년산 대비(%)	17.4	-	86.9	3.8	0.7	-12.1	45.9	62.5	-45.4

자료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해조류 수산관측 각 월호.

〈그림 8-2〉 연도별 월별 김 생산 추이



- 월별로는 2~3월의 생산 점유율이 가장 높아 연간 생산량의 50% 정도가 이 기간에 생산된다.
- 2008년산 김 생산량은 2007년산보다 17.4% 증가하였다. 채묘기 고수온과 잦은 강풍 등으로 2007년산 김 작황이 크게 저조했기 때문이다.
- 지역별 생산량을 살펴보면, 2008년산 기준 김 생산량은 전남이 57.6%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전북이 21.8%, 충남 10.5%, 부산 7.1%, 경기 2.9% 순이다.
- 시·군별 주산지는 전남 신안·해남·완도·진도·고흥, 전북 군산, 충남 서천, 부산 강서구 등이다.
- 최근에는 전북과 충남의 시설이 증가하면서 생산비중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전북과 충남의 생산 점유율 : 2006년산 20.6%, 2007년산 29.4%, 2008년산 3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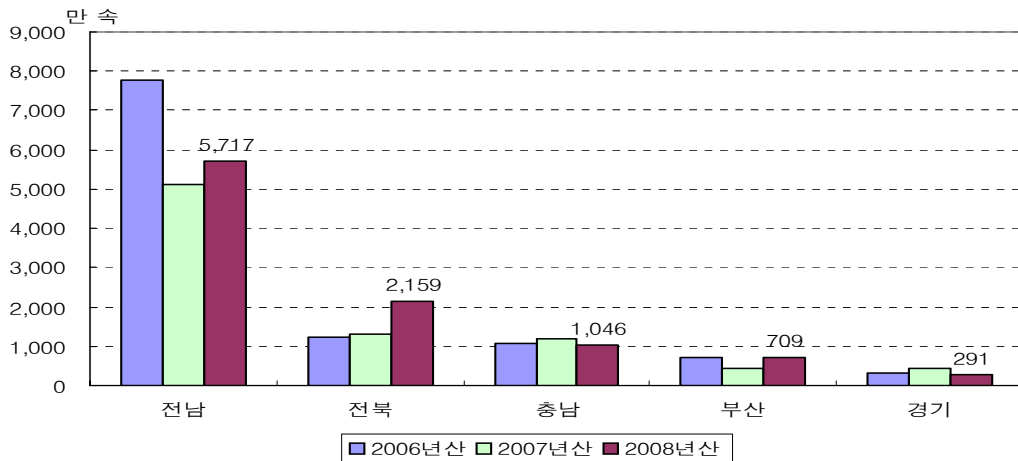
〈표 8-4〉 연도별 지역별 김 생산 동향

단위 : 만 속

구분	전국	전남	전북	충남	부산	경기
2005년산	10,513	7,225	1,279	676	965	368
2006년산	11,082	7,775	1,215	1,061	709	322
2007년산	8,455	5,103	1,312	1,179	438	425
2008년산	9,923	5,717	2,159	1,046	709	291
점유율(%)	100.0	57.6	21.8	10.5	7.2	2.9
전년산 대비 (%)	17.4	12.0	64.6	-11.2	62.1	-31.4

자료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해조류 수산물측 각 월호.

〈그림 8-3〉 연도별 지역별 김 생산 추이



## (2) 가격동향

### ① 산지가격

○ 연평균 가격은 kg당 1,000원 수준이며 1980년대 이후 정체상태이다.

- 산지가격 추이를 조사한 결과, 물가상승을 반영한 김 실질 산지가격은 2000년대 들어 1990년대보다 43.9% 하락하였다. 이는 명목가격 하락률 21.8%보다 크게 낮은 수준이다.



〈표 8-5〉 연도별 김 산지가격 동향

구분	평균 생산량(톤)	명목 평균가격(원/kg)	실질 평균가격(원/kg)
1991~2000	183,952	1,028	1,476
2001~2007	203,733	803	828
증감률(%)	10.8	-21.8	-43.9

주 : 실질 산지가격은 산지가격을 소비자물가지수(2005년=100)를 이용하여 환산한 가격

자료 : 통계청, 어업생산통계

- 2008년산 산지가격은 2007년산보다 10.3% 하락한 kg당 967원이었다. 2007년산 물김 가격이 생산 부진으로 예년보다 매우 높았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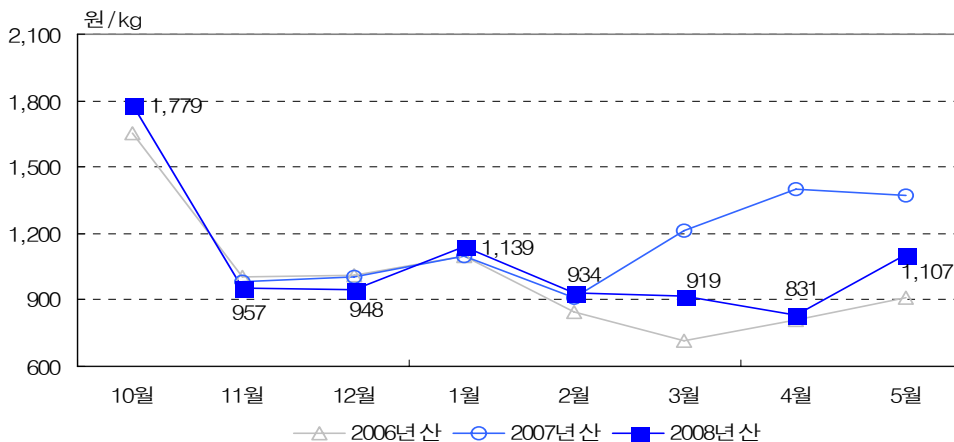
〈표 8-6〉 연도별 김 산지가격 동향

(단위 : 원/kg)

구분	평균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2005년산	1,021	1,530	1,000	1,037	1,117	1,015	1,061	841	1,034
2006년산	874	1,654	1,007	1,013	1,098	842	717	806	911
2007년산	1,077	-	979	1,003	1,097	907	1,211	1,397	1,373
2008년산	967	1,779	957	948	1,139	934	919	831	1,107
전년산 대비(%)	-10.2	-	-2.3	-5.5	4.1	3.0	-24.1	-40.5	-19.4

자료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해조류 수산물측 각 월호.

〈그림 8-4〉 연도별 김 산지가격 추이



## ② 도매가격

- 당 센터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김밥용 마른김(중품) 도매가격은 속당 3,131원으로 전년보다 8.3% 하락하였다.
- 2008년산 생산량이 전년산보다 증가하여 재고량이 많았고, 경기 침체에 따른 판매 부진 등으로 도매가격이 2008년 2/4분기부터 계속 전년보다 낮은 수준을 유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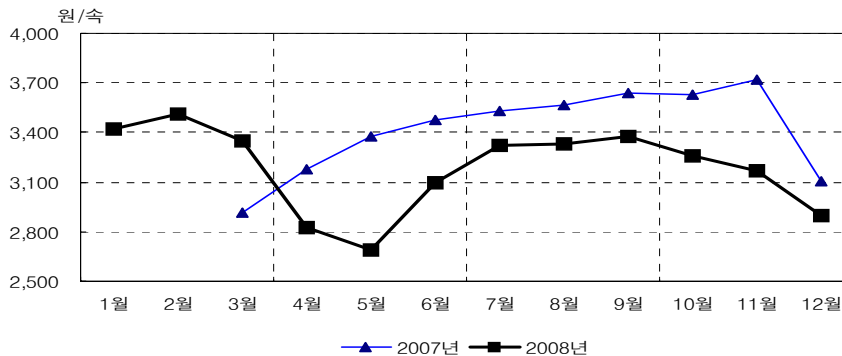
〈표 8-7〉 연도별 김밥용 마른김(중품)의 도매가격 동향

(단위 : 원/속)

구 분	3~12월 평균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2007년	3,414	-	-	2,912	3,176	3,375	3,478	3,533	3,569	3,637	3,633	3,717	3,107
2008년	3,131	3,419	3,509	3,353	2,823	2,692	3,094	3,319	3,330	3,374	3,258	3,169	2,899
전년대비(%)	-8.3	-	-	15.2	-11.1	-20.2	-11.0	-6.0	-6.7	-7.2	-10.3	-14.7	-6.7

자료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해조류 수산물측 각 월호(당 센터 조사원이 전국 5개 주요 도시의 67개 유통업체를 방문, 조사한 가격).

〈그림 8-5〉 연도별 김밥용 마른김(중품)의 도매가격 추이



## (3) 재고동향

- 2008년에는 전년보다 김 생산량은 증가한 반면, 대형 업체들의 산지 직거래 증가에 따른 도매시장 거래 부진으로 재고량은 증가하였다.
- 2007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증가추세가 2008년까지 지속되어 2008년 12월 재고량은 전년 12월과 비슷한 수준을 보였으며, 이는 평년 대비 24% 이상 증가한 수준

이다.

- 전체 재고물량중 김밥용김 비중이 40%로 크게 증가하였다. 이는 2000년대 중반부터 김밥용김 시설이 증가추세였고, 2007년산 작황부진으로 김밥용김 재고가 부족하여 가격이 상승하자, 2008년산 김밥용김 시설과 생산량이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표 8-8〉 연도별 김 추정재고량 동향

단위 : 만 속,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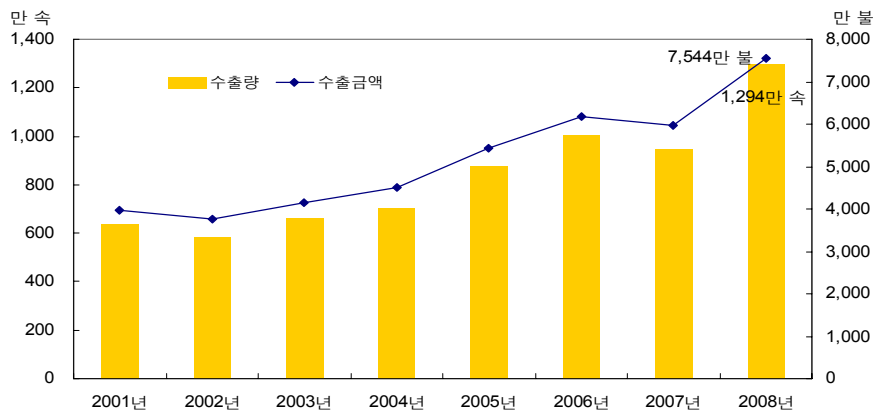
구 분	2004년 12월	2005년 12월	2006년 12월	'04~'06 12월 평균	2007년 12월	2008년 12월	전년 동월 대비	3개년 12월 평균대비
재고량	2,629	2,374	2,750	2,584	3,228	3,209	-0.6	24.2

자료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해조류 수산물측 각 월호.

#### (4) 수출입동향

- 김 수출량은 2001년부터 지속적인 증가세이며, 현재 국내 김 생산량의 13% 수준을 수출하고 있다.
- 2008년에는 1,294만 속을 수출하여 2007년보다 36.6% 증가하였다. 이는 일본과 중국의 2008년산 김 생산이 적었고, 원화 약세가 지속되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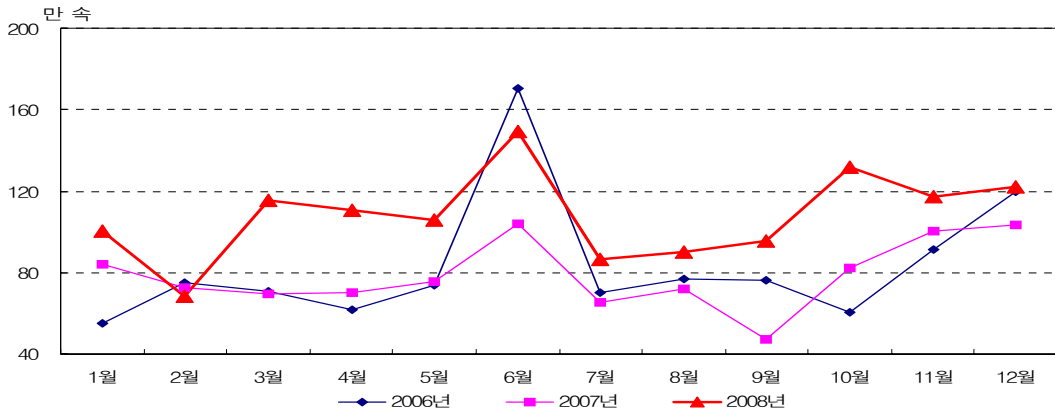
〈그림 8-6〉 연도별 김 수출 추이



주 : 마른김으로 환산(속당 260g)하였으며, 냉장김 및 냉동김은 제외, 2008년은 잠정치

자료 : 관세청, 수출입통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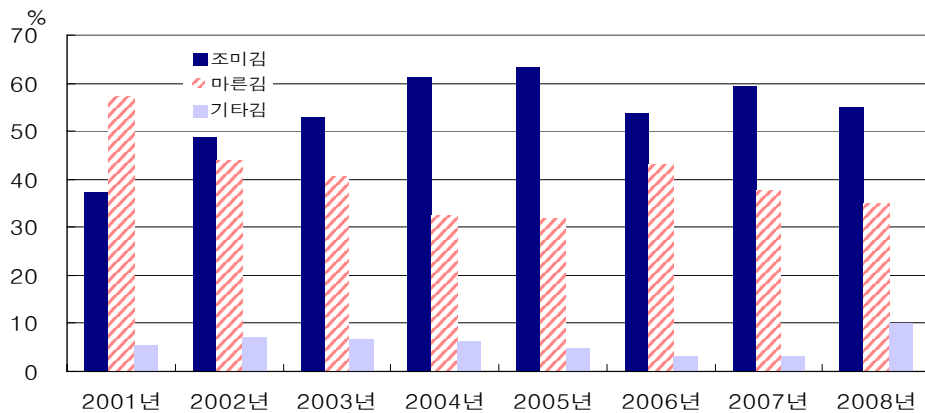
〈그림 8-7〉 연도별 월별 김 수출 추이



주 : 마른김으로 환산(속당 260g)하였으며, 냉장김 및 냉동김은 제외, 2008년은 잠정치  
 자료 : 관세청, 수출입통계

- 제품별로는 조미김은 2001년 이후 증가추세이고, 마른김은 감소추세이다.
- 조미김의 수출비중은 2001년 37.3%→ 2008년 54.8%로 증가추세이고, 마른김은 57.2%→ 35.1%로 감소추세이다.
- 2008년 기준 제품별 수출량은 조미김 710만 속, 마른김 454만 속, 기타김 130만 속 순이었다.

〈그림 8-8〉 김 제품별 수출량 비중 추이



주 : 마른김으로 환산(속당 260g)하였으며, 냉장김 및 냉동김은 제외, 2008년은 잠정치  
 자료 : 관세청, 수출입통계

- 주요 수출국은 미국, 일본, 대만, 중국 등으로 2008년 국별 수출량 점유율은 미국 26.4%, 일본 19.1%, 대만 7.6%, 중국 7.4% 순이다.
- 주요 수출 대상국이 기존의 미국, 일본, 대만 시장 중심에서 점차 중국 등 기타 국가로의 수출비중이 증가하고 있다(중국 및 기타 국가 점유율 : 2001년 17.9%→ 2008년 46.8%).

〈표 8-9〉 연도별 국가별 김 수출량 비중

단위 : 만 속

구 분	미국	일본	대만	기타
2001년	21.8	34.5	25.8	17.9
2005년	35.2	30.2	10.5	24.1
2006년	32.2	26.3	13.7	27.8
2007년	31.1	23.0	10.8	35.1
2008년	26.5	19.1	7.6	46.8

주 : 마른김으로 환산(속당 260g)하였으며, 냉장김 및 냉동김은 제외, 2008년은 잠정치

자료 : 관세청, 수출입통계

- 수입은 국내 생산량의 1% 미만으로 저가의 중국산 위주로 수입되며 일본산은 고급 내수용으로 수입된다.
- 2008년 김 수입은 62만 속으로 2007년에 비해 18.9% 감소하였다. 중국과 일본의 김 생산 부진과 함께 최근 중국에서의 김 소비 확대가 수입량 감소에 다소 영향을 미쳤다.

〈표 8-10〉 연도별 월별 김 수입 동향

단위 : 만 속

구 분	합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2005년	40.0	4.5	1.4	4.6	8.7	3.9	3.2	4.3	1.3	2.4	4.1	0.1	1.4
2006년	25.7	4.4	0.0	0.4	0.2	10.9	3.4	0.0	0.2	2.8	0.2	2.5	0.8
2007년	76.1	8.3	0.0	1.3	2.1	6.8	31.6	11.3	0.9	0.1	2.0	4.1	7.5
2008년	61.5	1.9	4.8	16.1	5.5	3.8	24.3	1.7	0.0	2.9	0.7	0.0	0.0

주 : 마른김으로 환산(속당 260g)하였으며, 냉장김 및 냉동김은 제외, 2008년은 잠정치

자료 : 관세청, 수출입통계

## 2) 2009년 김 수급전망

### (1) 2009년산 생산전망

- 2009년산 김 생산량은 2008년산보다 3~5%감소한 9,400~9,600만 속 추정
  - 2008년 10~12월까지 2009년산 김 생산 추정량은 약 1,864만 속으로 전년산보다 16% 감소한 수준이다. 채묘기 이후 지속된 고수온과 강수량 부족 등 해황이 좋지 않아 전남의 돌김과 충남 및 전북의 일반김 생산량이 작년보다 감소하였다.
- 올해 1~2월 생산은 동아채묘 김 생산이 부진했던 작년보다는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동아채묘 김 성장 상태가 좋지 않고, 고수온으로 올해 어기가 단축될 가능성도 감안한다면 2009년산 김 생산량은 2008년산보다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 (2) 2009년 수출전망

- 2009년 김 수출은 작년보다 15~24% 감소한 980~1,100만 속으로 전망
  - 2008년산 중국과 일본의 김 생산은 중국 어장의 한파 피해, 일본 어장의 영양염 부족 및 기름유출 사고 등으로 크게 부진했기 때문에 기상이변이 없다면 올해 중국과 일본의 김 생산은 작년보다 증가할 전망이다.
  - 환율은 작년보다는 다소 안정되겠지만 예년에 비해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이므로 수출량은 예년보다는 많겠으나 작년보다는 다소 적을 것으로 전망된다.

〈표 8-11〉 2009년 김 수급 전망

단위 : 만 속

구 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전망
<공 급 량>	11,108	8,531	9,985	9,455~9,660
- 생산량	11,082	8,445	9,923	9,400~9,600
- 수입량	26	76	62	55~60
<수 요 량>	11,108	8,531	9,985	9,455~9,660
- 소비량	10,105	7,584	8,691	8,475~8,560
- 수출량	1003	947	1294	980~1,100

주 : 1) 생산량은 연산 기준임

2) 2008년까지는 실제치, 2009년은 전망치임

자료 : 통계청, 어업생산통계 /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

### 3. 미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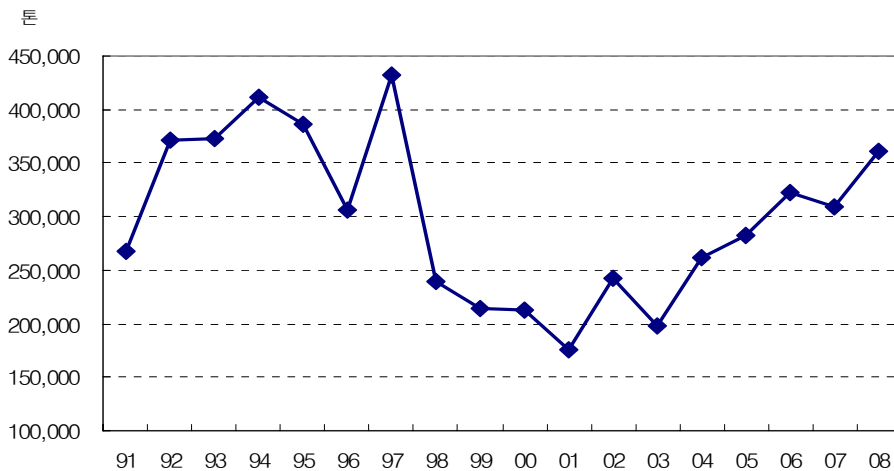
#### 1) 수급동향

##### (1) 생산현황

###### ① 연도별·월별 생산량 추이

- 1997년 43만 2,000톤 생산을 정점으로 하여 수출량 감소 등의 영향을 받아 감소세를 보이던 미역 생산량은 양식 전복 생산량 급증의 영향으로 2000년대 들어 다시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 1990년대 중반 이후 중국산 저가 미역의 영향으로 수출은 감소하였고 이에 따라 생산량은 감소하였고 2001년에는 17만 5,000톤으로 최저를 기록하였다.
- 그러나 2000년대 들어 양식 전복 생산량이 급증함에 따라 전복 먹이 공급을 위한 미역 생산량이 증가하여 2008년(11월 누적 생산 기준)에는 36만 톤을 기록하였다.

〈그림 8-9〉 연도별 미역 생산량 추이



자료 : 통계청, 어업생산통계

〈표 8-12〉 연도별 양식 전복 생산량 동향

단위 : 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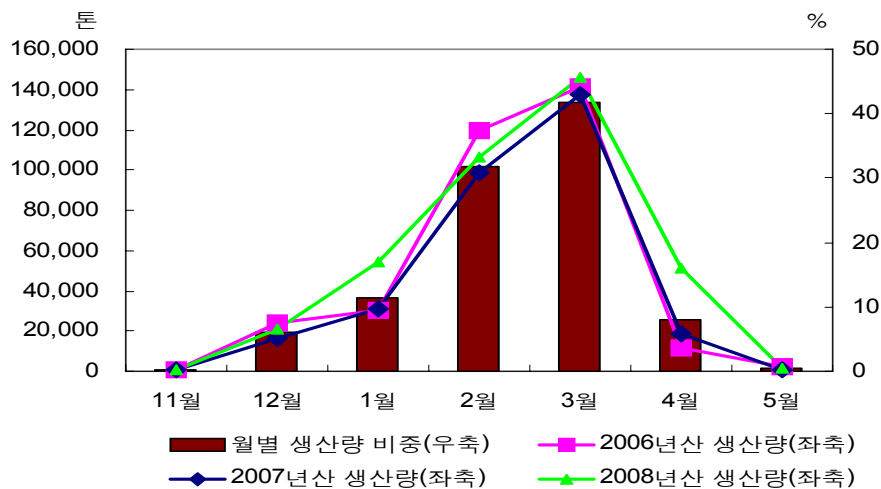
구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생산량	29	85	1,065	1,260	2,062	3,050	4,349	4,727

주 : 2008년은 11월 누적 기준임

자료 : 통계청, 어업생산통계

- 동절기에 생산되는 해조류의 특성상 12~4월에 생산이 집중되며 특히, 2~3월에 약 70% 정도 생산된다. 최근 3년간 월별 생산량 추이를 보면 아래와 같다.
- 11월부터 1월 중순까지 생산되는 미역은 조기산 나물용 물미역으로 출하되는데, 전체 생산량의 10% 미만을 차지한다. 한편 1월 하순 이후 생산되는 미역은 만기산 가공용 미역으로 출하되며 전남 완도 등 전북 주 산지 및 주 산지 인근 지역에서는 전북 먹이용으로도 출하되고 있다.

〈그림 8-10〉 월별 미역 생산량 추이(2006년산~2008년산)



주 : 월별 생산량 비중은 3개년 평균 생산량의 월별 비중임

자료 : 통계청, 어업생산통계

## ② 지역별 생산량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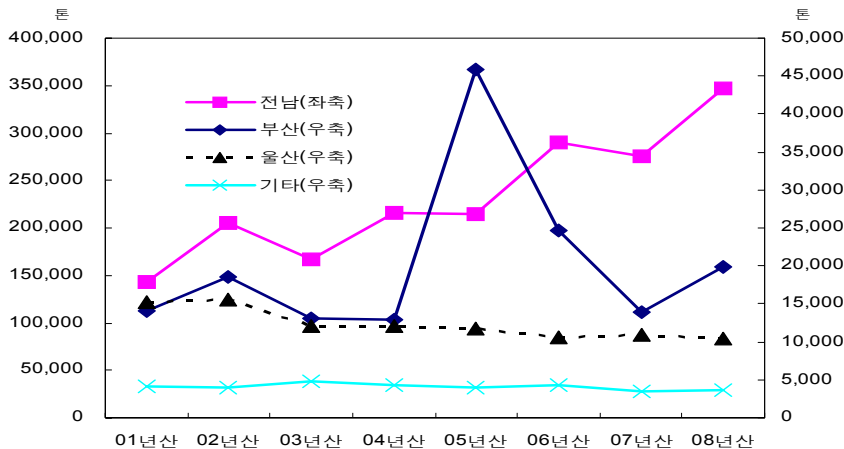
- 지역별로 보면, 전남지역의 생산량은 2001년산은 14만 3천 톤으로 전국 생산량의 81% 수준이었으나 양식 전복 생산량 급증의 영향으로 이후 지속적인 증가세를 시현하였



으며 2008년산의 경우, 34만 7,000톤으로 전체 생산량의 약 90%를 기록하였다.

- 한편 부산 및 울산지역은 전국 생산량 대비 각각 5.2%, 2.7%를 점하고 있는데 이들 지역에서는 주로 마른가닥미역(재래식) 및 가공용 미역을 생산하며 나물용 미역도 일부 생산하고 있다. 이들 지역의 경우 광역도시의 확장(도시화) 등의 영향으로 생산량 및 생산비중이 축소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 전체 생산량의 0.2%에 불과하나 전국 나물용 미역의 시세를 주도하는 충남지역에서는 2007년 12월 유류 유출 사고로 2008년산 생산은 부진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8-11〉 지역별 미역 생산량 추이



주 : 기타 지역은 전남, 부산, 울산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강원, 충남, 경남, 경북)의 생산량 합계임.  
자료 : 통계청, 어업생산통계

〈표 8-13〉 지역별 미역 생산량 비중

단위 : 톤

구분	전남	부산	울산	기타	합계
2006년산	88.0	7.5	3.2	1.3	100.0
2007년산	90.6	4.6	3.6	1.2	100.0
2008년산	91.1	5.2	2.7	1.0	100.0

주 : 기타 지역은 전남, 부산, 울산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강원, 충남, 경남, 경북)의 생산량 합계의 비중임  
자료 : 통계청, 어업생산통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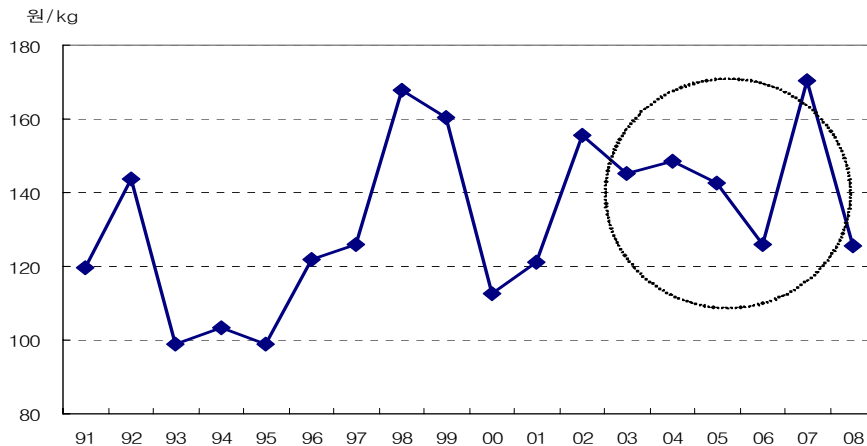
- 1) 우리나라 양식 전복 생산량의 대부분이 전남지역에서 생산되며 주 산지인 완도의 경우, 전국 생산량의 80% 정도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된다(2008년 기준).

## (2) 가격동향

### ① 산지가격

- 1990년대 연 평균 산지가격은 kg당 125원이었으나 2000년대에는 142원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 1990년대(1991~2000년)의 미역 연 평균 생산량은 32만 1,000톤 수준이었으나 2000년 이후 연 평균 생산량은 26만 9,000톤 규모로 16.3% 감소하였다. 이에 따라 산지금액도 13.2% 상승하였다<sup>2)</sup>.
- 전반적인 생산량은 1990년대보다 감소하였으나 양식 전복 생산량 급증에 따른 먹이 수요 증가로 2002년 이후 지속적인 증가세를 시현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산지가격은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림 8-12〉 연도별 미역 산지가격 추이



〈표 8-14〉 연도별 미역 산지가격 추이

단위 : 톤, 원/kg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생산량	242,135	198,172	261,574	281,871	322,371	309,097	360,824
산지가격	156	145	149	143	126	170	125

주 : 2008년은 11월까지의 생산량, 연 평균가격임

자료 : 통계청, 어업생산통계

- 2) 미역 생산량과 산지가격간의 관계를 단순회귀분석 한 결과, 생산량이 1% 증가하면 미역 산지가격은 0.3% 정도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한편 수산업관측센터가 조사한 월별 산지가격 동향을 보면 전반적으로 2008년산 산지가격이 전년보다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 2008년산 미역 생산량은 2007년산 대비 25.1% 상승하였다. 이에 따라 산지가격도 하락하였는데 완도의 경우 나물용 물미역은 전년 대비 35.8%(12월 기준), 가공용 미역은 7.3%(2~4월 평균 기준) 하락하였다.
- 고흥의 경우, 나물용 물미역은 31.3% 하락하였으며 가공용 미역의 경우 5.6%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공용 미역 가격의 경우 전년도 가격이 다른 지역에 비해 낮았던 점이 생산어가와 가공업체간의 협상에 반영되었다.
- 기장에서는 나물용 물미역 가격은 전년 대비 11.5% 하락한 반면 가공용 미역 가격은 전년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표 8-15〉 산지별 미역 가격 동향

단위 : 원/kg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2007년산	완도	1,333	810	575	82	82	96
	고흥		800	-	90	90	95
	기장		1,300	350	370	370	370
2008년산	완도	1,300	520	226	80	76	85
	고흥		550	-	95	95	95
	기장		1,150	313	370	379	370
전년 동월 대비	완도	-2.5	-35.8	-60.7	-2.4	-7.3	-11.5
	고흥		-31.3		5.6	5.6	0.0
	기장		-11.5	-10.6	0.0	2.4	0.0

주 : 가공용 미역 가격(2월~4월)은 산지별 감모율 적용한 가격임

자료 : 통계청, 어업생산통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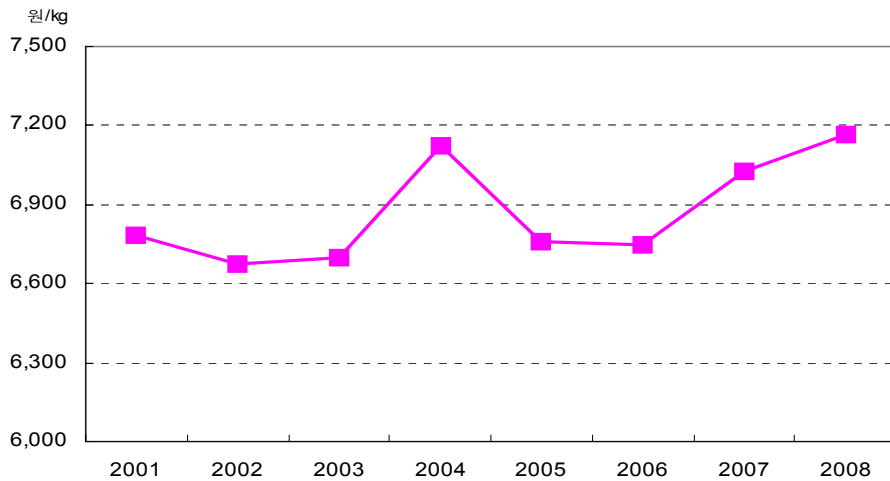
## ② 도매가격

- 미역은 다른 수산물에 비해 산지가격 변화가 도매가격 변화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편이다.<sup>3)</sup> 활어나 김 등 다른 수산물의 경우 산지가격 변동이 도매가격에 즉각적인 영향을 미치나, 미역의 경우 수요가 다른 수산물에 비해 비교적 안정적이기 때문에 가격변화가 크지 않다.

3) 상관분석 결과, 산지가격과 도매가격간의 상관계수는 0.1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관계수는 1이면 매우 관계가 높은 것으로, 0이면 관계가 없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 2008년산 생산량이 전년에 비해 증가하고 산지가격이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도매가격은 1.9%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수요가 안정적인 상황에서 생산량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물가 상승으로 인한 가공 및 유통비용 증가가 도매가격에 반영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그림 8-13〉 연도별 마른실미역 도매가격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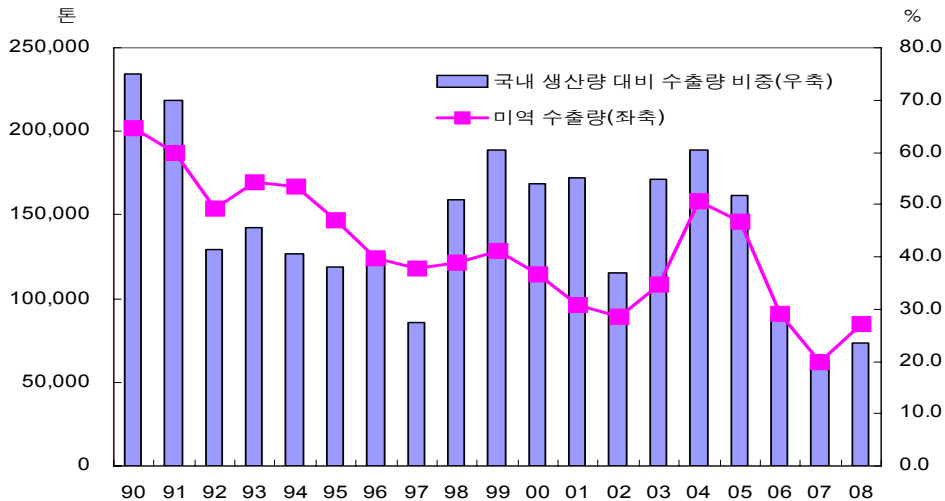
자료 : 농수산물유통공사

### (3) 수출입동향

#### ① 수출동향

- 우리나라 미역 수출량은 1990년대 이후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여왔다. 1995년 이전까지는 일본의 미역 수입 쿼터에 따라 염장미역을 중심으로 수출하였으나, 1995년 쿼터제가 폐지되면서 중국의 저가 미역과 경쟁에 밀리게 되었다.
- 1990년에는 국내 생산량의 74.9%인 20만 2,000톤을 수출하였으나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00년대 들어 국내 생산량의 50% 미만으로 감소하였고 최근에는 30%를 밑돌고 있다.

〈그림 8-14〉 미역 수출량 및 국내 생산량 대비 수출량 비중 추이



주 : 1) 원초 기준으로 환산(마른미역은 25배, 염장(간)미역 및 기타 제품은 5배의 수율을 적용)한 수치임.

2) 2008년은 잠정치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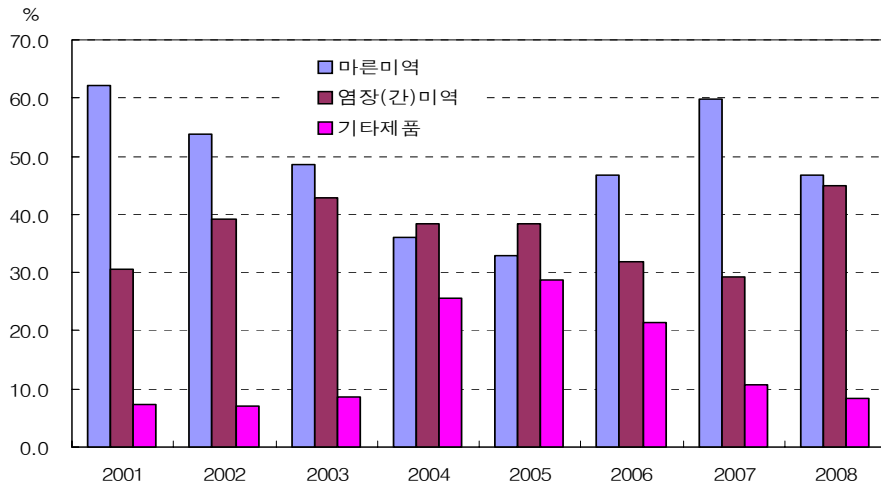
자료 :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

○ 제품별로 보면 1990년대 초반까지는 염장미역 비중이 높았으나 중반 이후 중국산 저가 염장미역 수출이 늘어나면서 우리나라의 마른미역 수출량 감소보다 염장미역 수출량이 더 빠르게 감소하였다. 이에 따라 염장미역 수출 비중은 지속적으로 축소되었다.

- 2008년에는 원화가치 하락과 중국산 식품 안전성 문제 등으로 미역 수출량이 전년 대비 36.2% 증가하였다<sup>4)</sup>. 제품별로는 마른미역은 6.4% 증가에 그친 반면 염장미역은 108.0% 증가하였는데, 이는 우리나라의 염장미역을 중국 현지 공장에서 가공하여 일본에 수출하는 물량이 대폭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4) 금액 기준으로는 2007년 대비 17.7% 증가한 2,081만 달러를 기록하였다.

〈그림 8-15〉 미역 제품별 수출량 비중 추이



주 : 1) 원초 기준으로 환산(마른미역은 25배, 염장(간)미역 및 기타 제품은 5배의 수율을 적용)한 수치임.

2) 2008년은 잠정치임.

자료 :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

○ 국가별로 보면 1990년대에는 대일 수출이 80% 이상을 차지하였으나 2000년대 들어 중국으로의 수출 비중이 크게 증가하였으며 기타 국가 비중도 지속적인 증가세를 시현해왔다.

- 가격경쟁력에 우위를 점하고 있는 중국산 미역의 일본 미역 시장 진출로 대일 수출 비중은 감소하였다. 이와 더불어 인건비 등의 생산원가 절감을 위해 우리나라 업체들이 중국에 현지 공장을 설립하여 우리나라 원초를 중국으로 보내어 가공함에 따라 대중 수출은 크게 증가하였다<sup>5)</sup>.

- 미국 및 캐나다에서는 한국 및 일본교포들을 중심으로 미역을 소비함에 따라 미국 및 캐나다는 각각 16.1%, 3.0%(2008년 기준)를 점하고 있다. 한편 기타 국가로의 수출은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수출국가가 다변화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5) 우리나라 미역 원초를 중국에서 위탁 가공하여 일본 등에 수출된 물량은 수입국 통계로는 중국산 제품으로 분류된다. 그러나, 원산지 표시 등으로 한국산 미역 원초로 가공된 제품임이 명시된다.

〈표 8-16〉 국가별 수출량 및 수출 비중 추이

단위 :톤, %

구 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일본	59,111 (54.4)	98,009 (61.9)	83,784 (57.5)	53,884 (59.4)	35,673 (57.5)	32,851 (38.9)
중국	23,298 (21.5)	34,562 (21.8)	34,086 (23.4)	13,718 (15.1)	7,396 (11.9)	29,324 (34.7)
미국	19,75 (18.2)	19,669 (12.4)	19,800 (13.6)	16,833 (18.6)	13,072 (21.1)	13,645 (16.1)
캐나다	2,476 (2.3)	1,827 (1.2)	2,822 (1.9)	2,486 (2.7)	2,948 (4.7)	2,542 (3.0)
기타	3,929 (3.6)	4,339 (2.7)	5,114 (3.5)	3,729 (4.1)	2,969 (4.8)	6,163 (7.3)
합계	108,590 (100.0)	158,407 (100.0)	145,606 (100.0)	90,650 (100.0)	62,057 (100.0)	84,524 (100.0)

주 : 1) 원초 기준으로 환산(마른미역은 25배, 염장(간)미역 및 기타 제품은 5배의 수율을 적용)한 수치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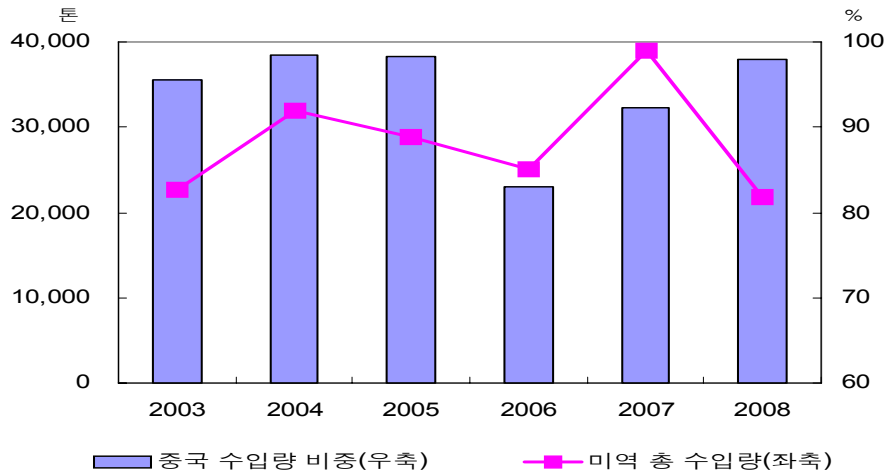
2) 2008년은 잠정치임.

자료 :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

## ② 수입동향

- 1990년대 중반까지 미역 수입량은 2,000톤 미만이었으나 90년대 후반 이후 급격하게 늘어나 2007년에는 3만 9천여 톤까지 증가하였으며 2008년에는 2만 1,785톤을 기록하였다.
- 수입량의 대부분은 중국에서 수입한 물량인데, 1990년대에는 주로 국내 저가의 하급품 미역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 수입되었다. 그러나, 2000년대 이후에는 우리나라 원초를 중국 현지 공장에서 가공한 물량이 상당 부분을 차지해 왔으며 최근 들어 중국산 원초를 가공한 물량의 수입량 비중은 매우 낮은 수준인 것으로 추정된다.

〈그림 8-16〉 미역 수입량 및 중국산 미역 수입량 비중 추이



주 : 1) 원초 기준으로 환산(마른미역은 25배, 염장(간)미역 및 기타 제품은 5배의 수율을 적용)한 수치임.

2) 2008년은 잠정치임.

자료 :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

## 2) 수급전망

### ① 생산전망

- 2009년산 미역 생산량은 2008년산보다 다소 줄어든 35만~37만 톤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 2009년산 어기 초 고수온 등 이상 해황의 영향으로 어기 초에 설치한 미역 양식 시설에서 업체 탈락 등이 발생하였다.
  - 생산 불가능한 시설을 철거하고 다시 시설하는 과정에서 시설량이 전년보다 다소 줄어든 것으로 추정된다. 2008년산 인공위성 촬영 판독 결과(431,844줄) 및 지역 자문위원, 표본어가 조사 결과를 종합하여 당 센터는 2009년산 시설량을 약 40만 줄로 추정하였다.
  - 이에 따라, 2008년산 미역 생산량 38만 987톤보다 3~8% 줄어든 36만 톤 내외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 ② 수출전망

- 2009년 미역 수출량은 7만 8,000~8만 3,000톤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 2008년에는 환율 급등과 중국산 식품 안전성 문제 부각 등으로 전년 대비 36.2% 증가한 8만 4,524톤을 기록하였다.
  - 원/달러 환율은 2009년 하반기에 1,100원으로 안정될 것이나 2007년 연평균 929 원보다는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 한편 중국 미역 작황은 2008년에 이어 2009년에도 다소 부진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와 같은 여건을 종합할 때 2009년 미역 수출량은 2008년보다는 2~8% 감소한 8만 톤 내외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표 8-17〉 2009년 미역 수급 전망

단위 :톤, %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전망
공급량	354,734	343,695	402,772	368,000~390,000
-생산량	329,741	304,666	380,987	350,000~370,000
-수입량	24,993	39,029	21,785	18,000~20,000
수요량	354,734	343,695	402,772	368,000~390,000
-소비량	26,4084	281,638	318,248	290,000~307,000
-수출량	90,650	62,057	84,524	78,000~83,000

주 : 1) 생산량은 연산 기준임

2) 2008년까지는 실제치, 2009년은 전망치임

자료 : 통계청, 어업생산통계 /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



## 제 9 장 어류의 수급동향과 전망

남종오\* · 백은영\* · 김정협\*\* · 이창수\*\*

### 목 차

- |                  |                    |
|------------------|--------------------|
| 1. 서론            | 3. 조피볼락의 수급동향과 전망  |
| 2. 넙치의 수급동향과 전망  | 1) 수급동향            |
| 1) 수급동향          | 2) 2009년 조피볼락 수급전망 |
| 2) 2009년 넙치 수급전망 | 4. 이슈와 대책방안        |

## 1. 서론

### [넙치]

- 넙치가 본격적으로 생산되기 시작한 것은 1990년대 이후이다. 1993년 4,029 톤이었던 넙치 생산량은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8년에는 46,448톤(추정치)까지 증가하였다.
- 넙치는 활어류 중 소비 선호도가 가장 높은 어종으로서 해수 및 지하수를 끌어들여 육상 수조에서도 양식이 가능한 어종들 중 대표 어종이다. 특히, 육상수조식 양식은 연중 입식 및 출하가 가능하여 다른 양식어류에 비해 운영적 측면에서 자금 마련이 다소 용이한 편이다.
- 그러나 넙치 양식은 초기 시설투자에 많은 비용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연중 출하와 입식이 가능하여 다른 어종들에 비해 계획 생산에 어려움이 있다. 왜냐하면 출하 가능한 양성물량이 수조에 있더라도 시장 수요가 위축되어 특정 크기의 양성 물량

\* KMI 책임연구원; \*\* KMI 연구원

이 출하시점을 놓칠 경우, 이들 물량이 적체되어 다른 크기의 출하 및 입식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양식어가들이 치어의 폐사량을 고려한 입식물량을 확보하다 보니 종종 계획된 적정 물량 이상의 양성물량을 보유해 왔기 때문이다.

- 특히, 제주지역의 경우 육상수조의 신·증축으로 양식면적이 늘어남에 따라 넙치 생산량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육상수조에 적합한 대체어종 개발이 미비하여 타 어종으로의 생산 전환에 어려움이 있다.
- 최근 넙치가격은 생산량 증가와 소비 위축으로 매년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2008년 넙치 생산량은 2000년대 들어 가장 많은 46,448톤을 기록하였다. 또한 동년의 활넙치 수출량은 원-엔 환율 상승과 국내 가격하락으로 2007년보다 20%가량 증가하였다.
- 하지만 계속 증가추세에 있는 넙치의 국내 생산량에 비해 넙치의 수출량은 소폭 증가에 그쳐, 증가된 생산량의 대부분이 국내에 유통됨에 따라 넙치의 산지 및 시장 가격을 하락시키는 주 요인이 되어왔다.
- 한편 국내 넙치의 최근 3년 평균 공급량은 대략 44,468톤이었다. 이중 국내 생산량이 공급량의 99% 이상을 차지하였으며, 수입량은 약 127톤으로 1% 미만의 낮은 수준이었다.
- 국내 넙치의 최근 3년 평균 수요량 중, 국내 소비량은 약 40,785톤으로 전체 수요량의 92%정도였다. 또한 일본을 주 수출대상으로 한 넙치의 수출량은 최근 3년 평균 3,683톤으로 전체 수요량의 8.3%를 차지하였다.

〈표 9-1〉 넙치의 연도별 수급추이

단위 : 톤

구 분		평균	비율	2006년	2007년	2008년
공 급 량		44,468	1.000	45,002	41,872	46,531
	국내생산량	44,341	0.997	44,877	41,698	46,448
	수입량	127	0.003	125	174	83
수 요 량		44,468	1.000	45,002	41,872	46,531
	국내소비량	40,785	0.917	41,147	38,665	42,625
	수출량	3,683	0.083	3,855	3,207	3,906

자료 : KMI 수산업관측센터

## [조피볼락]

- 조피볼락의 양식 역사는 20여 년이지만 본격적인 생산은 각종 규제 완화로 인해 해상 가두리가 늘어났던 1990년대 중반부터 시작되었다.
- 조피볼락은 겨울철 월동에 용이하고 병해에 강할 뿐만 아니라 먹이 섭이(攝餌)가 활발해 돔이나 농어에 비해 빠른 성장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조피볼락은 해상 가두리 양식에 가장 적합한 대표어종 중에 하나이다.
- 조피볼락의 양식 생산량은 양식 어류 전체의 25%를 차지하는 높은 점유율을 보이고 있다. 2000년대부터 급격히 증가한 조피볼락의 생산량은 전량 국내에서만 소비되었고, 한정된 수요량을 초과한 공급량은 조피볼락 가격 하락의 주요 원인이 되었다.
- 따라서 초과 공급에 따른 조피볼락의 가격 하락을 예방하는 최선의 방법은 입식 물량과 양성물량을 적정 수급 수준으로 상시 조절하는 것이다. 그러나 조피볼락의 경우, 영세한 양식업체수가 많아 이들로부터 정확한 입식정보를 얻는데 어려움이 많다.
- 2008년 조피볼락의 국내 가격은, 예년에 비해 생산량이 많지 않고 원-위안화 상승으로 수입이 크게 감소하면서, 소폭 상승하여 2006년의 수준까지 회복되었다.
- 한편 조피볼락의 수입량은 국내 다른 어종(예, 넙치)의 가격하락과 환율상승의 영향으로 수입 단가가 상승하면서 예년에 비해 크게 감소하였다.

〈표 9-2〉 조피볼락의 연도별 수급추이

단위 : 톤

구 분		평균	비율	2007년	2008년
공 급 량		33,043	1.000	34,717	31,150
	국내생산량	32,392	0.980	34,066	30,718
	수입량	651	0.020	651	432
수 요 량		32,283	1.000	33,415	31,150
	국내소비량	32,283	1.000	33,415	31,150
	수출량	-	-	-	-

자료 : KMI 수산업관측센터

- 국내 조피볼락의 최근 2년 평균 공급량은 약 33,043톤이었다. 이중 국내산 생산량이 공급량의 98%인 32,392톤이었으며, 수입량은 약 432톤으로 평균 공급량의 2% 정도의 낮은 수준이었다.

- 국내 조피볼락의 최근 2년 평균 수요량 중 국내 소비량이 전체 수요량의 전부를 차지하고 있다.
- 2008년 국내 생산량과 수입량을 포함한 조피볼락의 총 공급량은 31,150톤이었다. 특히, 조피볼락은 일본과 중국에서 전량 수입되고 있는데, 이중 중국으로부터의 수입량이 99%이상을 점유하고 있다.

## 2. 넙치 수급동향과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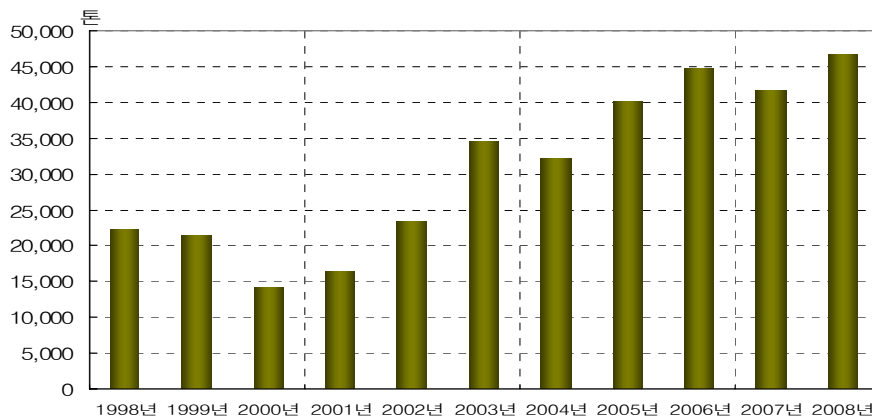
### 1) 수급동향

#### (1) 생산동향

##### ① 연도별 생산동향

- 넙치의 국내 생산량은 최근 10년 동안 계속 증가하고 있다. <그림 9-1>에서 살펴 보듯이, 1998년 22,277톤에서 2008년 46,448톤으로 최근 10년 동안 두 배 이상 증가하였다.

〈그림 9-1〉 넙치의 연도별 생산량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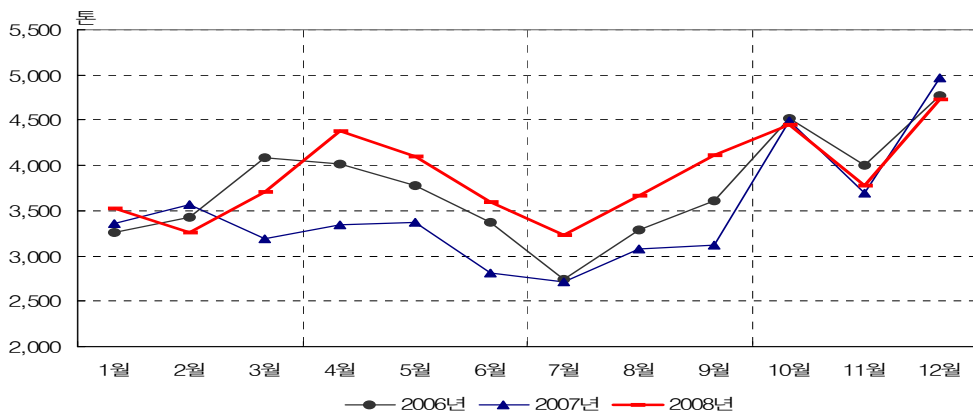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어업생산통계』, 2006년~2008년은 KMI 수산업관측센터

- 2008년의 생산량은 넙치 양식이 시작된 1993년 이후 가장 많은 물량이었다.
- 이는 신규 양식업체 수가 제주지역에 계속 진입하면서, 양식장의 신·증축으로 양식면적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 또한 2008년 중반이후 수급조절의 실패로 대형어의 적체현상이 심화되면서, 양식 어가들이 적체된 양성물량을 해소하기 위해 다른 크기보다는 적체된 대형어의 물량을 집중적으로 출하하였기 때문이다.

## ② 월별 생산동향

- 넙치의 월별 생산량은 봄철(3~5월) 및 가을철(10~11월)과 연말(12월)에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 봄철 및 가을철에는 양식어가들이 차후년도 사업을 위해 입식을 해야 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입식공간 확보 및 입식자금 마련을 위해 수조 내 출하 가능한 물량을 많이 팔았기 때문이다.
- 연말에는 수요 증가와 함께 사료대금 등의 자금조달을 위해 양식어가들이 출하를 늘렸기 때문이다.

〈그림 9-2〉 넙치의 월별 생산량 추이



자료 : KMI 수산업관측센터

- 반면, 연초(1~2월)와 여름철(6~9월)의 넙치 생산량은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 이는 겨울철 수온하락으로 넙치의 섭이 상태가 저하되면서 넙치의 상품성이 떨어져 출하량이 다른 달에 비해 적었기 때문이다.
- 또한 여름철에 활어회 소비가 둔화되면서 넙치 출하량이 감소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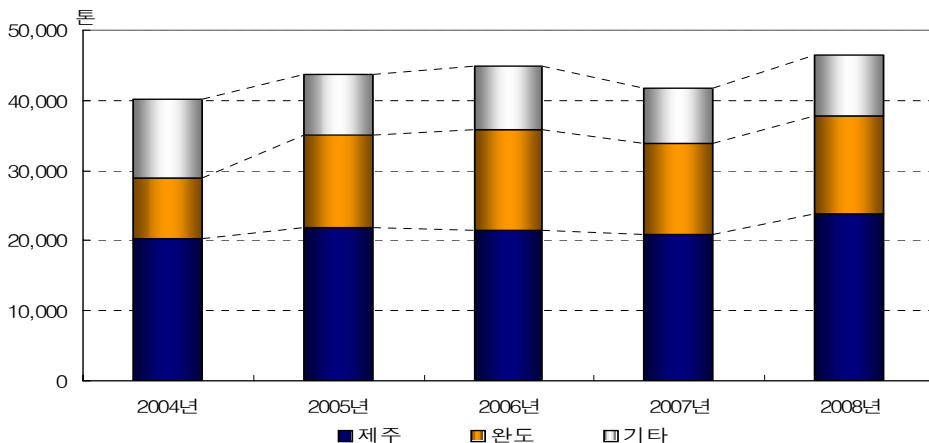
### ③ 지역별 생산동향

○ 최근 5년간 넙치의 지역별 생산량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제주는 생산량과 지역별 생산 점유율이 모두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 반면 완도의 생산량은 다소 증가하였으나, 점유율은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끝으로, 기타지역(거제, 포항, 울산 등)은 생산량과 점유율 모두에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2008년 지역별 넙치 생산현황을 살펴보면, 제주가 23,831톤으로 전체 생산량(46,448톤)의 51.3%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완도가 14,026톤으로 30.2%, 기타지역이 8,591톤으로 18.5%를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9-3> 넙치의 지역별 생산량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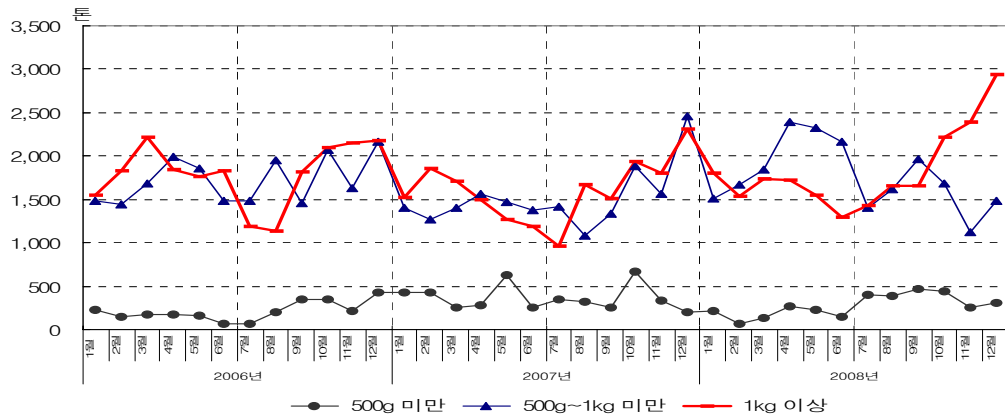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어류양식현황조사』, 2006년~2008년은 KMI 수산업관측센터

## ④ 크기별 생산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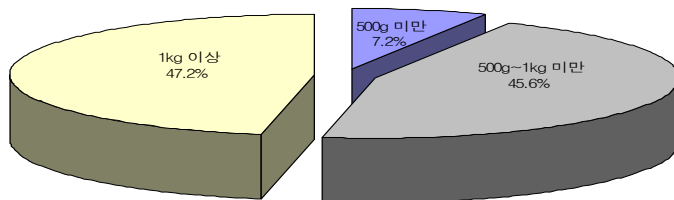
- 최근 3년간 넙치의 크기별 생산동향을 살펴보면, 500g~1kg과 1kg이상 크기의 넙치 출하가 대부분을 점유하고 있었다.
  - 예년의 경우, 1kg 이상 크기의 출하 점유율이 500g~1kg 보다 높은 50% 정도의 점유율을 보였다.
  - 그러나 2008년에는 500g~1kg과 1kg 이상 크기의 출하 점유율이 45% 남짓으로 서로 비슷하게 생산되었던 것으로 추정되었다.
- 2008년 넙치 생산동향은 500g 이상 크기의 생산량이 작년에 비해 증가하였으나 500g 미만 크기는 작년보다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림 9-4〉 넙치의 크기별 생산량 추이



자료 : KMI 수산업관측센터

〈그림 9-5〉 2008년 넙치의 크기별 생산비중



자료 : KMI 수산업관측센터



## ⑤ 입식 및 양성동향

## 가. 입식동향

- 2008년 입식량은 작년에 비해 증가하였으나, 최근 4년의 평균 입식량보다는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 전반기 입식량은 예년보다 상회하였으나 후반기 입식량은 예년에 비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 이는 2006년 말과 2007년 초에 입식된 물량이 2008년 후반기 들어 대형어로 성장하면서 적체되기 시작하자 입식할 여유 공간이 부족해졌기 때문이다.
- 그 결과, 2008년의 입식물량은 2006년에 비해 적은 8,700여만 마리로 추정되었다.
- 넙치의 주 입식기는 4~6월과 10~11월로 이 시기에 입식량은 전체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9-3〉 넙치의 입식물량 동향

(단위 : 만 마리, %)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합계
2006년	입식량	642	359	368	1,164	1,640	1,240	449	594	1,232	1,339	856	983	10,866
	비 중	5.9	3.3	3.4	10.7	15.1	11.4	4.1	5.5	11.3	12.3	7.9	9.0	100.0
2007년	입식량	462	287	603	1,587	636	850	231	115	473	1,461	852	386	7,941
	비 중	5.8	3.6	7.6	20.0	8.0	10.7	2.9	1.4	6.0	18.4	10.7	4.9	100.0
2008년	입식량	574	522	326	1,552	1,502	1,008	249	78	237	600	1,872	187	8,707
	비 중	6.6	6.0	3.7	17.8	17.3	11.6	2.9	0.9	2.7	6.9	21.5	2.1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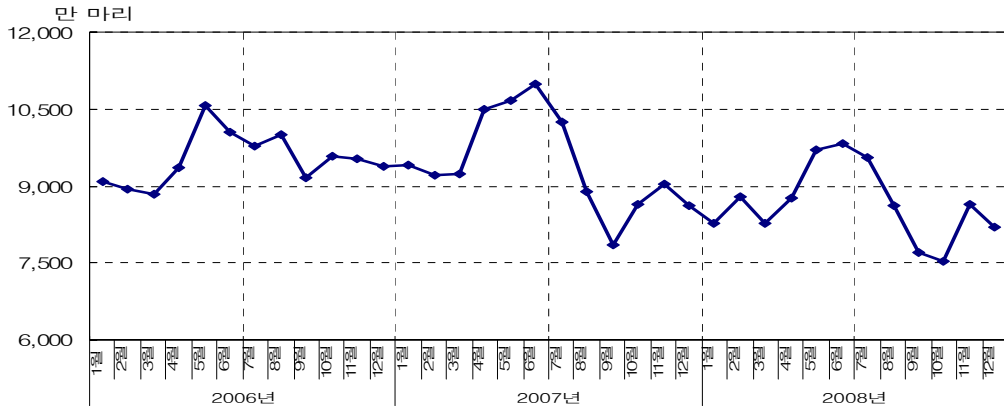
자료 : KMI수산업관측센터

## 나. 양성 동향

- 최근 3년간 연도별·월별 총 양성물량을 비교해 볼 때, 4~7월이 다른 달에 비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이는 3~5월 산란기와 4~6월 입식기로 인해 수조 내 성장하는 양성물량이 많고, 여름철 활어회 소비 둔화로 인해 출하량이 저조했기 때문이다.
- <그림 9-7>에서 보듯이 2007년 7월의 양성물량이 최근 가장 많았다. 하지만 그 후 계속 감소하여 2008년에는 양성물량이 예년에 비해 적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 이는 2006년 말과 2007년 초에 입식된 물량 중 대형어로 성장한 넙치의 양성물량이 출하되지 않고 적체되자, 양식어가들이 2008년에 입식물량을 줄였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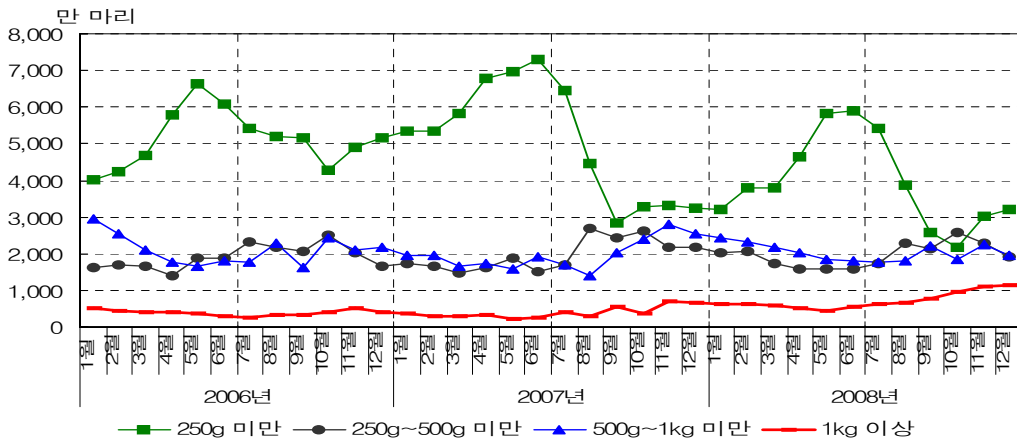
〈그림 9-6〉 넙치의 총 양성물량 추이



자료 : KMI 수산업관측센터

- 2008년 6월 이후부터 1kg 이상 크기의 양성물량 중 특히 대형어 물량이 연말까지 계속 적체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에 따라 입식량이 감소하면서 500g 미만 크기의 양성물량은 예년에 비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9-7〉 넙치의 크기별 양성물량 추이



자료 : KMI 수산업관측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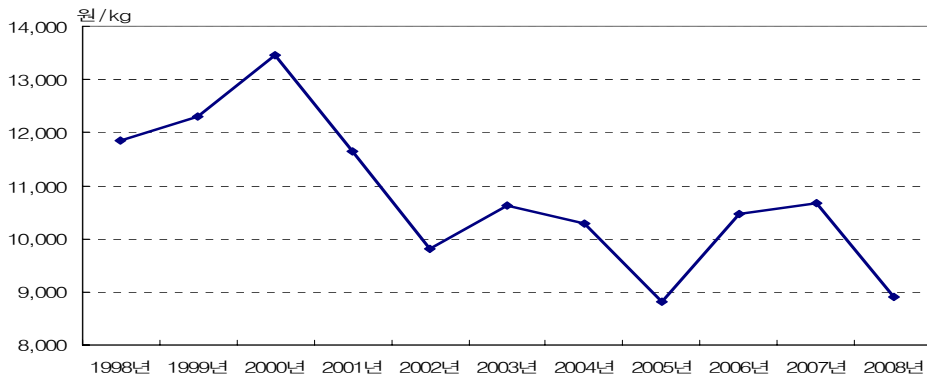
- 또한 2008년 12월 500g~1kg 미만 크기의 양성물량은 2007년 12월과 비교해 20% 이상 감소하였다.
- 이러한 500g~1kg 미만 크기의 양성물량 감소는 2009년 넙치 출하량을 감소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1kg 이상 크기의 양성물량이 2007년 12월에 비해 약 70% 증가하여, 2009년 상반기 출하량 증가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 한편 500g 미만 크기의 양성물량은 작년 12월말과 비교해 10% 이상 줄어들어, 이 물량이 출하되는 2009년 하반기 생산량에 다소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 (2) 가격동향

### ① 연도별 가격동향

- 넙치가격은 2000년 이후 수급 불균형에 기인하여 가격변동이 2~3년 주기로 상승세와 하락세를 반복하였다. 연별로는 2005년 넙치가격이 가장 낮았으며, 2008년도 2005년과 유사한 가격 동향을 보였다.

〈그림 9-8〉 연도별 넙치 가격 추이



주 : 2008년은 11월까지의 잠정치

자료 : 통계청, 『어업생산통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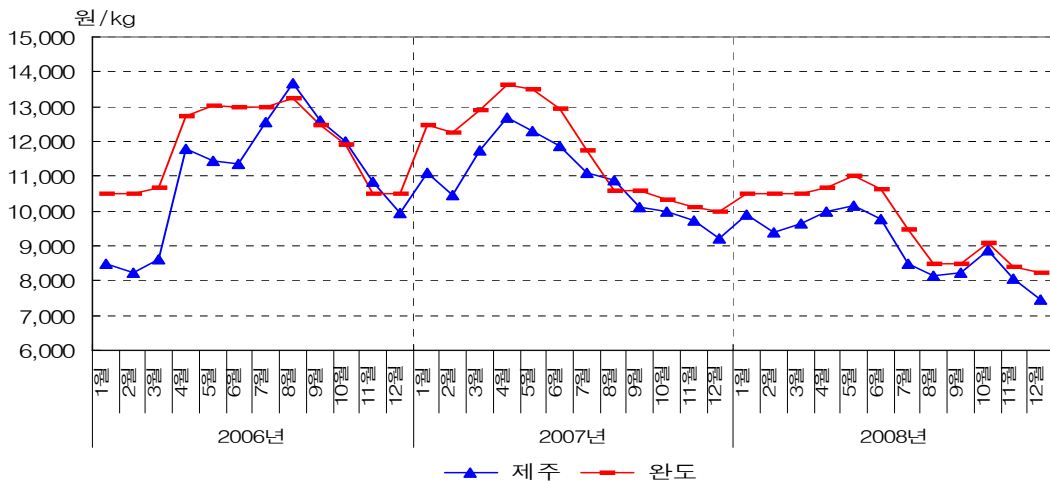
- 2008년 넙치의 가격 하락은 경기침체로 인한 활넙치 소비 둔화와 2006~2007년 초에 입식된 넙치가 대형어로 성장하면서, 이 물량이 적체되었기 때문이다.

## ② 월별·지역별·크기별 가격동향

## 가. 월별·지역별 가격동향

- 지역별 넙치 가격동향을 살펴보면, 제주·완도지역의 월별가격은 2006년을 제외하고 비슷한 동향을 보이고 있으며, 제주지역 가격이 완도지역에 비해 다소 낮게 형성되었다.
- 이는 제주지역의 양식 넙치 생산비용이 완도지역의 생산비용보다 낮았기 때문이다.
- 일반적으로 두 지역의 넙치 가격은 kg당 1,000원 정도의 격차를 보였으나, 최근에는 kg당 500~600원으로 그 격차가 계속 좁혀지고 있다.
- 이는 가격경쟁력에서 제주에 밀린 완도지역이 마진폭을 줄이면서까지 넙치를 출하했기 때문이다.

〈그림 9-9〉 넙치의 월별·지역별 가격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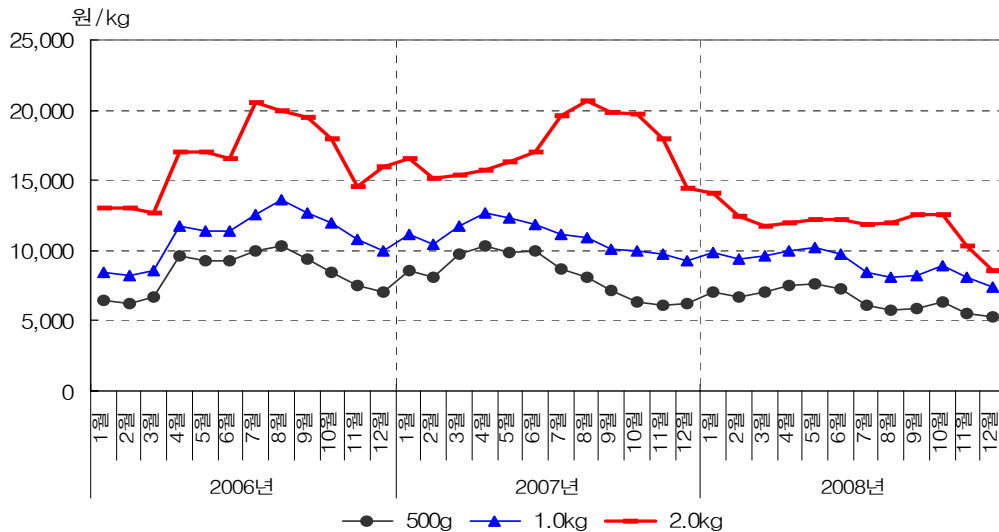


주 : 각 지역별 1.0kg 크기의 kg당 가격  
 자료 : 각 지역 해수어류양식수협

## 나. 월별·크기별 가격동향

- 2007년 하반기 이후 제주지역의 넙치 가격은 모든 크기에서 하락세를 보였다. 이러한 가격 하락세는 2008년에도 이어져 최근 3년 중 가장 낮은 가격대를 형성하였다.

〈그림 9-10〉 제주지역 넙치의 월별·크기별 가격 동향



자료 : 제주도해수어류양식수협

- 크기별로는 500g 크기의 소형어와 1.0kg 크기의 중형어 가격은 거의 비슷한 패턴으로 하락하였다. 하지만 2.0kg 크기의 대형어는 2008년 10월까지 일정한 가격대를 유지하다 그 후 급락하여 kg당 8,500원으로 1.0kg 크기 수준까지 하락하였다.
- 이는 제주지역의 생산량이 예년에 비해 많았고, 경기침체로 인해 소비가 둔화되면서 연말까지 적체된 대형어 양성물량이 2008년 연말들어 대량으로 출하되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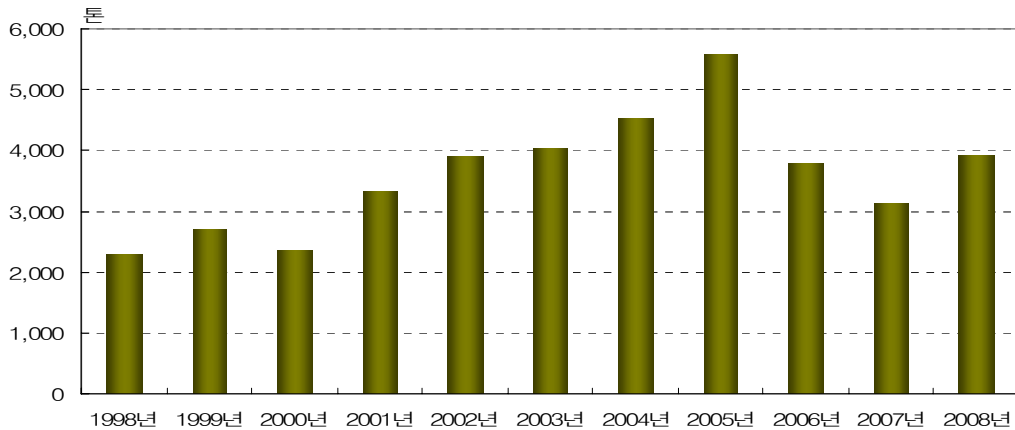
### (3) 수출동향

#### ① 연도별 수출동향

- 2000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한 넙치 수출량은 2005년에 사상 최고치인 5,574톤을 기록하였다. 하지만 2006년부터 감소하여 2007년에는 3,116톤까지 감소 하였으나, 2008년에는 3,906톤으로 2006년 수준까지 회복되었다.
- 이는 최근 원-엔 환율의 급등과 국내의 넙치 가격하락으로 수출가격이 하락하였기 때문이다.

- 2008년의 넙치 수출량 중, 일본 수출량이 전체 수출량의 약 95%로, 대부분의 물량이 일본으로 수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따라서 넙치의 수출량은 일본의 경기 및 환율에 따른 거래환경의 변화에 상당한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그림 9-11〉 연도별 넙치 수출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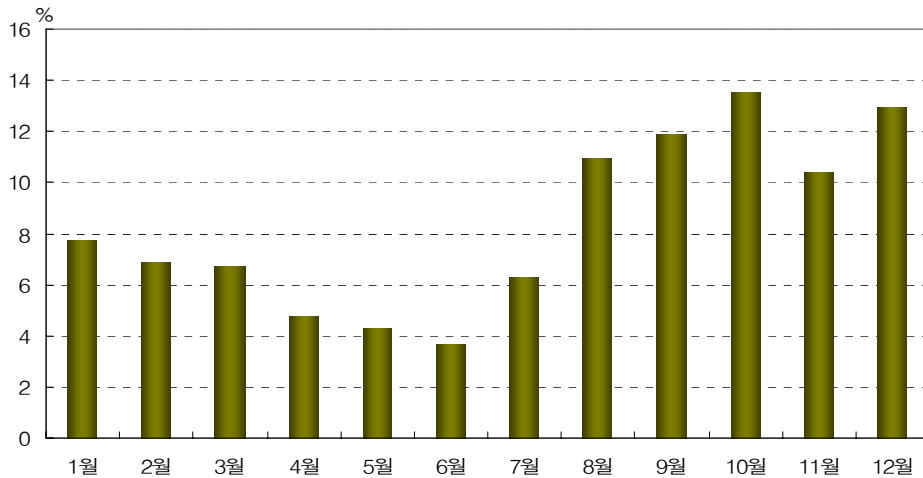


자료 : 관세청 및 한국무역정보통신(KTnet), 『수출입통계』

## ② 월별 수출동향

- 최근 3년간 평균 월별 수출량 추이를 분석한 결과, 일본의 명절인 오봉과 자국산 활넙치 생산이 감소하는 8~10월에 연 수출 물량의 35%가 집중되었다.
- 한편, 11월과 12월에는 자국산 활넙치 생산이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연 수출량의 20% 이상을 차지하는데, 이는 연말에 활넙치 소비가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그림 9-12〉 최근 3년간 평균 월별 넙치 수출량 비중 추이



자료 : 관세청 및 한국무역정보통신(KTnet), 『수출입통계』

## 2) 수급전망

### (1) 생산전망

- 2009년 상반기에는 출하 가능한 크기의 양성물량 중 특히 대형어의 적체가 심한 상황이기 때문에 생산량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 하지만 경기침체의 장기화, 중·소형어의 양성물량 감소 등으로 예년과 비교해 크게 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 한편 적체된 물량의 일부분이 해소되는 시점인 2009년 하반기부터는 양성물량이 예년과 비교해 적을 것으로 보여 출하량 또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 현재 500g 미만 크기의 양성물량이 최근 4년간의 물량 중 가장 적은 5,096만 마리인 것으로 추정되었다.
  - 이는 2005년 5,196만 마리, 2006년 6,790만 마리, 2007년 5,431만 마리보다 적은 수준이다.
- 따라서 2009년 총 생산량은 작년보다는 감소하겠지만, 2007년 보다는 많은 약 43,000톤~44,000톤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 (2) 수입 및 출입전망

- 최근 환율상승과 국내 넙치 생산량의 증가로 넙치 수입량은 계속 감소추세에 있다. 따라서 2009년 수입량 또한 다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 2009년에는 수출 가능한 1.0kg 크기의 양성 물량이 많은 상황에서, 원화 약세의 영향을 받을 경우, 넙치의 수출량은 작년과 비슷한 수준이거나 조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하지만 일본 내의 경기침체로 인한 수요 감소와 일본의 자국산 활넙치 생산이 증가한다면, 2008년에 비해 다소 감소한 3,800톤 이하로 하락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 따라서 2009년 수출량은 2008년과 비슷한 3,800~4,000톤 내외에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 (2) 소비전망

- 넙치의 국내 생산량과 수입량 그리고 수출량을 고려해 볼 때, 2009년 넙치의 국내 소비량은 대략 39,280톤~40,080톤 수준으로 전망된다.

〈표 9-4〉 2009년 넙치의 국내 소비량 추정

(단위 : 톤)

구분		2008년 (A)	2009년 (B)	전년 대비 증감 (B/A)
공급	국내 생산량	46,448	43,000~44,000	92.5~94.7
	수입량	83	80	96.4
수요	국내 소비량	42,625	39,280~40,080	92.1~94.0
	수출량	3,906	3,800~4,000	97.2~102.4

자료 : KMI 수산업관측센터 추정치



### 3. 조피볼락 수급동향과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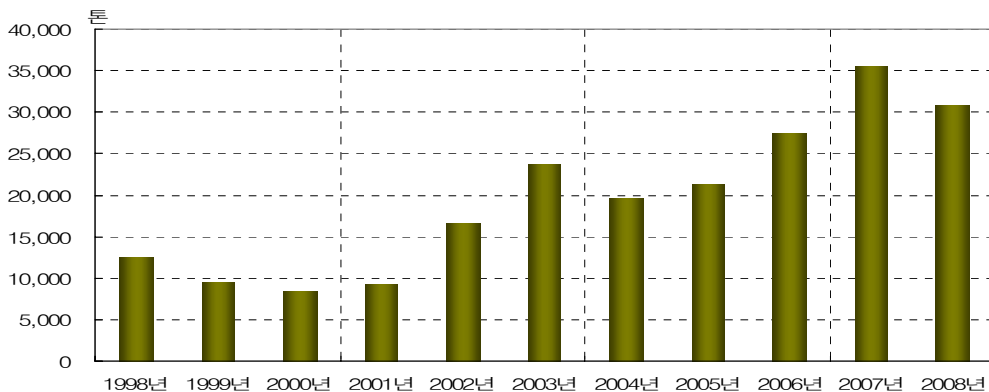
#### 1) 수급동향

##### (1) 생산동향

###### ① 연도별 생산동향

- 조피볼락의 국내 생산량은 최근 10년 동안 계속 증가하고 있다. <그림 9-14>에서 보듯이 1998년 12,544톤에서 2008년 30,718 톤으로 최근 10년 동안 세 배 정도 증가하였다.
- 2000년대 들어서는 생산량이 점점 증가하여 2005년 이후부터 연간 2만 톤 이상 지속적으로 생산되었다.
  - 특히 최근 들어 생산량 증가세가 두드러지면서 2006년 27,000여 톤, 2007년 35,000여 톤을 기록하였으며, 2008년에도 30,700여 톤이 생산되어 최근 2년간 3만 톤 규모로 확대되고 있다.
  - 이러한 생산액 규모는 우리나라 어류 양식의 대표어종인 넙치 다음으로 많은 2,000억 원 규모로서 넙치의 4,600억 원에 이어 2위를 차지하고 있다.

〈그림 9-13〉 조피볼락의 연도별 생산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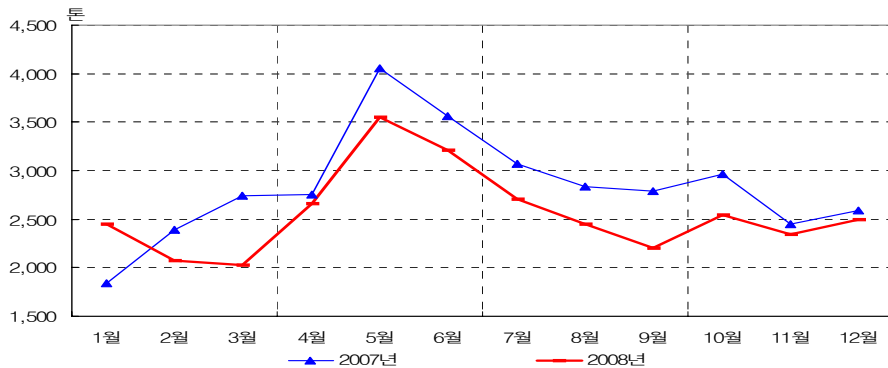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어업생산통계』, 2007년~2008년은 KMI 수산업관측센터

## ② 월별 생산동향

○ 조피볼락의 최근 2년간 월별 생산량은 상반기에 증가 추세를 보이다가 5월을 기점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여 왔다. 그리고 연중 5월에 조피볼락이 가장 많이 생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이는 치어구입 및 사료대금 지불, 그리고 가두리 공간 확보 등의 이유로서 양식 어가들이 입식 전 시기에 출하를 늘렸기 때문이다.

〈그림 9-14〉 조피볼락의 월별 생산 추이



자료 : KMI 수산업관측센터

○ 그 외에도 월별 조피볼락의 생산량 증감의 요인으로 수온 등의 생산여건 및 소비자 소비패턴을 들 수 있다.

- 우선, 수온 등 생산여건으로 저수온기(1~3월)와 고수온기(6~7월)에 조피볼락의 양성상태가 좋지 못하여, 출하 작업시 폐사의 위험이 따르기 때문에 출하가 감소되는 경향이 있었다. 하지만 고수온기의 경우 관광지를 중심으로 조피볼락의 출하가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 다음으로 소비자 소비여건으로 조피볼락의 생산량이 봄(3~5월)·가을철(10월)행락철 및 연말(12월)에 일시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여 왔다.

〈표 9-5〉 조피볼락의 일반적 월별 생산량 추이 및 원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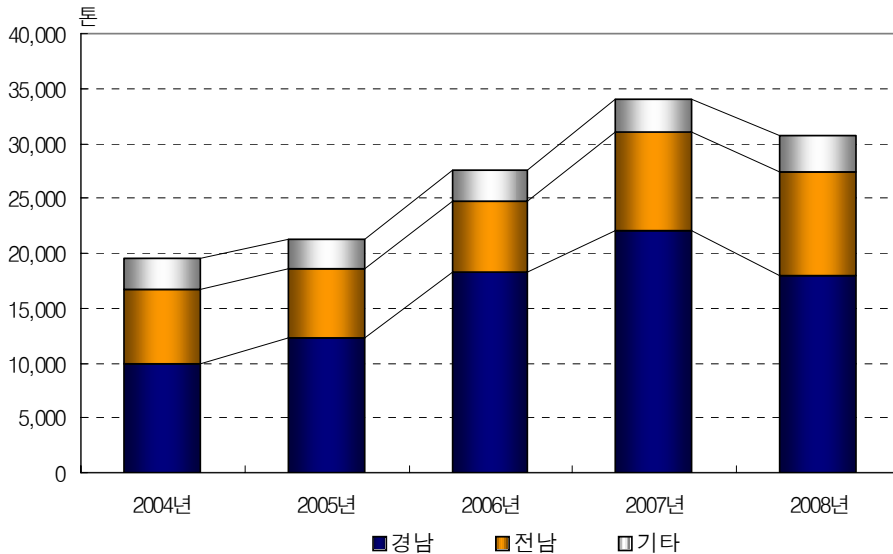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추이	감소세		증가세			감소세			증가	감소	증가	
원인	저수온기 출하 부진		봄철 행락객 수요		입식 대비	고수온기 출하 부진 관광지 중심으로 출하		성육 집중	가을철 행락객 수요	성육 집중	연말수 요	

자료 : KMI 수산업관측센터

## ③ 지역별 생산동향

- 2008년 지역별 조피볼락 생산현황을 살펴보면, 경남이 17,987톤으로 전체 생산량 (30,718톤)의 58.5%로 가장 많았고, 전남이 9,487톤으로 30.8%, 기타지역이 3,244톤으로 10.5%를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 최근 2년간 조피볼락의 지역별 생산량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경남은 2004년 이후 생산량과 지역별 점유율 측면에서 모두 증가 추세를 보였으나 2008년에 들어와 생산량과 점유율이 다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9-15〉 조피볼락의 지역별 생산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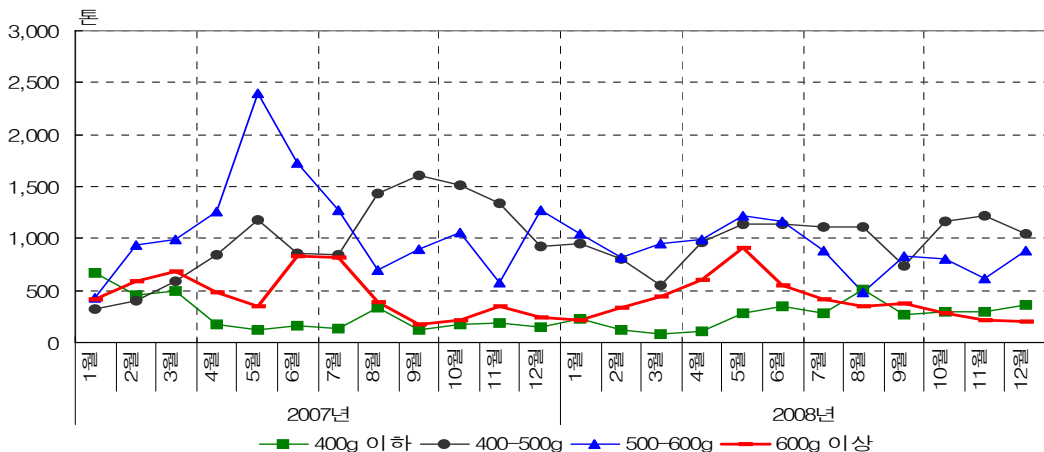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어업생산통계』, 2007~2008년은 KMI 수산업관측센터

- 한편 전남은 2004년 이후 생산량과 지역별 점유율 측면에서 증감은 있었으나 일정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그리고 기타지역(경북, 충남 등)은 생산량 측면에서 2004년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점유율 측면에서는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북의 경우는 조피볼락 양식을 가장 늦게 시작하였지만, 생산량이 점점 증가하여 최근에는 충남보다도 생산량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충남은 큰 변화가 없었던 것으로 조사되었다.

#### ④ 크기별 생산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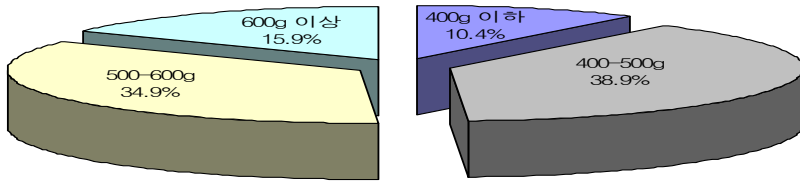
- 조피볼락이 시장에 출하되는 크기는 일반적으로 350g 이상이며, 넙치와 같이 각 크기별 시장이 따로 존재하지 않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출하되는 크기는 400~600g 크기로 전체 생산량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 월별로는 특정 크기에 대한 출하특징을 보이지 않았으며, 각 시기별 양성물량 수준에 따라 출하가 많이 되는 크기가 결정되는 경향을 보였다.

〈그림 9-16〉 조피볼락의 크기별 생산량 추이



자료 : KMI 수산업관측센터

〈그림 9-17〉 2008년 조피볼락의 크기별 생산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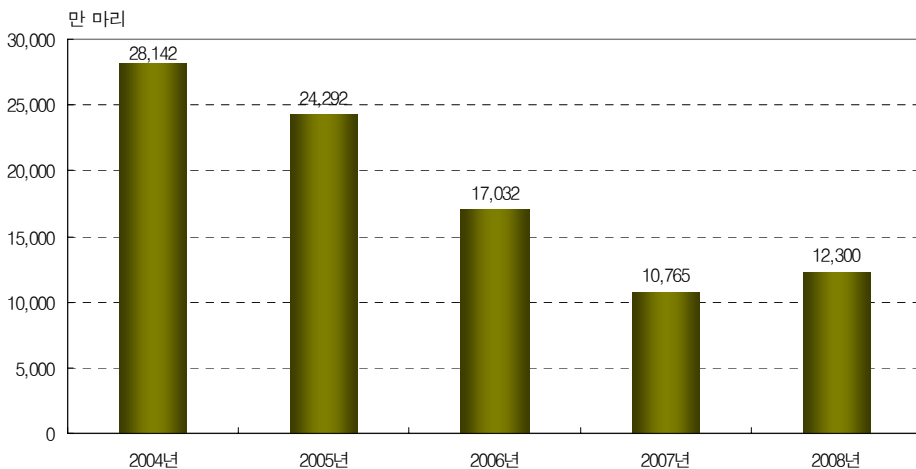
자료 : KMI 수산업관측센터

### ⑤ 입식 및 양성동향

#### 가. 입식동향

- 가두리시설에서 양식되는 어종의 가장 큰 특징은 매월 입식이 되는 넙치와는 달리 입식이 연 1회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입식된 치어는 2년 간의 양성기간을 거친 후 출하되는데, 매년 일정량의 입식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 최근의 입식동향을 살펴보면 2004년과 2005년에 입식이 2억 마리 이상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후 입식량은 점점 줄어 2007년에는 1억여 마리, 2008년에는 1억 2천여만 마리를 기록하였다.

〈그림 9-18〉 조피볼락의 입식물량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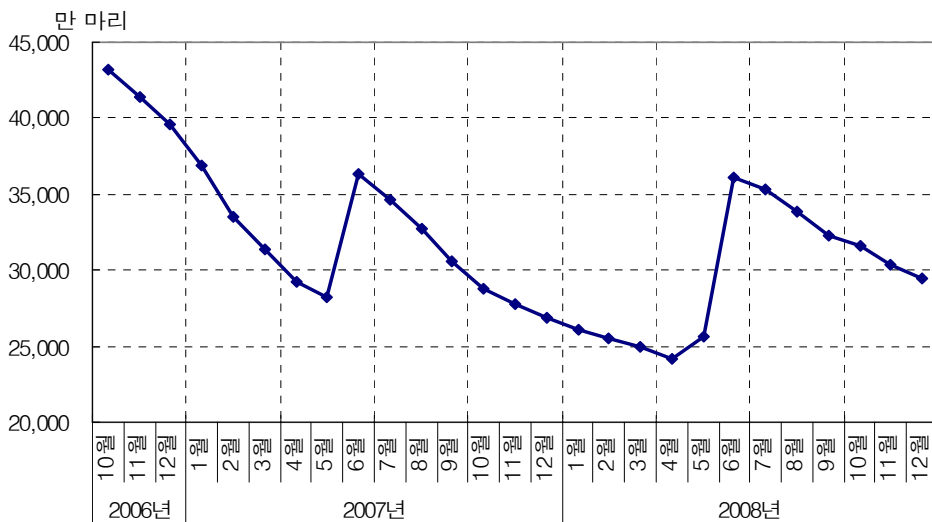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어류양식현황 조사』 각 연도, 2008년은 KMI 수산업관측센터

- 이러한 입식량 감소의 원인은 다음과 같다. 2003년 태풍 ‘매미’로 인한 조피볼락 가두리 시설의 피해가 당해의 입식 물량을 크게 감소시켰다. 그로 인해 양식어가들은 2004~2005년에 부족한 입식량을 채우기 위해 조피볼락을 대량으로 입식하였다. 그 결과, 2004년과 2005년에 입식된 조피볼락이 2006~2007년에 대량으로 출하되었다. 결국 2006~2007년에 출하된 조피볼락의 초과 공급으로 가격이 폭락하면서, 양식어가들은 출하조절을 위해 최근 2년간 입식량을 줄였기 때문이다.

#### 나. 양성동향

- 가두리어류의 특징은 입식이 연 1회 이루어지기 때문에 양성물량이 입식기인 5~6월 경에 크게 증가한 후 계속 감소하는 형태를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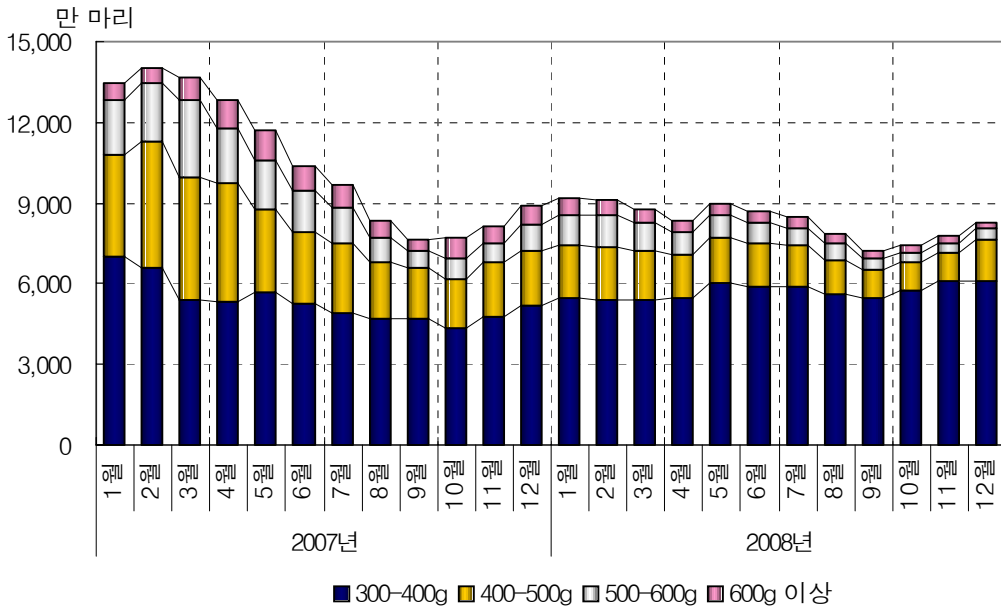
〈그림 9-19〉 조피볼락의 양성물량 추이



자료 : KMI 수산업관측센터

- 조피볼락의 양성물량은 2008년 말 현재 2억 9,400여 만 마리로 추정되며, 이는 2007년도 말에 비해 9.4% 많은 수준이었다.

〈그림 9-20〉 조피볼락의 출하가능 물량 추이



자료 : KMI 수산업관측센터

- 시장에 출하가 가능한 물량(300g 이상 크기)의 경우 8,300여 만 마리로 2007년 말에 비해 7% 정도 적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 또한 크기별 양성물량 구조도 2007년 말의 경우 500g 이상 중·대형어의 비중이 컸던 반면, 2008년 말에는 300~500g 크기의 소형어 비중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 이러한 양성물량 구조는 2009년 생산량에 큰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단기 생산 전망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
- 한편, 2009년 10월 이후 생산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치어를 포함한 300g 미만 크기도 작년에 비해 17.5% 많은 수준이었다.

## (2) 가격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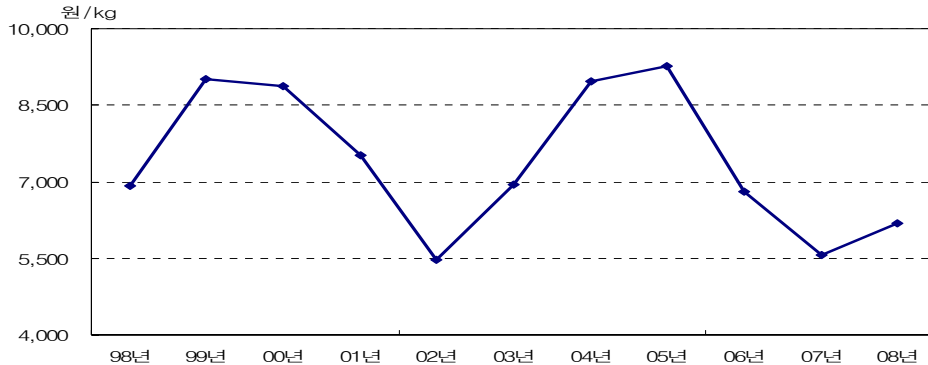
### ① 연도별 가격동향

- 조피볼락은 최근 10년간 수급 불균형에 기인하여 가격변동이 4~5년 주기로 상승세와 하락세를 반복하였다. 이는 불안정한 입식량에 기인하여 생산량 변동이 크고 이

에 따라 조피볼락의 가격이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이다.

- 연별로는 최근 10년 중, 2005년 조피볼락 가격이 가장 높았으며, 그 후 계속 하락하여 2007년에는 2002년의 가격수준까지 하락하였다.

〈그림 9-21〉 연도별 조피볼락 가격 추이



주 : 2008년은 11월까지의 잠정치

자료 : 통계청, 『어업생산통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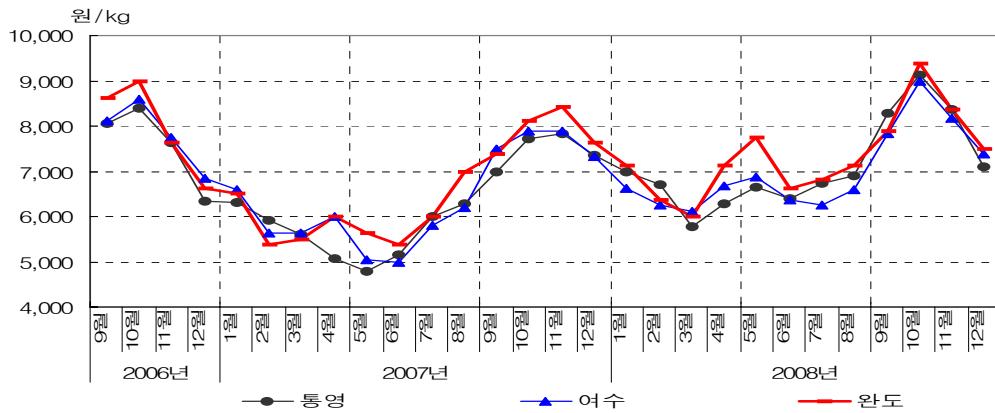
## ② 월별 · 지역별 · 크기별 가격동향

### 가. 월별 · 지역별 가격동향

- 지역별 조피볼락 가격동향을 살펴보면 각 지역의 주 출하 시기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전국이 동일한 가격 패턴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 다만 완도의 가격이 다른 지역보다 다소 높게 형성되었는데, 이는 양성기간이 다른 곳보다 길고 고정 거래처로 출하되는 비율이 높기 때문이다.
- 하지만 2008년 조피볼락의 가격은 2007년에 비해 전반적으로 높은 가격대를 형성하였다.



〈그림 9-22〉 조피볼락의 월별·지역별 가격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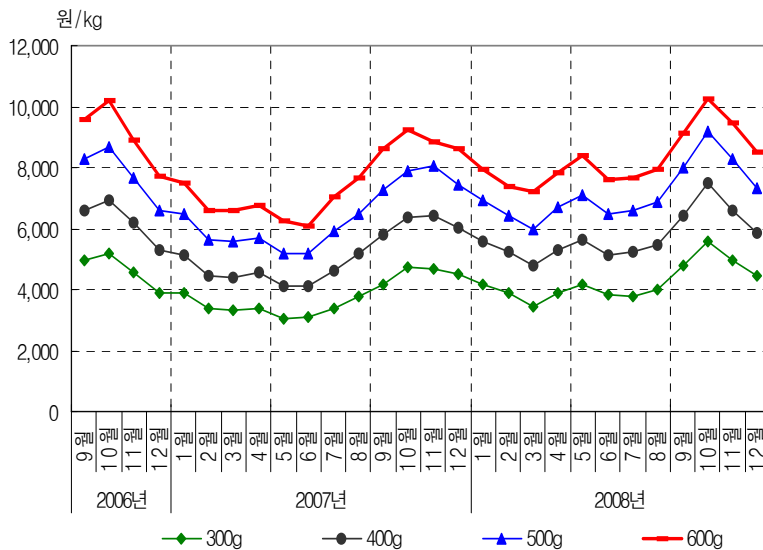
주 : 각 지역 500g 크기의 kg당 가격

자료 : 서남해수어류양식수협(통영·여수), 전남서부어류양식수협(완도)

#### 나. 월별·크기별 가격동향

- 조피볼락은 넙치와 달리 크기별로 형성된 시장이 따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모든 크기의 가격이 비슷한 경향을 보여 왔다.

〈그림 9-23〉 조피볼락의 크기별 가격동향



주 : 통영, 여수, 완도지역 각 크기의 kg당 가격 평균

자료 : 서남해수어류양식수협(통영·여수), 전남서부어류양식수협(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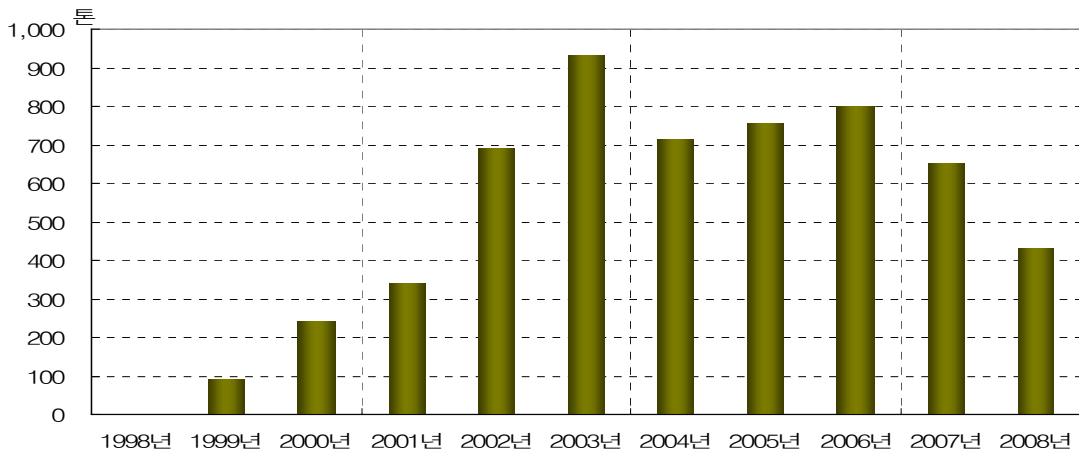
- 최근 양성물량 부족으로 인해 조피볼락 가격이 상승하면서 모든 크기의 가격이 2006년 수준으로 회복되었다.

### (3) 수입 동향

#### ① 연도별의 수입동향

- 2000년 이전에 수입된 조피볼락 수입량은 100톤 미만이었으나, 2000년대 이후 본격적으로 수입되면서 2003년에 993톤으로 가장 많이 수입되었다.
- 2000년 이후 본격적으로 수입된 조피볼락은 연평균 700여 톤에 육박하며, 이들 대부분은 중국에서 수입되었다.
- 2008년에는 환율상승으로 인해 조피볼락의 수입 가격이 상승하면서 수입량은 예년에 비해 감소한 400여 톤을 나타냈다.

〈그림 9-24〉 연도별 조피볼락의 수입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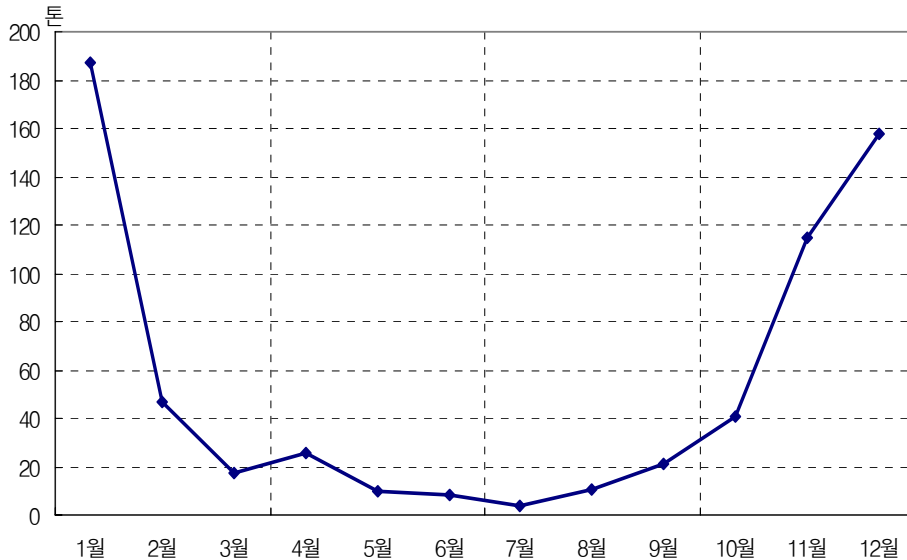
자료 : 관세청 및 한국무역정보통신(KTnet), 『수출입통계』

#### ② 월별 수입동향

- 월별로 살펴보면, 월별 수입곡선이 U자 형태로 특정시기에 수입 집중현상이 나타나는 특징을 보였다.

- 조피볼락 수입은 연말·연초(10월~익년 1월)에 집중되는 특징을 보이는데, 이 시기에 수입량은 연 수입량의 70% 이상을 차지하였다.

〈그림 9-25〉 최근 3년(2006년~2008년) 조피볼락의 월별 평균 수입량 추이



자료 : 한국무역협회(<http://www.kita.net>)

- 한편 조피볼락 수입은 각 시기별 생산 특징에 따라 제한되거나 집중되는 특징을 보였다.
  - 2월 중순 ~ 5월 초 : 포란/자어 산출기
    - 조피볼락의 포란기(抱卵期)가 우리나라에서는 3월~4월 중순경인데 반해 주 수입국인 중국은 조금 빠른 2월 중순부터 시작된다.
    - 따라서 이 시기에는 조피볼락의 살이 빠지고, 영양이 저하되는 등 전체적인 질이 나빠져 수입이 제한적으로 이루어져왔다.
  - 6월 중순 ~ 9월 : 고수온기
    - 수온이 조피볼락 성장의 적수온( $13\sim18^{\circ}\text{C}$ ) 이상으로 형성되기 때문에 국내에서도 출하가 정제되는 시기이다.

- 또한 수입이 되더라도 중국 연안과 우리나라 연안 간 수온차에 의해 수입 조피볼락의 생존기간이 짧아 수입이 제한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 10월 ~ 익년 1월
  - 수온 등 계절적 여건에 의한 제약이 없어 상대적으로 다른 시기에 비해 많은 물량이 수입된다.
  - 특히 연말·연초에는 수요 증가에 대한 기대 등으로 다량 수입되는 경향을 보였다.

〈표 9-6〉 월별 제한적 수입의 원인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수입 여부	가능	제한적								가능		
원인		포란기/자어 산출기			-	고수온기						

## 2) 수급전망

### (1) 생산 및 수입전망

- 최근 경기침체의 여파로 수요가 예년에 비해 줄어드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조피볼락의 경우 경영체의 규모가 영세하고, 생산 특성상 생산량 조절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
- 한편 출하 가능 물량은 2008년 초보다 다소 적은 수준이지만 중·소형어의 양성물량은 많은 상황이다.
- 따라서 2009년의 생산량은 2008년보다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하반기 들면서 점점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 2009년 수입량은 우리나라를 겨냥해 양식한 중국산 조피볼락의 적체로 낮은 가격에 수입될 가능성이 있어 원-위안화의 고 환율에도 2008년에 비해 다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 (2) 소비전망

- 조피볼락의 경우 수출이 없어 국내의 생산량과 수입량에 의해 국내 소비량이 결정되어진다. 따라서 조피볼락의 국내 생산량과 수입량을 고려해 볼 때, 2009년 조피볼락의 국내 소비량은 대략 25,530톤~27,730톤 수준으로 전망된다.

〈표 9-7〉 2009년 조피볼락의 국내 소비량 추정

(단위 : 톤)

구분		2008년 (A)	2009년 (B)	증감 (B/A)
공급	국내 생산량	30,718	25,000~27,000	81.3~87.7
	수입량	432	530~730	122.6~168.9
수요	국내 소비량	31,150	25,530~27,730	81.9~89.0
	수출량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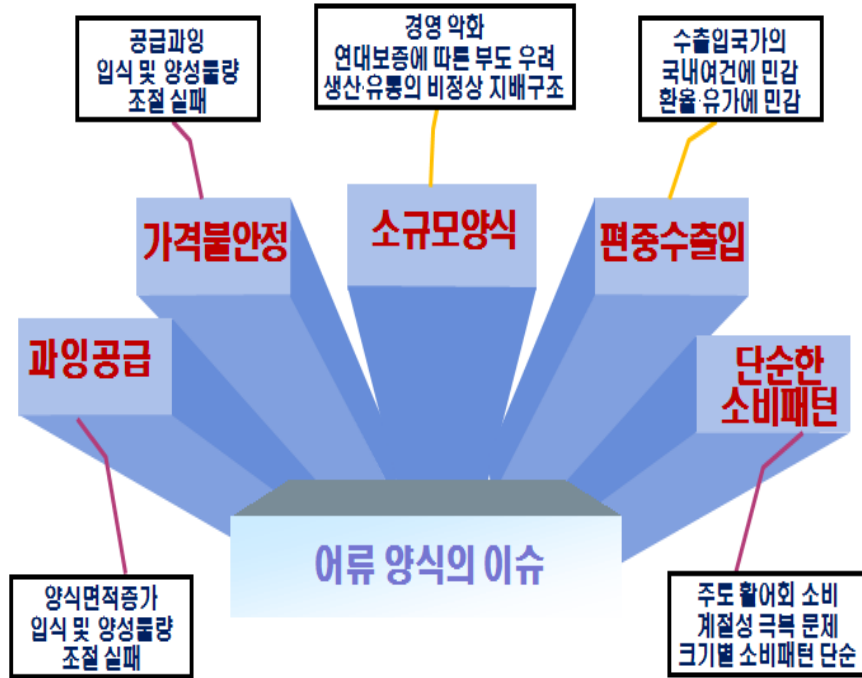
자료: KMI 수산업관측센터 추정치

## 4. 이슈 및 대책방안

### 1) 이슈

- 넙치와 조피볼락은 우리나라 양식 산업을 선도할 대표적 어종들이면서도 불구하고 생산 및 판매에 있어 고비용·저효율 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 구체적으로 종묘, 질병, 사료 개발과 같은 R&D 사업에 대한 투자부족은 수정란 및 종묘생산업체의 우량 육종 및 우량 종묘 생산을 근원적으로 어렵게 해왔다. 그 결과, 이들 종묘를 구입하는 양식업자들은 높은 폐사율을 고려하여 상시 적정수준 이상으로 치어를 입식하는 경향이 보여 왔다. 결국 이러한 과잉 입식은 양식업자로 하여금 한정된 시장수요 이상의 양성물량을 생산하게 함으로써 이들 어종의 시장가격을 하락시키는 주요 원인이 되어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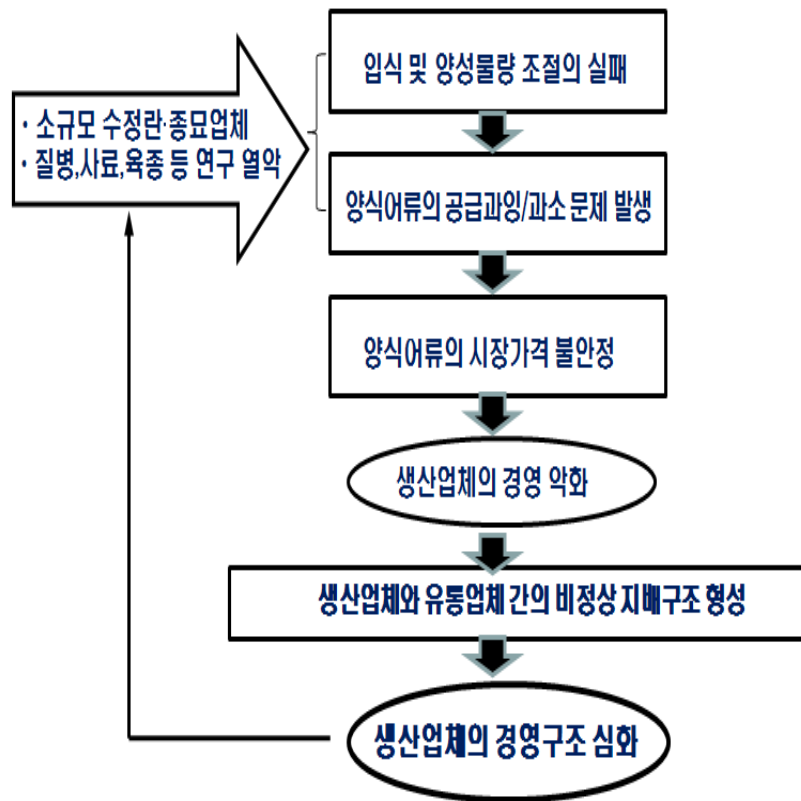
〈그림 9-26〉 넙치 및 조피볼락 양식의 이슈



- 특히, 이러한 입식량 및 양성물량 조절의 실패는 수정란생산업체, 종묘생산업체, 양식업체, 유통업체 간의 유기적 상호협력의 결여에서 유발되었고, 그러한 상호협력의 결여의 배후에는 생산 및 유통구조의 비정상적 지배구조가 만연되어 있었다.
- 그 외에도 넙치와 조피볼락의 경우, 수출입 국가가 일부 국가에 편중됨에 따라 환율 및 유가 변동 등의 대외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수출 다변화 전략에 한계가 있었다.
- 따라서 최근 우리나라도 어류양식의 산업화, 개방화, 세계화를 위해 수직적 통합·유통 시스템(Vertically Integrated Farming-Processing-Distribution System)을 갖춘 대표조직(예, 넙치)과 같은 규모화된 사업조직을 육성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 넙치 및 조피볼락 양식의 이슈에 대한 생산구조의 악순환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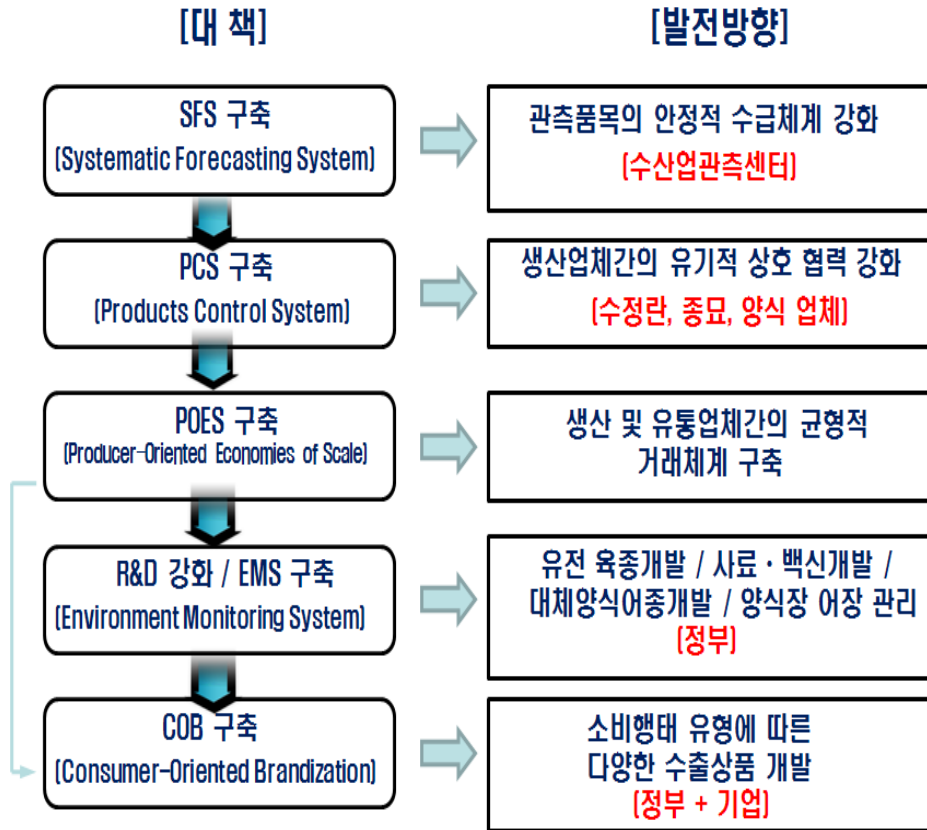
〈그림 9-27〉 어류양식 생산구조의 악순환 (Vicious Circle)



## 2) 대책 및 발전방향

- 이러한 악순환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으로서 어류양식의 발전방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그림 9-28〉 어류양식의 대책 및 발전방향



- 우리나라 어류양식의 발전을 위해 상기 제시된 대책 방안들은 궁극적으로 양식어종 (넙치, 조피볼락, 돔, 농어, 송어 등)의 안정적 시장수급을 통해 이들 어종의 시장 가격을 안정화시킴으로써 생산 및 소비주체가 예측 가능한 경제활동을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 제10 장 패류의 수급동향과 전망

이남수\* · 성진우\* · 박광서\*\*

### 목 차

- |                  |                 |
|------------------|-----------------|
| 1. 종합            | 3. 굴의 수급동향과 전망  |
| 2. 전복의 수급동향과 전망  | 1) 수급동향         |
| 1) 수급동향          | 2) 굴 소비행태       |
| 2) 전복 소비행태       | 3) 2009년 굴 수급전망 |
| 3) 2009년 전복 수급전망 |                 |

## 1. 종합

### [전복]

- 전복 생산량은 급증하고 있으며, 가격은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다. 또한 시설량 증가에 따른 양성물량도 증가하고 있다. 가격 하락과 환율 등 수출여건의 호조로 수출량은 급증하고 있다.
- 최근의 전복 시설량 및 양성물량 등을 감안하면 2009년 전복 생산량은 2008년에 비해 1.3배 많은 8,000여 톤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품목별 대표조직 육성 및 수출 전략 수립 등 다양한 정책지원 프로그램의 개발로 2009년 전복 수출량은 750여 톤으로 예상된다.
- 따라서 2009년 국내 전복 소비량은 7,200여 톤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 연구원; \*\* 책임연구원

- 최근의 전복 생산량 증가로 전복 전문점 및 전복 취급 업체들이 증가하고 있다. 또한 전복 소비촉진을 위한 정부 및 생산자 단체의 홍보행사 등의 영향으로 소비자의 전복 선호도 및 소비 횟수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 그러나 전복의 수요 증가에 비해 공급의 증가 속도가 더욱 빠르기 때문에 2009년의 kg당 12~15마리의 전복 산지가격은 2008년에 비해 5~10% 하락한 30,000~31,500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 [굴]

- 우리나라의 굴은 미국 식품의약품안전청(FDA)에서 그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고, 냉동굴은 2001년 수산물로서는 처음으로 산업자원부로부터 세계 일류 상품에 선정되었다. 또한 굴은 천해양식 수산물 중에서 생산량과 수출량 모두 2위를 차지할 만큼 대표적인 품목이다.
- 최근에는 주요 수입국들이 식품위생에 대한 관심 증가와 자국 어민 보호를 목적으로 위생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그로 인해 2000년 이후 굴 수출량은 2007년까지 감소하였으며, 반면에 국내수요는 증가하였다. 그러나 생굴 위주의 내수 증가는 어느 정도 한계에 도달한 것으로 보인다.
- 따라서 굴 산업이 처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생산에서 유통, 가공에 이르기까지 위생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또한 연중 소비로 전환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제품의 개발과 홍보를 통해 소비를 촉진시키는 한편, 일본과 미국 위주에서 벗어나 수출시장의 다변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2009년산 굴 시설량은 2008년산에 비해 4.3% 감소한 2,054만 연이었으며, 2008년 12월까지의 굴 생산량은 전년 동기간보다 4.6% 적은 15,000여 톤이었다. 한편 12월 말 현재 잔여시설량은 초기 시설량의 57.3%인 1,178만 연이며, 이는 작년에 비해 3.1%포인트 많은 것이다.
- 200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세를 보이던 굴 수출량은 2008년 들어 반전되어 전년 대비 11.9% 증가한 15,900여 톤이었다. 이는 환율 등 수출여건 호조와 중국산 식품의 안전성 문제가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다. 이러한 영향은 2009년에도 이어질 것으로 보여 수출량은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2009년산 굴 생산량은 2008년산 대비 5% 적은 32,600여 톤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국내 소비량은 2008년산보다 1,800여 톤이 적은 16,700여 톤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 패류의 수급동향 및 전망에 이용된 통계자료는 KMI 수산업관측센터의 품목별 관측월보를 활용하였으며, 수출입자료는 한국무역협회의 자료를 이용하였다.
- 품목별 소비행태는 2007년 12월과 2008년 12월에 각각 1,200명, 800명의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중 품목별 수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을 중심으로 기술하였다.

## 2. 전복의 수급동향과 전망

### 1) 수급동향

#### (1) 생산동향

##### ① 시설현황

- 2008년 전복 가두리 시설량, 전년보다 15% 많은 36만 칸
  - 2008년 전복 가두리 양식장 인공위성영상 판독결과, 총 시설량은 약 36만 칸 (2.2m×2.2m 그물기준)이었으며, 이는 2007년도의 31만 칸에 비해 15.3% 증가한 것이다.
  - 지역별로 보면 완도지역은 2007년 대비 17.6% 증가했으며, 해남, 진도, 신안 등 기타지역은 6.1% 증가했다.
- 완도의 전복 가두리 시설, 전국의 82% 차지
  - 전국 전복 가두리 시설 36만 칸 중 완도지역이 약 29만 칸으로 전국의 81.5%를 점하고 있으며, 기타지역은 약 7만 칸으로 18.5%이다.

〈표 10-1〉 지역별 전복 가두리 시설량 현황

단위 : 칸(2.2m×2.2m 그물 기준)

구 분	2007년	2008년	증감(%)
전 국	311,854 (100.0)	359,633 (100.0)	15.3
완 도	249,207 (79.9)	293,183 (81.5)	17.6
기 타	62,647 (20.1)	66,450 (18.5)	6.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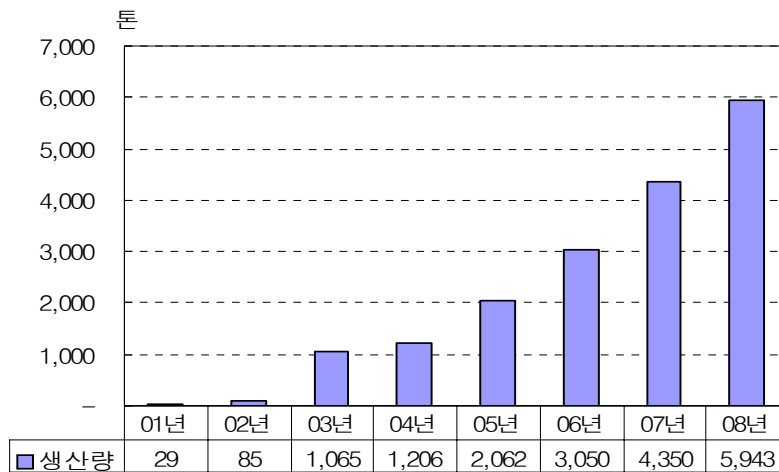
자료 : KMI 수산업관측센터

## ② 연도별 생산현황

## ○ 전복 생산, 2003년 이후 본격화

- 국내 전복 생산량은 2002년까지만 해도 연간 100톤 미만이었으나, 2000년에 들어 해사가두리 시설이 일반화 되면서 2003년 이후 급증하기 시작했다.
- 2003년에는 1,065톤, 2005년에는 2,062톤을 생산하였다. 또한 2005년 이후 매년 1천여 톤씩 생산량이 급증하고 있는 추세이다.

〈그림 10-1〉 연도별 생산동향



자료: KMI 수산업관측센터

## ○ 2008년 전복 생산량, 5,900여 톤으로 추정

- 2008년 전복 생산량은 2007년보다 약 36.6% 많은 5,943톤으로 추정된다. 이는

2006년에 비해서는 두 배가량 많은 물량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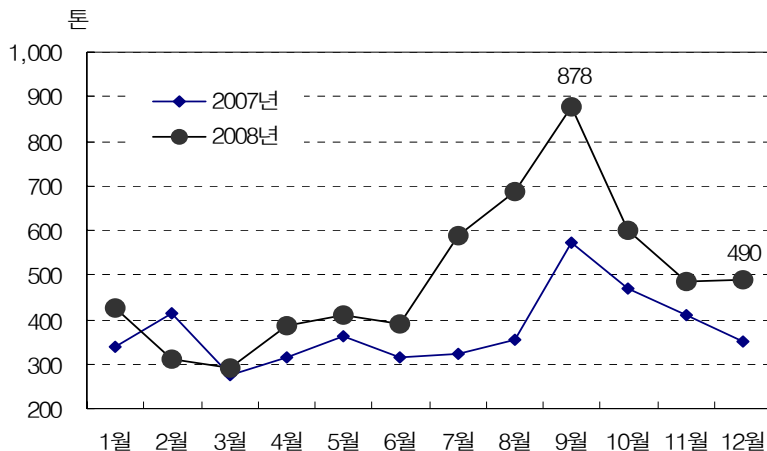
- 이렇듯 소비보다 생산의 증가 속도가 빨라 2008년 상반기에는 산지에서 적체물량이 다량 발생하여 출하지연, 감모율 상승 및 가격하락 등의 생산량 급증에 따른 반대급부(反對給付)의 현상들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 한편 2008년 여름철 대대적인 전복 소비촉진 행사로 수요가 확대되었고, 그로 인해 3/4분기 생산량이 급증하였다.

### ③ 월별·지역별 생산현황

#### ○ 월별 전복 생산량, 명절 전후 확대 추세 보여

- 월별 전복 생산량 추이를 보면, 설, 추석 등 명절 선물용 수요로 인해 명절 전후에 전복 생산량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
- 2008년도 상반기에는 산지의 출하 가능한 물량에 비해 소비량이 적어 물량이 적체되었으나, 2008년 6월 이후 소비 촉진행사로 7월부터 생산량이 급증하였다.
- 지난 2008년 7~9월 3개월 동안 여름철 전복 보양식 소비 증가, 추석 선물용 수요로 봄철부터 누적되었던 산지 적체 물량이 해소되었다.

〈그림 10-2〉 월별 생산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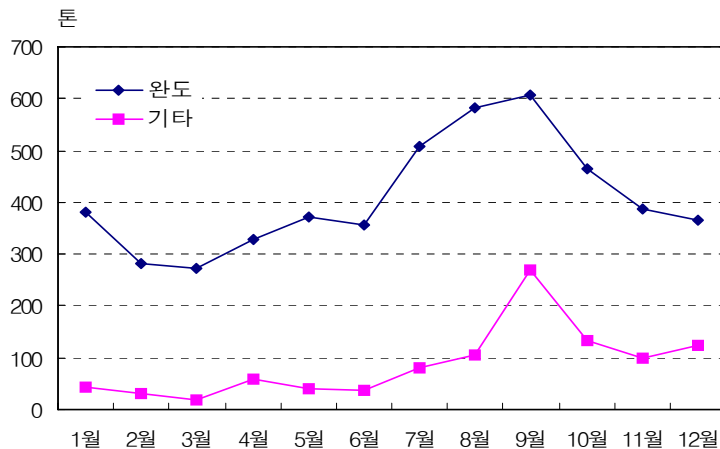


자료: KMI 수산업관측센터

## ○ 2008년 상반기 출하, 완도에 집중

- 2008년 상반기 동안 완도지역에 물량이 많아, 산지유통인들의 전북 구매가 해남, 진도 등 기타지역보다 완도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였다.
- 이에 완도지역 뿐만 아니라 기타지역에서도 물량이 적체되어 양식어가들이 출하에 어려움을 겪었다.
- 상반기 동안 모든 지역에서 출하에 어려움을 겪었으나, 3/4분기 이후 소비 급증으로 인해 완도를 비롯한 모든 지역의 생산량이 증가했다.

〈그림 10-3〉 지역별 전북 생산추이(2008년)



자료: KMI 수산업관측센터

## ④ 전북 양성동향

## ○ 2008년 12월 말 기준, 전북 양성물량은 약 7억 5천만 마리로 추정

- 12월 말 기준 전북 양성물량은 약 7억 5,200만 마리로 추정되었는데, 이는 2007년 12월의 6억 6,300만 마리에 비해 약 13.5% 많은 수준이다.
- 이 가운데 향후 1년 동안 주로 출하될 3년 이상의 양성물량은 2007년 12월보다 약 30% 많은 약 9,800만 마리로 추정된다.

- 양성물량 증가, 주 원인은 최근까지의 시설량 증가 때문
  - 전복 양성물량 증가의 가장 큰 원인은 최근까지의 전복 가두리 시설량 증가 때문이다. 전복의 특성 상 향후 1년간 출하되는 전복은 이미 3년 전 입식량에 의해 좌우된다.
  - 따라서 전복 수요에 비해 공급량이 훨씬 많아 가격은 하락하게 되고 그에 따라 개별 양식어가들은 소득보전을 위해 입식량을 늘렸다. 따라서 시설량이 늘고, 결과적으로 양성물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게 되었다.
- 양성기간 단축으로 인한 출하 가능 물량 증가
  - 예전엔 kg당 10마리 크기가 주력이었다. 그러나 최근엔 전복구이, 전복탕 등 작은 크기를 이용한 요리가 다양화 되었고, 수출용 크기도 작아져 주 출하 크기가 kg당 15마리 내외로 작아지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전복 양성 기간이 과거의 3년 이상에서 2년 6개월 정도로 단축되고 있다.
  - 또한 양성기술의 발달로 인해 양성기간이 단축되고 있다.
  - 따라서 예전에는 주 출하 크기가 3년산 이상의 물량이었으나, 최근에는 2년산 양성물량 중에서도 적어도 1/3은 언제든지 출하 가능 물량이 되었다.
  - 이와 같은 이유로 대규모 전복 소비 진작을 통한 수요 확대 없이는 전복가격은 당분간 하락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표 10-2〉 전복 양성물량(2008. 12 현재)

단위 : 만 마리

구 분	합계	1년 미만	1년산	2년산	3년산 이상
합 계	75,223	19,186	26,415	19,783	9,839
완 도	64,397	17,001	21,899	17,950	7,547
기 타	10,826	2,185	4,516	1,833	2,292

주 : 1년 미만(2007년산)은 2007년 5월경에 생산된 종묘가 치패로 입식된 것을 나타내고, 1년산(2006년산)은 2006년 5월, 2년산(2005년산)은 2005년 5월경에 생산된 전복 종묘임

자료 : KMI 수산업관측센터

## (2) 가격동향

### ① 산지가격

#### ○ 2008년 산지가격, 추석 이후 반등

- 2008년의 산지가격은 2007년에 비해 전반적으로 낮게 형성되었다. 2008년 여름 까지 하락세를 보이던 산지가격이 추석이후 모든 크기에서 반등했다.
- 이는 양식어가들이 전복 살을 더 찌워 판매하려는 경향 때문에 출하 가능 물량이 일시적으로 부족했기 때문이다.
- 그러나 12월 들어 가격이 다시 하락하였는데, 이는 최근 경기 침체의 영향으로 전복 소비가 둔화되었기 때문이다.

〈표 10-3〉 전복 크기별 산지가격

단위 : 천원/kg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07년	8미	50.0	49.3	47.0	47.0	47.0	47.0	49.0	49.0	49.0	49.0	49.0	47.0
	10미	44.0	43.3	41.0	40.0	40.0	40.0	42.0	42.0	42.0	42.0	42.0	40.0
	15미	36.0	35.0	32.0	32.0	31.7	31.0	32.0	32.0	32.0	32.0	32.0	32.0
	20미	27.5	27.5	26.0	26.0	26.0	26.0	26.0	26.0	26.0	26.0	26.0	27.0
08년	8미	47.0	44.3	43.0	42.3	42.0	42.0	42.0	42.0	42.0	43.7	44.7	43.5
	10미	40.0	38.0	37.0	36.3	36.0	36.0	36.0	36.0	36.0	38.0	38.3	37.5
	15미	32.0	32.0	32.0	31.3	31.0	31.0	31.0	31.0	31.0	32.3	33.0	32.0
	20미	27.0	27.0	27.0	27.0	27.0	27.0	27.0	27.0	27.0	28.3	29.0	28.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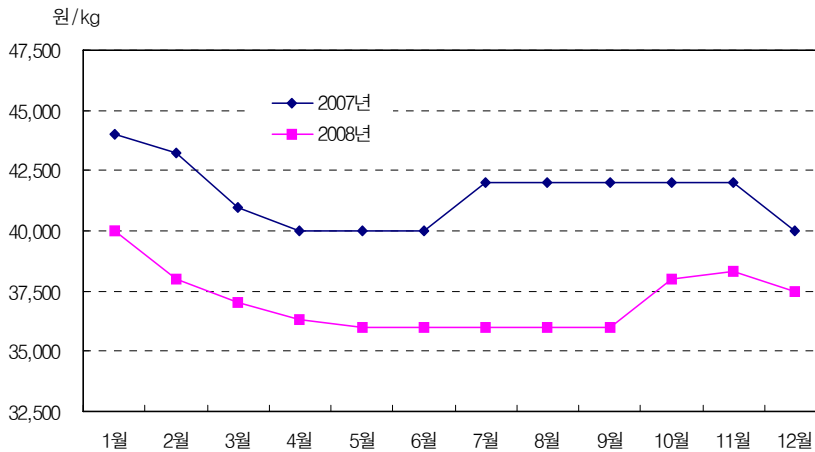
주: 산지가격은 완도군 수협 노화지점의 조사가격임

#### ○ 2008년 실질 생산자 수취가격, kg당 10마리 33,000원 수준

- 2008년 완도지역의 kg당 10마리의 명목가격은 36,648원이었다. 그러나 감모율(평균 22.0%)을 감안한 실질가격은 32,609원이었다.
- 지난 6~8월 30% 이상의 감모율을 감안하면 kg당 25,000원선에서 거래가 이루어졌던 것을 알 수 있다.
- 그러나 추석 이후, 생산자가 중심이 되어 감모율(loss rate)을 10%로 고정하였다. 그 이후 감모율이 점차 낮아져 12월에는 15.0%에 형성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림 10-4〉 월별 활전복 산지가격(kg당 10마리) 추이



주: 완도군 수협 노화지점의 kg당 10마리 조사가격임

〈표 10-4〉 완도지역 전복의 감모율(loss) 추이(2008년)

단위 : %, 원/kg

구분	감모율(%)			10마리의 가격(원/kg)	
	평균	최소	최대	명목가격	실질가격
4월	21.0	15.0	25.0	36,000	29,752
5월	24.7	20.0	30.0	36,000	28,869
6월	26.4	17.5	38.0	36,000	28,481
7월	30.2	25.0	38.0	36,000	27,650
8월	28.6	20.0	38.0	36,000	27,994
9월	27.8	20.2	35.0	36,000	28,169
10월	11.3	10.0	17.0	38,000	34,142
11월	12.6	5.0	18.0	38,333	34,044
12월	15.0	8.0	21.0	37,500	32,609
평균	22.0	5.0	38.0	36,648	32,609

자료 : KMI 수산업관측센터 전복 표본어가 조사 결과

## ② 도매시장 반입량 및 도매가격

### ○ 전복 유통, 산지수집상을 통한 거래가 가장 많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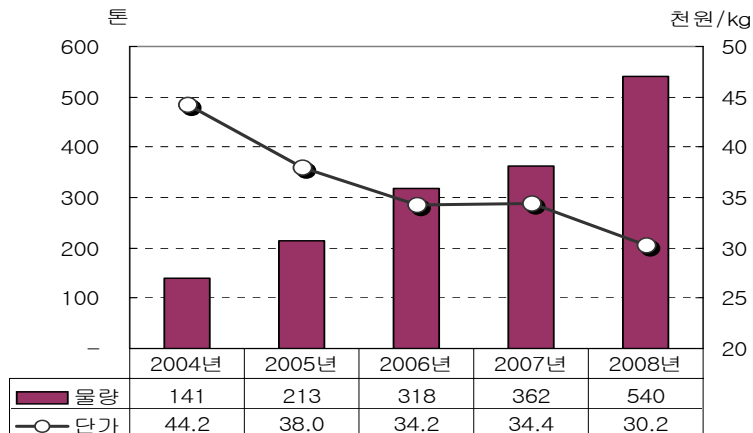
- 전복의 경우 생산량의 90% 이상이 산지수집상을 통해 국내 유통 및 수출되고 있다. 이들은 35명 정도이며 주로 완도향을 중심으로 분포되어 있다.
- 전복 생산량 중 50% 정도는 주요 도매시장을 경유하며, 수출 10%를 제외한 40%

정도는 택배, 인터넷 쇼핑, 홈쇼핑 등 직거래를 통해 유통된다.

○ 노량진수산물시장 전복 거래규모, 생산량의 9% 수준

- 법정도매시장 중 전복 거래가 가장 많은 도매시장은 노량진수산물시장이다. 연간 거래물량은 생산량의 9% 정도이며, 생산량 증가와 함께 매년 도매시장 거래량이 증가하고 있다.
- 그에 비해 경락가격은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으며, 2008년 kg당 평균 경락가격은 30,242원으로 2004년 대비 31.6% 하락했다.

〈그림 10-5〉 노량진수산물시장 전복 경매물량 및 경락가격 추이



주 : '물량'은 노량진수산물시장의 경매물량을 의미하므로 도매시장에 반입되는 전체의 물량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자료 : 노량진수산물시장

○ 2008년 전복 도매가격, 큰 크기의 하락세가 가장 두드러져

- 2008년 들어 모든 크기에서 도매가격이 하락세를 나타냈는데, 특히 kg당 8마리의 큰 크기의 하락세가 가장 컸다. 그에 비해 작은 크기의 도매가격 하락세는 상대적으로 소폭이었다. 이는 작은 크기에 대한 소비자 선호도가 높아졌기 때문이다.
- 도매시장에 반입되는 전복의 감모율은 약 10%로 거의 변화가 없다.

〈표 10-5〉 전복 크기별 도매가격 동향

단위 : 천원/k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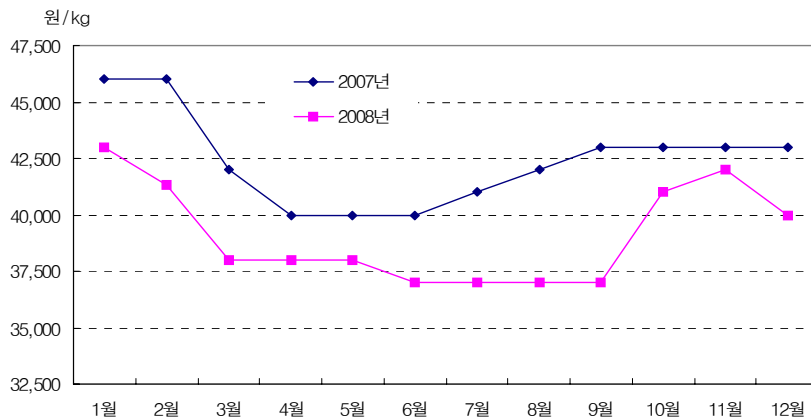
연도	크기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07년	8미	52.0	52.0	46.0	45.0	45.0	45.0	48.0	49.0	52.0	52.0	52.0	48.0
	10미	46.0	46.0	42.0	40.0	40.0	40.0	41.0	42.0	43.0	43.0	43.0	43.0
	15미	38.0	38.0	34.0	33.0	33.0	33.0	33.0	33.0	33.0	33.0	33.0	34.0
	20미	33.0	33.0	30.0	28.0	28.0	28.0	28.0	28.0	28.0	28.0	28.0	29.0
08년	8미	48.0	45.3	42.0	42.0	42.0	40.0	40.0	40.0	41.0	45.0	45.0	43.0
	10미	43.0	41.3	38.0	38.0	38.0	37.0	37.0	37.0	37.0	41.0	42.0	40.0
	15미	34.0	34.0	34.0	34.0	34.0	33.0	33.0	33.0	33.0	35.0	36.0	33.0
	20미	29.0	29.0	28.0	28.0	28.0	27.0	27.0	27.0	27.0	28.0	30.0	27.0

주 : KMI 수산업관측센터 조사가격(하남활어도매시장)

## ○ 2008년 10월 이후, 연초 가격대 회복

- 소비지 도매시장의 kg당 10마리의 전복은 추석 이전까지 37,000원에 거래되었으나, 10월부터는 2008년 연초 가격인 4만 원대를 회복하였다.
- 이는 2008년 하반기의 지속적인 전복 소비촉진 행사로 인해 수요가 증가하였으며, 산지에서 일부 크기의 물량부족으로 가격이 상승했기 때문이다.

〈그림 10-6〉 월별 활전복 도매가격(kg당 10마리) 추이



주: 하남활어도매시장의 kg당 10마리 조사가격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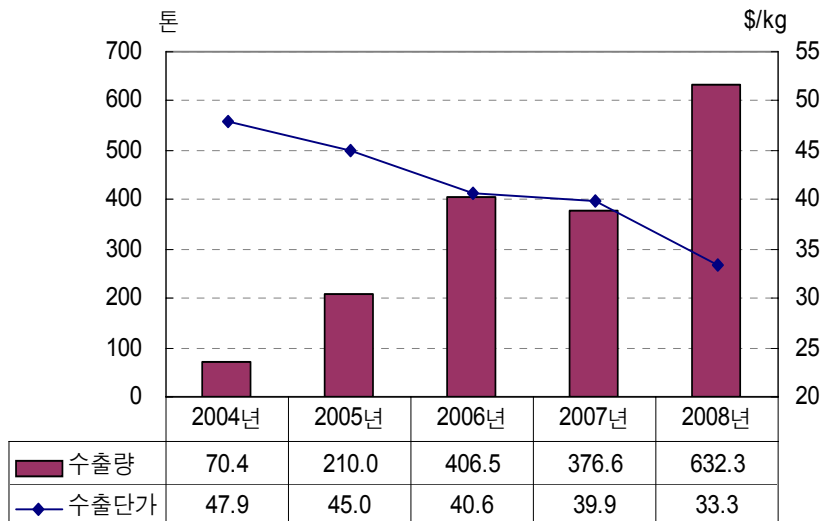
### (3) 수출입동향

#### ① 수출동향

##### ○ 활전복 수출, 2005년 이후 급속히 증가

- 활전복 수출량은 2004년 70톤에서 2008년 632톤으로 약 9배 증가했다. 그에 비해 수출단가는 kg당 47.9달러에서 33.3달러로 30.4% 하락했다.
- 이는 2003년 이후 생산량 급증으로 산지가격이 하락하였고, 그에 따라 주요 수출국인 일본<sup>1)</sup> 내에서의 가격경쟁력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그림 10-7〉 활전복 수출량 및 수출단가



주 : 2008년 12월 수출량은 월별 일일자료의 합계이며, 잠정치임  
자료 : 한국무역협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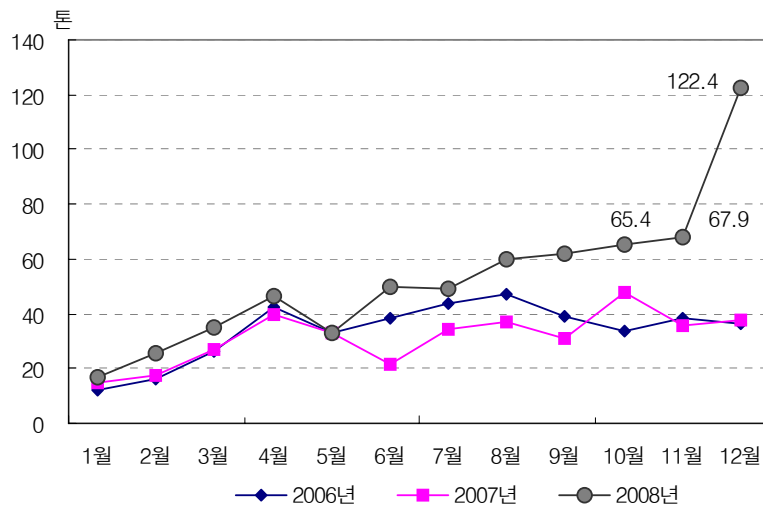
##### ○ 2008년 활전복 수출량, 632톤으로 생산량의 10%

- 2008년 활전복 수출량은 632톤으로 2007년에 비해 65.5% 증가했다. 이러한 증가는 2008년 5월 이후부터 두드러졌다.

1) 활전복 수출량의 99% 이상이 일본으로 수출되고 있다. 2007년엔 전체 수출량 377톤 중 일본으로의 수출량이 376톤(99.7%)이었으며, 2008년 11월까지의 510톤 중 509톤(99.8%)이 일본으로 수출되었다.

- 이는 전복의 산지가격 하락과 함께 고회율로 수출여건이 양호했기 때문이다. 그에 따라 일본 내 한국산 활전복의 시장점유율이 높아지고 있다.
- 한편 2008년 12월에는 무려 122톤의 활전복이 수출되었는데, 이는 환율 등 양호한 수출여건과 함께 일본 내 연말 및 연초 수요가 12월에 집중되었기 때문이다.

〈그림 10-8〉 월별 활전복 수출 추이



주 : 2008년 12월 수출량은 월별 일일자료의 합계이며, 잠정치임  
 자료 : 한국무역협회

- 일본의 활전복 수입 900톤 중 한국산이 가장 많아
  - 일본은 연간 2,000여 톤<sup>2)</sup>의 전복을 생산하고 있으며, 연간 900톤<sup>3)</sup> 이상의 활전복을 수입한다.
  - 일본의 활전복 수입국별 비중을 보면, 지난 2006년 이후 일본에 수입되는 활전복의 최대 수입국이 ‘호주’에서 ‘한국’으로 대체되었음을 알 수 있다.

2) 일본의 최대 전복 산지는 이와테(岩手県)로 일본 내 전복 생산량의 23%를 차지한다. 그 외의 주요 산지로는 미야기(宮城県), 나가사키(長崎県), 시마네(島根県) 등이 있다.

3) 2008년 11월까지 일본의 활전복 수입량은 786톤이었으나, 12월에 한국에서만 122톤의 활전복을 일본으로 수출하였으므로 2008년 연간 일본의 활전복 수입량은 900톤을 초과할 것으로 추정된다.

- 한국산 점유율은 2004년 11.2%에서 2008년 64.6%로 확대되고 있으며, 수입단가도 kg당 3,657엔으로 다른 수입국에 비해 저렴하다.

\* 한국산 점유율(%) : ('04) 11.2 → ('06) 43.3 → ('08) 64.6

- 일본 내 한국산 전복의 수입증가 이유, '가격'과 '맛' 때문
  - 일본에서 한국산 전복의 수입이 증가하는 가장 큰 이유는 호주, 칠레 등 다른 국가에 비해 수입단가가 저렴하다는 것이다.
  - 또한 한국산 전복은 일본의 주요 전복산지인 이와테(岩手県)나 미야기(宮城県) 등에서 생산되는 전복과 맛이 유사하다는 장점이 있다.

〈표 10-6〉 일본의 활전복 수입동향

단위 : 톤, %, 엔/kg

구 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수입단가(엔)
수입량(톤)		624	779	933	784	786*	-
국별 비중 (%)	호 주	39.8	30.2	22.7	23.9	17.0	4,818
	한 국	11.2	27.4	43.3	46.4	64.6	3,657
	남아공	19.6	15.7	11.3	11.5	6.9	4,115
	미 국	24.9	14.6	9.4	10.5	8.2	4,018
	중 국	1.6	9.8	11.6	5.8	1.5	4,777
	칠 레	2.4	1.8	1.5	1.3	1.1	4,026
	기 타	0.5	0.5	0.3	0.7	0.9	-

주: 2008년의 '수입량'은 1~11월까지의 월별 수입량 합계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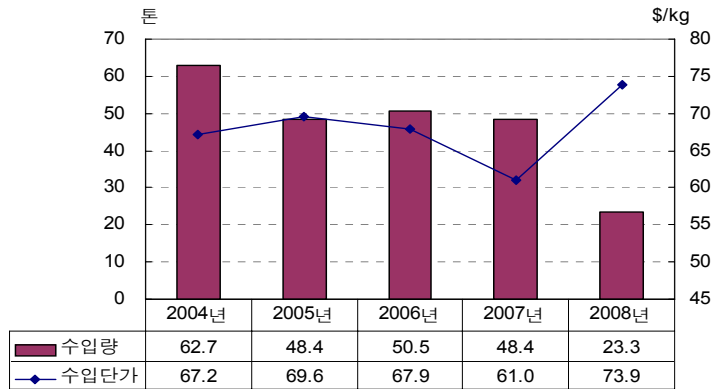
자료: 일본 재무성 무역통계

## ② 수입동향

### ○ 활전복 수입 , 지속적 감소세

- 연도별 활전복 수입량 추이를 보면, 2004년 63톤에서 2008년에는 23톤으로 감소하였다. 그에 비해 수입단가는 2004년 kg당 67.2달러였으나 2008년에는 73.9달러로 상승했다.

〈그림 10-9〉 활전복 수입량 및 수입단가



자료: 한국무역협회

## ○ 활전복 수입, 주로 ‘고급 선물용’으로 사용

- 활전복은 일본, 대만, 필리핀, 미국, 호주 등 5개국에서 주로 수입되지만 대부분 일본에서 수입된다. 2008년 수입량 23톤 중 99%가 일본에서 수입되었으며, 수입 단가는 kg당 74.7달러였다. 그에 비해 대만을 비롯한 다른 국가에서는 연간 100kg 이하가 수입되며 수입단가는 kg당 15달러 전후이다.
- 일본산 활전복은 kg당 2~3마리 크기가 주로 수입되며, 대부분 제주공항을 통해 수도권에서 소비되고 있다. 용도는 고급 선물용으로 주로 활용되며, 일부는 호텔 등 고급음식점에서 소비되기도 한다.

〈표 10-7〉 국별 활전복 수입동향(2008년)

단위 : kg, %, \$/kg

수 입 국	수입 물량		수입금액		횟수	단가
일 본	23,100	(99.0)	1,725,131	(99.8)	85	74.7
대 만	110	(0.5)	1,755	(0.1)	2	16.0
필리핀	77	(0.3)	1,135	(0.1)	4	14.8
미 국	30	(0.1)	405	(0.0)	3	13.5
호 주	10	(0.0)	29	(0.0)	1	2.9
합 계	23,327	(100.0)	1,728,455	(100.0)	95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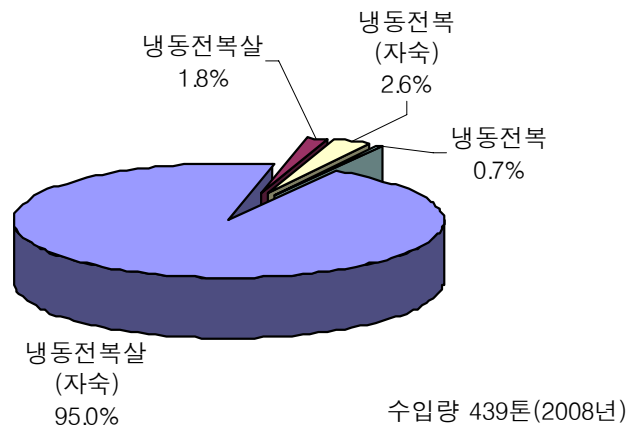
주 : ( )안은 비중을 말함

자료: 한국무역협회

○ 가공용 냉동전복 수입량, 연간 440톤 규모

- 활전복을 제외한 가공용 전복의 수입량은 연간 439톤(2008년) 규모이다. 이는 활전복으로 환산하면 1,000톤 이상이며, 국내 생산량의 1/5수준이다.

〈그림 10-10〉 가공용 냉동전복의 수입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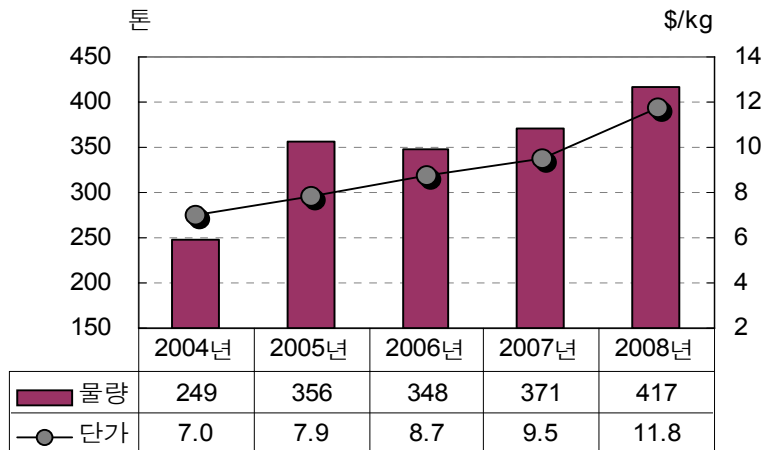
주 : 활전복 및 냉동 오분자기 물량은 제외함

자료: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http://www.nfpqis.go.kr>)

- 수입되는 가공용 전복의 종류로는 자숙한 냉동전복살, 냉동전복 등이 있으며, 그 중에서도 ‘자숙한 냉동전복살’이 전체 수입량의 95.0%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 자숙한 냉동전복살, 대부분 필리핀과 말레이시아에서 수입
  - 자숙한 냉동전복살의 수입량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수입단가는 kg당 7~12 달러로 국내 전복가격에 비해 아주 저렴하다.
  - 냉동전복살(자숙)의 최대 수입대상국은 필리핀으로 수입량의 84%를 점하고 있으며, 다음으로는 말레이시아에서 14%가 수입되고 있다.
  - 이러한 자숙한 냉동전복살은 식품제조업체 및 즉 전문점 등에서 주로 이용되고 있다. 그 이유는 가격이 저렴하다는 점이 있으며, 순살 형태로 수입되므로 가공하기에 용이하다는 장점 때문이다.



〈그림 10-11〉 자숙한 냉동전복살의 수입현황



주: 주요 수입대상국은 필리핀, 말레이시아 등임  
 자료: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http://www.nfpqis.go.kr>)

## 2) 전복 소비행태<sup>4)</sup>

### (1) 전복 선호도 변화

- 2008년 전복 선호도, 전년보다 높아져
  - 2007년에 이어 전복에 대한 소비자 선호도를 조사한 결과, 올해의 소비자 선호도가 3.57점으로 2007년(3.49점)에 비해 높아진 것으로 조사되었다.
  - 또한 전복을 ‘좋아한다’는 응답은 58.2%로 작년에 비해 3.8%포인트 증가한 반면 ‘싫어한다’는 응답은 11.6%로 작년에 비해 0.2%포인트 감소하였다.
- 서울·전남 등 전복 홍보행사 집중지역 선호도 작년보다 높아져
  - 지역별 전복 선호도의 경우 서울, 전남, 충북, 대전 등의 지역은 선호도가 높아진 반면 울산, 광주, 부산, 인천 등의 지역은 선호도가 낮아졌다.
  - 특히 서울과 전남의 선호도가 작년에 비해 월등히 높아졌다. 이는 2008년 7월 전

4) 본 조사는 전국의 만 20세 이상 남녀를 대상으로 2007년 12월(1,200명)과 2008년 12월(800명) 2차례 실시되었으며, 조사내용은 전복의 선호도변화, 소비 횟수 변화 및 향후 소비의향 등으로 구성되었음. 본 조사의 결과 중 전복의 수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들을 중심으로 결과를 제시함

남 목포에서 개최된 ‘전복 먹는 날’선포행사나 서울지역에서의 전복 소비촉진 행사 등의 영향으로 전복 선호도가 높아진 것으로 풀이된다.

〈표 10-8〉 전복에 대한 소비자 선호도 변화

단위: 점, %

구 분		2007년	2008년
전복 선호도(5점 척도)		3.49	3.57
응답률 (%)	싫어함	11.8	11.6
	보 통	31.4	30.1
	좋아함	54.4	58.2

주 1) 선호도는 Likert 5점 척도로 조사되었음

2) 각 연도별 12월에 각각 전국 소비자 1,200명, 8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임

자료 : KMI 수산업관측센터

## (2) 전복 소비행태 변화

### ○ 전복 소비 경험 및 소비 횟수, 작년보다 증가

- 전복을 취식한 경험 유·무를 조사한 결과, ‘전복을 먹어봤다’는 응답자가 2007년의 60.6%에서 2008년에는 71.8%로 11.2%포인트 증가했다.
- 성인 1인당 연간 소비 횟수(비 경험자 포함)도 2007년 2.56회에서 2008년에는 3.76회로 증가하였다.
- 이렇듯 전복 선호도, 소비 경험 및 소비 횟수 등 전반적인 소비성향이 호전된 것은 생산량 증가와 함께 지속적인 전복 소비촉진행사의 결과이다.

〈표 10-9〉 전복의 소비 경험 및 소비 횟수 변화

단위: 회, %

구 분		2007년	2008년
전복 취식 경험(%)		60.6	71.8
연간 소비 횟수	취식 경험자의 경우	4.23	5.24
	비 경험자 포함한 경우	2.56	3.76

자료 : KMI 수산업관측센터

- 전복 취급 업체 증가로 외식에 의한 전복 소비 확대 추세
  - 전복을 먹어본 사람들의 연간 소비 횟수는 2008년 연간 5.24회로 2007년보다 연간 1.01회 더 먹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 또한 2007년에는 외식보다는 집에서 먹는 횟수가 약간 더 많았으나, 올해는 외식으로 먹는 횟수가 2.70회(51.5%)로 내식(2.54회)보다 많았다.
  - 이는 전복 전문점의 증가와 전복탕 등 전복을 취급하는 업체 등의 증가에 따라 내식보다는 외식에 의한 전복 소비가 확대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표 10-10〉 전복의 내식과 외식 소비의 변화

단위 : 회, %

구 분		2007년		2008년	
소비 횟수 (경험자 만)	전체	4.23	100.0	5.24	100.0
	외식	1.98	46.7	2.70	51.5
	내식	2.25	53.3	2.54	48.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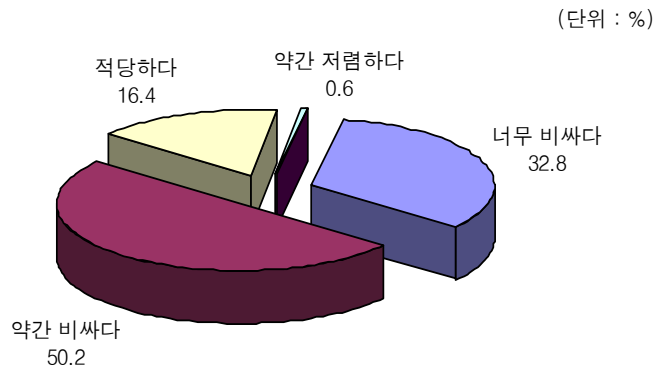
자료 : KMI 수산업관측센터

### (3) 전복 소비의향

- 일반 소비자, 여전히 전복가격이 높은 것으로 인식
  - 전복의 현재 가격수준에 관한 소비자 평가를 조사한 결과, ‘전복 가격이 여전히 비싸다’는 응답이 83.0%로 ‘저렴하다’는 응답(0.6%)에 비해 월등히 많았으며, ‘적당하다’는 응답도 16.4%에 불과했다.
  - 전복의 산지 및 도매가격은 최근 몇 년째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그러나 소비자들은 주로 횡집이나 대형마트 등에서 전복을 먹거나 구입하기 때문에 여전히 전복 가격이 비싸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전복 소비확대를 위해서는 ‘가격 인하’가 가장 우선
  - 전복의 소비확대를 위한 방안에 대해 조사한 결과, ‘가격을 인하해야한다’는 응답이 57.2%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식품안전성 강화(17.7%), 다양한 요리 개발 및 홍보(10.3%), 상품의 다양화(9.6%) 등의 순이었다.

- 한편 “전복 가격이 현재보다 하락한다면 전복을 더 먹겠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더 먹을 의향이 있다’는 응답이 73.4%로 아주 높게 나타났다.
- 또한 “전복 가격이 어느 정도 하락하면 전복을 더 먹겠는가”에 대해서는 ‘현재 가격보다 30% 이상 하락해야 한다’는 응답이 44.9%로 가장 많았으며, ‘21~30%’는 24.3%, ‘11~20%’는 19.3%, ‘10% 이하’는 11.5%였다.

〈그림 10-12〉 전복의 가격수준에 관한 소비자 평가



주 : ‘너무 저렴하다’는 응답은 전혀 없었음  
 자료 : KMI 수산업관측센터

### 3) 2009년 전복 수급전망

#### (1) 생산전망

- 2009년 전복 생산량 8,000여 톤으로 추정
  - 2008년의 전복 생산량은 5,900여 톤으로 추정되며, 출하 가능 물량은 예상 생산량보다 260여 톤이 많은 6,200여 톤이었다.
  - 최근의 전복 양성물량을 바탕으로 추정하면, 2009년에는 연간 출하 가능 물량이 9,700여 톤으로 추정된다. 그 중 82.5%인 8,000여 톤이 2009년에 생산될 것으로 전망되며, 이는 2008년 대비 34.6% 많은 물량이다.

- 따라서 2009년에는 1,700여 톤의 출하대기 물량으로 인해 가격 하락의 압력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표 10-11〉 전복 생산 전망

단위 : 톤, %

구 분	출하 가능 물량(A)	예상 생산량(B)	A-B(톤)	B/A(%)
2008년	6,200	5,943	257	95.9
2009년	9,700	8,000	1,700	82.5

주: 1) ‘출하 가능 물량’은 출하 가능한 크기의 총 물량을 말하며, ‘예상 생산량’은 출하 가능 물량 중 실제 출하될 것으로 예상되는 물량을 말함

2) 2009년 출하 가능 물량은 최근의 전복 시설량 증가를 감안하여 추정하였음

자료: KMI 수산업관측센터

## (2) 수요전망

### ○ 2009년 전복 수출량, 2008년 대비 19% 많은 750톤 예상

- 생산량 증가와 함께 수출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2008년에는 환율 등 수출여건의 호조와 함께 국내가격의 하락으로 증가폭이 더 컸다.
- 특히 일본 내 전복 수입국 중 한국산 전복의 가격경쟁력이 높아 일본의 수입산 활전복 중 한국산의 시장 점유율이 65%에 이르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홍콩, 미국, 대만 등 전복 수출국의 다변화도 시도되고 있다.
- 따라서 2009년 활전복 수출량은 750여 톤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며, 이는 2008년에 비해 19% 많은 물량이다.

### ○ 2009년 국내소비량, 2008년 대비 1.4배 증가 예상

- 전복의 국내 소비량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생산량의 90%정도가 국내에서 소비되고 있다. 2008년에는 수출을 제외한 5,300여 톤이 국내에서 소비된 것으로 추정되며, 이는 2005년에 비해 약 2.8배 많은 수준이다.
- 2009년에는 생산량 8,000톤 중 7,300여 톤(90.9%)이 국내에서 소비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2008년에 비해 약 1.4배 많은 것이다.

〈표 10-12〉 연도별 전복의 국내 소비량 추정

단위 : 톤, %

구분	공급		수요		B/A(%)
	생산량(A)	수입량	수출량	국내소비량(B)	
2005년	2,060	48	210	1,898	92.1
2006년	3,050	51	407	2,694	88.3
2007년	4,349	48	377	4,021	92.5
2008년	5,943	23	632	5,334	89.8
2009년	8,000	20	750	7,270	90.9

주: 1) 2009년의 생산량은 실제 출하될 것으로 예상되는 물량임

2) ‘국내소비량=공급(생산량+수입량)-수출량’으로 계산되었음

자료: KMI 수산업관측센터 추정치

### 3. 굴의 수급동향과 전망

#### 1) 수급동향

##### (1) 생산동향

##### ① 시설현황

○ 2009년산 굴 시설량, 2008년산에 비해 4.3% 감소한 2,054만 연

- 경남의 시설량은 2008년산보다 2.6% 감소한 1,626만 연이었고, 전남은 5.3% 적은 373만 연이었다. 시설 감소는 생산원가 상승, 산지가격 하락, 폐사 증가 등에 따른 경영수지 악화가 주된 원인이었다.
- 기타지역의 경우 충남 태안에서 기름오염피해의 여파로 굴 생산이 불가능해진 곳이 많아 2008년산에 비해 33.8% 감소한 55만 연이었다.
- 한편 2009년산의 지역별 비중은 경남이 전체의 79.2%를 차지하였으며, 이어 전남 18.2%, 기타지역 2.7% 순으로 나타났다.

〈표 10-13〉 굴 시설량(5m 기준 수하연 수) 현황

단위 : 만 원, %

구분	2008년산	2009년산	2008년산 대비		지역별 비중
			증감	증감률	
전국	2,147	2,054	-93	-4.3	100.0
경남	1,670	1,626	-44	-2.6	79.2
전남	393	373	-21	-5.3	18.2
기타	83	55	-28	-33.8	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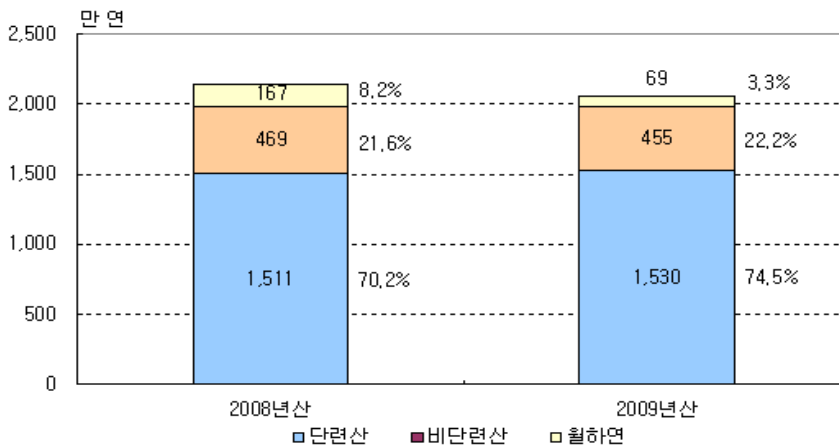
주 : 1)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에 의거하여 수하연의 길이를 5m로 환산하였음

2) 기타지역은 충남, 강원, 경기, 인천임

## ○ 2009년산 굴 시설비중, 월하연 비중 크게 감소

- 2009년산 굴 시설비중은 단련산이 74.5%인 1,530만 원이었으며, 월하연은 3.3%인 69만 원에 불과하였다.
- 특히 월하연의 감소가 전체 시설량 감소로 이어졌으며, 새로 설치한 시설량은 2007년과 거의 비슷하였다.
- 월하연의 감소는 2008년산의 산지가격이 3월부터 2007년산보다 높게 형성되면서 잔여물량이 크게 줄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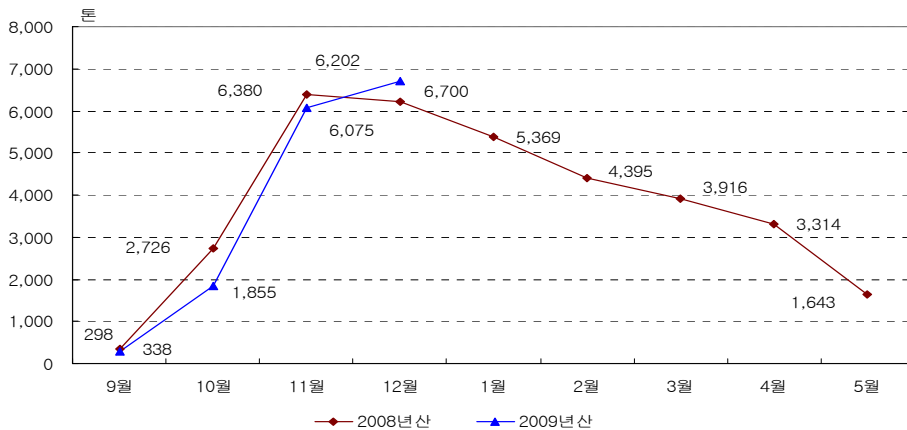
〈그림 10-13〉 굴 시설 비중 현황



## ② 생산현황

- 2009년산 12월까지 굴 생산량, 2008년산보다 4.6% 감소한 15,000여 톤
  - 2009년산('08년 9~12월) 굴 생산량은 2008년산 동기간에 비해 4.6% 감소한 14,928톤으로 추정되었는데, 이는 어기초 생산되는 월하연이 적었고 대부분의 지역에서 양성상태도 예년에 비해 부진하였기 때문이다.
  - 그러나 12월 생산량은 산지가격이 높게 형성되자 양식어가들이 생산을 늘림에 따라 2008년산보다 많은 6,700톤으로 추정되었다.

〈그림 10-14〉 연산별 월별 굴 생산량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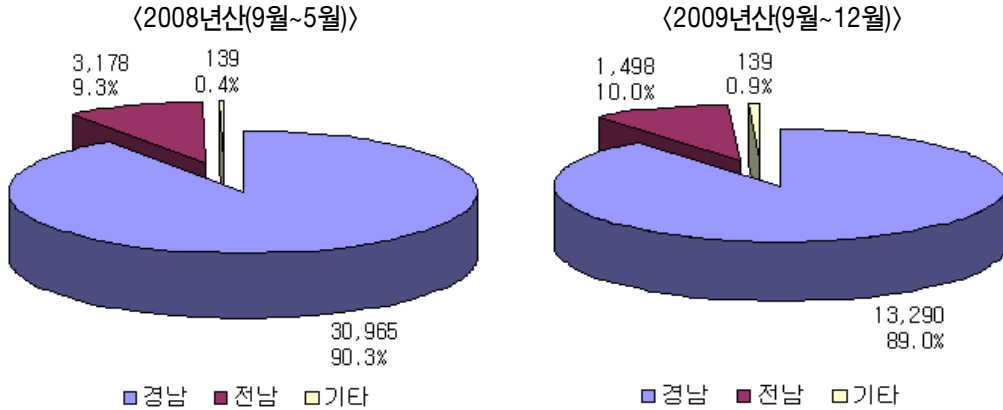


- 지역별로는 경남의 생산량이 90% 차지
  - 지역별 2009년산의 9월부터 12월까지 굴 생산량은 경남이 13,290톤으로 전국의 89.0%를 차지하였으며, 전남이 10.0%인 1,498톤, 기타지역이 1.0%인 139톤을 기록하였다.
  - 2008년산과 마찬가지로 경남의 생산비중이 예년보다 높은 편인데, 이는 다른 지역의 생산량이 감소한데 따른 것이다.



〈그림 10-15〉 연산별 지역별 굴 생산량 현황

(단위 : 톤)



## ③ 잔여시설량 현황

○ 12월 말 잔여시설량, 2008년산보다 다소 많은 1,178만 연

- 2009년산의 12월 말 잔여시설량은 초기시설의 57.3%인 1,178만 연으로 2008년산보다 1.2% 많은 것으로 추정되었다.
- 전남에서는 11월까지 생산이 적게 이루어진데 영향을 받아 2008년산보다 잔여시설량이 많았으며, 기타지역에서도 잔여시설량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그러나 우리나라 최대의 굴 생산지인 경남의 잔여시설량은 2008년산보다 28만 연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10-14〉 12월 말 굴 잔여시설량 현황

단위 : 만 연

구분	초기 시설량	12월 채취량	잔여시설량(만 연)		잔여시설량 비중(%)	
			2008년산	2009년산	2008년산	2009년산
전국	2,054	401	1,164	1,178	54.2	57.3
경남	1,626	303	922	894	55.2	55.0
전남	373	84	235	251	59.6	67.3
기타	55	14	7	32	8.0	58.1

주 : 1) 5m 수하연 기준이며, 기타지역은 충남, 강원, 경기, 인천임  
 2) 기타지역은 생산이 가능한 시설만 포함된 것임

## ④ 양성상태

- 2009년산 굴의 양성상태, 먹이생물 부족으로 예년에 비해 부진
  - 2009년산의 경우 태풍에 의한 시설피해는 없었으나, 강수량 부족으로 육지로부터의 영양염 유입이 적어 양성상태가 좋지 못했다.
  - 대부분의 지역에서 성장과 비만도 부진은 물론 폐사도 많았는데, 특히 육지에서 먼 곳일수록 양성상태가 더 좋지 못했다.
  - 12월 들어서는 폐사가 거의 발생하지 않는 등 양성상태가 호전되고 있으나 경남의 경우에는 여전히 성장과 비만도가 부진한 편이었다.

〈표 10-15〉 2009년산 굴 양성상태(9월~12월)

지 역		성장	비만도	폐사	병해	비 고
통영	한산만	△	△	○	○	성장과 비만도 다소 부진
	인평·도산만	×	×	×	○	성장과 비만도 부진, 소량 폐사
	지도·원문만	△	△	△	○	성장과 비만도 다소 부진, 소량 폐사
고성	고성·자란만	×	×	△	○	성장과 비만도 부진, 소량 폐사
거제	거제만	△	△	○	○	성장과 비만도 다소 부진
	진해만	×	×	△	○	성장과 비만도 부진, 소량 폐사
남해	강진만	△	△	△	○	성장과 비만도 다소 부진, 소량 폐사
여수	가막·여수만	×	×	×	○	성장과 비만도 부진, 다량 폐사
고흥	-	×	×	△	○	성장과 비만도 부진, 소량 폐사
완도	-	×	×	△	○	성장과 비만도 부진, 소량폐사
진도	-	○	○	○	○	해황이 좋아 양성상태 양호
서산·태안	가로림만 등	×	×	△	○	성장과 비만도 부진, 소량 폐사

주 : ○ 는 좋음, △는 보통, ×는 나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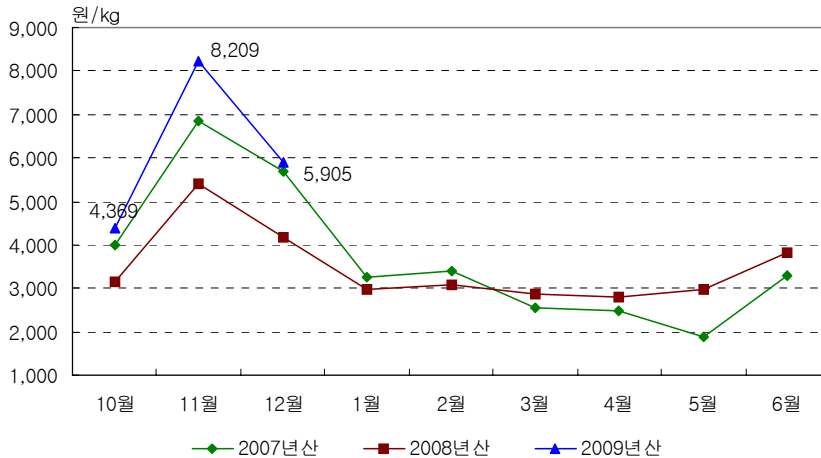
## (2) 가격동향

## ① 산지가격 동향

- 2009년산 산지가격, 2000년대 들어 가장 높은 수준
  - 2009년산 산지가격은 월하연 감소와 양성상태 부진으로 생산량은 감소한 반면에 낮은 채소 가격과 중국산 굴 위생문제에 따른 김장수요 증가에 힘입어 2000년대

들어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다.

〈그림 10-16〉 연산별 월별 산지가격 추이



자료 : 굴수확식수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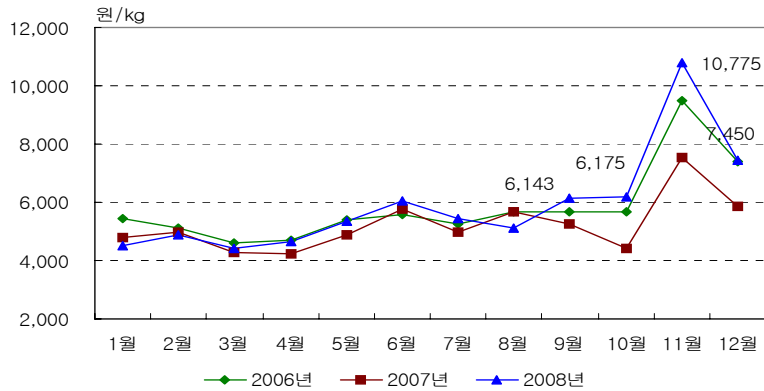
- 특히 11월 산지가격은 최근 10년 내 처음으로 8천 원 이상을 기록했는데, 이는 김장철로 굴 수요는 증가한 반면에 물량확보가 어려웠기 때문이다.
- 아울러 대형마트에서 할인판매를 예년보다 많이 실시하면서 판매물량이 증가한 점도 가격상승에 큰 영향을 미쳤다.

## ② 도매가격 동향

### ○ 2009년산 도매가격, 2008년산보다 높은 수준

- 노랑진수산시장에서 거래된 2009년산 굴의 도매가격은 11월에 10,775원까지 오르는 등 2008년산보다 높은 수준을 보였다. 이는 산지가격이 오른 데다 김장철로 인해 굴 수요는 증가한 반면 시장공급은 줄었기 때문이다.

〈그림 10-17〉 연도별 월별 도매가격 추이



### (3) 수출입동향

#### ① 수출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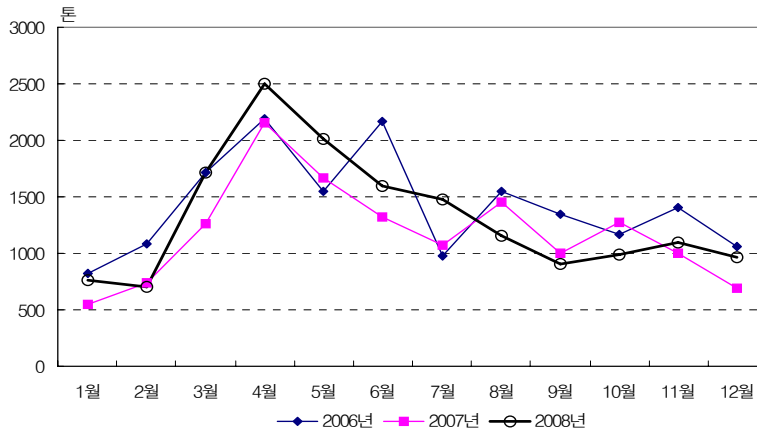
○ 2008년 굴 수출량, 2007년 대비 12% 증가한 15,867톤

- 2008년 굴 수출량은 2007년보다 11.9% 증가한 15,867톤으로 2000년대 들어 지속되던 감소세가 반전되었다.
- 월별로는 7월까지 2007년보다 많은 양이 수출되었는데, 이는 중국산 식품의 위생 문제와 더불어 환율이 상승하면서 수출여건이 개선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8월부터는 가공굴의 재고물량이 부족해지면서 2007년보다 적은 수준을 보였다.

○ 모든 제품의 수출량이 증가하였으나 하반기 들어 알굴 수출 부진

- 제품별 수출량은 통조림이 가장 많은 7,479톤(47.1%)을 기록하였으며, 냉동굴이 4,811톤(30.3%), 건굴 2,910톤(18.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 알굴은 대부분 4월까지 수출되었고, 2009년산 굴이 생산되기 시작한 9월부터는 소량에 불과하였다. 이는 일본에서 2006년 말에 발생한 위생사고의 여파로 굴 소비가 감소하면서 자국산 굴의 가격이 크게 하락했기 때문이다.

〈그림 10-18〉 연도별 월별 수출량 추이



주 : 관세청 및 한국무역정보통신(KTnet)의 『수출입통계』를 바탕으로 알굴로 환산(마른굴은 5배, 통조림은 2.5배 수출 적용)하였고, 치패는 제외하였음.(2008년은 잠정치임)

〈표 10-16〉 연도별 제품별 굴 수출량 동향

단위 : 톤, %

구분	2006년	2007년	2008년	비중(%)	'07년 대비(%)
알굴	1,298	524	667	4.2	27.3
냉동굴	5,914	4,277	4,811	30.3	12.5
건굴	2,786	2,885	2,910	18.3	0.9
통조림	7,031	6,498	7,479	47.1	15.1
합계	17,029	14,184	15,867	100.0	11.9

## ② 수입동향

### ○ 2008년 굴 수입량, 수출량의 1% 미만 수준

- 2008년 굴 수입량은 61톤으로 2007년에 비해 48.8% 감소하였다. 제품별로는 알굴이 43톤으로 가장 많았으며, 냉동굴 13톤, 염(수)장 5톤 순이었다.
- 따라서 국내에 유통되는 굴은 대부분 국내산으로 보아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된다.<sup>5)</sup>

5) 통일부 『남북교류협력동향』각년도 자료에 따르면 북한으로부터 2006년에 603톤, 2007년 71톤, 2008년에 107톤이 반입된 것으로 나타났음

〈표 10-17〉 연도별 제품별 굴 수입량 동향

단위 : 톤

구분	2006년	2007년	2008년	2007년 대비(%)
알굴	65	0	43	-
냉동굴	42	0	13	-
건굴	-	-	-	-
염(수)장	40	119	5	-95.8
통조림	60	-	-	-
합계	207	119	61	-48.8

주 : 관세청 및 한국무역정보통신(KTnet)의 『수출입통계』를 바탕으로 알굴로 환산(마른굴은 5배, 통조림은 2.5배 수율 적용)하였고, 치패는 제외하였음.(2008년은 잠정치임)

## 2) 굴 소비행태<sup>6)</sup>

### (1) 굴 선호도

- 굴에 대한 선호도, 비교적 높게 나타나
  - 굴 선호도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63.2%가 굴을 좋아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17.1%만이 굴을 싫어하는 것으로 조사되어 굴에 대한 선호도가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굴을 좋아하는 이유로는 응답자의 62.5%가 ‘맛이 좋기 때문’이라고 답했으며, 35.2%는 ‘건강에 좋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 (2) 굴 소비행태

- 외식 시 ‘굴회’ 선호도 압도적으로 나타나
  - 외식 시 굴을 먹는 장소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55.0%가 ‘횃집’이라고 답했으며 19.1%는 ‘굴 전문점’, 11.7%는 ‘일반식당’이라고 응답하였다.
  - 또한 외식 시 주로 먹는 굴 요리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70.1%가 ‘굴회’라고 답

6) 본 조사는 2008년 12월 17일부터 19일까지 전국 만 20세 이상 남녀 800명을 대상으로 굴의 선호도 및 소비행태를 조사한 결과임.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46%포인트 임

했으며, 다음으로 ‘굴 국밥’ 7.5%, ‘굴밥’ 7.3% 등의 순으로 나타나 굴회에 대한 선호도가 압도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내식 시에도 주로 횡감용으로 구입

- 내식 시 굴의 용도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54.6%가 ‘횡감용’ 이라고 답했으며, 다음으로 ‘김장용’ 24.8%, ‘부침용/튀김용’ 8.2% 순으로 나타났다.
- 한편 굴 구입형태를 묻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50.3%가 ‘벌크’ 형태로 굴을 구입한다고 답했으며, ‘봉지굴’로 구입한다고 답한 응답자는 34.2%였다.
- 굴 구입 시 고려요인 중에서는 84.6%가 ‘신선도’를 꼽았고, 다음으로 ‘자연산·양식산 여부’(7.2%), ‘원산지’(4.6%) 등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 3) 2009년 굴 수급전망

#### (1) 생산전망

○ 2009년산 굴 생산량, 2008년산 대비 5% 감소한 32,600여 톤 전망

- 현재 잔여시설량과 수하연당 알굴 생산량, 월하비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2008년 9월부터 2009년 5월까지의 2009년산 알굴 생산량은 32,600여 톤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표 10-18〉 2009년산 굴 생산전망

단위 : 톤, %

구분	2008년산	2009년산	전년산 대비(%)
생산량	34,283	32,627	-4.8

주 : 잔여시설량 중 월하 예상량을 제외한 시설에 현재까지의 수하연 당 평균 알굴 생산량을 곱한 결과임

#### (2) 수요전망

○ 2009년 굴 수출량, 2008년 대비 다소 증가할 듯

- 2000년 들어 지속적으로 하락세이던 굴 수출량은 2008년에 15,867톤으로 전년 대비 증가했다. 이는 환율상승 등 수출여건이 호전되었고 중국산 식품의 안전성 문제의 영향 때문이다. 이러한 영향은 2009년에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나, 최근의 세계경기 침체로 증가폭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 2009년산 굴 소비량, 2008년산에 비해 감소할 듯
- 2009년산 굴의 국내 소비량은 2008년산에 비해 약 1,800톤이 적은 16,700여 톤으로 전망된다. 이 물량은 생산량의 51.1%에 해당한다.

〈표 10-19〉 2009년산 굴의 국내 소비량 추정

단위 : 톤

구분	공급		수요		B/A(%)
	생산량(A)	수입량	수출량	국내소비량(B)	
2008년산	34,282	61	15,867	18,476	53.9
2009년산	32,627	60	16,000	16,687	51.1

주 : 1) ‘생산량’은 연산별 수치이며, 수입량과 수출량은 연도별 수치임

2) ‘국내소비량=공급(생산량+수입량)-수출량’으로 계산되었음

자료 : KMI 수산업관측센터 추정치



2009년 수산전망대회  
글로벌 경제위기, 2009 수산부문 전망과 과제

2009년 1월 20일 인쇄

2009년 1월 20일 발행

편집겸  
발행인 강 종 희

발행처 한 국 해 양 수 산 개 발 원  
서울특별시 마포구 상암동 1652

전 화 2105-2700 FAX : 2105-2800

등 록 1984년 8월 6일 제16-80호

비 매 품